
필리핀 PPP 진출 가이드

머 리 말

본 PPP 진출 가이드 시리즈는 2020년 첫 발간 이후 세 번째 제작되는 것으로, 해외건설 시장을 둘러싼 환경변화 가운데 우리 기업들의 해외 진출과 수주 확대를 염원하며 계속해오고 있습니다.

시리즈는 동남·서남아시아 4개국(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방글라데시), 중앙아시아 2개국(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유럽 1개국(튀르키예), 남미 2개국(과라과이, 칠레), 아프리카 1개국(케냐) 등 PPP 진출 유망국 10개국으로 구성하였습니다.

특히, 이번 발간에서는 튀르키예와 칠레를 신규 국가로 선정해 시리즈에 포함하였으며 앞으로도 발간 국가를 확대해 폭넓은 정보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더불어 본 가이드에 담긴 정보는 KIND 해외인프라협력센터와 외부 전문가 등을 통해 업데이트하여 지속적으로 시장상황에 맞는 정보를 제공해 나갈 계획입니다.

본 가이드에서 다루는 국가별 정보 및 최신 동향, 사업 환경과 PPP 주요 제도, 진출 사례 및 인적 정보가 불확실한 대외환경 속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우리 기업들에게 길잡이가 되기를 바랍니다.

가까워진 엔데믹에도 여전히 불안정한 대외여건이지만 본 가이드와 함께 올해에도 의미 있는 성과를 창출하기를 기대합니다.

2023년 2월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사장 이강훈

목 차

Executive Summary	3
I. 국가 개요	4
1. 국가 개황	4
2. 정치, 행정 체계	9
3. 경제 현황	18
4. 주요 사회 개발 지표	26
5. 우리나라와의 관계	32
II. 최신 동향	47
1. 정치 동향	47
2. 경제 동향	53
3. 사회 동향	65
4. 산업 동향	70
III. 사업 여건	79
1. 인프라 여건	79
2. 한국 투자 현황	117
3. 주요 PPP 사업 현황 및 전망	127
4. 발주 예상 PPP 현황	137
IV. PPP 주요 제도	149
1. PPP 제도 및 관련법	149
2. 외국인 투자 환경	171
3. 조세 제도	232
4. 노동 관련법	246
V. 진출 사례	257
1. 프로젝트 현황	257
2. 사업 성공 및 실패 요인	264
VI. 인적 정보	274
1. PPP 관련 발주기관 현황	274
2. 해당 기관별 Key Person	278
3. 현지 Developer 현황	282

Executive Summary(필리핀)

- **[정치·경제·사회 동향]** 2020년 COVID-19의 확산으로 성장하던 경제에 제동이 걸렸으나, 두테르테 정부는 국정연설을 통해 현재 직면하고 있는 경제·사회 등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를 강하게 보여주었음

- **[사업여건]** 현재까지의 인프라 경쟁력은 높지 않았으나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는 추세임
 - 인프라 분야에 대한 정부 예산의 증가가 예상되며(BBB, 대규모 인프라 건설) 특히 수송 인프라에 대한 정부 프로젝트 발주가 다수일 것으로 추정됨
 - 에너지·유틸리티 인프라의 경우 2001년 전력개혁 이후 민영화 추세로 돌아섬에 따라 민간발전사업자들의 참여가 활성화되고 있음
 - 향후 필리핀의 인구 증가, 경제 성장이 예상됨에 따라 인프라 시장의 규모는 크게 확대될 것으로 예상

- **[PPP 제도]** BOT법은 PPP 제도의 기본개념 및 입찰·이행 등 사업 추진과 관련된 전반적인 내용을 담고 있음
 - PPP 사업은 정부고시 사업과 민간제안 사업으로 구분되며, 모든 공공 프로젝트는 민간제안의 경우에도 경쟁입찰이 원칙임
 - PPP Center는 필리핀 PPP를 관리하는 공식 기관으로 현재 준비 또는 진행 중인 PPP 프로젝트를 확인할 수 있으며, 주관 발주처와 PhilGEPS에서 입찰 참여 가능

- **[사업 성공 및 실패 요인]** 외국인 투자한도, 건설면허 취득 등 현지 제도적 제약사항 확인 및 대처가 필요. 또한 인프라 분야에 대한 현지 주요 업체와의 전략적 제휴 등 사업 효율성 제고가 중요

- **[종합]** 현재 필리핀은 정부의 적극적인 인프라 프로젝트 추진 및 전력 인프라 시장의 민영화 추세
 - 도로·철도·전력 등 모든 분야에서 사업 참여기회 확대 중, PPP 관련 대내외적 사업 여건 및 정부 변화 주시를 통해 성공적인 사업 진입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I. 국가 개요

1 국가 개황

가. 일반정보

□ (기본개요) 필리핀공화국은 동남아시아 동부에 있는 섬나라로 한반도 면적의 1.5배 이상·세계 13위의 인구 대국이며, 수도는 루손(Luzon)섬에 위치한 마닐라

국명	필리핀 공화국(Republic of the philippiness)	
면적	342,353km ² (한반도 전체의 약 1.55배)	
수도	마닐라(Manila)	
위치	동남아시아 지역의 말레이 제도에 소재(북위 4~21도, 동경 116~126도)하며 서쪽은 남중국해 동쪽은 필리핀해(태평양)에 접하고, 인근 국가로는 중국, 대만, 베트남,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이 있음	
인구	총 1억 1,100만 명(2021,WB)	

* 출처: 2022.10.13. World Population Review

- 언어 : 타갈로그어(필리핀어), 영어(공용어), 지방토착언어
- 국화 : 삼파귀타(Sampaguita)
- 국가 : Lupang Hinirang
- 섬의 개수 : 7,641개
- 전화 국가번호 : 63
- 날씨 : 고습다습한 아열대성 기후, 건기(11-5월)와 우기(6-10월)로 구분
- 평균기온 : 32℃
- 통화 : 페소(Peso, PHP)
- 환율 : 1페소= 23.17원(2022.12.22.)
- 시차 : 한국보다 1시간 느림

- 필리핀 수도 마닐라 시티(city of manila)
 - 행정구역상 마닐라는 마닐라 시티와 메트로 마닐라로 구분
 - 메트로 마닐라는 16개 시(city)와 1개 구(municipality)로 구성

< 필리핀 행정구역 >

섬 그룹	행정구역	
루손 Luzon	NCR	메트로 마닐라(National Capital Region)
	CAR	코르디예라 행정구 (Cordillera Administrative Region)
	Region I	일로코스 지방(Ilocos Region)
	Region II	카가얀밸리 지방(Cagayan Valley)
	Region III	중앙 루손 지방(Central Luzon)
	Region IV-A	칼라바르손 지방(CALABARZON)
	Region IV-B	미마로파 지방(MIMAROPA)
	Region V	비콜 지방(Bicol Region)
비사야 Visayas	Region VI	서부 비사야 지방(Western Visayas)
	Region VII	중부 비사야 지방(Central Visayas)
	Region VIII	동부 비사야 지방(Eastern Visayas)
민다나오 Mindanao	Region IX	잠보앙가 반도 지방(Zamboanga Peninsula)
	Region X	북민다나오 지방(Northern Mindanao)
	Region XI	다바오 지방(Davao Region)
	Region XII	소크사르젠 지방(SOCCSKSARGEN)
	Region XIII	카라가 지방(Caraga Region)
	BARMM	방사모로 민다나오 이슬람 자치구

(자료: 필리핀 관광부, 2022.01.)

〈메트로 마닐라 행정구역〉

행정구역	인구(명)	비고
퀘존(Quezon City)	2,960,048	
마닐라(Manila City)	1,846,513	필리핀의 수도
칼로오칸(Caloocan City)	1,661,584	
타귀(Taguig City)	886,722	
파식(Pasig City)	803,159	
발렌수엘라(Valenzuela City)	714,978	
파라냐케(Paranaque City)	689,992	
마카티(Makati City)	629,616	
라스피냐스(Las Pinas City)	606,293	
문틴루파(Muntinlupa City)	543,445	
마리키나(Marikina City)	456,059	
파사이(Pasay City)	440,656	
만달루용(Mandaluyong City)	425,758	
말라본(Malabon City)	380,522	
나보타스(Navotas City)	247,543	
산후안(San Juan City)	126,347	
파테로스(Municipality of Pateros)	65,227	
합 계	13,484,462	(2020년 5월 1일 기준)

(자료: 필리핀 관광부, 2022.01.)

〈필리핀 주요 도시별 인구수〉

도시명	인구수(명)	도시명	인구수(명)
Quezon City(케손)	2,761,720	Taguig(타기그)	644,473
Manila(마닐라)	1,600,000	Pasig City(파시그)	617,301
Caloocan City(칼로오칸)	1,500,000	Las Pinas(라스피냐스)	590,000
Budta(벳타)	1,273,715	Antipolo(안티폴로)	549,543
Davao(다바오)	1,212,504	Makati City(마카티)	510,383
Malingao(말린가오)	1,121,974	Zamboanga(잠보앙가)	457,623
Cebu City(세부)	798,634	Bacolod City(바콜로드)	454,898
General Santos(제너럴산토스)	679,588	Mansilingan(맨실링간)	454,150

* 출처: World Population Review, Population of Cities in philippiness 2020

- (기타정보) 미국 식민지배의 영향으로 기독교 신자의 비중이 높고 영어를 국가 공용어로 사용하며, 섬나라 특성상 기후의 영향을 많이 받음

<필리핀 기타 정보>

주제	내용
민족구성	말레이계가 주종(90% 이상)이며 중국·미국·스페인계 혼혈 다수
종교	가톨릭(81%), 개신교(11%), 이슬람교(6%), 불교 및 기타(3%)
언어	영어 및 타갈로그어(필리핀 토착 언어)
시차	서울 -1시간 (GMT 기준 +8시간)
기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반적으로 고온다습한 아열대성 몬순 기후 - 겨울(12-2월), 여름(3-5월), 우기(6-11월)로 구분 - 겨울 평균기온 약 22-28도로 강수량이 적고 맑고 건조한 날씨 - 여름 최고 평균기온 약 40도로 무더운 날씨가 지속 - 우기는 스푼성 소나기가 내리는 날이 많으며 고온 다습한 날씨
강수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평균 강수량 약 2,348mm (965-4,064mm) - 계절적(우기, 태풍 영향), 편중이 있으며 전체 강수량의 80% 이상이 우기에 분포(전체 강수량의 3분의 1 이상이 태풍으로 인해 집중적으로 발생) - 지역마다 강수의 특징이 다르며 수도인 마닐라의 경우 건기와 우기가 뚜렷하게 구분되고 동부지역(예, 수리가오)은 겨울에 강수가 집중되는 양상을 보임
화폐단위	페소(philippines Peso, PHP)
환율	USD 1 = PHP 48.24, 2020년 11월 17일 기준 USD 1 = PHP 55.07, 2022년 12월 21일 기준
건국일 (독립일)	1898년 6월 12일 (가장 최근의 독립은 1946년 7월 4일 미국으로부터 독립이지만, 필리핀 정부는 스페인으로부터 독립한 날을 독립기념일로 지정)
정부형태	대통령제(6년 단임)

* 출처: 외교부 필리핀 개황(22.10.13), Weather Spark 등

〈2023년 필리핀 주요 공휴일〉

날짜	휴일명	내용
1월 1일 일요일	New Year's Day	신년
1월 2일 월요일	Add'l special non-working days	설날 다음날
1월 22일 일요일	Chinese New Year	춘절, 음력 1월 1일
2월 25일 토요일	EDSA People Power Revolution	민주화 혁명의 날
4월 6일 목요일	Maundy Thursday	성스러운 날(최후의 만찬)
4월 7일 금요일	Good Friday	예수 죽음 기념일
4월 8일 토요일	Black Saturday	부활절
4월 10일 월요일	The Day of Valor	용사의 날(희생 군인 추모)
5월 1일 월요일	Labor Day	노동절
6월 12일 월요일	Independence Day	독립기념일
8월 21일 월요일	Ninoy Aquino Day	혁명 기념일
8월 28일 월요일	National Heroes' Day	국가 보훈일
11월 1일 수요일	All Saints' Day	성도들의 날
11월 2일 목요일	All Souls' Day	영혼 안식일
11월 27일 월요일	Bonifacio Day	독립영웅기념일
12월 8일 금요일	Immaculate Conception Day	마리아(예수의 모) 기념일
12월 25일 월요일	Christmas Day	성탄절
12월 30일 토요일	Rizal Day	독립영웅기념일
12월 31일 일요일	New Year's Eve	신년 이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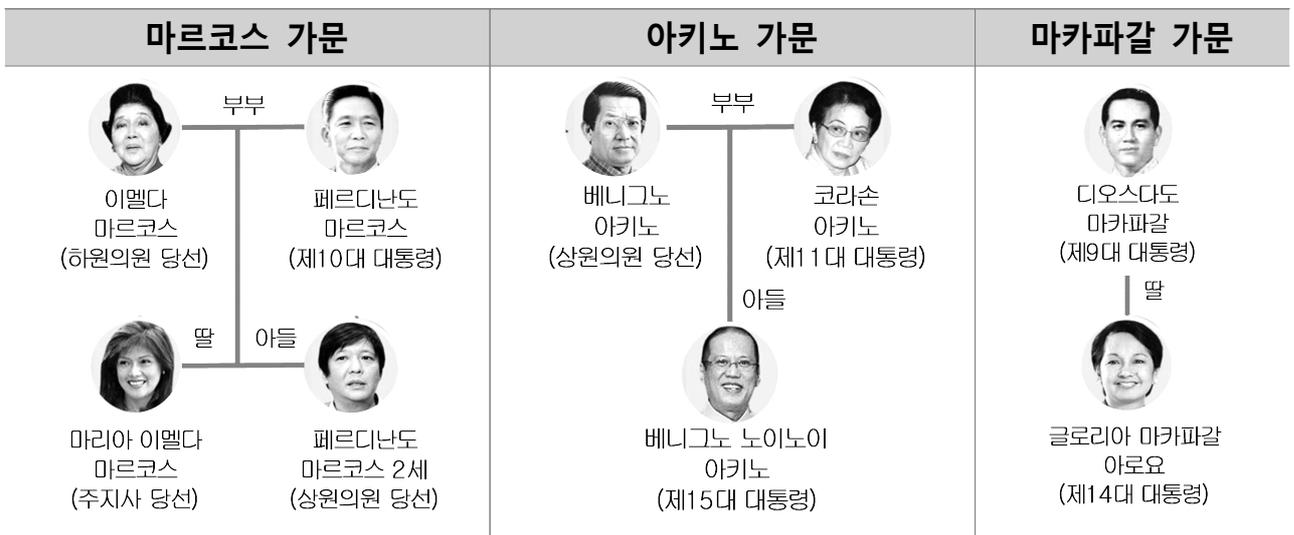
* 출처: Office Holidays('23), National Holidays in philippiness in 2023

2 정치, 행정 체계

가. 정치 체계

- (국가 형태) 필리핀은 미국식 대통령 중심제를 근간으로 하는 민주 공화국
 - 1898년부터 미국 식민지였으며, 1934년 미국이 필리핀 내 자치정부 수립과 10년 후 완전한 독립을 약속함에 따라 1935년 케손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자치정부 수립(최초 헌법 제정)
 - 1946년 7월 4일 미국으로부터 독립하여 필리핀 공화국 설립
 - 마르코스 대통령의 독재정권(1965년 11월 ~ 1986년 2월) 종료 후 아키노 대통령에 의한 국민 중심의 신규 헌법을 제정하고 1987년 2월 11일 시행
 - 신규 헌법은 민주 공화국으로서 국민 중심의 정치 체계를 원칙으로 함
 - 적절한 사회 서비스 제공 및 모든 국민의 삶의 질 향상 등을 기본 국가정책으로 채택하였음
 - 보편적으로 수용되는 국제법의 원칙을 준용하여 언론, 종교, 집회의 자유 등 기본 인권과 함께 교육, 의료 혜택을 받을 권리 등을 보장
- (정치 가문) 주요 가문 중심에 의한 정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신규 정치 세력의 진입이 어렵다는 것이 필리핀 정치의 특징

<필리핀 주요 정치 가문>



* 출처 :AP통신

나. 정부

- (정부 형태) 필리핀은 6년 단임 대통령제로 2022년 6월 30일 취임한 페르디난도 마르코스 주니어 대통령(제17대)이 집권하고 있으며, 부통령제 및 내각 정치 체도로 구성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주니어 대통령	사라 두테르테 부통령
필리핀 연방당(PFP) 소속	라카스기독교무슬림민주당 (Lakas-CMD)소속
전 상하원의원	전 다바오 시장

〈필리핀 정부 구성〉

직책	인원	임명 방식	주요인물
대통령	1명	선출(6년 단임)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주니어
부통령	1명	선출(6년, 중임 1회)	사라 두테르테
외교부장관	1명	대통령 임명	엔리케 마날로
재무부장관	1명	대통령 임명	벤자민 디오크노
농업부장관	1명	대통령 임명	페르디난도 마르코스 주니어(겸직)
공공공사고속도로부장관	1명	대통령 임명	마누엘 보노안
교육부 장관	1명	대통령 임명	사라 두테르테(겸직)
노동고용부장관	1명	대통령 임명	비엔베니도 라구에스마
국방부 장관	1명	대통령 임명	호세 파우스티노 주니어
사회복지개발부장관	1명	대통령 임명	어윈 툴포
농업개혁부장관	1명	대통령 임명	콘라도 에스텔라 3세
내무지방정부부장관	1명	대통령 임명	벤자민 아발로스 주니어
예산관리부장관	1명	대통령 임명	아메나 팡간다만
무역산업부장관	1명	대통령 임명	알프레도 파스쿠알
보건부장관	1명	대통령 임명	마리아 로사리오 베르게이레
법무부장관	1명	대통령 임명	지저스 크리스핀 레몰라
관광부장관	1명	대통령 임명	마리아 에스페란자 크리스티나 프라스코
환경천연자원부	1명	대통령 임명	마리아 안토니아 율로-로이자가
정보통신기술부장관	1명	대통령 임명	이반 존 우이
에너지부장관	1명	대통령 임명	라파엘 페르페투오 로틸라
과학기술부 장관	1명	대통령 임명	레나토 솔리둠 주니어
교통부장관	1명	대통령 임명	자이메 바우티스타
이주노동자부장관	1명	대통령 임명	마리아 수산나 오픈레
인간이주도시개발부장관	1명	대통령 임명	호세 리잘리노 아쿠자르
필리핀 중앙은행장	1명	대통령 임명	펠리페 메달라
국가경제개발청	1명	대통령 임명	아르세니오 발리사칸
국세청장	1명	대통령 임명	릴리아 길레르모
관세청장	1명	대통령 임명	요기 필레몬 루이즈

* 출처 :외교부 필리핀 개황(22.10)

다. 의회

- (의회 구성) 필리핀 입법부인 의회는 상원과 하원으로 구성된 미국식 양원제를 채택하고 있음
 - 의원의 경우 헌법상에서는 최대 250명까지 선출하게 되어 있지만, 지역 선거구인 바랑가이 행정구역의 증가로 현재는 관행적으로 300명 이상의 하원의원이 선출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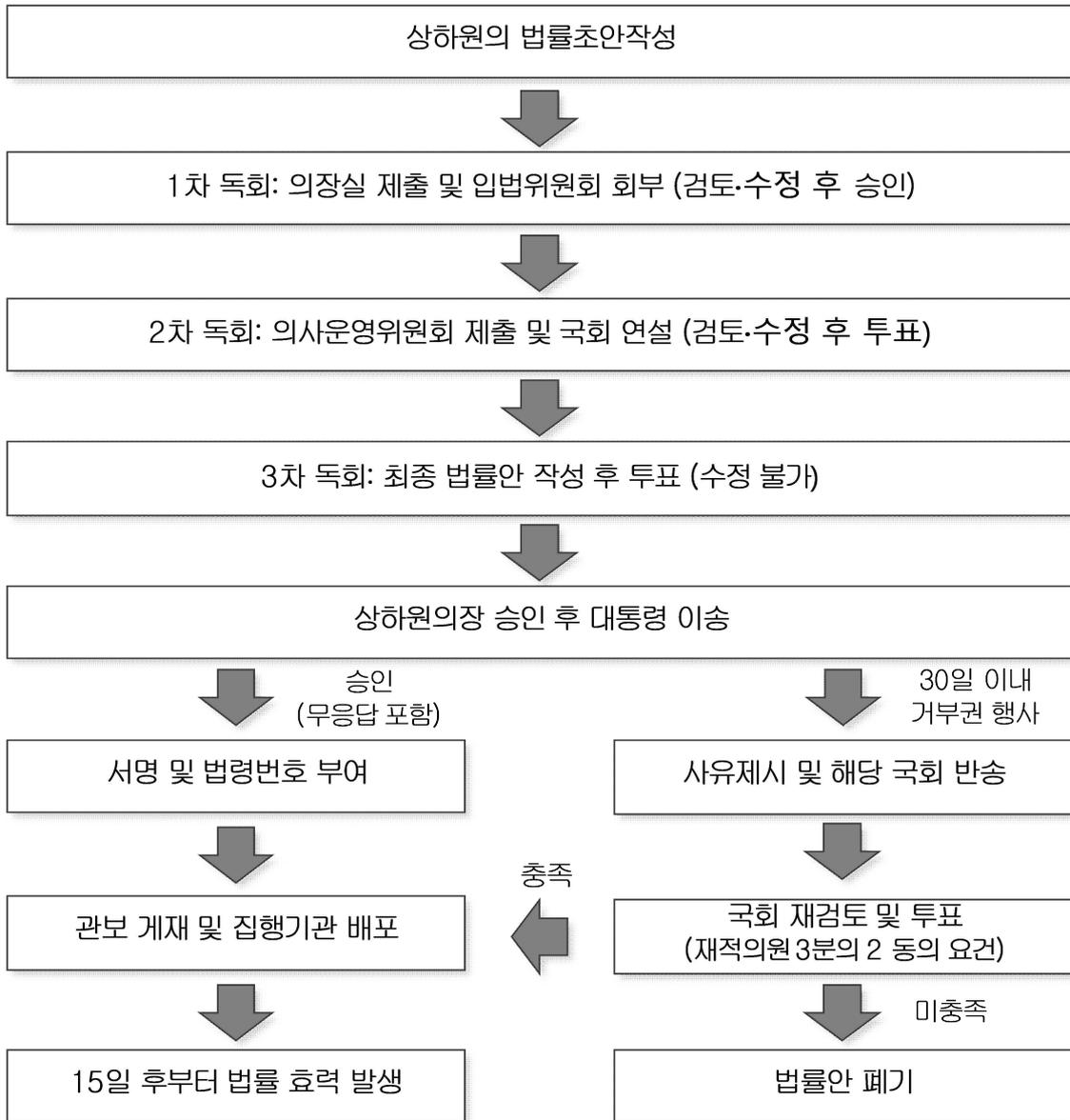
〈필리핀 의회 구성〉

구분	상원	하원
인원	24명	316명
선거구	전국	지역 1선거구당 1인 및 정당 비례대표 선출
선출자격	35세 이상이며 선거일 이전 2년 이상 필리핀 거주	25세 이상이며 선거일 이전 1년 이상 해당 선거구에 거주
임기	6년(2연임 가능, 12년까지 가능)	3년(3연임 가능, 총9년까지 가능)
의장	후안 미겔 주비리	로드 알란 벨라스코

* 출처: 필리핀 헌법, 상원 및 하원 공식 홈페이지(22.10.13)

- (입법 절차) 필리핀의 입법권은 원칙적으로 상원과 하원으로 구성된 필리핀 국회에 있으며, 일반적으로 법률안 통과를 위해서는 상하원 각각 재적의원의 과반수가 찬성하여야 함
 - 헌법 개정 또는 수정을 위해서는 재적의원의 4분의 3 이상이 찬성하거나 헌법 제정회를 통해 국민에게 제안하여야 하며 국민투표에서 투표자의 과반수의 찬성 요건이 필요

〈필리핀 입법절차 개요〉



* 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필리핀 입법절차 개관

라. 정당

- (정당 개요) 자유·복수정당제로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정당만 100개 이상이 존재하며, 현재 여당인 민주필리핀당 중심으로 정치 구도 형성

<필리핀 주요 정당의 의회 구성>

정당	상원	하원
Lakas-CMD	1	67
민주당	4	41
국민당	3	37
국민통합당	0	36
민족주의 인민연합	5	34
연합정당명부	0	28
자유당	0	7
필리핀 연방당	0	2
기타 정당 및 무소속	11	64
합계	24	316

* 출처:외교부 필리핀 개황(2022.12.15.), KOTRA 마닐라 무역관

마. 지방 행정

- (기본 행정 단위) 필리핀의 지방 행정 구역은 우리의 도(道)에 해당하는 17개 Regions, 특별시 및 광역시에 해당하는 Independent City, 81개 주 (Province), 146개 시(City), 1,488개 구(Municipality), 가장 하위 자치단위이며 한국의 동(洞)에 해당하는 42,046개 바랑가이(Barangay)로 분류

<필리핀 지방자치 체계>

구성		비고
중앙정부		-
↓		
지방구역(Regions) ※ 지방구역(Regions)은 중앙정부가 행정 편의상 분류한 것으로, 정식 행정 단위는 아님		17개 (3개의 특별지역 포함 - 수도권 코르디예라 지역, 민다나오 이슬람 자치구)
↓		
주(Province)	시 (Independent City)	주 : 81개 시 : 146개 지방자치단체 : 1,488개
↓	↓	
지방자치단체 (Municipality)	시 (Component City)	
↓		
바랑가이(Barangay)		42,046개

* 출처: 필리핀 통계청(22.12)

- (지방의회) 3년마다 선거로 선출하며, 3회 이상 연임 불가능

<지방의회 구성>

구분	내용
주 의회	10명 내외의 의원으로 구성
시.지방자치단체 의회	10명 내외의 의원으로 구성
바랑가이 운영위원회	6명의 의원으로 구성

* 출처: 외교부 필리핀 개황(19.11)

바. 사법 체계

□ (법령 체계) 헌법을 기본으로 법률 및 시행규칙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필리핀 법률 체계>

헌법		모든 법률의 근간
법률	공화국법	의회를 통과하고 대통령이 서명하는 절차를 거친 법률
	행정명령	헌법이나 법률에서 부여하는 권한에 따라 대통령이 제정하는 일반적, 영구적 규칙
	대통령령	마르코스 대통령이 선포한 계엄령 시기에 제정되었으며, 법률의 효력을 가짐
시행규칙		보통 개별 법률에서 규칙 제정 권한과 의무를 부여한 소관 부처에서 제정하여 공표
기타 하위 법률 체계		포고령, 집행명령, 메모명령 등

* 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 (사법부 체계) 필리핀 사법부는 대법원, 고등법원, 지역법원, 특별법원으로 구성됨

<필리핀 사법부 체계>



* 출처: Official Gazette of the Republic of the Philippines

〈필리핀 사법부 개요〉

사법체계	개수	비고
대법원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법원장 및 14명의 대법원 판사로 구성 - 대법원 판사는 필리핀 태생의 40세 이상이며 10년 이상 법조 경력이 있는 자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대법원 판사는 70세까지 임기 보장) - 조약, 법률, 행정명령 및 사형선고에 대한 위헌 여부 심사 - 모든 결정은 10명 이상의 대법관의 동의 필요
고등법원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등법원장과 대통령이 임명하는 50명의 판사로 구성되는 1개의 고등법원이 수도에 소재 - 구속적부심, 영장 발급, 지방법원의 판결 심사
지역법원	92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Regions) 단위마다 배치되는 법원으로 세부 기관으로 수도법원, 시법원 읍법원, 시순회법원이 존재
공무원범죄재판소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별법원
국세심판소	1	
회교재판소	5	
회교순회재판소	37	

* 출처 :Official Gazette of the Republic of the philippiness, 외교부 필리핀 개황(19.11)

3 경제 현황

가. 일반 현황

□ 일반현황(2021,IMF)

- GDP : 3,941억불
- 1인당 GDP : 3,576불
- GDP 성장률 : 5.7%
- 물가상승률 : 3.9%
- 실업률 : 7.8%
- 교역액 : 1,991억불
 - 수출 : 745억불
 - 수입 : 1,246억불

- (기본 추진 방향) 두테르테 정부의 경제정책(Duterenomics)은 2016년 대선 직후 발표된 10개 항의 사회경제발전 전략에 기초하고 있으며, 평화와 치안 안정에 기반한 경제 성장, 인프라 투자 확대, 조세 등 제도개혁을 추진

〈두테르테 10대 사회경제발전 전략〉

10개 항
① 거시경제·무역정책 기조 지속
② 조세 개혁
③ 기업 환경 개선 (외국인 투자지분 제한 완화 등)
④ 인프라 투자 확대 'Build, Build, Build Program' (BBB 정책)
⑤ 농업개발
⑥ 토지개혁
⑦ 인적개발 투자(보건·교육 개선 등)
⑧ 과학·기술·예술 증진
⑨ 저소득층 보호 프로그램 개선(조건부 현금 지급 프로그램(CCT) 제도 등)
⑩ 가족계획 지원 등

주) CCT : Conditional Cash Transfer

* 출처: 외교부

□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주니어 정부의 경제정책

-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주니어 대통령은 마약과의 전쟁, 민다나오 반군 진압, 인프라 프로젝트 지속 추진 등 현 두테르테 대통령 정부 정책을 대부분 계승해 나갈 것으로 전망
- 또한, 코로나19로 붕괴됐던 의료 시스템을 회복하고 교육 시스템 재정비, 대중교통 시스템 현대화 및 기후변화 대응 등 현안 이슈에 집중할 것으로 보임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주니어 당선인의 주요 대선 공약>

대선 공약	주요 내용
의료 및 코로나19 대응체계 회복	코로나19로 마비된 의료 시스템 회복을 위해 코로나19 경증환자의 자가 치료 추진과 의료계 종사자 및 가족 대상 무료약 처방 추진
민다나오 지역 반군 진압 강화	민다나오 지역 반군 진압 자금 확대 및 반군 진압 강화
법질서 정립을 통한 마약 철폐	현 두테르테 대통령이 강조했던 '마약과의 전쟁' 정책 유지, 특히 청소년 대상 마약 부작용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재활 센터 운영 확대
정부 교육 시스템 재정비	근로자 능력 향상을 위해 IT 기업과 협력해 온라인 교육 플랫폼 개발하고 이를 통해 보안 문제없는 이러닝(e-learning) 시스템 제공
다양한 일자리 창출	기업, 농업, 관광업, 건설업 내 일자리 확대와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대상 세금 축소 및 감면 혜택 제공, 장애인 일자리 확대
필리핀 대중교통 시스템 현대화	재해로부터 복구 가능한 페리(Ferry) 스테이션 건설과 기존 페리(Ferry) 스테이션 복구 통한 안정적인 대중교통 시스템 확충, 필리핀 고질적인 교통난 해소
기후변화 대응 및 환경보호 강화	강력한 환경보호 기준 정립을 통해 대규모 조림 및 잔여 산림 관리 등 지속적인 산림 보호 정책 시행
재난-재해 위험 감소 위한 관리 강화	태풍 등 자연재해에 대비해 전국에 대피소 설립 확대, 즉각적인 대처 가능한 관리 시설 강화

□ 산업별 정책 전망

○ 제조업

- 선친인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전 대통령(70년대)과 유사한 방향으로 정부 주도 제조업 육성 등 필리핀 산업화 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전망

○ 에너지

- 고질적인 정전과 높은 전력비용 문제 해결을 위해 원자력 발전을 포함한 수력, 태양열 등 다양한 재생 에너지원 개발을 추진할 것으로 전망됨
- 또한, 두테르테 정부의 바탄 원자력 발전소(BNPP) 재가동에도 동의하며 원자력 발전소 재가동 검토도 지속 추진해나갈 것으로 보임

○ 인프라

- 현 두테르테 정부의 BBB(Build, Build, Build) 프로젝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
- 항구, 공항 및 철도 개발을 통해 필리핀을 아시아의 물류 허브로 만들겠다는 대선 공약을 추진할 것으로 전망됨
- 메트로 마닐라 지역의 고질적인 교통 혼잡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페리(Ferry) 정류장 확충, 재난대피소 확대 등 인프라 프로젝트를 확대해 나갈 것으로 예상
- * 현 두테르테 정부에서 추진하는 900억 달러 규모의 인프라 구축 및 건설 프로젝트로 아직 94개 프로젝트가 아직 남아있으며, 이를 차기 정부에서 지속 추진할 것을 요청

○ 농업

- 농업 증진을 위한 연구 개발비, 기술 지원, 농촌 대출 등 농민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할 것으로 전망됨
-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주니어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쌀 수입자유화(RTA)*를 중단하겠다고 밝힌 바 있음
- * 2019년 기존 수입쿼터제를 철회하고 쌀 수입자유화(RTA)를 시행, 쌀 수입 자유화로 인해 쌀 가격 하락 및 세수 확보 등의 이익이 크다는 의견과 농민 피해가 크다는 의견 대립 중임

○ 자원 개발

- 니켈 등 자원을 적극 활용 및 지속 가능한 형태의 광산 개발을 허용하고 2021년 4월 현 두테르테 정부의 신규 광산 개발 허용 대통령명을 철회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
- 다만, 노천 광산 개발 등 환경보호를 위해 광산 개발 및 산림 관리 등에 엄격한 기준을 정립하고 시행할 것으로 보임

- 종합전망
 -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주니어 대통령은 현 두테르테 정부의 주요 정책들을 계승하는 대선 공약을 발표했다
 - 로드리고 두테르테 현 대통령의 장녀 사라 두테르테가 부통령에 당선됨에 따라 취임 이후 이를 확대하는 정책들을 추가 발표하며 현 정권을 계승해 나갈 것으로 보임
 - 현지 언론 및 주요 외신들은 마르코스 전 대통령이 대통령직에서 물러난 지 36년 만에 그의 외아들인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주니어가 필리핀 대통령 자리를 되찾은 결과를 연신 보도하고 있음
 - 코로나19 이후 침체된 필리핀 경제를 회복시키고 새로운 성장 국면으로 이끌어 갈 수 있을지 추후 행보가 주목되고 있음
- 두테르테 전 대통령이 추진한 기반 시설 사업 대다수는 현재 공사가 진행중
 - 필리핀 상원 경제기획실에 따르면, 2022년 1월 기준 112개 건설 사업 중 15개만 완료된 상황임
 - 또한 필리핀 최초 메트로 마닐라 지역의 지하철 노선 건설 사업을 비롯한 대부분의 프로젝트가 현재 진행중
- 마르코스 주니어 정부는 이전 정부 사업을 이어나가며 보다 포괄적이고 포용적인 방향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힘
 - 국제 신용평가회사 피치 레이팅스는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주니어 대통령이 두테르테 전 대통령의 정책을 계승하기에 적합하다고 밝힘
 - 아르세니오 발리사칸 신임 국가경제개발청청장은 마르코스 주니어 정부가 이전 정부의 기반 시설 사업들을 이어 나갈 뿐 아니라 포용적 성장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 밝힘
- (기본 경제 환경) 현재 BPO 중심의 서비스 산업이 필리핀 산업의 중심
 - 1990년대 이후 필리핀 경제성장의 주요 성장 동인은 서비스 부문으로 금융, 도소매, 유통, 부동산 등 외국인 투자에 기반한 서비스 수출 중심의 BPO 산업의 성장이 필리핀 경제의 중심
 - 필리핀은 소위 '콜센터'라고 불리는 BPO 산업에서 세계 1위 국가
 - 풍부한 영어 구사 가능 노동력, 저렴한 인건비,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성장의 원동력(기업 수는 1,500여 개 이상, 관련 종사자는 120만 명 이상으로 추정)

나. 경제 지표

- (주요 경제 지표 요약) 주요 경제 지표로 국내총생산(GDP), 소비자물가상승률(CIR) 등이 있으며, 2015년부터 2019년까지 GDP, 수출·수입액 등 필리핀의 경제 규모는 증가하는 추세
 - 필리핀의 국내총생산(GDP)은 2015년 이후 연간 6% 내외의 성장세를 보이며, 1인당 GDP도 2015년 2,883달러에서 2019년 3,294달러로 약 14% 증가
 - 소비자물가상승률(CIR)은 2015년부터 2019년까지 평균 2.5% 수준으로 안정세
 - 실업률은 2015년 6.28%에서 2019년 5.08%로 지속하여 감소
 - 수출액은 증가하는 추세이나 수입액의 큰 증가로 인해 무역수지의 적자 심화
 - 두테르테 정부의 정치적 불안정성으로 인해 외국투자자본 이탈이 가속화되면서 화폐가치는 하락하고 환율은 상승

□ 2016-2020 필리핀의 주요 경제지표

경제지표	2016	2017	2018	2019	2020
경제성장률 (%)	6.88	6.68	6.24	5.9	-9.6
명목GDP (십억\$)	318.63	328.48	346.84	376.8	362.24
1인당 GDP (PPP, \$)	7,790	8,200	8,790	9,360	8,450
1인당 명목 GDP (\$)	3,110	3,150	3,280	3,510	3,330
정부부채 (% of GDP)	37.3	38.1	37.1	37	47.1
물가상승률 (%)	1.3	2.9	5.2	2.5	2.6
실업률 (%)	5.5	5.7	5.3	5.1	10.4
수출액 (백만\$)	57,406.07	68,712.71	69,307.44	70,334.01	63,766.79
수입액 (백만\$)	89,435.04	101,900.58	119,329.67	112,908.64	85,606.73
무역수지 (백만\$)	-32,028.97	-33,187.87	-50,022.23	-42,574.63	-21,839.94
외환 보유고 (백만\$)	73,729.71	73,543.15	71,349.63	80,131.64	80,476.96
이자율 (%)	3	3	4.75	4	2
환율(페소/달러)	47.49	50.4	52.66	51.8	50.56

(자료 출처 : 필리핀 PSA, IMF)

- (기타 참고 지표) 필리핀의 무역 규모의 경우 상위 10개 국가에 대한 비중이 큰 상황으로, 대외원조 수취 등 선진국(일본 등)에 대한 경제적 의존도 편중
 - 필리핀에 실제 지급된 원조금액은 2015년부터 5년간 총 180억 달러이며, 2019년 말 기준 약 216억 달러의 대외원조 약정이 존재

〈필리핀 대외원조 추이〉

(단위: 십억 달러)

년도	연말 기준 약정액(Commitment)			연중 지출액(Disbursement)		
	Grant	Loan	합계	Grant	Loan	합계
2015	3.05	12.66	15.71	1.88	2.31	4.19
2016	3.39	12.21	15.60	2.13	1.18	3.31
2017	2.47	12.30	14.77	1.67	1.40	3.07
2018	2.40	14.46	16.86	1.67	2.23	3.90
2019	1.64	19.98	21.62	0.83	2.71	3.54

* 출처: NEDA('20.10)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Portfolio Review Report (2015~2019)

〈필리핀 2019년 수출·수입 상위 10개국〉

(단위: 백만 달러)

수출순위	국가	수출액	수입순위	국가	수입액
1	미국	11,574	1	중국	26,756
2	일본	10,675	2	일본	11,218
3	중국	9,814	3	한국	8,760
4	홍콩	9,625	4	미국	8,556
5	싱가포르	3,832	5	인도네시아	7,299
6	한국	3,241	6	태국	7,249
7	태국	2,972	7	싱가포르	6,935
8	독일	2,723	8	기타 아시아	4,968
9	네덜란드	2,266	9	말레이시아	4,913
10	기타 아시아	2,253	10	홍콩	3,771
전체		70,334	전체		112,909
상위 10개 국가 비중		83.8%	상위 10개 국가 비중		80.1%

* 출처: UN Comtrade

□ 필리핀의 주요 교역국(2020년)

○ 주요 교역국

- ① 중국(294억불), ② 일본(181억불), ③ 미국(163억불), ④ 홍콩 (117억불),
⑤ 한국(92억불)

○ 대한민국과의 무역 관계 : 수출 67억 달러 / 수입 25억 달러

○ 필리핀 수출 동향

자료 출처 : 필리핀 통계청(PSA), 2022년 1월

국가	2020년				2019년			
	11월	비중 (%)	1월~11월	비중 (%)	11월	비중 (%)	1월~11월	비중 (%)
총 수출	5,791.40	100	57,970.42	100	5,622.87	100	65,176.36	100
상위 10개국 합계	4,866.63	84	48,789.62	84.2	4,698.76	83.6	53,724.34	82.4
1 미국	956.8	16.5	8,790.56	15.2	900.94	16	10,661.74	16.4
2 중국	923.65	15.9	8,772.70	15.1	696.9	12.4	8,978.91	13.8
3 일본	872.95	15.1	9,119.7	15.7	938.32	16.7	9,868.48	15.1
4 홍콩	736.13	12.7	8,147.26	14.1	777.8	13.8	8,739.69	13.4
5 싱가포르	313.89	5.4	3,479.08	6	322.27	5.7	3,494.84	5.4
6 태국	289.1	5	2,606.47	4.5	266.31	4.7	2,738.48	4.2
7 독일	220.66	3.8	2,146.31	3.7	219.67	3.9	2,526.60	3.9
8 대한민국	209.51	3.6	2,293.90	4	267.98	4.8	3,000.94	4.6
9 대만	189.02	3.3	1,845.00	3.2	159.67	2.8	2,062.21	3.2
10 말레이시아	154.91	2.7	1,588.65	2.7	148.9	2.6	1,652.46	2.5
10개국 외의 국가	924.77	16	9,180.79	15.8	924.11	16.4	11,452.02	17.6
11 네덜란드	147.3	2.5	1,745.59	3	158.41	2.8	2,102.44	3.2
12 베트남	118.15	2	1,117.11	1.9	93.01	1.7	1,159.06	1.8
13 스위스	66.21	1.1	397.11	0.7	43.09	0.8	392.51	0.6
14 인도네시아	48.59	0.8	370.78	0.6	61.57	1.1	779.38	1.2
15 인도	47.04	0.8	499.04	0.9	37.79	0.7	506.73	0.8
16 멕시코	43.73	0.8	494.91	0.9	57.73	1	607.26	0.9
17 영국 아일랜드	41.24	0.7	375.8	0.6	41.95	0.7	472.71	0.7
18 캐나다	38.58	0.7	350.51	0.6	38.65	0.7	583.43	0.9
19 호주	36.74	0.6	319.56	0.6	28.37	0.5	372.58	0.6
20 프랑스	34.13	0.6	438.44	0.8	56.51	1	748.03	1.1
21 기타	303.06	5.2	3,071.95	5.3	307.03	5.5	3,727.89	5.7

다. 국가신용도

- (신용등급) 필리핀은 2013년 이후 세계 3대 신용평가사*로부터 투자적격등급을 받아왔으며, 안정적인(Stable) 투자국가로 분류되고 있음

* 세계 3대 신용평가사 : S&P, Moody's, Fitch가 세계 3개 신용평가사로 분류되며, BBB- 이상일 경우 투자적격등급으로 분류(Moody's 기준 Baa3 이상)

〈필리핀 신용도 변화〉

Agency	Date	Rating	Outlook	투자판단
S&P	2019-04-30	BBB+	stable	투자적격
	2018-04-26	BBB	positive	
	2014-05-08	BBB	stable	
	2013-05-02	BBB-	stable	
	2012-12-20	BB+	positive	주의(투기등급)
	2012-07-04	BB+	stable	
	2011-12-16	BB	positive	
	2010-11-12	BB	stable	
Moody's	2014-12-11	Baa2	stable	투자적격
	2013-10-03	Baa3	positive	주의(투기등급)
	2013-07-25	Ba1	positive watch	
	2012-10-29	Ba1	stable	
	2012-05-29	Ba2	positive	
	2011-06-15	Ba2	stable	
	2011-01-06	Ba3	positive	
Fitch	2021-07-12	BBB	negative	투자적격
	2020-05-07	BBB	stable	
	2020-02-11	BBB	positive	
	2017-12-10	BBB	stable	
	2015-09-24	BBB-	positive	
	2013-03-27	BBB-	stable	
	2011-06-23	BB+	stable	주의(투기등급)

* 출처: Trading Economics('20,11)

4 주요 사회 개발 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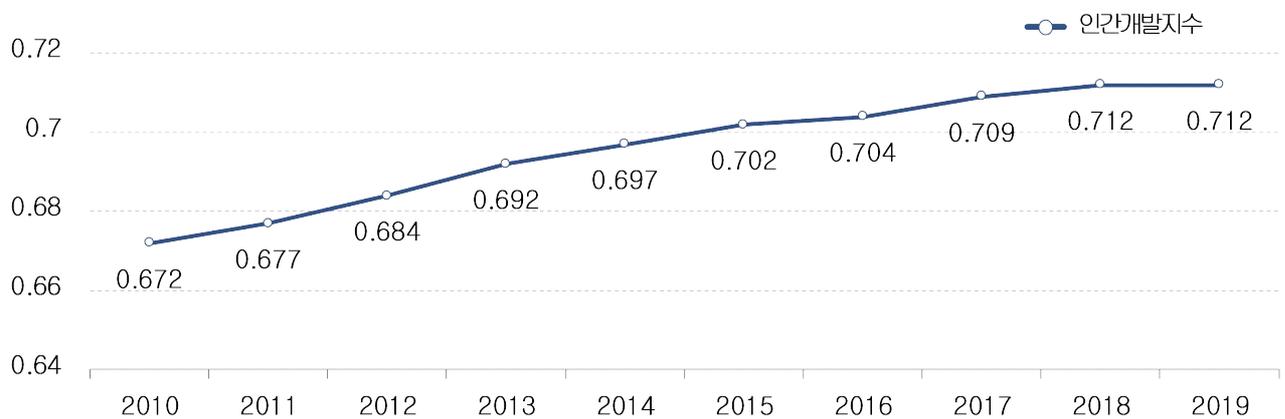
가. 균형 발전

□ (인간개발지수) UNDP(유엔 개발 계획)에서 발표한 필리핀의 세계 인간개발지수 (HDI*)에서 189개국 중 106위이며, 중하위권에 해당(2019년 기준)

* 인간개발지수(Human Development Index, HDI) : 유엔개발계획(UNDP)에서 발표하는 지수로 평균수명, 교육, 소득수준 등 지표를 통해 한 나라가 인간의 능력을 어디까지 개발했는지를 계량하여 종합적으로 나타내는 지수로 0.8 이상일 경우 높은 수준으로 분류

○ 필리핀의 인간개발지수는 꾸준히 상승하는 추세이나, 여전히 인근 아시아 국가 대비 낮은 수준

〈필리핀 인간개발지수 변화〉



* 출처: UNDP 2019 Human Development Data(2010-2019)

〈2019 인간개발지수 순위〉

순위	국가	HDI	기대수명 (년)	학업 기간 (년)	평균 학업 기간 (년)	1인당 국민소득 (PPP 달러)
19	일본	0.915	84.5	15.2	12.8	40,799
22	대한민국	0.906	82.8	16.4	12.2	36,757
61	말레이시아	0.804	76.0	13.5	10.2	27,227
77	태국	0.765	76.9	14.7	7.7	16,129
85	중국	0.758	76.7	13.0	7.9	16,127
106	필리핀	0.712	71.1	12.7	9.4	9,540
111	인도네시아	0.707	71.5	12.9	8.0	11,256

* 출처: UNDP 2019 Human Development Index Ranking

- 인간개발지수 단계 기준
 - 0.8 이상 : 최상위국, 0.7~0.8 : 상위국, 0.55~0.7 : 중위국, 0.55 미만 : 하위국
 - 2021년 인간개발지수
 - 대한민국 0.925 세계 19위
 - 필리핀 0.699 세계 116위
- (출처: 국제 연합 2022년 개발 계획보고서)

□ (소득 분배) 필리핀의 소득 격차*, 빈곤 격차*, 지니계수 등 소득 분배 지표는 개선되는 추세이나 지역별로 편차가 크며, 인근 국가대비 여전히 빈부격차 문제가 큼

- * 소득 격차(Income gap) : 소득의 빈곤 임계값 미만인 개인의 임계값 대비 평균 소득 부족 비율. 0에 가까울수록 양호한 지표
- * 빈곤 격차(Poverty gap) : 소비의 빈곤 임계값 미만인 가족의 임계값 대비 평균 소비 부족 비율. 0에 가까울수록 양호한 지표

- 2018년 기준, 필리핀 통계청에 의하면 소득 격차는 26.9, 빈곤 격차는 4.3으로 2015년 대비 감소하였음
 - 무슬림 민다나오 자치구(ARMM) 등은 오히려 격차가 커지는 등 수도권(Central Luzon, Ilocos 등)과 비수도권간 빈부격차가 더 커지는 상황
- 필리핀이 경제성장으로 최근 빈곤층은 줄었지만 지역과 소득 불평등은 오히려 더욱 심각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지난해 상반기 필리핀의 빈곤율은 21%로 3년 전(27.6%)보다 6.6%p 감소
 - 부유한 지역은 9년 전보다 빠르게 성장한 반면, 지역내총생산(GRDP) 수준이 중간이거나 낮은 지역은 경제 성장률의 진전이 없음
 - 메트로 마닐라(NCR)의 GRDP는 2009년 18만1748페소에서 지난해 25만 3,893 페소로 증가했지만 가장 가난한 지역인 무슬림 민다나오 자치구(ARMM)는 1만4,657 페소로 9년 전(1만 4,052 페소)과 변동이 크게 없음

〈필리핀 지역별 (a)소득 격차, (b)빈곤 격차〉

지역	2012		2015		2018	
	a	b	a	b	a	b
필리핀 전체	29.2	6.5	29.5	6.6	26.9	4.3
NCR	22.1	0.8	21.2	1	27	1.3
CAR	33.4	7.5	28.4	6.5	29.2	4
I-Ilocos Region	25.8	4.3	25.6	5.2	19.4	1.7
II-Cagayan Valley	24.4	4.8	23	4	24.3	3.7
III-Central Luzon	23.4	2.9	25.6	3.1	23.6	1.8
IV-A-CALABARZON	24.9	2.8	25.4	3.3	23.8	1.8
IV-B-MIMAROPA	29.4	8.4	27.3	6.3	24.3	3.7
V-Bicol Region	27.5	9.4	27.1	9.1	24.1	5.2
VI-Western Visayas	26.4	6.5	27.5	6.9	23	3.7
VII-Central Visayas	32.5	9.4	35	10	26.5	5
VIII-Eastern Visayas	30.1	11.2	32.1	12.8	29.7	9
IX-Zamboanga Peninsula	33.8	12.5	30.1	10.2	30.3	9.8
X-Northern Mindanao	32.9	11.7	33.2	11.9	26.5	6.7
XI-Davao Region	30.1	8.6	27	5.8	25.2	4.5
XII-SOCCSKSARGEN	34.9	13.1	36.8	13.8	32.2	8.8
XIII-Caraga	31.3	10.7	29.2	10.3	26.7	7.6
ARMM	28.5	13.3	31.2	18	32.9	18.2

* 출처: 필리핀 통계청('20.07) philippines Statistical Yearbook 2019

- 필리핀 통계청에 따르면 지니계수(Gini Index)는 2015년 0.4438로 2012년 0.4605 대비 소폭 감소
 - 인근 국가의 경우 인도네시아가 0.3810, 말레이시아는 0.4100, 태국이 0.3650
- 필리핀 지니계수
 - 2016년도에 필리핀 통계청에서는 필리핀 가족의 평균 연간 가족 수입이 267,000 페소(약 613만 원)로 조사되었으며 지니계수가 0.4439로 추정됨
 - 대한민국 지니계수는 2017년 0.354, 2018년 0.345, 2019년 0.339, 2020년 0.331

나. 교육

- (교육 수준 및 제도) 필리핀의 문해 비율은 약 99%로 매우 높은 편이나 중학교 이상의 진학률은 매우 낮은 편으로 교육의 빈부격차가 존재
 - 세계은행에 따르면, 2015년에 조사된 필리핀의 15세 이상 성인 문해 비율은 약 98.8%로 매우 높은 수준
 - 세계 문해 비율은 2015년 기준 85.5%, 2019년 기준 86.5%이며, 인근 국가인 인도네시아는 2018년 기준 95.7%, 태국 93.8%, 말레이시아 94.9% 수준
 - 필리핀의 진학률은 초등학교 기준 약 94%로 매우 높다가 중학교 이후로 점차 떨어지는 추세이며 고등학교 진학률은 약 35%
 - 유치원 진학률은 2018년 기준 99.82%, 초등학교 진학률은 2017년 기준 93.77%, 중학교 진학률은 2015년 기준 66.56%, 고등학교 진학률은 2017년 기준 35.48%
 - 2011년부터 유치원 의무 교육을 도입하였고, 2012년부터 선진국의 K to 12 제도를 도입하여 초등 6년, 중등 4년, 고등 2년의 총 12학년제를 운영
 - 기존 초등 6년, 중등 4년의 10학년제 과정에서 변경
 - 필리핀에는 약 1,200여 개의 대학이 있고, 대학 진학률은 학교 내부 규정에 따라 2~4년 과정으로 구성됨
 - 필리핀에는 한국과 다르게 대학 수학 능력 시험 대신 각 대학에서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입학시험을 시행하고, 대부분 학교는 영어, 수학, 과학시험 등으로 평가하며, 영어 인터뷰를 보는 학교도 있음
 - 필리핀 4대 명문대학교: UP (University of the philippiness), Ateneo De Manila University, De La Salle University, UST (University of Santo Tomas)

다. 보건 및 위생

- (보건 수준) 필리핀의 보건 수준은 전반적으로 낮은 편으로 연간 약 2만 명의 영아가 사망하고 있으며, 간염 환자 비율이 전체 인구의 10% 이상
 - 12개월 미만 영아 사망은 2017년 기준 20,311명(2016년 21,874명)
 - 2016년 기준, 영아 사망의 주요 원인은 폐렴(1.7%), 호흡곤란(1.3%), 세균성 패혈증(1.2%), 선천성 기형(0.8%), 전염성 설사 및 위장염(0.8%) 순
 - 또한, 간염은 필리핀에서 주요 공중 보건 문제이나 인식 부족으로 인해 바이러스성 질환을 앓는 많은 사람이 치료 시기를 놓침(WHO, '19.07 발표 자료)
 - 2019년 기준, 인구의 약 10%가 만성 B형 간염, 0.6%가 만성 C형 간염을 앓음
 - 필리핀 보건부(DOH)는 WHO의 지원을 받아 간염 예방 및 치료 프로그램을 진행
 - 이외에도 2018년에 17,000명이 넘는 인구가 식인성 질병인 급성 혈성 설사를 앓았음(WHO)
- (위생 수준) 필리핀 인구 4명 중 1명이 기본적인 위생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도시지역 대비 비도시지역의 위생 서비스 이용비율이 현저히 낮음

〈필리핀 위생 관련 지표〉

구분	인구 당		
	전체	도시	시골
최소 식수 서비스를 이용 가능 인구비율(2017)	93.57%	97.69%	89.96%
기초 위생 서비스 이용 가능 인구비율(2017)	76.53%	78.49%	74.82%
안전 관리 위생 서비스 접근 가능 인구비율(2017)	46.65%	49.58%	33.68%
손 위생 관련 시설을 갖춘 인구비율(2017)	78.46%	85.14%	72.62%

* 출처: World Bank('20.10) Country Data

- 이에 필리핀은 「식품 안전법」 과 「필리핀 위생법」 에 따른 식품 안전에 대한 정책 기반이 있으며, 식품 안전 표준을 개발, 채택 또는 현지화하기 위한 국가 코덱스 기술위원회를 보유하는 등 위생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 중

라. 기타

- (젠더) 필리핀의 성평등 지표(Global Gender Gap)는 세계 153개국 중 16위로 상위권에 속하며, 세부 지표에서도 모두 세계 평균 이상의 점수를 획득
 - 이는 인근 아시아 국가대비 최고의 성평등 수준에 해당

<필리핀 성평등 지표>

항목	순위	획득점수	항목별 평균
경제참여 및 기회	14	0.792	0.582
교육적 성취	37	0.999	0.954
건강과 생존	41	0.979	0.958
정치적 권한	29	0.353	0.239
종합점수	16	0.781	-

* 출처: 세계경제포럼(WEF) Global Gender Gap Report 2020

<2020 Global Gender Gap INDEX 2020>

순위	국가	HDI
16	필리핀	0.781
20	싱가포르	0.782
31	베트남	0.751
75	태국	0.708
85	인도네시아	0.700
104	말레이시아	0.677
106	중국	0.676
108	한국	0.672
121	일본	0.652

* 출처: World Economic Forum

□ (기타지수)

- 부패인식지수 33점, 117위(2021년)
- 언론자유지수 41.84점, 147위(2022년)
- 민주주의지수 6.62점, 54위(2021년)

5 우리나라와의 관계

가. 기본 관계

- (외교 수립) 한국과 방글라데시는 1949년 3월 3일에 외교 관계를 수립하였고, 1954년에 주필리핀 한국공사관이 설치되었음

<한국-필리핀 외교 수립>

날짜	내용
1949년 3월	한국, 필리핀 정부와 수교
1950년 9월	필리핀의 6·25전쟁 파병지원
1954년 1월	주필리핀 한국공사관 설치(마닐라)
1954년 11월	주한 필리핀공사관 설치(서울)
1958년 2월	각각 대사관으로 승격
2020년 12월	김인철 대사 부임

나. 정치·외교 관계

- (필리핀 대한반도 정책) 필리핀은 아세안(ASEAN) 회원국 중 한국에 우호적인 국가 중 하나로, 미국과의 동맹 등 안보 이해관계를 공유
 - 필리핀은 1948년 한국 정부 수립 후 미국·영국·프랑스·대만에 이어 다섯 번째로 한국과 수교를 하였으며, 6·25전쟁에 군사 파견 및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을 일관되게 지지하는 오랜 우방국임

<필리핀의 6·25전쟁 참전 현황>

구분	내용
파병 기간	1950년 9월 19일 ~ 1955년 5월 13일
전체 인원	7,420명
사상자	전사 112명, 부상 299명, 실종 57명
주요 전투	율동 전투: 철의 삼각지대(연천)에서 중공군 1개 대대 규모 격퇴 아스날고지 전투: 1952년 6월 연천 북방에서 중공군 1개 대대 격퇴
기타	1959년 7월 15일 참전용사회(Philippines Expeditionary Forces to Korea) 설립 ※ 라모스 전 대통령은 소대장으로 6.25 전쟁 참전

* 출처: 외교부 필리핀 개황(19.11)

〈필리핀의 입장 표명〉

날짜	내용
2011년 5월	제4차 한-필리핀 정책협의회에서 필리핀 외교부 정책차관은 한반도 및 지역 정세에 대해서 의견을 교환하고 기후변화 및 대테러협력을 포함한 국제 문제에 대해서도 지속하여 한국과 협의할 것을 다짐
2013년 10월	아키노 대통령은 북한 핵 문제에 대한 우리 입장과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및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을 적극 지지한다고 발표
2015년 11월	필리핀 정부는 한반도 비핵화,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등 우리의 대북정책을 지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가능한 모든 지원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발표
2017년 5월	박원순 대통령 특사 필리핀 방문 당시 두테르테 대통령은 개발 협력, 인프라, 방산 등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이 더욱 강화되기를 희망
2017년 9월	한-필리핀 외교장관회담 시 북한이 무모하고 무책임한 핵실험을 감행한 것에 대해 우리 정부의 입장을 전적으로 지지
2018년 6월	두테르테 대통령 방한 당시 남북관계 발전과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정착을 위한 한국 정부의 노력을 적극 지지한다는 뜻을 밝힘
2018년 10월	상원 회의를 통해 한반도 평화정착과 필리핀 발전을 위한 문재인 대통령의 공로를 필리핀 상원 차원에서 인정하는 결의를 만장일치로 채택(남북정상회담의 성과 긍정적 평가)
2019년 3월	한반도 평화정착과 필리핀 발전을 위한 문재인 대통령의 공로를 필리핀 하원 차원에서 인정하고 지지를 표명하는 내용의 결의
2019년 7월	필리핀 발렌수엘라시 의회 우리 정부 한반도 정책 지지 및 환영 결의 채택

* 출처: 주필리핀 한국 대사관

- (정부 교류) 주기적인 한-필리핀 정책협의회를 통해 정무 협력 강화 및 교역·투자 증진, 개발 협력 강화, 양국 국민 보호 등 양자 현안을 비롯해 지역 및 국제무대에서의 상호 협력 방안 등을 논의

〈한국-필리핀 정책협의회〉

개최 시점	차수	개최지	개최 시점	차수	개최지
1994년 4월	제1차	서울	2014년 5월	제5차	마닐라
2002년 6월	제2차	서울	2016년 10월	제6차	서울
2006년 7월	제3차	마닐라	2018년 11월	제7차	마닐라
2011년 5월	제4차	서울	-	-	-

* 출처: 외교부, 주필리핀 한국 대사관

- (협약 현황) 한국과 필리핀은 정치, 경제, 안보 등 여러 방면에서 협정을 체결하여 상호 협력을 추진

<한국-필리핀 협정 발효 현황>

발효시점	협정명	발효내용
2008년 11월	한·필리핀 형사사법공조조약	한국과 필리핀공화국 간의 형사사법공조조약
2009년 5월	한-필리핀 미국종합처리장 건립사업 시행 약정	한국 정부와 필리핀공화국 정부 간의 미국종합처리장 건립을 위한 사업 시행에 관한 약정
2013년 9월	한-필리핀 관세협력을 위한 합의록	한국 정부와 필리핀공화국 정부간의 관세협력을 위한 합의록
2013년 10월	EDCF 팜팡가 재난위험감축사업 차관공여 계약	한국 정부와 필리핀공화국 정부간의 EDCF 팜팡가 재난위험감축사업 차관공여 계약
2014년 4월	한-필리핀 무상원조 기본협정	한국 정부와 필리핀공화국 정부 간의 무상원조에 관한 기본협정
2016년 2월	한-필리핀 군사비밀정보의 보호에 관한 협정	한국 정부와 필리핀공화국 정부 간의 군사비밀정보의 보호에 관한 협정
2016년 2월	한-필리핀 항공협정 개정 교환각서	한국 정부와 필리핀공화국 정부 간의 항공운수협정 개정 교환각서
2016년 4월	한-필리핀 팜일만 EDCF 교량산업 차관약정	한국 정부와 필리핀공화국 정부 간의 팜일만교량 사업을 위한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
2018년 5월	한-필리핀 EDCF 기본약정	한국 정부와 필리핀공화국 정부 간의 2017~2022년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기본약정
2019년 7월	한-필리핀 군수·방산 협력 양해각서 개정 약정	양 당사국의 정부 내 조직변경에 따라 군수·방산 공동위원회 양측 공동위원장 및 접촉창구 수정

* 출처: 외교부

다. 주요 인사 교류

□ (인사 교류) 양국 간 주요 인사 교류는 아래와 같음

〈한국 주요 인사의 필리핀 방문〉

날짜	내용
1966년 10월	박정희 대통령
1981년 07월	전두환 대통령 공식방문
1994년 11월	김영삼 대통령 공식방문
1999년 11월	김대중 대통령 국민방문
2005년 12월	노무현 대통령 국민방문
2007년 01월	노무현 대통령(아세안 관련 정상회의)
2010년 06월	김황식 대통령특사(아키노 대통령 취임식)
2011년 03월	박희태 국회의장 공식방문
2011년 11월	이명박 대통령 국민방문
2012년 10월	심재철 대통령특사
2015년 03월	정의화 국회의장
2015년 08월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2015년 11월	박근혜 대통령(APEC 정상회의)
2017년 05월	박원순 대통령특사
2017년 11월	문재인 대통령(아세안 관련 정상회의)
2022년 06월	권성동 대통령특사(필리핀 대통령 취임식 참석)

* 출처: 외교부 필리핀 기본정보

〈필리핀 주요 인사의 한국 방한〉

날짜	내용
1993년 05월	라모스 대통령 공식방한
1999년 06월	에스트라다 대통령 국민방한
2003년 06월	아로요 대통령 국민방한
2005년 11월	아로요 대통령 공식방한(APEC 정상회의)
2009년 05월	아로요 대통령 공식방한(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2012년 03월	비나이 부통령(핵안보정상회의)
2013년 10월	아키노 대통령 국민방한
2014년 12월	아키노 대통령(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2015년 10월	드릴론 상원의장
2018년 06월	두테르테 대통령 공식방한
2019년 11월	두테르테 대통령(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 출처: 외교부 필리핀 기본정보

- 재외국민 현황(2021년 기준)
 - 필리핀 내 한국인 : 33,010명(외교부)
 - 한국 내 필리핀인 : 38,035명(법무부)

- 인적 교류 현황
 - 한국에서 필리핀으로 : 1,989,322명(2019년)
6,456명(2021년, 필리핀 관광청)
 - 필리핀에서 한국으로 : 516,503명(2019년)
117,316명(2021년, 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

라. 경제 · 통상 관계

- (교역 개요) 한국과 필리핀은 연간 100억 달러 규모 이상을 교역하며, 한국은 필리핀의 수출·수입 상위 10개 국가에 포함

〈한국 - 필리핀 교역 동향〉 (단위: 백만 달러)

구분	'16	'17	'18	'19	'20.10
교역 규모(수출 + 수입)	10,507	14,296	15,606	12,023	8,461
수출(한→필)	7,278	10,594	12,037	8,365	5,999
수입(한←필)	3,229	3,702	3,569	3,658	2,462

* 출처: 한국무역협회('20.10) 국가 수출입 통계자료

- 2016년부터 2018년까지 대필리핀 수출액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으나, 2019년에 다시 내림세를 보임
- 대필리핀 수입액은 지난 10년간 약 32~35억 달러 수준으로 큰 변동이 없음

〈대필리핀 수출입 추세〉 (단위: 백만 달러)



* 출처: 한국무역협회('20.10) 국가 수출입 통계자료

○ 2021년 교역규모 : 16억불(수출 97억불, 수입 39억불, 한국 무역협회)

〈필리핀 수출 상위 10개국〉

순위	'16	'17	'18	'19
1	일본	일본	미국	미국
2	미국	미국	일본	일본
3	홍콩	홍콩	홍콩	중국
4	중국	중국	중국	홍콩
5	싱가포르	한국	싱가포르	싱가포르
6	독일	싱가포르	독일	한국
7	태국	태국	네덜란드	태국
8	한국	독일	태국	독일
9	기타 아시아	네덜란드	한국	네덜란드
10	네덜란드	기타 아시아	기타 아시아	기타 아시아

* 출처 : UN Comtrade

〈필리핀 수입 상위 10개국〉

순위	'16	'17	'18	'19
1	중국	중국	중국	중국
2	일본	일본	한국	일본
3	미국	한국	일본	한국
4	태국	미국	미국	미국
5	한국	태국	태국	인도네시아
6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	태국
7	기타 아시아	싱가포르	싱가포르	싱가포르
8	인도네시아	기타 아시아	기타 아시아	기타 아시아
9	말레이시아	말레이시아	말레이시아	말레이시아
10	홍콩	홍콩	홍콩	홍콩

* 출처 : UN Comtrade

□ (품목별 상세) 집적회로반도체 코드로 분류되는 상품의 수출 및 수입의 규모가 가장 크며, 연간 10억 달러 이상을 수출·수입하고 있음

- 한국의 대필리핀 주요 수출 품목은 전자·반도체 완제품, 석유화학제품, 선박 등이 있으며 2020년 수주 활성화에 따라 선박의 수출이 전년 대비 크게 상승함
- 한국의 대필리핀 주요 수입 품목으로 과실류, 연초류, 동괴 및 스크랩으로 통용되는 천연자원 외에 각종 전자기기 부품·소재류 등이 있으며 2020년 제어용 케이블의 수입이 전년 대비 큰 폭으로 증가함

<대필리핀 수출 상위 10개 품목>

(단위: 백만 달러)

순번	품목명	2019년	2020년 5월
		금액	금액
1	집적회로반도체	2,710	1,100
2	휘발유	783	248
3	선박	14	171
4	경유	722	127
5	동조가공품	258	69
6	제트유 및 등유	240	47
7	화물자동차	132	46
8	안료	107	46
9	개별소자반도체	123	46
10	인쇄회로	100	45

* 출처: 한국무역협회, 필리핀 수출자료

<대필리핀 수입 상위 10개 품목>

(단위: 백만 USD)

순번	품목명	2019년	2020년 5월
		금액	금액
1	집적회로반도체	1,564	498
2	과실류	299	116
3	제어용케이블	77	53
4	동괴 및 스크랩	151	50
5	연초류	87	35
6	축전기	68	32
7	전동기	74	27
8	변성기	64	24
9	편직제의류	75	24
10	개별소자반도체	48	19

* 출처: 한국무역협회, 필리핀 수출자료

□ (민간기업 투자) 한국 기업의 대필리핀 투자는 주로 건설업, 제조업에 치중되어 있으며 2019년 기준 2억 달러 이상의 투자가 진행

〈2019년 업종별 투자현황〉

(단위: 건, 개, 천 달러)

업종대분류	신고건수	신규법인수	신고금액	송금횟수	투자금액
광업	3	1	394	3	394
제조업	65	13	91,131	110	49,681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 조절 공급업	1	0	2,700	1	2,700
건설업	43	10	109,496	41	109,687
도매 및 소매업	20	8	2,337	20	2,226
운수 및 창고업	4	1	4,696	3	272
숙박 및 음식점업	6	0	2,356	5	1,511
정보통신업	7	3	3,790	10	3,009
금융 및 보험업	1	0	202	2	300
부동산업	19	2	14,159	42	13,885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6	3	17,362	6	17,121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7	1	1,606	8	1,932
교육 서비스업	0	0	0	3	86

* 출처: 한국수출입은행

□ 2020년 한국-필리핀 교역 동향

- 코로나19 여파로 한-필 교역액 전년 대비 감소
- 지역사회 격리조치에 따른 이동 제한으로 정제유 및 자동차 수출 급감
- 2020년 기준, 한국의 전체 수출액은 5,124억 9,8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5.5% 감소
- 한국의 對필리핀 수출액은 71억 2,6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14.8% 감소했으며, 전체 국가 중 12위를 차지함

- 연간 수출 상위 품목
 - (반도체) 수출 비중이 40.7%로 가장 높았고, 2020년 상반기 D램 가격 하락세 지속으로 한국산 반도체 누적 수출금액 감소, 하반기 락다운 완화로 공장 운영 재개와 함께 세계경제 회복으로 원자재 수요 증가
 - (석유제품) 필리핀內 지역사회 격리조치 지속에 따른 대중교통 운영 축소, 공장 조업 중단 등으로 정제유 수요가 급감하였으며, 특히 락다운이 가장 심화된 2020년도 2분기에 연속적으로 감소
 - (선박해양구조물 및 부품) 현대중공업이 건조한 필리핀 최초 유도 미사일 호위함인 호세리잘함이 2020.5월 필리핀 해군에 인도됨
 - (자동차) 코로나19에 따른 가계소득 감소로 비필수 품목인 자동차의 구매 우선순위가 낮아졌으며, 수입차 대상 세이프가드 잠정관세* 부과로 2021년 수출액 회복 또한 불투명
 - * 2021.1.20일부, 승용차 1대당 7만 페소, 경상용차 1대당 11만 페소 부과
- 2021년 신고된 투자금액
 - 대 필리핀 1.1억불, 113건(한국수출입은행)
 - 대 한국 1.3억불, 3건(산업통상자원부)
- 2020년 총지출기준 ODA
 - 무상원조 : 2,775만불
 - 유상원조 : 1억 2884만불(OECD)

□ 2020년 한국의 대 필리핀 수출 상위 품목

<2020년 한국 수출 상위 품목>

(단위:백만 달러, %)

순위	품목군	2019년	2020년	비중	증감률
-	총계	8,365	7,126	100.0	-14.8
1	반도체	2,864	2,897	40.7	1.1
2	석유제품	1,843	846	11.9	-54.1
3	동제품	262	204	2.9	-22.3
4	선박해양구조물및부품	17	180	2.5	982.0
5	염료및안료	107	148	2.1	38.1
6	건전지 및 축전지	40	126	1.8	217.0
7	플라스틱제품	130	125	1.8	-3.6
8	기구부품	113	122	1.7	7.9
9	철강판	81	107	1.5	33.5
10	자동차	233	107	1.5	-54.1

자료:한국무역협회(KITA), MTI 3단위 기준

□ 한국 對필리핀 수입실적

- 2020년 기준, 한국의 전체 수입액은 4,676억 3,3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7.1% 감소
 - 한국의 對필리핀 수입액은 30억 8,6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15.6% 감소했으며, 전체 국가 중 27위를 차지함
- 연간 수입 상위 품목
 - (반도체) 전체 품목 중 수입 비중이 33.3%로 가장 높았으나 필리핀 정부의 지역사회 격리조치로 필리핀내 반도체 공장의 가동이 임시 중단됨
 - (곡식류) 코로나19에 따른 수요 감소와 더불어 필리핀내 지역사회 격리조치, 태풍 피해 등으로 생산량이 감소한 것이 수입액 감소에 영향을 미침

□ 2020년 한국의 대 필리핀 수입 상위 품목

<2020년 한국 수입 상위 품목>

(단위:백만 달러, %)

순위	품목군	2019년	2020년	비중	증감률
-	총계	3,658	3,086	100.0	-15.6
1	반도체	1,614	1,029	33.3	-36.3
2	산업용 전기기기	171	404	13.1	136.4
3	곡실류	300	260	8.4	-13.2
4	동제품	162	184	6.0	13.7
5	수동부품	155	139	4.5	-10.0
6	기호식품	95	112	3.6	16.9
7	컴퓨터	145	108	3.5	-25.5
8	기구부품	92	103	3.3	12.3
9	의류	105	91	2.9	-13.2
10	기타섬유제품	27	42	1.4	52.4

자료:한국무역협회(KITA), MTI 3단위 기준

□ 필리핀 對한국 수출실적

- 필리핀 통계청(PSA) 기준, 2020년 필리핀의 對韓 수출액은 25억 2,600만 달러로 전체 국가 중 7위를 차지
- 전년 대비 수출액이 22.1% 감소했으며, 상위 10개국 중 베트남이 유일하게 수출 증가를 기록
- 연간 수출 상위 품목
 - (전자제품) 코로나 영향으로 전세계 가정용 전자제품 수요가 늘어남 (매출 400조 돌파)에 따라 전체 전자제품의 수출이 증가
 - (바나나) 코로나19로 인한 글로벌 전반적 수요 감소 및 원활치 못한 물류 문제가 수출 감소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됨

□ 2020년 필리핀 대 한국 수출 상위 품목

〈2020년 필리핀 수출 상위 품목〉

(단위:백만 달러, %)

순위	품목군	2019년	2020년	비중	증감률
-	총계	70,927	63,767	100.0	-10.1
1	전자제품	40,022	36,984	58.0	-7.6
2	기타 공산품	4,034	3,630	5.7	-10.0
3	기계 및 운송 장비	2,686	2,204	3.5	-17.9
4	기타 광물제품	1,466	2,025	3.2	-38.1
5	차량, 항공기, 선박용 접화 배선 및 기타 배선 세트	2,347	1,886	3.0	-19.6
6	바나나(신선)	1,954	1,552	2.4	-20.6
7	정제 구리	1,253	1,434	2.2	14.5
8	금	1,382	1,204	1.9	-12.9
9	금속 부품	1,450	1,203	1.9	-17.0
10	화학약품	1,352	1,152	1.8	-14.8

자료:필리핀 통계청(PSA)

□ 필리핀 對한국 수입실적

- 필리핀 통계청(PSA) 기준, 2020년 필리핀의 對韓 수입액은 66억 8,200만 달러로 전체 국가 중 3위를 차지
 - 전년 대비 수입액이 21.2% 감소했으며, 상위 10개국에서 모두 수입 감소를 기록
- 연간 수입 상위 품목
 - (연료 및 운송장비) 필리핀 내 지역사회 격리조치 지속에 따른 대중교통 운영 감소, 공장 조업 중단 등으로 정제유 수요가 감소
 - (철강) 필리핀 정부의 ‘Build, Build, Build’ 프로젝트 추진 관련 그간 수요가 높았지만 지난해 코로나19 사태로 다수의 프로젝트가 중단/보류됨에 따라 수입이 감소
 - 또한, 전세계 철강시장가격 불안정으로 인해 필리핀도 지속적으로 철강시장 동향을 주시하며 수입을 보류하는 추세
 - (산업용 기계 및 장비) 필리핀 내 락다운으로 필수품 제외 업종 조업 중단, 기존 생산 시설만 활용 등 제한적 생산 중

□ 2020년 필리핀 대 한국 수입 상위 품목

<2020년 필리핀 수입 상위 품목>

(단위:백만 달러, %)

순위	품목군	2019년	2020년	비중	증감률
-	총계	111,593	85,607	100.0	-23.3
1	전자제품	28,552	25,958	30.3	-9.1
2	광물 연료, 운할제 및 관련 재료	13,362	7,405	8.6	-44.6
3	운송장비	11,551	6,092	7.1	-47.3
4	산업용 기계 및 장비	6,573	4,509	5.3	-31.4
5	철강	4,361	3,529	4.1	-19.1
6	기타 식품 및 살아있는 동물	3,675	3,250	3.8	-11.6
7	통신 장비 및 전자 기계	3,226	2,763	3.2	-14.3
8	기타 잡제품	3,808	2,741	3.2	-28.0
9	곡물 및 곡물 조제품	3,278	2,722	3.2	-17.0
10	플라스틱 제품	2,716	2,061	2.4	-24.1

자료: 필리핀 통계청(PSA)

□ 2020년 한국의 대 필리핀 투자동향

- 한국수출입은행의 해외직접투자통계에 따르면 2020년 상반기 기준 한국은 총 16개의 신규 법인을 필리핀에 등록함
- 총 7,800만 달러 규모의 투자를 유치했으며 총 신고 건수는 94개(9800만 달러)

<한국의 對 필리핀 투자 동향>

(단위: 건, 개, 백만 달러)

연도	신규법인수	투자금액	신고건수	신고금액
총 합계(1980 ~ 2020 상반기)	1,764	4,593	4,976	5,981
2016	56	166	208	183
2017	48	566	218	588
2018	48	179	208	215
2019	42	203	182	250
2020년 상반기	16	78	94	98

주: 1980년 실적은 1968~1980년까지의 누계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해외직접투자통계

- 2020년 상반기 기준, 업종별로는 제조업(5,500만 달러/70.5%), 부동산업(1,100만 달러/14.1%)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 조절 공급업(500만 달러/14.1%) 순으로 투자액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특히, 필리핀 정부의 “Build, Build, Build” 사업의 영향으로 꾸준히 상위권을 차지하던 건설업은 정부의 봉쇄 조치로 이후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한국의 對 필리핀 업종별 투자 동향〉

(단위: 건, 백만 달러, %)

순위	업종 분류	2018			2019			2020 상반기		
		신고 건수	투자 금액	비중	신고 건수	투자 금액	비중	신고 건수	투자 금액	비중
	합계	208	179	100	203	182	100	94	78	100
1	제조업	55	99	55.3	65	50	27.5	22	55	70.5
2	부동산업	45	19	10.6	19	14	7.7	24	11	14.1
3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 조절 공급업	7	7	3.9	1	3	1.6	5	5	6.4
4	농업,임업 및 어업	0	1	0.6	0	0	0	2	3	3.8
5	숙박 및 음식점업	8	2	1.1	6	2	1.1	11	2	2.6
6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3	0	0	7	2	1.1	9	1	1.3
7	도매 및 소매업	25	8	4.5	20	2	1.1	4	0	0
8	건설업	36	33	18.4	43	110	60.4	5	0	0
9	금융 및 보험업	4	2	1.1	1	0	0	0	0	0
10	교육 서비스업	6	0	0	0	0	0	1	0	0
11	정보통신업	6	0	0	7	3	1.6	5	0	0
12	운수 및 창고업	3	0	0	4	0	0	3	0	0
13	협회 및 단체,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1	0	0	0	0	0	1	0	0
14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7	9	5.0	6	17	9.3	2	0	0

주: 통계자료는 법인, 지점, 지사 포함, 순위는 2020년 상반기 기준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해외직접투자통계

□ 2019년 필리핀의 대 한국 투자동향

- 2019년 필리핀의 대 한국 투자액은 95만 달러로 전년 88만 달러 대비 소폭 상승. 2015년 및 2017년을 제외하고는 큰 규모의 투자가 적은 것으로 나타남

〈필리핀의 對韓 투자 동향(신고 기준)〉

(단위: 건, 백만 달러, 전년대비%)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건수	11	12	7	5	7	5
금액	5.87	187.00	0.40	511.00	0.88	0.95

II. 최신 동향

1 정치 동향

가. 국내 동향

- (국내 총선) 2019년 5월 13일 대통령을 제외한 상하원 의원과 지자체장에 대한 선거가 있었으며, 親두테르테 성향의 당선자가 다수 배출되어 향후 정부의 정책 추진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판단됨
 - 2019년 선거에서 12명의 상원의원, 59명의 비례대표의원, 243명의 지역구의원, 지사와 부지사 각 81명, 780명의 주의원, 시장과 부시장 각 145명, 시의원 1,628명, 군수와 부군수 각 1,489명, 군의원 11,916명이 선발, 親두테르테 성향은 80%
 - 두테르테의 큰 딸은 다바오 시장 재선에 성공하고 작은아들은 부시장에 당선되었으며, 큰아들은 하원의원에 당선되어 두테르테 가문이 새로운 정치 가문으로 등장할 기초를 다진 선거라고 평가
- (국정연설) 2020년 7월 27일 국정연설에서는 보라카이 환경 복원과 같은 긍정적 업적, COVID-19로 직면한 교육, 경제 회복, 의료 문제와 더불어 일자리, 환경보호, 교통인프라 등 다양한 주제를 다룸
 - 필리핀 대통령은 헌법에 따라 매년 7월 네 번째 월요일 의회 정기회에서 국정연설을 할 의무가 있으며 두테르테 대통령의 5번째 국정연설이었음
 - 두테르테 대통령은 2020년 국정 연설에서 COVID-19로 인한 경제·사회적 타격에 대해 언급하면서도, 이를 해결할 수 있다는 의지를 보여주었음
 - 향후 필리핀 경제가 2021년 이후 반등해 기존 고속성장 모멘텀을 유지할 것이라는 자신감을 표출함

<두테르테 대통령 2020년 국정 연설 주요 내용>

분야	내용
의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료진에 대한 격려 및 COVID-19에 대한 국가적 대처 강조 : Malasakit Centers 법에 따라 진행되는 공공의료 서비스 언급 : 바랑가이의 의료 수준 개선 목표 - 의료 시장에 대한 국가적 개입 언급 : 최소 133개의 의약품에 대한 소매가격 한도 부과 및 시장가격 검토를 지시하는 행정명령 NO. 104 발표 - 중국 시진핑 주석에게 COVID-19 백신 공급 우선적 요청
정치 · 행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치적 이해관계와 개인의 이익을 모두 배제하고 국가적 어려움에 대한 우선 대처 강조 : Frank Drilon 상원의원 언급(정부를 공격하는 부정적 세력) - 행정 프로세스 간소화, 여권과 운전면허 유효기간 연장
외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주적인 국가 강조 및 남중국해 권리 강조 : 중국에 대한 무력대응은 어렵다는 한계 인지(외교적 대응 강조)
환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라카이 섬에 대한 복구 노력 및 긍정적 결과 언급
치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Barangay 개발 프로그램 : 지역의 치안 안정 및 국가적 통합 목적 - 마약 업자 부패에 대한 엄중한 경고 : 불법 마약, 테러, 부패 및 범죄로부터의 자유 강조 - 중범죄자에 대한 사형제도 부활 촉구
사회 · 문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에 대한 보호와 차별에 대한 금지 강조 : 전국 아동 노동 반대위원회 행정명령 번호 92에 서명하였으며, UN 인권 이사회의 지지를 받았음을 강조 - Pantawid Pamilya 프로그램 강조 : 필리핀 사회 복지 개발부에 의한 현금 지원 제도 -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추경 편성(Bayanihan Act) 촉구 - 국민 주택 개발 법안 및 임대주택 보조금법안 언급 : 사회적 지위와 관계없이 모든 필리핀 가족이 풍요로운 삶을 영위 - 국립 스포츠 아카데미 설립 및 학생·선수에 대한 교육/지원 기대 : 다양성 및 포용 프로그램으로 나이, 장애, 민족성, 성적 지향, 성정체성 및 표현 등 차별을 종식

경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급여 표준화법(2019)으로 인한 공무원의 급여 인상 및 긍정적 효과 기대 - 법인세 30%에서 25%로 감소 추진 - LANDBANK 및 정부 금융기관에 저금리 기조를 유지하도록 요청 - 중소기업 지원 : COVID-19 영향을 많이 받은 중소기업에 무이자 대출 제공 - COVID-19 극복을 위한 임대인의 도의적 협력 강조 - 행정명령 번호 18 실행(특별 경제 구역 개발 강화) - 온라인 상거래 활성화 강조(법안 및 제도적 지원 언급) - 2019년 국가 신용등급 BBB+ 획득 및 일본 신용평가원 A- 발표 내용 강조
인프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Build Build Build 프로그램 강조하며 North Luzon Expressway Harbour Link, NLEX-SLEX Connector, Cavite-Laguna Expressway, Metro Manila Skyway Stage 3, R-1 Bridge Project, Tarlac-Pangasinan-La Union Expressway 건설을 재개하겠다고 선언 - 디지털 인프라 개발사업 활성화를 위해 전국 광대역망 프로젝트 실시 : 158개 광섬유 라인 및 124개 연결망(nodes)을 설치(아직 상용화되지 않은 dark fiber 상태)하고 점검을 완료했으며, 2021년까지 2테라바이트 수준 광대역망이 완성될 것으로 예상 - 교육 시설 등을 위주로 한 전국 공공시설에 무료 공공 와이파이를 설치할 목표로 하는 Free Wi-Fi for all 프로젝트 실시 : 4031개 장소에서 완료됐으며, 향후 2022년 내 6만 3202개 장소에 추가로 설치될 예정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FW (필리핀 해외노동자)에 대한 TESDA 프로그램 시행 : 생계 및 기술 훈련 온라인 모드로 71개의 무료 온라인 교육 제공 - COVID-19로 인한 온라인 교육 활성화 ABS-CBN 방송국 통해 TV 주파수를 조정하여 온라인 강의 진행

* 출처 : Official Gazette of the Republic of the philippiness

- 2022년 5월 9일 대통령과 부통령 외에도 상원의원 13명, 하원의원 300명을 비롯해 1만8천명의 지방 정부 공직자를 뽑는 선거를 치름
- 5월 11일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주니어 전 상원의원이 17대 대통령으로 당선되었으며, 2022년 6월30일 취임식을 거행함
- 제17대 필리핀 대선의 비공식 개표 결과, 마르코스 전 대통령의 아들 마르코스 주니어와 두테르테 현 대통령의 딸 사라 두테르테 진영이 각각 60% 정도의 득표율을 얻어 압승을 거둠

- 마르코스 주니어는 두테르테 대통령의 지원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사라 두테르테와 러닝메이트로 대선을 치름에 따라 두테르테 정부의 정책을 대부분 계승할 것으로 전망
- 신정부가 정치·사회적 안정을 유지하고 당면 과제를 극복한다면 2010년대 실현한 고성장세를 재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아세안의 유망 시장으로 부상할 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됨

나. 국제 관계

- (기본 관계) 미국, 일본, 중국 및 아세안국가들과의 다자 관계를 중시하고 외교적 노력을 통한 경제·안보 이익 도모

〈필리핀 외교 정책 기조〉

구분	내용
외교 정책의 기본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자 및 다자협력을 통한 국가안보 유지·제고 - 경제 발전을 위한 경제외교 강화 - 필리핀인 해외 근로자(OFWs: Overseas Filipino Workers)의 권익 보호
8대 외교 정책 방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시아 안보 및 경제 발전에 중요한 미국, 일본, 중국과의 관계 중시 - 아세안과의 관계 속에서 필리핀의 외교 정책 결정 - 이슬람권과의 관계 중시 - 공동이익 증진을 위한 다자협력 및 지역협력 중시 - 도서 국가로서 해양영토 주권을 포함한 국가 영토주권 확보 - 경제발전을 위한 외국인 투자유치 - 외국인 관광객 유치 - 필리핀인 해외 근로자(OFWs)의 국가 경제 및 사회 안정에의 역할 중시

* 출처:외교부 필리핀 개황(2019.11.)

- 對 미국 : 역사적으로 미국의 식민지배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독립 이후 동맹 관계 구축 등 필리핀은 미국과 특수한 관계를 맺어옴
 - 미국과의 동맹은 필리핀 안보의 기본 축이며, 필리핀은 미국의 군사·정치·경제적 영향력이 국익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
 - 두테르테 정부는 자주외교를 표방하는 가운데 중국·러시아와의 관계를 강화하는 한편, 전통적 우방인 미국과의 관계도 유지하며 중립적인 외교 정책을 고수
- 對 일본 : 기본적으로 미국·일본 안보동맹의 틀 내에서 일본과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추구
 - 일본의 군사적 역할 확대에 찬성하며, 2015년 8월 아베 총리의 전후 70주년 담화 및 9월 일본 방위안보법안이 의회를 통과하자 지지 성명을 발표
 - 두테르테 정부는 일본과의 경제적 협력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두테르테 대통령의 일본 방문과 아베 총리의 필리핀 방문을 통해 여러 차례 정상 회담을 개최하는 등 활발한 필리핀·일본 정상외교 실시
- 對 중국 :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등으로 중국과 갈등이 존재하였으나 두테르테 정부 출범 이후 우호적 관계 형성 노력
 - 2011년 3월 Reed Bank 분쟁, 2012년 4월 Scarborough Shoal(황암도) 분쟁 등 중국과의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으로 중국의 강경정책에 대한 위기감과 반중 감정이 고조됨
 - 2013년 1월 필리핀은 중국을 유엔 해양법 협약상의 중재재판에 제소하여 2016년 7월 승소
 - 두테르테 정부는 남중국해 분쟁으로 양국의 관계 발전이 저해된다고 판단하여 중재재판 결과의 언급을 자제하고, 2018년 4월 시진핑 주석과 회담을 개최하여 남중국해 내 자원 공동탐사를 논의하는 등 관계 개선 시도
- 對 아세안: 필리핀은 아세안 창립회원국으로서 아세안을 외교의 지주로 삼아 지역 안보 증진 및 통상 증대 도모
 - 필리핀은 아세안 의장국 및 대화조정국 등으로 활용하였으며 아세안 국가와의 관계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음

- (최근 정세)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으로 국가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으며, 두테르테 대통령의 친중 성향으로 전통적인 필리핀-미국 관계가 변동할 여지 존재
 - 필리핀은 남중국해 영유권으로 중국, 말레이시아 등과 갈등을 겪고 있으며, 중국의 영향력 확산을 막기 위한 미국의 움직임으로 미·중 갈등도 심화되는 추세
 - 중국은 COVID-19에 대한 의료적 지원으로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으로 인한 국가 간 갈등을 해소하려는 의도가 있으며. 특히 필리핀 두테르테 대통령의 친중 행보를 적극적으로 이용하려는 움직임을 보임
 - 중국과 필리핀은 두테르테 대통령 집권 기간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투자 협정을 체결
 - 필리핀 두테르테 대통령은 영유권 분쟁에도 불구하고 2020년 10월 15일 6년 동안 계속되어 오던 남중국해 내 중국과의 석유 및 가스 공동탐사 금지 조치를 해제
 - 필리핀은 2020년 2월 11일 미군이 자국 내에서 훈련을 시행하고 연합 훈련에 참여할 수 있게 하는 방문군 협정(VFA)을 일방적으로 종료 통보함
 - 현재 VFA는 효력이 정지된 상태(종료 통보 후 180일간의 경과 기간이 끝나는 8월에 공식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필리핀은 공식적인 종료 절차를 6개월간 유예하자는 태도)
 - 1998년 양국 간 체결된 방문군 협정은 훈련 등을 위해 필리핀에 입국하는 미군의 권리와 의무 등을 규정한 것이며, 이후 양국이 필리핀에서 대규모 연례 합동 군사훈련인 '발리카탄' 등을 진행하는 근거가 되었음
 - 두테르테 대통령은 지난 2월 자신이 강력하게 추진하는 '마약과의 전쟁'을 지휘한 전 경찰청장의 미국 비자가 취소된 것에 반발하며 VFA 종료 통보
 - 미국은 오스트레일리아를 앞세워 남중국해에서 반중국 포위망을 꾸리려고 하나, 두테르테 대통령은 2020 국정연설에서 남중국해 영유권 문제에서는 중국과 대립하지 않고 외교적으로 해결할 것임을 밝힘
 - 미군기지 문제에서는 미국의 입장에 순순히 동조하지 않을 것이라는 뜻을 밝혀 현재 미국-필리핀 간 갈등이 존재

2 경제 동향

가. 국내 경제

- (경제성장률) 2020년 2분기 GDP 성장률이 -16.5%로, 2020년 경제성장률이 전반적으로 기존 예상보다 더 심각하게 나타남
 - 필리핀 통계청에 따르면 2020년 2분기 경제성장률이 -16.5%(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국내총생산(GDP) 규모의 변화 비율)를 기록
 - 앞서 필리핀의 1분기 성장률 -0.7%보다 상황이 심각해졌으며, 이는 필리핀 당국이 분기별 GDP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1981년 이후 40년 만에 가장 저조한 실적
 - 이에 따라 올해 전체 GDP 성장률이 애초 예측했던 -2.0~-3.4%보다 심각한 -5.5%에 달할 것으로 필리핀 당국은 전망하고 있으며, IMF가 발표한 2020년 경제전망보고서에서는 최종적으로 -8.3% 수준으로 예상
 - 필리핀은 신종 COVID-19 방역을 위해 지난 3월 15일부터 인구 약 1,300만 명의 수도권을 봉쇄해 78일간 강력한 사회적 거리 두기를 시행하였으며, 이로 인한 경제적 타격이 불가피함

〈필리핀 경제성장률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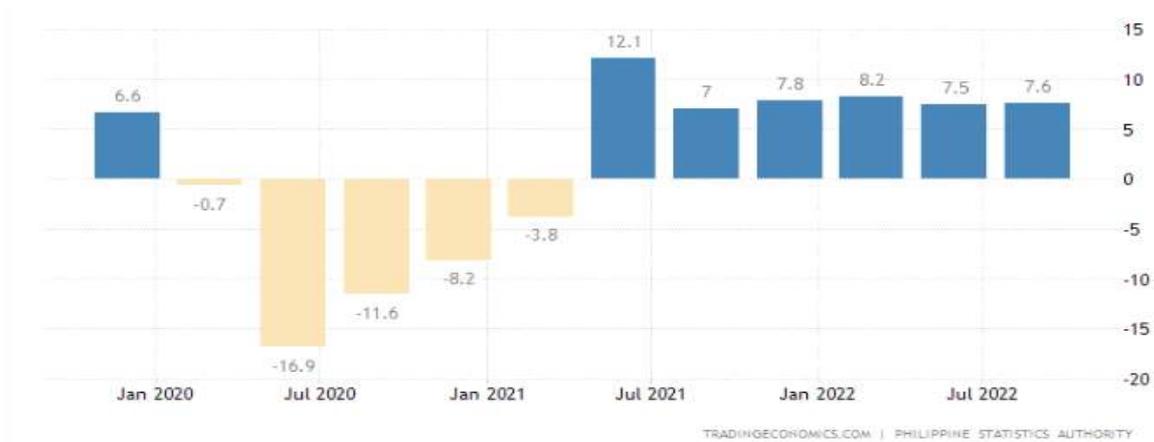


* 출처: IMF

□ GDP 연간성장률

- 2020년 코로나19 영향으로 마이너스 성장을 하였으며 2021년부터 회복하여 2022년 11월 10일 현재 GDP 연간성장률은 7.6%

〈 2020- 2022 GDP 연간성장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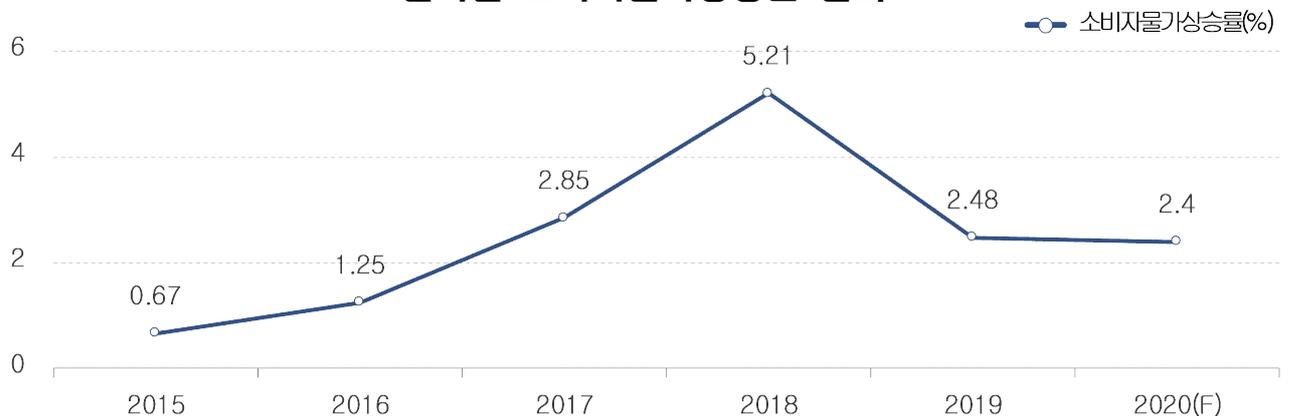


(출처: Trading Economics, 필리핀 통계청)

□ (소비자물가상승률) 쌀 가격의 지속적인 안정으로 2020년 소비자물가상승률 추정치는 전년과 비슷한 2.4% 수준

- 2018년 소비자물가상승률의 급격한 증가는 태풍 ‘망콧’ 등의 영향으로 인한 필리핀 국내 쌀 수확량 감소 및 쌀 수입가격 상승이 그 주요 원인
 - 필리핀은 세계 최대 쌀 수입국으로 쌀 수입에 대한 경제적 의존도가 매우 높음
 - 필리핀의 식품 지출에서 쌀이 차지하는 비중은 소득 하위 20% 기준 33.5%, 하위 40% 기준 28.6%이며, 이 때문에 쌀값의 안정은 소비자물가의 안정과 직결되어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

〈필리핀 소비자물가상승률 변화〉



* 출처: IM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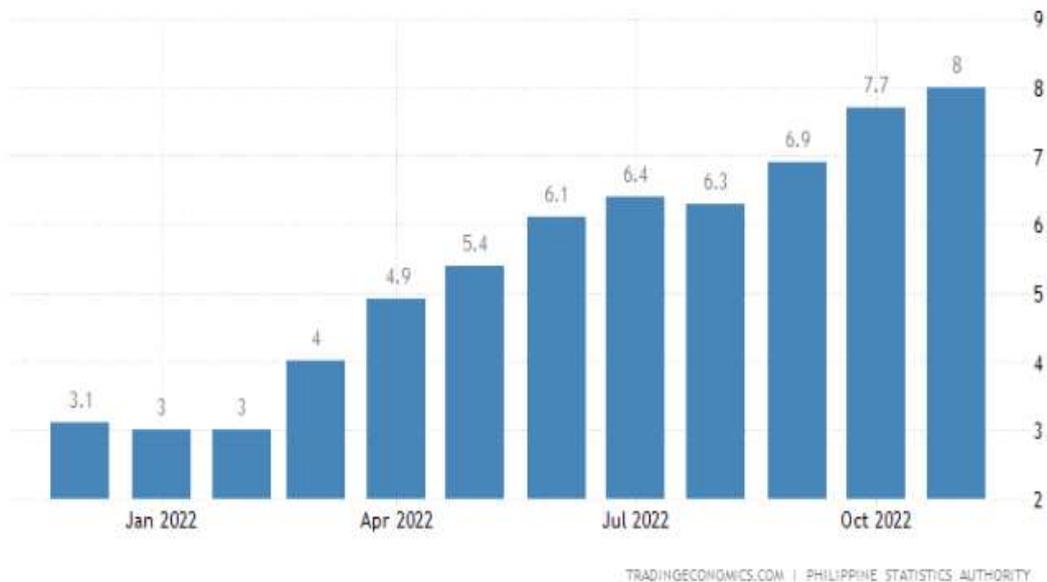
- 높은 경제성장 및 중산층의 성장으로 쌀 소비량은 증가하고 있으나 쌀의 원활한 공급이 뒷받침되지 않아 쌀 가격 폭등의 위험성이 항상 내재하고 있음
- 과거 국제적인 쌀 가격 하락 시기에 자국 농업을 경시하고 수입에 의존하기 시작하였으며, 관개시설 및 수확 기술 수준이 낮아 인근 국가인 베트남과 태국에 비해 쌀 생산성이 매우 낮은 편임

- 쌀값 안정을 위해 쌀 수입 쿼터제(수입 제한)를 쌀 관세화법(수입자유화)으로 변경하였으며, 이에 따라 2019년부터는 물가 안정세로 전환
- 최근 COVID-19의 확산으로 식료품·생활용품 위주의 물가상승이 있었으나, 필리핀 통계청은 교통 분야의 가격이 크게 하락하여 평균 물가상승률은 오히려 전년 대비 낮아지고 있다고 발표

□ 2020-2022 물가상승률(인플레이션율)

- 2022년 1월에는 3%대의 물가상승률이었으나 점차 증가하여 6월에는 6%를 초과했고 2022년 12월 6일 현재 물가상승률은 8%를 보이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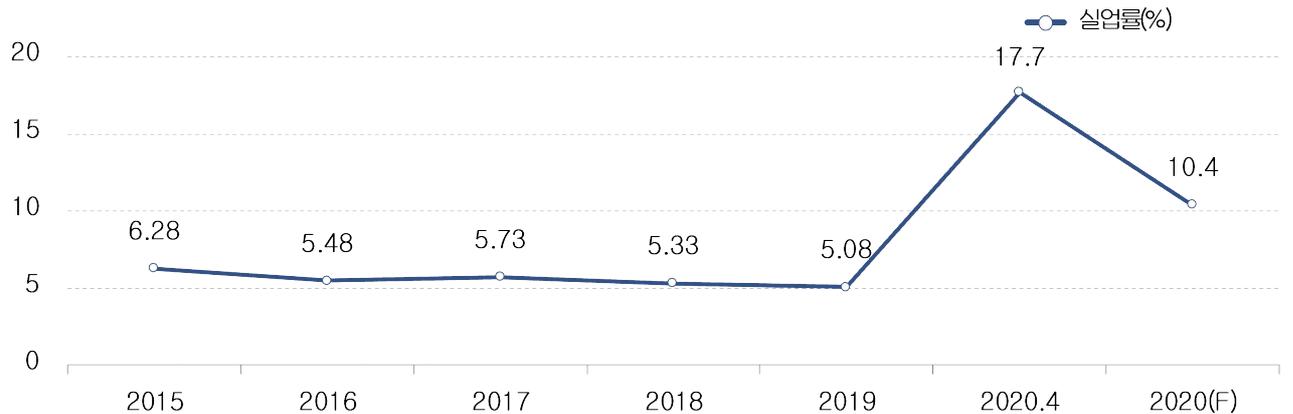
< 2020-2022 물가상승률 >



(출처: Trading Economics, 필리핀 통계청, 2022.12.06.)

- (실업률) COVID-19 영향으로 2020년 실업률은 전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했으며, 해외근로자(OFWs)의 일자리 상실 등 부정적 요소가 다수 존재하여 앞으로 높은 실업률이 계속될 것으로 추정

〈필리핀 실업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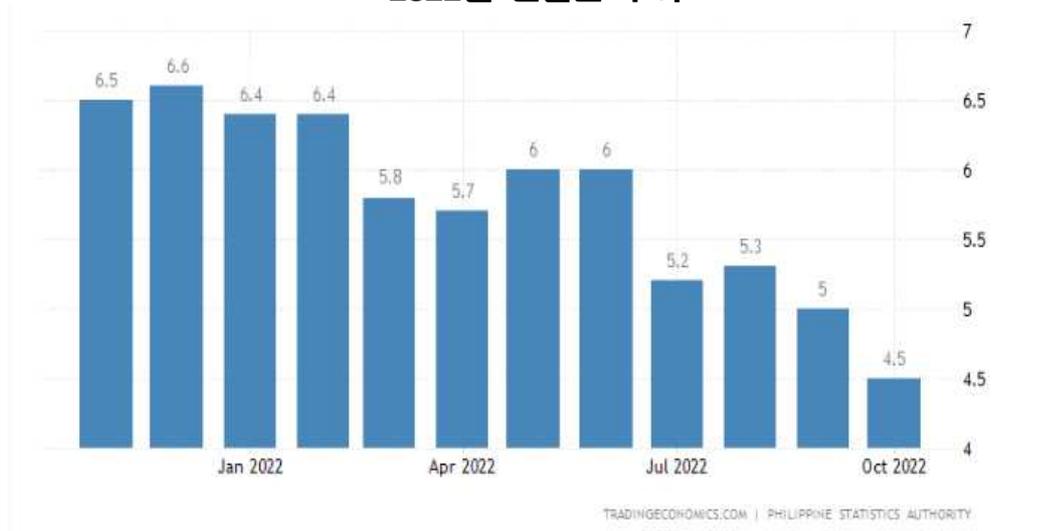
* 출처: IMF, 필리핀 통계청(PSA)

- 필리핀 통계청(PSA)의 발표에 의하면 2020년 4월 기준 필리핀의 실업률은 역대 최고인 17.7%, 약 730만 명으로 집계
 - 이는 태국(15.9%), 말레이시아(6.5%), 인도네시아(5.9%), 싱가포르(4.0%), 및 베트남(3.6%) 등 인근 국가 대비 최고 수준
 - IMF의 세계경제보고서에 따르면, 필리핀의 2020년도 말 기준 실업률은 약 10.4%로 나타남
- 특히 세계 경기 침체로 인한 해외 근로자(OFWs) 복귀 등의 원인으로 저임금 노동자 및 노동집약적 산업 부문에서 실업률이 극심하게 증가할 것으로 보임
 - 향후 고용률 회복에 있어 정부의 재정지원, 노동시장 유연성 정도, 격리 및 봉쇄 조치의 기간과 강도에 따라 2~4년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
 - 필리핀 국외 근로자의 본국 송금액은 내수 경기 활성화를 위한 동력원이었으나, COVID-19 이후 필리핀 국외 근로자가 상당수 필리핀으로 송환
 - 필리핀 고용노동부(DOLE)는 COVID-19로 인해 필리핀 국외 근로자의 해외 송금유입액이 최대 130억 달러(전년 대비 약 40%) 정도 감소할 것으로 전망

□ 2022년 실업률

- 2022년 1월 실업률은 6.5% 수준이었으나 조금씩 낮아져서 2022년 12월7일 현재 4.5%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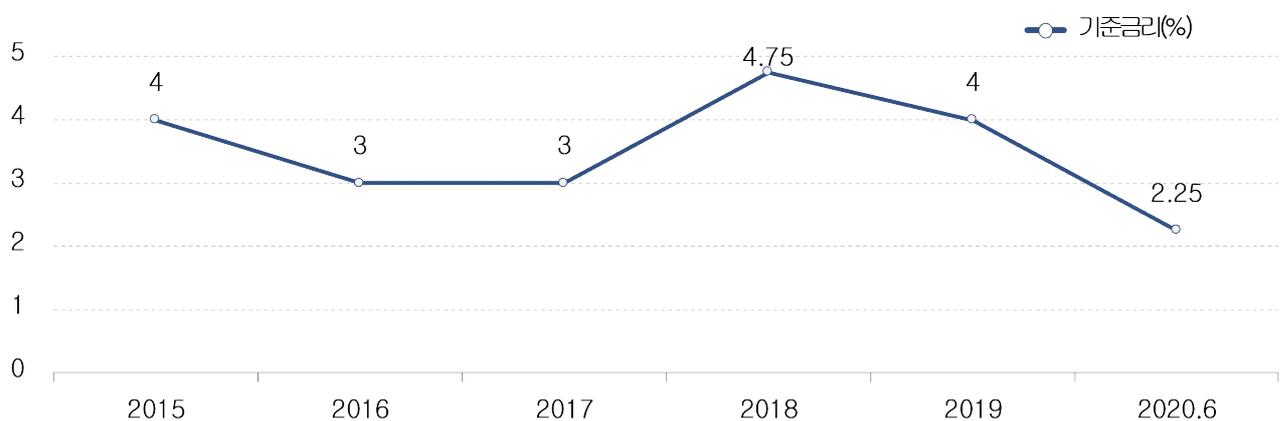
〈2022년 실업률 추이〉



출처: Trading Economics, 필리핀 통계청, 2022.12.07.)

- (금리) 필리핀 중앙은행(BOP)은 경기 활성화를 위해 기준금리를 지속하여 인하해왔으며, COVID-19 이후 경기 부양을 위하여 이러한 기조는 당분간 유지될 것으로 추정

〈필리핀 기준금리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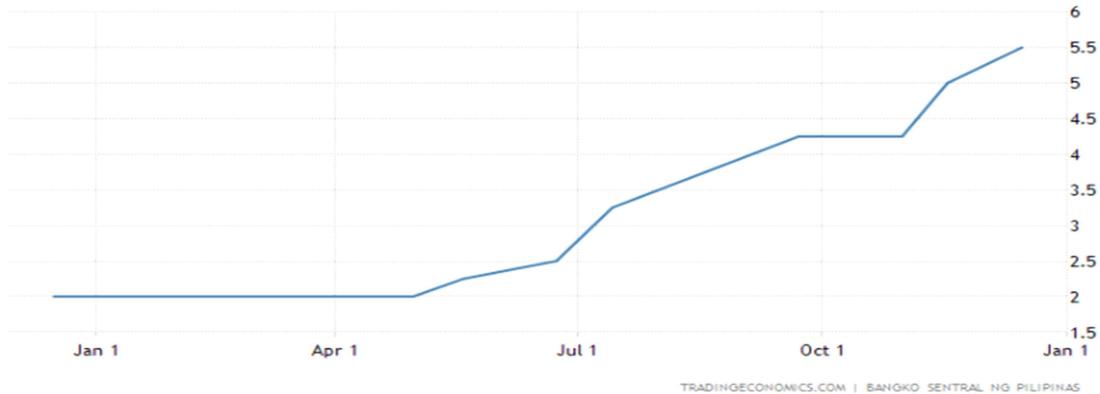


* 출처: 필리핀 중앙은행(Bank of philippiness, BOP)

□ 2022년 기준금리

- 2022년 1월에 기준금리는 2% 였으나 점차 상승하여 2022년 12월 15일 현재 5.5%

〈 2022년 기준금리 추이〉



(출처: Trading Economics, 필리핀 중앙은행, 2022.12.15.)

- (환율) 두테르테 집권 이후의 정치적 불안과 미국 금리 상승 요인이 겹치면서 외국투자자본의 대거 이탈로 환율이 상승(페소화 가치의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다가 최근 COVID-19로 인한 수입 수요 위축으로 환율이 하락하는 추세

- 2020년 9월 ING 그룹의 발표에 따르면 수출 부진과 해외 송금액 감소에도 불구하고 수입 수요 위축이 필리핀의 페소화 강세로 이어졌으며, IMF 2020 세계 경제전망 보고서에서도 필리핀의 경상수지는 GDP의 1.6% 흑자

〈환율(2015.01.~2020.09.)〉

(단위: 페소/달러)



* 출처: 필리핀 중앙은행('20.10)

□ 필리핀 달러페소환율 추이

- 2022년 12월 22일 현재: 1달러=55.31페소

나. 대외거래

- (경상수지) 2020년 10월 현재 경상수지 81억 달러 흑자를 기록하였으며, 수입액 감소가 주요 원인으로 추정
 - 필리핀 중앙은행(BSP)은 현재까지 국가 경상수지가 전년 동기 71억 달러 대비 증가한 81억 달러를 기록했으며, 이는 2020년 GDP의 2.2% 수준으로 예상됨을 발표
 - 그러나 경상수지 흑자가 무조건적 긍정적인 상황이 아니며, 2020년 해외근로자 송금액 및 FDI 총액은 최종적으로는 COVID-19 이전 대비 하락할 것으로 전망됨
 - 필리핀의 주요은행 중 하나인 BPI는 전년 대비 필리핀의 2020년 총 수입액이 약 250억~300억 달러 감소
 - 이와 관련, ING 은행과 ANZ은행은 이번 경상수지 흑자가 수입 물량 경색에 의한 것이기에 지속 가능성이 작으며, 무엇보다 내수 회복이 중요함을 강조
 - 해외 필리핀 노동자(OFW) 근로 국가들이 점차 경제를 재개방하는 추세에 따라 OFWs 송금액이 지난 5월 예상 당시(-5%)보다 회복세(-2%)이나 여전히 COVID-19로 인해 전년 대비 감소가 예상
 - 지난 7월 기준 누적액 38억 달러를 기록한 외국인 직접투자의 경우 이후 41억 달러 기록에 이어 현재 순유입액은 56억 달러 수준으로 점증 추세이나 마찬가지로 전년 대비 감소가 예상
- (무역수지) 2022년 11월 4일 약 48억불 적자였고 12월13일 현재 무역수지는 33억불 적자임. 필리핀 무역수지는 2018년부터 2022년 12월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적자를 보이고 있음
- (외환보유고) 7월 초 기준 필리핀의 외환보유고는 약 933억 달러 수준으로, 향후 COVID-19 대응 등 위기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수준의 외환 유지 중
 - Diokno 필리핀 중앙은행(BSP) 총재는, COVID-19 대응 및 향후 백신 확보에 대비한 견실한 외환보유고가 구축되어 있다고 발표(7.24, Business Mirror)
 - 7월 초 필리핀의 외환보유고는 약 933억 달러 수준이며, 외환보유고 증가 전망에 따라 2020년 말에는 970억 달러 수준에 달할 것으로 나타남
 - 이는 8.4개월간의 재화 수입 및 서비스 비용에 대한 지급을 충당할 수 있는 수준

- 필리핀 정부는 건실한 외환보유고 확보 및 향후 2차 COVID-19에 대비한 재원 유지 필요성을 강조하며 약 70.1억 달러 규모의 외채를 차입
 - 신용평가등급 제고/위험도 저평가에 기반한 저금리 차관 추가 확보가 주요 기조임을 언급
 - 과거 아시아 금융위기 및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달러부족에 따라 필리핀 폐소화가 평가절하된 바 있기에, 이번 대응에서는 달러를 충분히 비축할 계획임을 설명

<필리핀 COVID-19 대응 목적 외채차입 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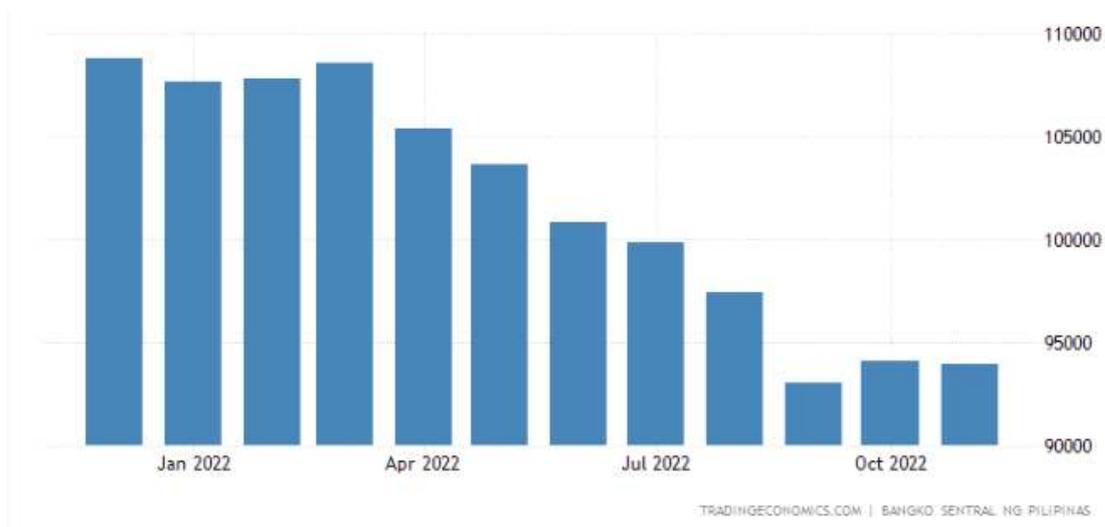
차입처	규모
아시아 개발은행	26.1억 USD
달러표시 국채발행	23.5억 USD
세계은행	13억 USD
아시아인프라 투자은행	7.5억 USD
합계	70.1억 USD

* 출처: 필리핀 재무부('20.6)

□ 최근 2022년 필리핀 외환 보유고

- 2022년 11월 7일 현재 외환보유고는 941억 불이었으며 2022년 11월 말에 806억 불로 보고됨. 이는 2022년 10월에 814억 불에 비해 하락한 기록임

<2022년 외환보유고 추이>



(출처: Trading Economics, 필리핀 중앙은행, 2022. 11. 07. 현재)

다. 외채상환 능력

- (대외 채무) 경제 규모 대비 외채 비율은 안정적인 수준으로 외채상환능력이 양호하며, 미국·EU·일본에 대한 외채 비중이 높음
 - GDP 대비 외채 비율은 2019년 기준 13.7%, 외채 원리금 상환비율은 평균 4~5% 수준
 - 2020년 3월 말 외채발행 현황은 미국 달러화 표시 채권 1.22조 페소, 유로화 표시 채권 1,092억 페소, 일본 엔화 표시 채권 1,163억 페소, 중국 위안화 표시 채권 288.3억 페소, 필리핀 페소화 표시 외채 발행은 1,267억 페소로 확인됨

- 2020년 필리핀 국가채무 증가 동향
 - (총 국가채무) 코로나 19 대응을 위한 차입금 증가, 戰後 최악의 경기침체(-9.5% 경제성장률)와 이로 인한 정부세입 감소 등의 영향으로 2020년 12월말 기준 국가채무(누적)는 총 9.79조 페소(2,037억 미불)로 집계됨
 -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2009년(57.2%) 이후 최고치인 54.5%까지 증가함
 - 총 9.79조 페소 채무액 가운데 국내채무는 6.69조 페소(68.3%), 외채는 3.1조 페소
 - 이는 2020년 11월 사상 최대 규모인 10.13조 페소(2,107억 미불)까지 증가한 이후 페소 강세와 일부 채무액 상환의 영향으로 3.3% 감소한 규모지만, 2019년 12월말 기준 7.73조 페소(1,608억 미불)에 비해 26.7% 증가한 규모
 - 최근 10년간 필리핀의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견실한 경제성장 지속에 힘입어 2011년 이후 지속적으로 50% 미만을 유지하였으며, 2019년에는 39.6% 수준
 - (2020년 신규 차입금) 외환 리스크 완화를 위해 작년 차입금의 상당부분을 국내에서 조달하였는바, 2020년 국내채무는 68.4%(2019년 대비 30.6% 증가), 외채는 31.6%로 집계됨
 - 2020년 11월 기준 국내채무는 단기채(treasury bill) 약 4,653.1억 페소, 중장기채 약 1.37조 페소, 내국채 885.6억 페소 발행 및 필 중앙은행으로부터의 5,400억 페소 규모 단기 차입금으로 구성
 - 2020년 11월 기준 외채는 개발협력목적 차관 329.3억 페소, 원자재 도입차관 3,646.4억 페소, 국외발행 채권 1,860.6억 페소(약 38.7억 미불)로 구성
 - 필리핀 정부는 금년에 총 3.03조 페소(630억 미불) 상당을 신규로 차입할 계획인바, 이는 필리핀의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을 57%로 증가시킬 전망

- 필리핀의 국가 부채 2022년 6월 말 현재 경제의 62%로 완화
 - 하지만 여전히 임계치 수준인 60%를 상회하며, 재정건전성 차원에서 세수증대, 신중한 지출이 요구됨

라. 2022 상반기 경제 동향

- 필리핀 GDP 성장률
 - 2020년 -9.6%에서 2022년 6%로 반등
 - 글로벌 유가상승 및 원자재 공급 악화로 인플레이션 5.3%로 급등
- 필리핀 경제 현황 및 정부의 회복정책
 - 2022년 상반기 필리핀은 정부의 팬데믹 완화 및 경제 활성화 정책에 따라 경제 성장세를 보임
 - 필리핀 정부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최소한의 방역 조치만 유지하며, 기업 및 국민의 경제활동 재개를 지원하고 있음
 - 필리핀 국내총생산(GDP)의 약 70%를 차지하는 루손 지역은 지난 6월 일 평균 코로나19 확진자가 평균 1000명 미만을 유지하고 있음
 - 필리핀 정부는 경제 활성화를 위해 외국인 투자 제한을 완화하였으며 이로 인한 대규모 외국인 투자 유치 및 인프라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 증가할 것으로 전망
 - 외국인 투자 제한 완화에 따른 인프라 지출을 2021년 GDP의 5.8%에서 2022년에도 5.0% 이상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 민간 투자 증가, 외국인 지분 소유 규정 완화, 소매업체의 최소 납입자본금을 낮추는 투자 개혁 조치로 외국인 직접 투자의 순 유입은 2021년 대비 54.2% 증가
 - 아울러 경제 성장에 중요한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디지털, 비즈니스 혁신 및 기술 개발 지원 프로그램을 추진 중이며 Skill Up Net 프로그램을 통해 중소기업 근로자 역량개발 교육을 지원하고 있음
- 필리핀 인플레이션 현황
 - 필리핀 인플레이션은 글로벌 유가 및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2022년 평균 5.3%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됨
 - 특히 유가의 급격한 상승으로 필리핀 정부는 지난 3월 대중교통업체 및 농어민들에게 유류 보조금과 할인권을 지급함

<전년동기대비 소비자물가지수(CPI) 증감률>

(단위: %, 2018=100)

지역	2021년 5월	2022년 4월	2022년 5월	올해 초부터 현재까지*
필리핀	4.1	4.9	5.4	4.1
수도권	2.6	4.4	4.7	3.1
지방 지역	4.5	5.1	5.5	4.3

주*: 22.1~5월 평균 CPI와 '21년 비교

[자료: 필리핀 통계청(PSA)]

<부문별 전년동기대비 소비자물가지수(CPI) 증감률>

(단위: %, 2018=100)

Area/Commodity Group	2021									2022				
	May	Jun	Jul	Aug	Sep	Oct	Nov	Dec	Ave	Jan	Feb	Mar	Apr	May
PHILIPPINES														
ALL ITEMS	4.1	3.7	3.7	4.4	4.2	4.0	3.7	3.1	3.9	3.8	3.6	4.0	4.9	5.4
Food and Non-Alcoholic Beverages	3.5	3.6	3.9	5.5	5.4	3.7	2.2	1.6	4.2	1.7	1.2	2.6	3.8	4.9
Alcoholic Beverages and Tobacco	11.1	10.4	8.3	9.4	9.5	8.7	6.9	6.2	9.7	5.6	4.7	4.8	5.9	6.9
Clothing and Footwear	1.9	1.8	1.9	1.8	1.9	1.9	2.8	1.9	1.8	2.0	1.9	1.9	2.0	2.1
Housing, Water, Electricity, Gas, and Other Fuels	1.7	2.0	2.7	3.4	3.8	4.3	4.8	5.1	2.5	4.5	4.8	6.2	6.9	8.5
Furnishing, Household Equipment and Routine Household Maintenance	2.2	2.2	2.1	2.0	2.2	2.1	2.1	2.1	2.1	2.4	2.3	2.6	2.6	2.5
Health	4.1	3.8	3.9	3.8	3.8	3.7	3.5	3.2	3.8	3.1	2.7	2.5	2.4	2.4
Transport	10.2	10.3	7.1	7.0	5.6	7.6	9.8	6.6	9.3	7.8	8.8	10.3	13.9	14.8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0.6	0.8	0.6	0.6	0.7	0.6	0.4	0.4	0.6	0.7	0.6	0.7	0.7	0.7
Recreation, Sport and Culture	-0.5	-0.5	-0.6	1.1	1.8	1.6	1.6	1.6	0.3	1.5	1.6	1.6	1.6	1.7
Education Services	1.0	1.0	1.0	0.9	0.7	0.7	0.7	0.7	0.9	0.6	0.6	0.6	0.6	0.6
Restaurants and Accommodation Services	3.9	4.2	3.8	4.0	4.0	3.8	3.7	3.2	3.5	3.0	2.9	3.0	2.8	2.8
Financial Services	43.3	43.3	43.3	43.3	43.3	43.3	43.3	43.3	32.1	43.3	43.3	43.3	6.0	6.9
Personal Cars, and Miscellaneous Goods and Services	2.4	2.4	2.3	2.2	2.2	2.1	2.2	2.1	2.3	2.2	2.2	2.2	2.3	2.5

[자료: 필리핀 통계청(PSA)]

- 필리핀 인플레이션은 2022년 4월 4.9%에서 5월 5.4%로 추가 상승하며 2018년 12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
- 2022년 5월 식품 및 무알코올 음료(4.9%), 교통(14.6%) 부문에서 급격한 인플레이션을 보였으며 주류 및 담배(6.8%), 의류(2.1%), 스포츠 및 문화(1.7%), 개인 관리 및 서비스 (2.5%) 상품 부문도 인플레이션 상승세에 기여함
- 반면, 주택관리 비용(6.5%), 가구 및 가전제품(2.5%)은 전월 대비 하락

□ 필리핀 하반기 경제 전망

- 필리핀 경제는 산업 및 서비스 부문 회복 등에 힘입어 2022년 1분기 경제성장률은 8.3%를 기록함
- 외국인 입국 제한 완화에 따른 관광업 및 서비스업 재개, 일자리 확대, 정부 산업별 지원정책 등에 힘입어 추진력을 얻고 있으며 하반기에도 지속해서 회복될 것으로 전망

- 다만, 필리핀은 지속적인 경제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글로벌 공급망 악화 및 급격한 인플레이션으로 연초 대비 경제 성장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음
- 필리핀 중앙은행은 페소 가치를 높이고 인플레이션 완화를 위해 8월 0.5%포인트 금리 인상 계획을 발표하였으며 장기적인 금리 인상을 단행할 것으로 전망됨

□ 시사점

- 필리핀의 지속적인 경제 회복을 위해서는 정부의 지속적인 지출과 지원 정책이 필요한 상황
- 마르코스 대통령의 취임에 맞춰 재정 지출 규모가 확대되면 지금보다 안정적인 경제 현황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 투자 유치, 제조업 발전을 위한 추가적인 규제 완화를 노력하는 한편, 원자재 공급망 악화를 비롯한 인플레이션 압력 상승의 완화를 위한 추가 대비 방안을 계획할 것으로 보임

3 사회 동향

가. 소득 문제

- (소득수준) 1인당 국민소득 증가, 빈곤율 및 지니계수의 감소 등 소득 지표가 개선되고 있으나 절대적인 소득수준이 높지 않으며, 최근 COVID-19의 영향으로 소득수준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
 - 세계은행 2020년 7월 발표자료에 따르면 필리핀의 1인당 국민소득은 2019년 기준 3,850달러로 중·저소득국가에 해당
 - * 중저소득국가 소득 기준(1인당 GNI, 2020년 7월) : 4,046달러 이하
 - 필리핀 통계청의 2018년 발표(3년마다 발표)에 따르면 필리핀 빈곤 인구는 전체의 16% 이상
 - 필리핀의 국가 빈곤선을 밑도는 인구비율은 2015년 21.6%에서 2018년 16.6%로 감소하였으나 2018년 기준 베트남 6.7%, 태국 9.9% 등 인근 주요 동남아 국가대비 여전히 빈곤율이 높은 수준
 - 2021년 1인당 GDP

〈1인당 GDP 변화 추이〉

(단위 : 달러)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1인당 GDP	3167.5	3338.44	3500.93	3664.79	3271.65	3412.59

(자료: 세계은행, Trading Economics, 2022)

나. 노동 문제

- (근로 환경) 계약직 고용에 대한 부정적인 관행으로 사회적 이슈 존재
 - 필리핀에서는 근로자의 정규직화를 피하려 수습 기간 내인 5개월 차에 근로자를 해고 후 다시 비정규직으로 고용하는 계약직 관행(ENDO)이 만연한 상황
 - 필리핀 노동법에 의거 계약서에 별도로 명시하지 않는 이상 수습 6개월 고용 시 정규직으로 전환을 해주어야 하며, 정규직으로 고용되는 경우 초과근무 수당, 유급 공휴일, 연말 상여, 퇴직금 수령 등의 권리를 보장하여야 함
 - 매년 5월 1일 근로자 날에 대규모 시위를 진행하는 등 사회적 문제가 있음

- (최저임금) 일일 최저임금 수준이 최대 12,000원으로 높지 않은 편이며, 지역 간 최대 2배 가까이 격차가 벌어짐
- 필리핀의 임금 생산성 위원회(NWPC*)는 2020년 10월 지역별 일일 최저임금을 발표
 - * NWPC는 임금, 소득 및 생산성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 대통령과 의회의 고문 역할을 하는 기구로 정책 및 지침을 수립과 기초 연구 등을 수행함.

<필리핀 지역별 일일 최저임금>

(단위: 페소)

지역	발효일	비농업	농업	
			플랜테이션	비 플랜테이션
NCR	11.22, 2018	500.00 - 537.00	500.00	500
CAR	11.18, 2019	340.00 - 350.00	340.00 - 350.00	340.00 - 350.00
Region I	04.30, 2019	282.00 - 340.00	295.00	282.00
Region II	03.16, 2020	370.00	345.00	345.00
Region III	01.01, 2020	369.00-420.00	354.00-390.00	342.00-374.00
Region IV-A	04.28, 2018	317.00 - 400.00	303.00 - 372.00	303.00 - 372.00
Region IV-B	11.27, 2018	294.00 - 320.00	294.00 - 320.00	294.00 - 320.00
Region V	09.21, 2018	310.00	310.00	310.00
Region VI	11.26, 2019	310.00 - 395.00	315.00	315.00
Region VII	01.05, 2020	356.00-404.00	351.00-394.00	351.00-394.00
Region VIII	08.18, 2019	325.00	295.00	295.00
Region IX	07.30, 2018	316.00	303.00	303.00
Region X	11.01, 2018	343.00 - 365.00	331.00 - 353.00	331.00 - 353.00
Region XI	08.16, 2018	396.00	391.00	391.00
Region XII	02.02, 2020	336.00	315.00	315.00
CARAGA	05.01, 2019	320.00	320.00	320.00
BARMM	01.01, 2020	300.00 - 325.00	290.00 - 300.00	290.00 - 300.00

* 출처: NWPC('20.10)

<1일 최저임금 변화 추이>

년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1일 최저임금 (단위: 페소/일)	491	512	537	537	537	537	570

(자료: 세계은행, Trading Economics, 2022.06.)

다. 안전 및 기타 문제

- (질병 문제) Dengue 및 COVID-19의 확산으로 다수의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으며 국가적인 대응이 이루어지고 있음
 - 세계보건기구(WHO) 발표에 따르면 필리핀에서 발생한 Dengue 환자는 2019년 420,453명으로 2018년 대비 94%가 증가하는 등 최근 환자 수가 급증하고 있으며 연간 사망자는 1,000명 내외 수준
 - Dengue는 WHO가 발표한 '2019년' 세계 10대 건강 위협에 선정될 정도로 치명적인 질병이며, 모기를 통해 Dengue 바이러스 감염으로 나타나는 급성열성 질환의 한 종류
 - 2019년 8월 필리핀 보건당국은 Dengue를 국가 전염병으로 선포하였으며, 모기 서식지 박멸 등 국가적인 대응을 실행
 - 2020년 COVID-19의 확산으로 현재까지 7천 명이 넘는 사망자가 나왔으며, 확산세가 계속되고 있음
 - 2020년 10월 현재 외교비자 소지자, 필리핀 영주권자 등 일부 대상을 제외한 모든 외국인의 필리핀 입국이 제한되는 상황
 - 입국 후에도 필리핀 검역국 지정 격리시설에서 대기 및 검사를 진행하여야 하는 등 COVID-19에 대한 엄격한 대응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음
 - WHO(세계보건기구)에 의하면 2020년 11월 16일 기준 확진자 407,838명, 사망자 7,832명으로 집계되고 있으며, 8월 이후 매주 만 명 이상의 확진자가 발생하는 추세

- (마약 문제) 필리핀의 마약 문제는 매우 심각한 수준으로 두테르테 대통령은 2016년 7월 1일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엄중한 대처를 실행
 - 두테르테 대통령은 “마약범은 죽여도 좋다”, “마약 밀수범을 사살하라”라고 발언하였고, 필리핀에서는 마약 밀매 연루자를 사실상 초법적 처형 실시
 - 필리핀 경찰청은 2020년 7월 말까지 약 6,000명이 마약 밀매와 연루되어 사망했다고 발표
 - 하지만 유엔 인권사무소는 약 8,700명, 국제인권단체는 약 3만 명이 사망한 것으로 추정

- (종교 문제) 필리핀 국민의 대다수는 가톨릭 신자이나 남부 민다나오 지역의 이슬람 세력으로 인해 발생하는 종교 분쟁이 존재
 - 필리핀의 종교는 가톨릭 83%, 개신교 9%, 이슬람교 5%, 불교 및 기타 3%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독교 문화권은 루손섬을 중심으로 전국적으로 분포하고 있으며, 이슬람교는 민다나오섬 이슬람 자치구를 중심으로 분포
 - 1990년 11월 아키노 대통령이 공화국법 6734호에 서명함에 따라 이슬람 민다나오 자치구가 공식적으로 출범하였으며 이슬람 신자는 대부분 이슬람 자치구에 거주하고 있음(민다나오 섬의 다른 지역은 기독교 신자가 대부분)
 - 민다나오섬의 이슬람세력은 궁극적으로 기독교 문화와 분리된 독립 국가 건설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현재까지 반군 조직을 통한 무장 투쟁을 이어가고 있음
 - 과거 스페인의 필리핀 점령 시 기존 이슬람세력을 남부 민다나오로 몰아내고 기독교 문화를 정착시켰으며, 가톨릭 문화에 대한 이슬람의 반감이 큼
 - 이슬람세력 내에서도 온건파(모로 민족해방전선)와 강경파(아부 사야프)로 나뉘며, 온건파는 정부를 표적으로 무장 투쟁을 진행하지만, 강경파는 민간인까지 포함하여 테러 등을 감행하고 있어 문제가 심각한 상황
 - 강경파의 경우 최근 극단주의 무장세력 이슬람국가인 IS와 연계하여 테러를 모의하다가 마닐라에서 군경에 의해 사살된 사례도 있음(2020년 6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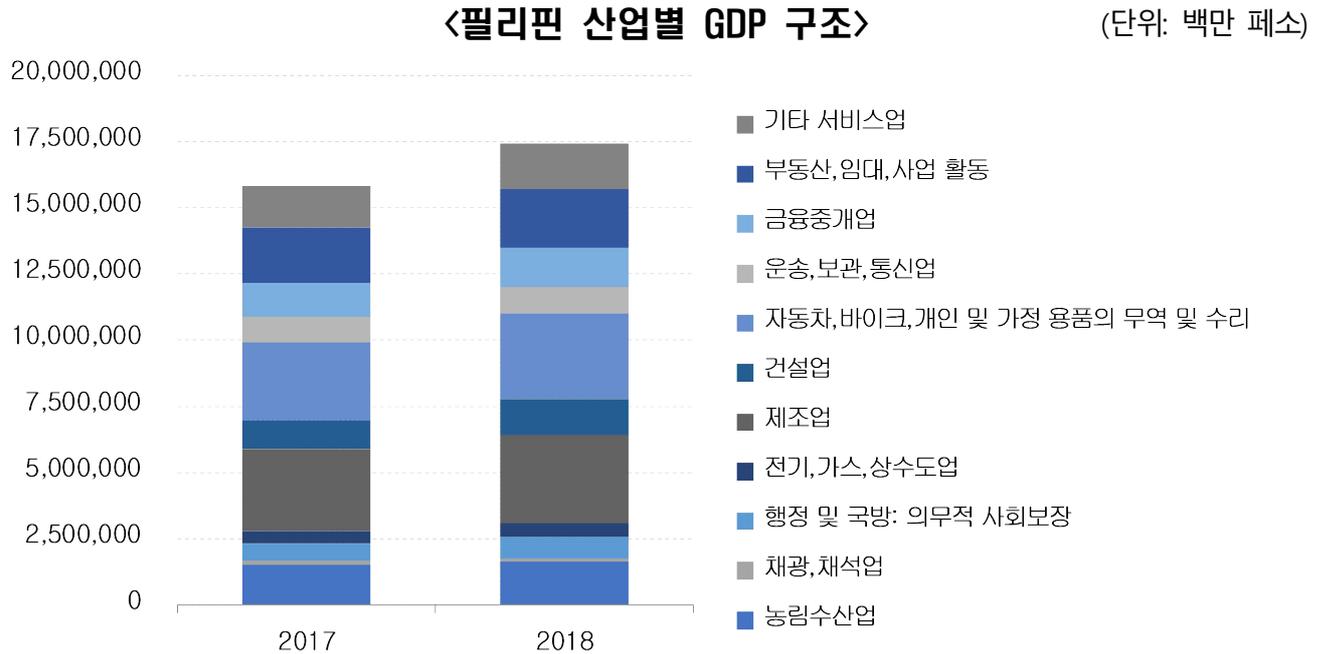
- (치안 문제) 두테르테 취임 이후 경찰 부패는 감소하는 추세이나 여전히 치안은 불안하며 이슬람·공산당 반군의 활동이 계속되는 상황
 - 부정부패와 치안불안은 필리핀의 가장 큰 사회 문제점으로 꼽히며 이로 인해 상업 활동 및 투자가 위축될 수밖에 없었으나, 두테르테 대통령 취임 후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음
 - 필리핀은 15만 폐소(한화 약 360만 원)면 청부살인업자를 고용하여 살인을 저지를 수 있음
 - 실제로 전국적으로 연간 1만 건 이상의 총기로 인한 강력 범죄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부패한 경찰은 직접 살인, 납치, 마약 등에 연루되어 수사는 매우 형식적인 수준에 불과

- 관광객이 자주 찾는 수빅, 세부 막탄섬, 보홀섬, 보라카이섬 등을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치안이 불안하며 특히 민다나오섬, 술루, 바실란 지역은 테러 및 범죄단체의 활동이 매우 활발
 - 두테르테 대통령은 2016년 6월 취임하자마자 부정부패와 흉악범죄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목표로 정책을 시행하였음
 - 현재까지 다수의 부패 경찰 검거 및 마약범 자수 등의 결과를 이루어내었고, 취임 후 3년간 범죄율은 이전과 비교하면 평균 22% 감소
- 남부지역인 민다나오섬 등을 중심으로 이슬람·공산 테러 세력이 활동하고 있으며, 2019년 12월부 한국 외교부 발표에 따르면 민다나오섬의 경우 모든 지역이 적색경보(철수 권고)와 흑색 경보(여행 금지)에 해당
- 대표적인 이슬람 반군은 모로 민족해방전선, 모로 이슬람 해방 전선, 아부 사야프 그룹 등
 - 필리핀 내 납치·폭탄 테러를 자행하고 있으며, 최근(2020년 8월) 필리핀 남부 술루주 홀로섬에서 발생한 연쇄 폭탄 테러의 용의자로 이슬람 테러세력이 지목
 - 공산 반군은 필리핀 공산당의 무장조직으로 1969년부터 정부에 대한 무장 투쟁을 진행하였으며, 20세기에는 수도 게릴라 작전 등 정부 전복 활동을 활발히 전개하였으나 최근에는 COVID-19 이슈로 인해 잠정적 휴전 상태

4 산업 동향

가. 산업 구조

- (기본 구조) 필리핀의 서비스업은 전체 GDP의 절반 이상의 비중이며, 최근 건설, 제조업의 규모 또한 증가하는 추세임



* 출처: 필리핀 통계청('20.7) philippines Statistical Yearbook 2019

□ 2021년 필리핀 산업 개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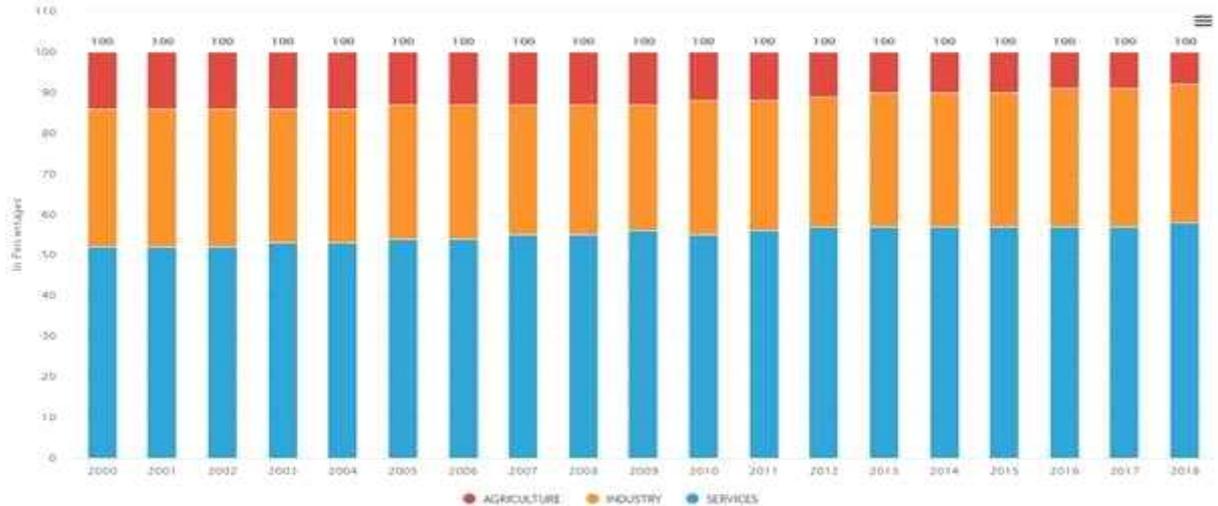
○ 산업구조

- 2000년대 이후 필리핀은 서비스업의 국내총생산(GDP) 비중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국가로 관광 및 레저, 숙박, IT-BPO(콜센터)* 등을 기반으로 하고 있음

* 업무처리 일부 과정을 외부 IT 서비스 업체에 맡겨 기업 가치를 창출하는 아웃소싱 방식

- 반면, 농업의 경우 2000년도 이후 지속적으로 GDP 기여도가 감소하고 있으며, 제조업이 취약한 특성을 갖고 있어 서비스 산업에 의존도가 높은 것이 문제로 제기되고 있음
- 실제로, 서비스 산업 부흥에 힘입어 코로나19 이전 연평균 6%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했던 필리핀은 2020년 코로나19로 인해 서비스업이 마비되자 -9.5%의 경제성장률을 기록

〈필리핀의 산업별 GDP 기여도 추이〉



* 적색(농업), 주황색(산업), 하늘색(서비스)

자료: 필리핀 통상산업부(DTI), 필리핀 투자청(BOI)

○ 2020년 기준 필리핀의 업종별 총 부가가치 비중은 다음과 같음

- 1. 도소매업, 자동차 수리, 개인 및 생활용품, 호텔 및 레스토랑, 교통, 창고 및 통신업(27.9%)
- 2. 광업 및 채석, 제조업, 전기, 가스 및 수도 공급(23.3%)
- 3. 금융 중개업, 부동산, 렌트 및 기업 활동(17.3%)
- 4. 공공 행정 및 방위, 교육, 보건, 사회 및 개인 서비스 활동(13.9%)
- 5. 농업, 수렵, 임업 및 어업(9.9%), 건축(7.5%)

〈2020년 기준 필리핀의 업종별 총부가가치 비중〉

(Gross Value Added by Sector in the Philippines: 2020)



자료: 유로모니터

□ 산업정책

○ 서비스업 부흥 정책

- 필리핀 통상산업부가 주도하여 추진하는 정책으로, 서비스업의 기존 역량을 재구축하고, 비교우위에 기반한 경쟁력을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핵심 목표는 고부가가치 및 글로벌 밸류체인에 편입될 수 있도록 국내 서비스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으로, 단기(2014-2017), 중기(2018-2021), 장기(2022-2025)의 목표를 가지고 있음
- 서비스업 부흥 정책은 필리핀 내 주요 서비스 업종인 IT-BPM을 기반으로 설정
- 인적자원 개발을 통해 필리핀을 동남아시아의 서비스업 허브로 발전시킴과 동시에 제조업과 연계하여 고용 창출 증가시키는 것을 목표로 함
- 필리핀 정부는 서비스업 육성을 위해 총 3단계로 구분, 부흥 정책을 펼치고 있음

○ 1단계 (2014~2017)

- 노동 집약적 부문 발전(관광, 건축, 선박 수리, 항공기 정비 등)
- 인프라 투자 가속
- IT-BPM 분야로의 글로벌가치사슬(GVC) 이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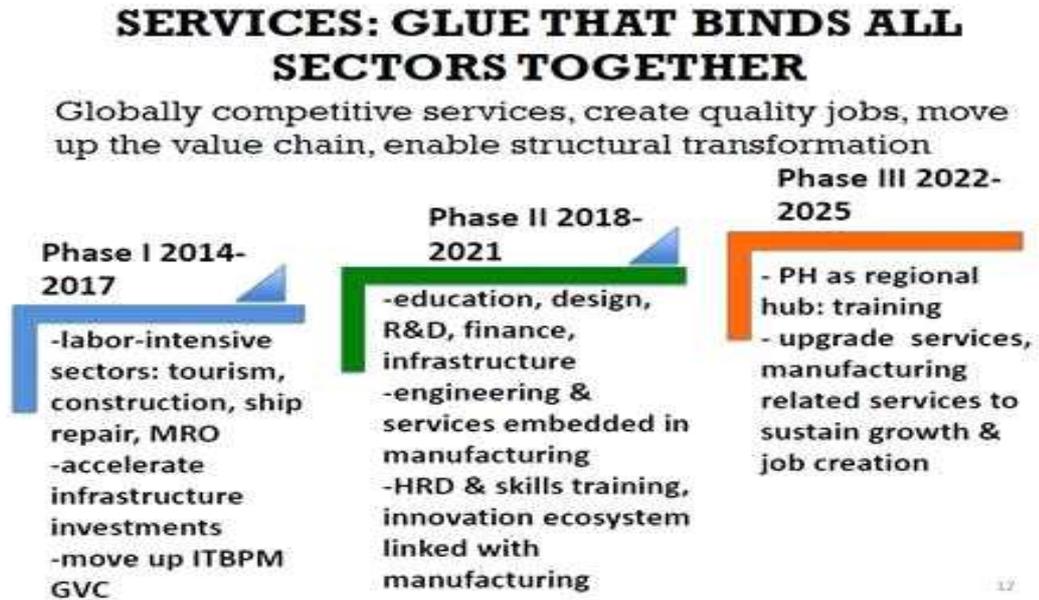
○ 2단계 (2018~2021)

- 교육, 디자인, 연구 및 개발(R&D), 금융, 인프라 개발
- 제조업 내 엔지니어링 및 서비스 내재
- 제조업과 연계된 인적자원개발 및 산업 혁신

○ 3단계 (2022~2055)

- 필리핀을 동남아시아 지역의 교육 허브로 육성
- 지속적인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서비스 및 제조업 관련 서비스 개선

〈 단계별 서비스업 부흥 계획 〉



*주: <http://industry.gov.ph/category/services/>

자료: 필리핀 통상산업부(DTI), 필리핀 투자청(BOI)

○ 제조업 부흥 정책

- 핵심 목표는 고부가가치 및 아세안에 기반한 생산 네트워크 및 글로벌 밸류체인에 편입될 수 있도록 국내 제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으로, 단기(2014-2017), 중기(2018-2021), 장기(2022-2025)의 목표를 가지고 있음
- 제조업 부흥 정책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농업기반 제조업을 제조업 부문의 포괄적 성장에 중요한 동력으로 인식하고 있어서, 소상공인 및 농업협동조합 지원, 마케팅 및 금융조달을 위한 대기업과 협업 등을 위한 지원을 제공
- 동 정책은 또한, 2020년까지 국가총생산(GDP)의 30%까지 제조업 비중을 늘리고, 전체 고용의 15% 수준까지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함
- 필리핀 정부는 제조업 육성을 위해 총 3단계로 구분, 부흥 정책을 펼치고 있음

○ 1단계 (2014~2017)

- 필리핀이 우위에 있는 산업의 경쟁력 유지
- 신흥 산업 강화
- 기존 산업의 역량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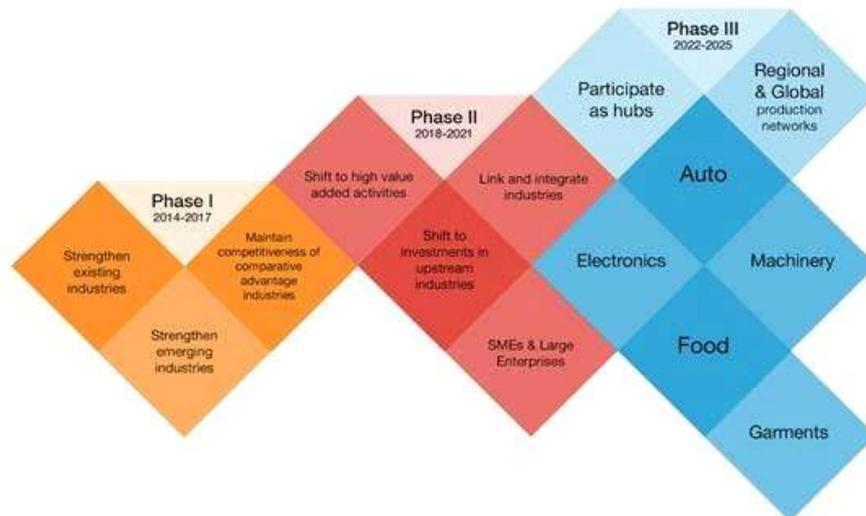
○ 2단계 (2018~2021)

- 고부가가치 활동으로의 전환
- 제조업 핵심 부문에 대한 투자 확대
- 제조업과 농업 및 서비스 산업의 연계 및 통합
- 혁신적인 제조업 생태계 조성

○ 3단계 (2022~2025)

-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및 혁신적 제조 산업 유지를 위한 지속적인 기술 부문 투자

<단계별 제조업 부흥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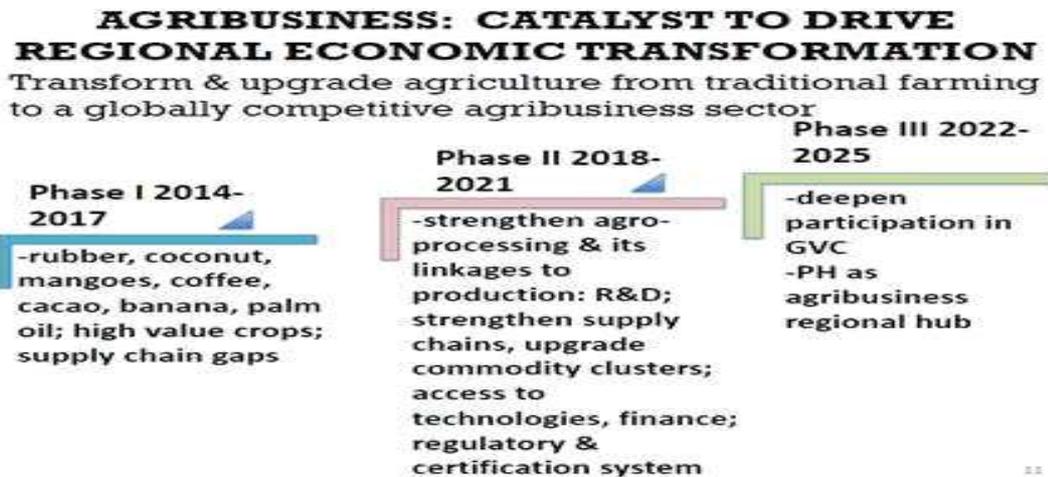
*주: <http://industry.gov.ph/category/manufacturing/>
자료: 필리핀 통상산업부(DTI), 필리핀 투자청(BOI)

○ 농업 부흥 정책

- 농업의 기존 역량을 재구축하고, 새로운 역량을 강화하며, 비교우위에 기반한 경쟁력을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핵심 목표는 자국 내 지속 가능한 식량 생산 및 고부가가치 작물* 생산을 통한 국내 농업 경쟁력 강화로 단기, 중기, 장기의 목표를 가지고 있음
- * 고무, 바나나, 카카오, 코코넛 오일, 망고, 커피 등
- 필리핀 정부는 농업 육성을 위해 총 3단계로 구분, 부흥 정책을 펼치고 있음

- 1단계 (2014~2017)
 - 역내 경쟁력을 갖춘 고부가가치 작물의 생산성 향상
 - 신흥 고부가가치 작물의 생산성 강화
- 2단계 (2018~2021)
 - 생산(농업) 및 가공(제조업)의 연계성 강화
 - 공급망 및 제품 강화
- 3단계 (2022~2025)
 - 글로벌 가치사슬 내 참여 강화

〈단계별 농업 부흥 계획〉



*주: <http://industry.gov.ph/category/agribusiness/>
 자료: 필리핀 통상산업부(DTI), 필리핀 투자청(BOI)

□ 규제정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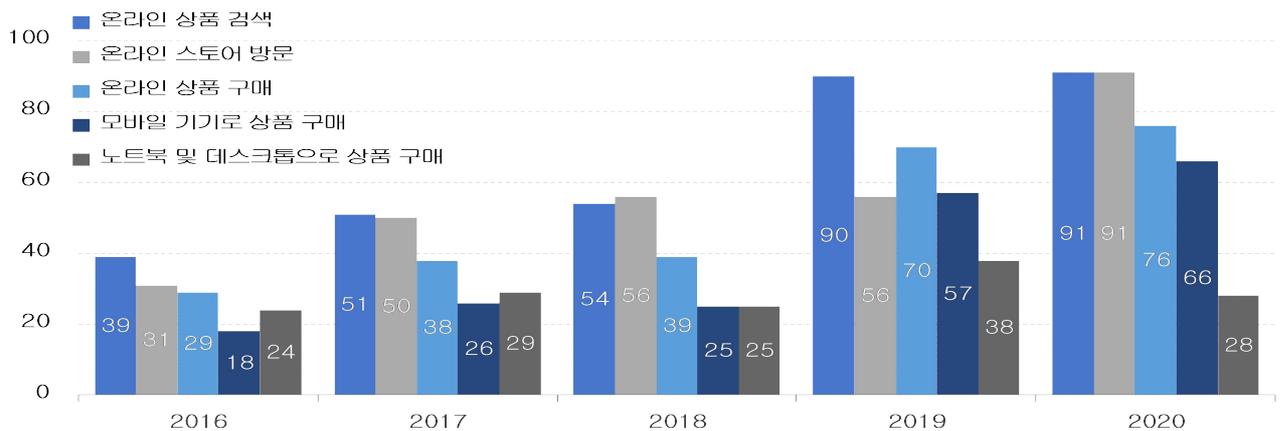
- 자동차 완성차 수입규제
 - 자동차 개발계획(MVDP)에 따라 완성차 수입관세율은 비농업제품 중 최고인 최대 30%를 적용함
 - 단, 한국의 경우 한-아세안 FTA(AKFTA)에 따라 한국산 차량의 관세율은 2012년 20%, 2016년 5%까지 인하됨
 - 차량부품에는 0~1%의 수입관세가 부과되고 있으며, 중고차 및 중고 자동차 부품에 대한 수입금지 등 자동차 산업 보호를 위해 다양한 규제를 시행하고 있음

- 농업 부문 민감품목에 한해 수입규제
 - 필리핀은 민감품목에 대해서는 최소 시장 접근 물량 (MAV) 정책에 의거한 쿼터 내 관세율을 부과함
 - 설탕(사탕수수)에 가장 높은 50-65%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쌀은 35%~40%, 가공류 식품, 감자, 옥수수도 관세율이 40%에 달할 뿐만 아니라 마늘, 양배추, 고구마, 돼지고기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농·축산물이 대상

□ (서비스업) BPO 산업 및 전자상거래 산업 활성화 등이 주요 요인

- BPO 산업은 전체 GDP의 1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필리핀 경제의 중심
 - 세계은행(World Bank)은 필리핀 정부의 서비스 산업과 인재의 고도화를 지원하도록 권장하고 있는데, 이는 필리핀의 미래 성장 동력이 기술 변화에 따라 국경을 넘나드는 고부가가치 서비스 분야에 있다고 판단
- 필리핀은 2019년 전자상거래 매출 증가 부문에서 2018년 대비 31.0% 성장으로 전 세계 3위를 차지(한국은 18.1% 성장으로 세계 10위를 기록)
 - 필리핀인들이 현금 결제 방식을 선호하지만, 전자상거래 이용률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

〈필리핀 인터넷 사용자 전자상거래 이용 비중 : 매년 1월 기준〉 (단위: %)



* 출처: 'Digital 2020: The philippiness'

- (제조업) 제조업의 GDP 규모는 2017년 대비 2018년에 약 8% 성장하였으며, 현지 진출 다국적 기업이 원재료나 반제품을 가공, 제조해 완제품을 수출하는 가공무역의 비중이 높음
 - KOTRA에 따르면, 제조업, 건설업, 자동차·오토바이·개인 및 가정용품의 무역과 수리가 2018년 필리핀 경제 성장의 주요 동력

□ (기타) 농업은 코코넛, 바나나, 파인애플 생산 및 수출이 주를 이룸

나. 산업 정책

- (육성 정책) 제조업 부흥 프로그램 등 정부 차원에서 국가적 유망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
 - 제조업 부흥 프로그램(MRP)은 필리핀 통상산업부(DTI)가 주도하여 추진하는 정책
 - 핵심 목표는 고부가가치 생산 네트워크 및 제조업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으로 농업기반 제조업에 집중적으로 투자

〈제조업 부흥 프로그램(MRP) 단계별 목표〉

Phase	Period	목표
I	2014 ~ 2017	- 기존 산업 역량 재건, 신흥 산업 강화, 비교우위 산업 경쟁력 유지
II	2018 ~ 2021	- 고부가가치 활동으로의 전환, 업스트림 산업에 대한 투자 - 산업간 연결 및 통합 -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의 상호 연계
III	2022 ~ 2025	- 지역 /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 참여 강화 - 자동차, 전자, 기계, 의류, 식품 산업의 허브 역할 목표

* 출처: 필리핀 통상산업부(DTI)

- 2017년, 두테르테 정부는 CNIS 프레임워크*를 업그레이드해서 포용적, 혁신적 산업정책(i3s 또는 I-cube, Inclusive, Innovation-led Industrial Strategy) 정책을 발표했는데, 4차 산업을 핵심 육성 산업으로 포함한 점이 큰 특징임

* CNIS 프레임워크: 포괄적 국가산업전략 프레임워크(Comprehensive National Industrial Strategy Framework)로 농업, 서비스 부문을 제조업과 연결하고 통합하기 위한 정책

〈필리핀 I3s 12가지 주요 육성 산업〉



* 출처: 필리핀 통상산업부(DTI)

다. COVID-19 영향

- (관광업) 필리핀 관광부(DOT)의 발표에 따르면 2020년 1월부터 7월까지의 외국인 여행객은 130만 명으로, 전년 동기간 대비 73% 감소한 수치
 - 필리핀 외국인 관광객 수는 2018년 710만 명, 2019년 820만 명으로 관광 산업은 전체 GDP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산업이며, 다수의 관광 산업 종사자들이 COVID-19의 영향으로 피해당한 상황
 - 필리핀 관광부에서는 지난 3월 중순부터 수입이 없는 관광 산업 종사자에 대한 저금리 자금 지원 등 재정지원 조치

- (BPO 산업) 메트로 마닐라 봉쇄 등의 조치로 가장 큰 타격을 입었으며, 많은 인원이 휴직으로 무임금 상황에 놓여 있음
 - COVID-19에 취약한 근무 환경 등의 사유로 재택근무 등의 조치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으며, 대부분의 BPO 종사자들이 개인 노트북을 구매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실질적으로 재택근무를 지속할 여건이 안되어 휴직으로 전환
 - 필리핀 노동고용부(DOLE)에 따르면, 2020년 4월 기준 약 7만 5천 명의 근로자가 재택근무 대상자

- (전자상거래 산업) COVID-19로 인해 전자상거래 시장은 계속 활성화되는 추세
 - 대부분의 필리핀 사람들이 계속되는 지역사회 격리 기간 동안 음식, 제품 등을 인터넷으로 주문하고 있으며, 식당, 쇼핑몰과 같은 오프라인 서비스 시설의 이용은 2020년 1~2월보다 3~4월에 무려 82% 감소

- (제조업) 사회적 격리 조치 등으로 생필품과 의료용품 생산 및 가공을 제외한 일반 제조업의 경우 근로자의 절반까지만 출근을 제한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음

III. 사업 여건

1 인프라 여건

가. 기본 개요

- (인프라 경쟁력) 필리핀의 수송 및 유틸리티 인프라는 인근 국가와 비교하여 경쟁력이 떨어지는 상황이며, 특히 도로, 철도, 전력, 수도 인프라 등에서 낮은 순위를 기록
 - 세계경제포럼(WEF)이 발표한 글로벌경쟁력보고서2019에 따르면, 필리핀의 인프라 경쟁력은 조사 대상 141개국 중 96위로 하위권에 해당
 - 141개국 중 수송 인프라는 102위, 유틸리티 인프라는 96위를 기록하였으며, 일부 항목에서는 100위권 밖의 순위를 기록하는 등 전반적인 인프라 경쟁력이 매우 낮은 수준으로 확인됨
 - 항공 연결 26위, 항만 연결 59위 등 교통 허브 관점의 순위는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
 - 필리핀 정부는 수송 인프라 부족이 외국자본의 투자를 저해하는 요인 중 하나로 판단하고 있음
 - 국내외 물류 환경을 개선하고자 자국 내 수송 인프라 제고에 노력하여 현재 다양한 수송 인프라 프로젝트들이 다자간 개발은행의 자금 및 PPP 방식을 통해 추진

〈아세안국가 인프라 경쟁력〉

국가	점수	순위(141개 국가 중)
싱가포르	95.4	1
말레이시아	78	35
태국	67.8	71
인도네시아	67.7	72
베트남	65.9	77
필리핀	57.8	96

* 출처 :World Economic Forum('19.9), Global Competitiveness Report 2019

〈필리핀 인프라 분야 경쟁력〉

구분	값	점수	순위(141개 국가 중)
수송 인프라	-	41.5 ↑	102
도로 연결	51.6 / 100	51.6 ↑	125
도로 인프라 품질	3.7 / 7	44.8 ↑	88
철도 밀집도	1.7km / 1,000km ²	4.3 ↑	91
기차 서비스 효율성	2.4 / 7	23.0 ↓	88
공항 연결	306,152.8(score)	82.6 -	26
항공 수송 서비스 효율성	4.1 / 7	52.3 ↑	96
항만 연결	29.0 / 100	29.0 ↑	59
항만 서비스 효율성	3.7 / 7	44.7 ↑	88
유틸리티 인프라	-	74.1 ↓	96
전력 접근 비율	88.3 / 100	88.3 ↓	103
전력 공급 품질	9.1 / 100	94.7 ↓	53
비위생 식수 노출	49.0 / 100	52.0 ↓	105
수도 공급 안정성	4.7 / 7	61.5 ↓	77

주) 점수는 100점을 기준으로 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최적의 상황(Frontier)을 나타냄

주) 점수 옆 화살표는 전년 점수 대비 상승/동일/하락을 나타냄

* 출처: World Economic Forum(19.9), Global Competitiveness Report 2019

나. 운송 인프라

- (도로·다리 분야) 필리핀의 도로는 고속도로, 국도, 지방도로 구분되며, 도로·다리 인프라 현황의 경우 개선되고는 있지만, 아직 미흡한 상태임
 - 필리핀의 고속도로(Expressway)*는 메트로 마닐라가 있는 루손섬을 중심으로 설치되어 있으며, 14개 총 길이 약 500km임
 - * 일반적으로 접근이 제한되며, 인터체인지 및 통행료 부과 시설을 포함하는 도로를 의미
 - 대부분 민자 고속도로로 운영 주체가 민간업체이며 주요 운영자는 NLEX Corporation, Private Infra Dev Corporation, CAVITEX Infrastructure Corporation 등이 있음
 - 필리핀의 고속도로 길이는 대한민국의 10.5% 수준(면적은 한반도의 1.5배 이상, 대한민국의 3배 이상)

〈필리핀 고속도로 현황〉

번호	이름	길이(km)
E1	Subic-Clark-Tarlac Expressway (SCTEx)	93.8
E1	Tarlac-Pangasinan-La Union Expressway (TPLEx)	89.21
E1	North Luzon Expressway (NLEx)	84
E2	South Luzon Expressway (SLEx)	51
E2	Southern Tagalog Arterial Road (STAR Tollway)	42
E2	Skyway/Metro Manila Skyway System (MMSWS)	40.84
E2	Muntinlupa-Cavite Expressway (MCX)	4
E3	Manila-Cavite Expressway (Costal Road/CAVITEx)	14
E4	Subic-Tipo Expressway (NLEx Segment 7/STE)	8.8
E5	NLEx-Harbor Ling (NLEx Segement 10)	8.25
E5	NLEx-Mindanao Avenue Ling (NLEx Segment 8.1)	2.7
E5	NLEx-Karuhatan Link (NLEx Segment 9)	2.4
E6	NAIA Expressway (NAIAEx)	11.6
-	Cavite-Laguna Expressway (CALAx)	47

- 2019년 기준, 필리핀의 총 국도(National Road)의 길이는 33,018km로 대부분 포장도로에 해당하나 현재까지는 인프라 성장률이 미미한 수준

〈필리핀 국도 분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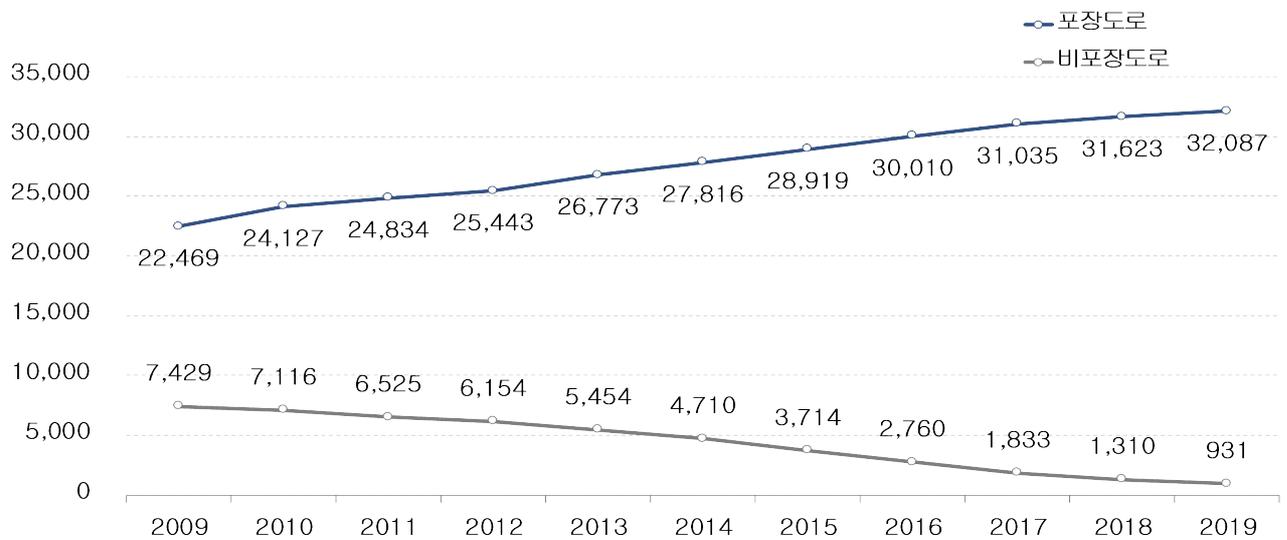
구분	설명	길이(km)
National Primary Roads	주요 간선 또는 국도 시스템의 중추 역할을 하는 주요 도시(최소 10만 명 이상의 인구)를 연결하는 분기점이나 분기점 없이 선형으로 연장되는 중요한 도로 구간	7,071.8
National Secondary Roads	국가 1차 도로 혹은 주요 도시에 포함되지 않는 도로를 도시에 직접 연결하는 도로로 주요 항구·페리 터미널·공항·관광 서비스 센터·정부 인프라 등을 1차 도로에 연결하며, 동일 지역 내의 지방 수도를 직접 연결	14,339.0
National Tertiary Roads	Primary와 Secondary에 해당하지 않으며 로컬 기능을 수행하는 국도	11,607.3

* 출처: philippines National Road Network, DPWH(2019)

- 필리핀 전체 국도 중 포장도로의 비중은 97.18%(2019년 기준)로 2009년 이후 포장도로의 비중이 지속하여 증가하고 있으며, 전체 국도 중 양호(Good, Fair)한 상태의 포장도로는 79%(2019년 기준)

〈필리핀 포장/비포장도로 길이(2009-2019)〉

(단위: km)



* 출처: DPWH('19.10) ATLAS 2019

- 매년 조금씩 국도 길이가 늘어나고 있으나 연간 성장률이 최근 3년간 0.3% 미만으로 저조한 상태

〈필리핀 국도 길이 변화〉

연도	길이(km)	연간증가(km)	성장률(%)
2008	29,650.36		
2009	29,898.09	247.73	0.84
2010	31,242.38	1,344.29	4.50
2011	31,359.12	116.74	0.37
2012	31,597.68	238.56	0.76
2013	32,226.93	629.25	1.99
2014	32,526.50	299.57	0.93
2015	32,633.37	106.87	0.33
2016	32,770.27	136.90	0.42
2017	32,868.06	97.79	0.30
2018	32,932.71	64.65	0.20
2019	33,018.25	85.54	0.26

* 출처: philippines National Road Network, DPWH('2019)

- 필리핀의 지방도는 그 도로의 역할에 따라 행정구역 명칭을 붙이며 Provincial Roads, Municipal and City Roads, Barangay Roads로 구분되며 비포장도로가 많고 도로의 품질이 좋지 않은 상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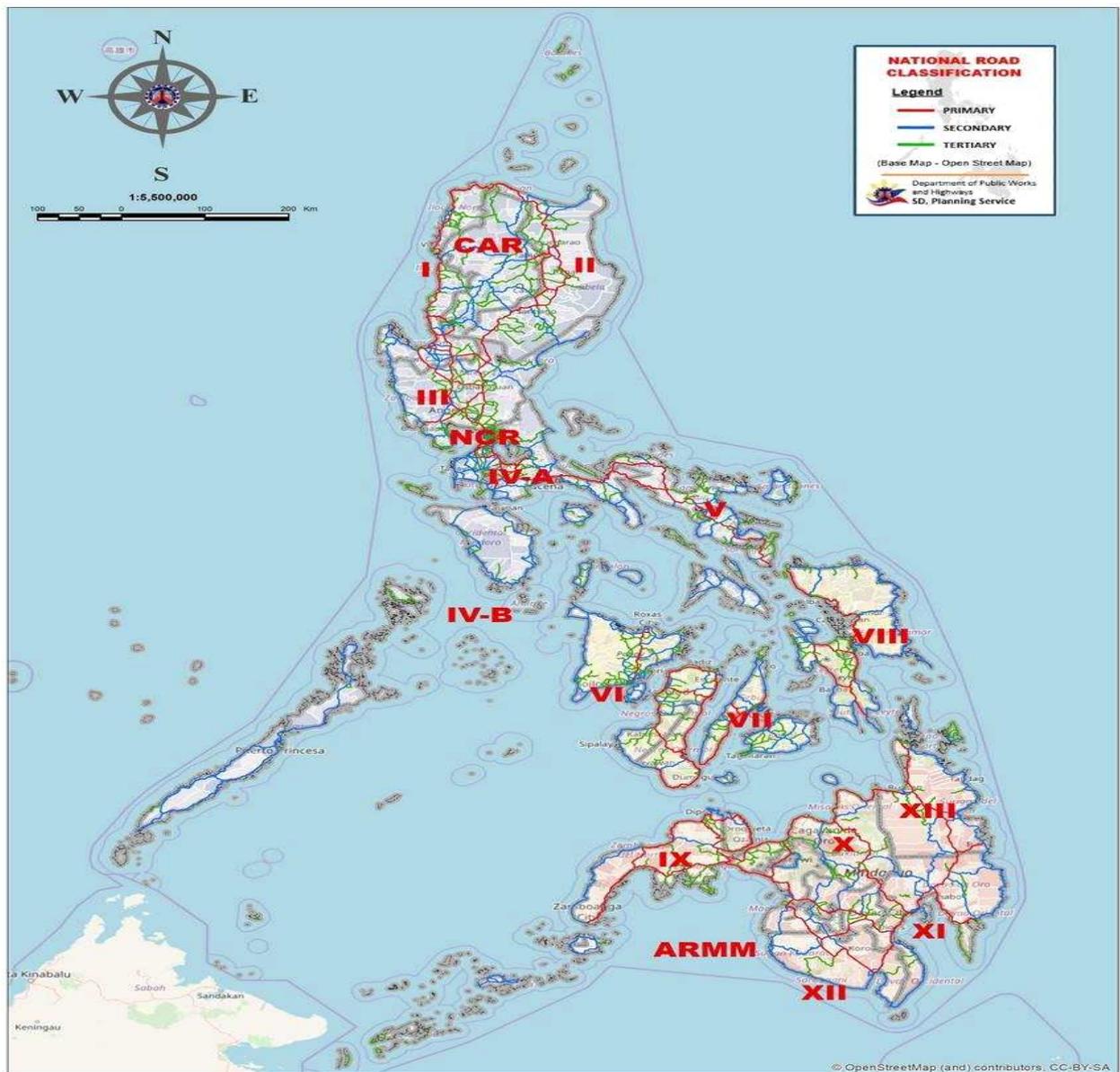
○ 필리핀의 다리(Bridge)는 2019년 기준 전국적으로 8,410개가 있고 총 길이는 376,707m이며, 이중 임시 다리(Temporary Bridges)는 38개, 길이 1,863m임

〈필리핀 다리(Bridge) 수 및 길이 추이〉

년도	다리		임시 다리		합계	
	수(개)	길이(m)	수(개)	길이(m)	수(개)	길이(m)
2015	8,061	361,380	105	3,344	8,166	364,724
2016	8,079	361,389	82	2,774	8,161	364,162
2017	8,204	365,301	56	2,563	8,260	367,864
2018	8,296	370,166	43	1,983	8,339	372,149
2019	8,372	374,844	38	1,863	8,410	376,707

* 출처: DPWH('19.10) National Road Statistics

〈필리핀 국도 현황도〉



* 출처: DPWH('19.10) National Road Statistics

- (철도 분야) 철도는 크게 도시철도와 지역 철도로 구분되며, 마닐라를 중심으로 한 도시철도가 발달되어 있으며, 지역 철도는 인프라가 미비한 상황
- 도시철도는 수도 마닐라에만 구축되어 있으며, 총 4개의 노선이 운영(일일 이용량 1.1백만 명)

<현재 운영 중인 필리핀 도시철도>

노선	길이(km)	구간
LRT 1호선	18.1	Roosevelt-Baclaran
LRT 2호선	13.8	Recto-Santolan
LRT 3호선	16.9	North Ave.-Taft
철도청 통근열차	28.1	Tutuban-Alabang
합계	76.9	

* 출처: Urban and Inter-urban Rail Project, 필리핀 교통부

- 지역 철도는 PNR (philippines National Railways)이라고 불리며, 루손섬의 산페르난도(San Fernando) ~ 마닐라 ~ 레가스피로 연결되는 설치된 길이 약 744km의 철도가 전부임
- 일부 노선이 태풍 등 자연재해 등으로 운행이 중단되는 등 불안정한 여건

<필리핀 지역 철도 운행 중단구간>



* 출처: PNR('20.11) Route Map

- 다만, 2018년 필리핀 교통부가 발표한 철도 프로젝트에 의하면 궁극적으로 1,900km의 철도 건설이 목표이며, 아래와 같이 1,776km에 대한 철도 계획이 발표되거나 건설이 진행되고 있는 등 철도 인프라가 점점 개선되고 있음

<건설 또는 개발단계인 필리핀 도시철도>

	노선	길이(km)	구간
건설	LRT-1 Cavite Ext.	11.7	Baclaran-Bacoor
	LRT-2 East Ext.	3.9	Santolan-Masinag
	MRT-7	16.9	SJDM, Bulacan-North Ave.
	PNR Clark Phase 1	37.6	Tutuban-Malolos
	합계	70.1	
개발	Mindanao Railway 2	208.0	Tagum-Butuan
	Mindanao Railway 3	285.0	Butuan-Iligan
	Mindanao Railway 4	234.0	Iligan Digos
	Cebu Railway	115.8	5 Lines
	합계	842.8	

* 출처: Urban and Inter-urban Rail Project, 필리핀 교통부

<계획 단계인 필리핀 도시철도>

	노선	길이(km)	구간
	LRT-2 West Ext.	3.1	Recto-Pier 4
	MM Subway	30.0	Mindanao Ave.-NAIA
	PNR Clark Phase 2	68.7	Malolos-New Clark City
	PNR Los Baños	72.0	Tutuban-Los Baños
	PNR Bicol	581.0	Manila-Bicol, Batangas
	Mindanao Railway 1	102.0	Tagum-Davao-Digos
	합계	856.8	

* 출처: Urban and Inter-urban Rail Project, 필리핀 교통부

- (항만 분야) 필리핀은 7,000여 개의 섬으로 이루어진 도서 국가로 지리적 특성상 물류 운송 시 주로 해상 운송에 의존하고 있으며, 도로·철도 인프라 대비 상대적으로 항만 인프라가 잘 갖춰진 상황
 - 주요 항만으로는 마닐라항, 카가얀데오로항, 제너럴산토스항, 일로일로항, 잠보안가항 등이 있음
 - 마닐라항은 필리핀의 대표항만으로 마닐라 북항, 마닐라 국제컨테이너 터미널, 마닐라 남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마닐라 북항은 국내 물류 처리, 국제터미널은 국외 물류 처리를 담당
 - 마닐라항은 전체면적 2,000km², 둘레길이 190km, 최대 너비는 북서에서 남동 방향으로 58km나 되는 세계에서 가장 큰 항만들 중 하나로 필리핀 전체 항만 물동량의 65% 이상을 담당
 - 카가얀데오로항은 국내 컨테이너만 처리하고 있으며, 마닐라항 다음으로 물류 이동이 가장 활발함
 - 제너럴산토스항은 국내 및 국외 컨테이너를 모두 처리하는 항만으로 국외 컨테이너 물동량이 계속하여 증가하는 추세
 - 일로일로항은 국내 컨테이너만 처리하였으나 '16년부터 국외 컨테이너를 처리하고 있으며, 잠보안가항은 국내 컨테이너만 취급하는 항만
 - 최근, 세부항에서 북쪽으로 8km 떨어진 콘솔레이션 타유드에 새 항만을 건설하는 세부 신항만 공사 추진(총사업비 101억 페소, 한화 약 2,500억 원)
 - 한국수출입은행이 대외경제협력기금(EDCF)를 지원하는 사업이며, EDCF로 진행하는 최초의 항만 건설 사업
 - 필리핀 국가 인프라 프로젝트 가운데 최우선 추진 사업 명단에 올라가 있으며, 사업 컨설팅 작업이 끝나는 대로 올해 안에 공사를 시작할 계획
 - 25만m² 규모 매립지 위에 2000TEU (1TEU는 20피트 길이 컨테이너 1개)급 선박 2대를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항구 시설과 창고, 교량, 도로 등 부대 시설이 구축될 예정

□ (항공 분야) 필리핀의 공항은 2020년 현재 총 85개이며, 그중 12개가 국제공항으로
항만과 마찬가지로 상대적인 인프라가 잘 갖춰진 상황

○ 필리핀 민간항공청(CAAP)*에 따르면 필리핀의 공항은 국제공항, 주요공항,
커뮤니티 공항으로 분류

* 민간항공청(CAAP)은 필리핀교통부 산하 공기업으로 공항운영과 안전관리, 항공관제는 물론 항공산업
규제 등까지 모두 관리. 마닐라 국제공항공청, 막탄세부 국제공항공청, 클락 국제공항공사, 수빅 베이
도시권공사(SBMA)를 제외하고 81개 공항은 모두 민간항공청에서 운영

〈필리핀 공항 분류〉

구분	목적	개수
국제공항 (International airport)	국제선 운항	12 (대한민국 8)
주요공항 (Principal airport)	국내선 운항	32 (대한민국 7)
커뮤니티 공항 (Community airport)	상업 목적을 제외한 개인, 기업, 정부에 의한 항공기 운영	41

* 출처: 해외건설엔지니어링 정보시스템

〈필리핀 국제공항〉

NO	공항명	편명	관할
1	마닐라 - 니노이 아키노 국제공항	MNL	마닐라 국제공항공청
2	클락 국제공항	CRK	클락 국제공항공사
3	세부 국제공항	CEB	막탄세부 국제공항공청
4	수빅 국제공항	SFS	수빅만 도시권공사
5	보홀 국제공항	TAG	민간항공청(CAAP)
6	칼리보 국제공항	KLO	
7	푸에르토 프린세사 국제공항	PPS	
8	일로일로 국제공항	ILO	
9	다바오 국제공항	DVO	
10	제네럴 산토스 국제공항	GES	
11	라왁 국제공항	LAO	
12	잠보앙가 국제공항	ZAM	

- 필리핀 정부는 수도인 마닐라 공항의 수송 부담을 분산하기 위하여 신공항 건설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음
 - 주요 프로젝트로는 기존 마닐라 공항의 확장(재개발사업), 신 마닐라 국제공항 건설, 상글리 공항의 활성화 등이 있음
- 1,020억 페소(약 19.5억 달러) 규모의 기존 마닐라 국제공항 재개발사업은 7개 기업*으로 이루어진 컨소시엄에서 민간제안사업으로 추진됨
 - 필리핀 교통부(DOTr)에 따르면 사업제안서가 승인되어 필리핀 국가경제개발청(NEDA) 투자협력위원회(ICC)에 제출
- * ①Aboitiz InfraCapital, ②AC Infrastructure Holdings Corp, ③Alliance Global Group Inc, ④Asia's Emerging Dragon Corp., ⑤Filinvest Development Corp., ⑥JG Summit Holdings Inc., ⑦Metro Pacific Investment Corp.가 우선제안자(OPS) 지위를 획득
 - 사업제안서에서는 상기 컨소시엄이 낙후된 NAIA 국제공항의 재개발, 개선, 확장을 수행함에 이어, 향후 15년간 유지·보수를 책임진다는 내용을 포함
 - 이번 재개발사업은 기존 공항 터미널 확장 및 연결, 활주로시설 개선, 항공사-공항 효율성 제고, 상업 시설 개발, 승객편의 증진, 공항 순위 격상 등 다양한 목적을 포함
- 7,350억 페소(약 140억 달러) 규모의 불라칸 신국제공항개발 프로젝트는 기존 마닐라 공항의 체증 완화를 위하여 민간 사업자를 선정하였으며, 산미구엘사(SMC)가 2019년 7월 말에 선정되었음
 - 완공까지 소요기간은 4~6년으로 예상되며, SMC는 동 공항 개발 및 운영 관련 50년의 양허 기간을 획득
- 2019년 6월 두테르테 대통령의 지시로 마닐라 인근의 카비테 지역에 있는 상글리 공항에 대한 건설 진행
 - 군용부지를 활용한다는 점과 정부의 적극적인 추진으로 6개월 만에 국내선에 대한 일부 개항이 진행되었으며, 향후 국제선의 활용 대안으로도 염두

다. 에너지 · 유틸리티 인프라

- (전력 분야) 필리핀의 전력 인프라는 2001년 전력부문 개혁 이후 국가 중심에서 민간 중심의 전력 공급 추세로 변화하고 있음
 - 민간발전사업자(IPP)들의 활발한 참여 및 분리되어 있던 송전망 연결 등 보다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
 - 2001년 필리핀 정부는 만성적인 전력수급 불균형, 낮은 전력공급률, 높은 전력가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전력개혁법(EPIRA)에 기초하여 전력부문 개혁을 진행
 - 국영전력공사(NPC)의 독점으로 전력부문이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었기 때문에, NPC의 발전·송전 부문을 일부 매각하고 매각수입을 NPC의 부채상환 자금으로 활용하도록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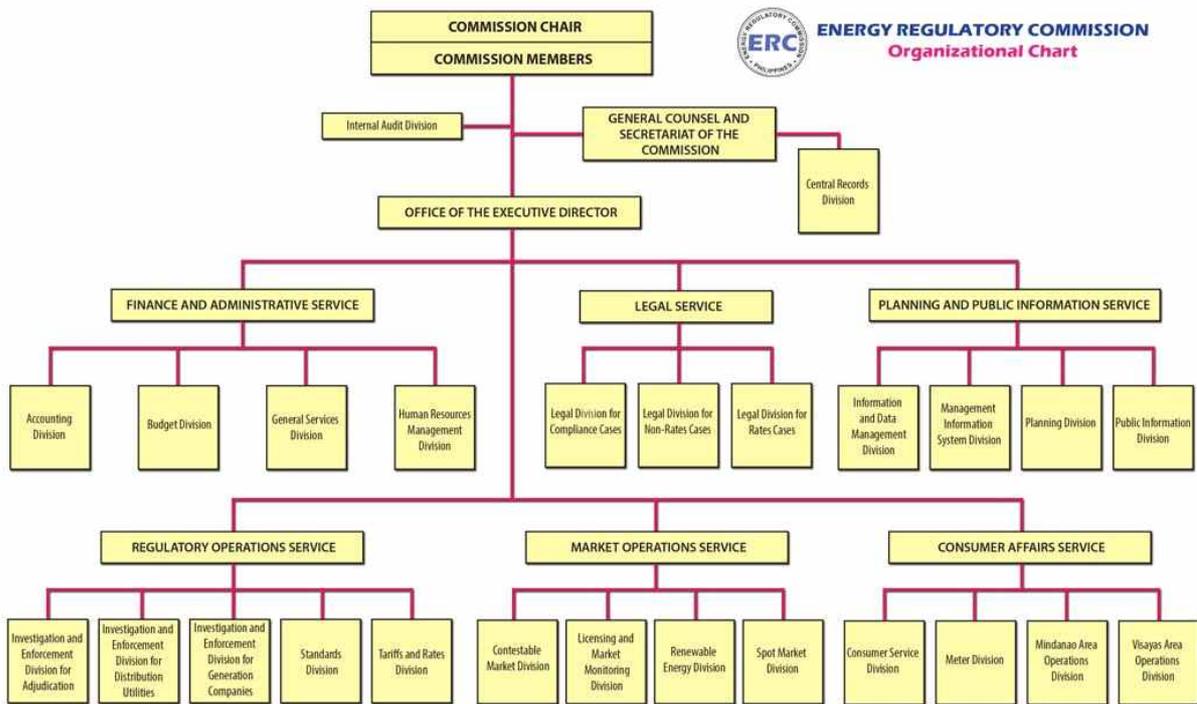
〈필리핀 전력시장 구조〉



* 출처 : KPMG 작성

- 또한 기존의 감시기구인 에너지규제이사(ERB)를 폐지하고 신규 에너지규제위원회(ERC) 설립
 - 위원장과 위원회 멤버 아래 금융 및 행정 서비스 법률 서비스, 계획 및 공공정보 서비스, 규제 운영 서비스, 시장 운영 서비스, 소비자 관련 서비스 등을 제공 (서비스 부서 6곳과 그 아래 24개의 주요 부서)
 - ERC는 반시장적 행위(Cross-ownership, Cross-subsidization, 시장 및 가격 조작)와 의무 불이행 등에 대해 징벌적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됨

〈ERC 조직도〉



* 출처: ERC('20.11) Organizational Chart

〈ERC의 목표〉

1. 규칙, 규정, 지침 및 정책의 공표 및 승인
2. 허가 및 자격 발급을 포함한 규칙, 규정을 시행
3. 사건(요금, 기타 사건 사고) 및 분쟁 해결
4. 소비자의 관심 촉진
5. 최고 수준의 기술 역량과 성실성을 갖춘 역동적인 전문인력이 되는 것

* 출처: ERC('20.11) Objectives and Core Values

- 현재 발전·송전·배전의 모든 과정에서 민간업체의 참여가 활발하며 주요 민간 발전사로 San Miguel Corporation, Aboitiz Power, First Gen, PSALM, AES, Quezon Power (philippines) Limited Co.가 있음
- 주요 민간배전사로 MERALCO가 대표적임

〈발전 관련 주요 Player〉

회사	내용
 <p>San Miguel Corporation</p>	<p>필리핀의 주요 대기업으로 식음료제조부터 광산업, 석유, 전력 및 인프라 등 다양한 사업 영위</p> <p>- Sual Power Plant, Ilijan Power Plant 등</p>
 <p>Aboitiz Power Corporation</p>	<p>발전 배전 및 판매까지 전력사업이 수직계열화되어있고 발전부문이 회사 이익의 약 80%를 구성하며, 총 44개(2,402MW)의 발전소 운영 중</p>
 <p>First Gen</p>	<p>필리핀 대기업인 First philippines Holdings의 자회사로 여러 발전소를 운영</p> <p>- Sta. Rita Power Plant, San Lorenzo Power Plant 등</p>
 <p>PSALM</p>	<p>NPC 발전소의 민영화로 인해 설립되었고 여러 발전소 운영</p> <p>- Malaya Thermal Power Plant, Bataan Thermal Power Plant 등</p>
 <p>AES</p>	<p>2008년에 600MW의 화력 발전소를 인수하며 발전사업을 시작했으며, 도매시장에 전력 공급</p>
 <p>Quezon Power Limited Co.</p>	<p>460MW의 석탄발전소 및 Quezon 지역에 31km의 송전망을 보유 및 운영하고 있으며, 필리핀 최초의 BOO 프로젝트인 Mauban Power Project 운영</p>

〈송전 관련 주요 Player〉

회사	내용
 <p>TransCo</p>	<p>필리핀 국영 송전업체로 2001년 EPIRA 시행에 따라 설립되었으며, 국가 송전시스템을 보유하고 NGCP에 운영을 위탁</p>
 <p>NGCP</p>	<p>Oro Grid Resources Corporation, Calaca High Power Corporation, State Grid Corporation of China로 구성된 컨소시엄으로, 국가 송전시스템의 운영, 유지 및 개선을 담당함</p> <p>- 2009년부터 25년간 송전망 운영권 획득</p>

〈배전 관련 주요 Player〉

회사	내용
 MERALCO	필리핀 최대 배전사로 Metro Manila, Bulacan, Rizal, Cavite, Laguna Quezon, Batangas 지역의 배전을 담당하며,
 VECO	필리핀에서 두 번째로 큰 유틸리티 업체로 Cebu, Mandaue, Talisay, Naga, CebuO'Liloan, Consolacion, Minglanilla, San Fernando 지역에 전력 판매
 Davao Light	필리핀에서 세 번째로 큰 유틸리티 업체로, 약 295,000명의 고객 보유 및 23개의 변전소 보유

- 필리핀 전력 시장은 송전망의 분리문제로 인하여 루손, 비사야스, 민다나오 3개의 권역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전력 시장 규모가 가장 큰 루손 지역의 경우 민간사업자(IPP)의 참여 비중이 97.4% 수준(NPC-IPP 포함)
- 민다나오 권역은 상대적으로 공공 주도 발전 비중(23.5%)이 높음

〈필리핀 발전사업자 구성 현황〉

소유 형태	전력 (MW) - Installed 기준			필리핀 계
	루손	비사야스	민다나오	
NPC	122	23	1,048	1,193
NPC-IPP	1,634	649	116	2,399
IPP	15,368	3,122	3,278	21,768
Others	319	24	10	353
합계	17,443	3,818	4,451	25,713

* 출처 : Department of Energy('20.6)

- 민간사업자의 참여 증가로 예비율*은 2014년 52%에서 2019년 65%로 증가하였으며, 전력 수요에 대응하여 충분한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됨

* 예비율 : 최대 전력수요에 비해서 발전설비 용량이 얼마나 여유가 있는지를 의미하며 총 발전설비 용량의 여유분을 의미(=설비용량/최대수요-1)

- 총 설비용량(25,713MW)을 완전가동(365일 24시간 기준)했을 경우 연간 225,246GWh 규모의 전력을 생산할 수 있으므로, 2019년 기준 필리핀의 소비량은 106,041GWh로 충분한 전력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있음

〈필리핀 전력 최대수요 · 설비용량 현황〉

(단위: MWh, MW)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CAGR ('14-'19)
최대수요	11,822	12,213	13,272	13,789	14,782	15,581	5.7%
루손	8,717	8,928	9,726	10,054	10,876	11,344	5.4%
비사야스	1,636	1,768	1,893	1,975	2,053	2,224	6.3%
만다니오	1,469	1,517	1,653	1,760	1,853	2,013	6.5%
총 설비용량	17,944	18,765	21,425	22,730	23,815	25,713	7.3%
루손	13,213	13,668	14,977	15,743	16,549	17,443	5.5%
비사야스	2,520	2,683	3,284	3,426	3,450	3,818	8.6%
만다니오	2,211	2,414	3,162	3,559	3,815	4,451	14.9%
예비율	51.8%	53.6%	61.4%	64.8%	61.1%	65.0%	

주) 반올림으로 인해 개별 합과 총계의 차이가 일부 다를 수 있음

* 출처 : Department of Energy(20.6) Power Situation Report 2014~2019

〈필리핀 전력 소비량과 최대 공급량〉

(단위: GWh)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CAGR ('14-'19)
전력소비량	77,262	82,413	91,967	93,202	99,765	106,041	6.5%
루손	57,489	61,099	67,221	69,625	73,503	77,687	6.2%
비사야스	10,292	11,184	12,942	12,232	13,492	14,549	7.2%
만다니오	9,481	10,130	11,804	11,345	12,770	13,805	7.8%
가능공급량	157,189	164,381	187,683	199,115	208,619	225,246	

주) 반올림으로 인해 개별 합과 총계의 차이가 일부 다를 수 있음

* 출처 : Department of Energy(20.6) Power Situation Report 2014~2019

- 또한 필리핀 에너지부(DOE)는 에너지계획(philippines Energy Plan 2018-2040, PEP 2018-2040)을 통해 2040년까지의 장기 국가 전력 관리 정책을 수립
 - PEP 2018-2040의 주요 목표

- ① 국가의 경제성장에 부응하기 위한 깨끗하고 토착적인 에너지원 생산 증가
- ② 에너지 효율화의 수단과 전략을 통한 에너지 이용의 낭비 감소
- ③ 안정적이고 합리적인 가격의 에너지 제공을 통한 경제성장 지원과 환경보호 사이의 균형 유지

- DOE는 PEP 2018-2040에서 2040년까지 예상 최대 수요가 연평균 6.7%의 성장률을 나타낼 것으로 전망하였음

- 이에 따라 설치 운영용량은 연평균 약 6.58%씩 증가, 발전량은 6.46%씩 증가할 것으로 예측

〈PEP 2018-2040 예상 최대 수요 · 성장률〉

(단위: MW)

연도	루손		비사야스		민다나오		필리핀 전체	
	최대 수요	성장률	최대 수요	성장률	최대 수요	성장률	최대 수요	성장률
2018	10,876		2,053		1,853			
2019	11,476	6.40%	2,211	7.70%	2,130	14.95%	15,817	7.66%
2020	12,169	6.04%	2,415	9.23%	2,274	6.76%	16,858	6.58%
2021	12,916	6.14%	2,568	6.34%	2,442	7.39%	17,927	6.34%
2022	13,680	5.92%	2,737	6.58%	2,627	7.58%	19,044	6.23%
2023	14,494	5.95%	2,923	6.80%	2,830	7.73%	20,247	6.32%
2024	15,371	6.05%	3,126	6.94%	3,051	7.81%	21,548	6.43%
2025	16,312	6.12%	3,348	7.10%	3,292	7.90%	22,951	6.51%
2026	17,322	6.19%	3,590	7.23%	3,555	7.99%	24,467	6.61%
2027	18,409	6.28%	3,854	7.35%	3,843	8.10%	26,106	6.70%
2028	19,575	6.33%	4,142	7.47%	4,157	8.17%	27,874	6.77%
2029	20,828	6.40%	4,457	7.61%	4,499	8.23%	29,784	6.85%
2030	22,177	6.48%	4,801	7.72%	4,874	8.34%	31,851	6.94%
2031	23,595	6.39%	5,168	7.64%	5,273	8.19%	34,036	6.86%
2032	25,085	6.31%	5,559	7.57%	5,700	8.10%	36,344	6.78%
2033	26,650	6.24%	5,977	7.52%	6,155	7.98%	38,781	6.71%
2034	28,293	6.17%	6,421	7.43%	6,640	7.88%	41,354	6.63%
2035	30,019	6.10%	6,895	7.38%	7,156	7.77%	44,070	6.57%
2036	31,830	6.03%	7,403	7.37%	7,706	7.69%	46,940	6.51%
2037	33,731	5.97%	7,944	7.31%	8,291	7.59%	49,966	6.45%
2038	35,721	5.90%	8,518	7.23%	8,913	7.50%	53,152	6.38%
2039	37,806	5.84%	9,127	7.15%	9,573	7.40%	56,506	6.31%
2040	39,987	5.77%	9,774	7.09%	10,273	7.31%	60,034	6.24%

(주) 예상치이므로 2020년까지의 실제 수치와는 다를 수 있음

* 출처 : Department of Energy('18.12), PEP 2018-2040

- 전력 인프라 확충을 위해 신규 발전소의 운영 및 건설 프로젝트가 꾸준히 추진되고 있음

〈필리핀 신규 운영 발전소 현황〉

(단위: 건, MW)

구분	2016		2017		2018		2019	
	개수	규모	개수	규모	개수	규모	개수	규모
필리핀	42	2,691	21	835	17	934	16	1,674
루손	21	1,319	10	392	9	660	6	700
비사야스	12	624	4	106	0	0	4	373
만다니오	9	748	7	337	8	274	6	602

주) 반올림으로 인해 개별 합과 총계의 차이가 일부 다를 수 있음

* 출처 : Department of Energy('20.6) Power Situation Report 2014~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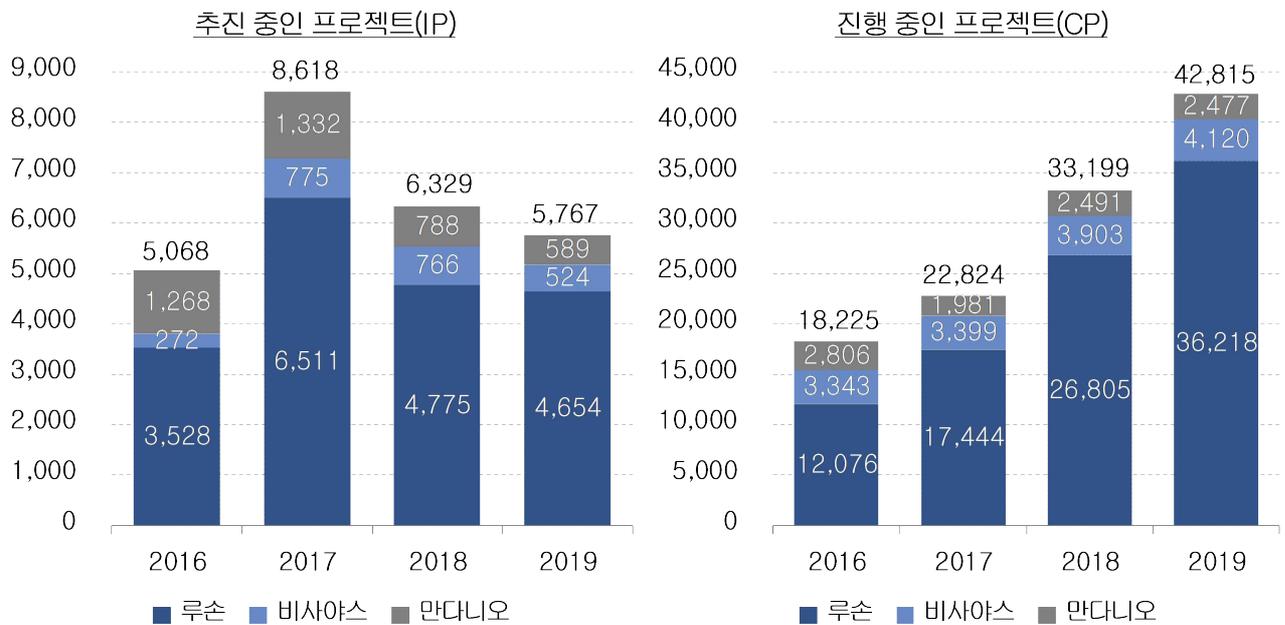
-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추진 중인 프로젝트(Indicative Project*, IP)와 진행 중인 프로젝트(Committed Project**, CP)를 합산한 총 프로젝트 발주 규모는 증가하는 추세

* Indicative Project : 사업성(타당성) 분석, 허가, 건설 이전 절차에 있는 프로젝트

** Committed Project : IP보다 실제 가동될 가능성이 더 큰 프로젝트로, 일반적으로 이미 건설단계이며, 실제 COD가 비교적 정확하게 확정된 프로젝트

〈필리핀 신규 IP, CP 추이〉

(단위: M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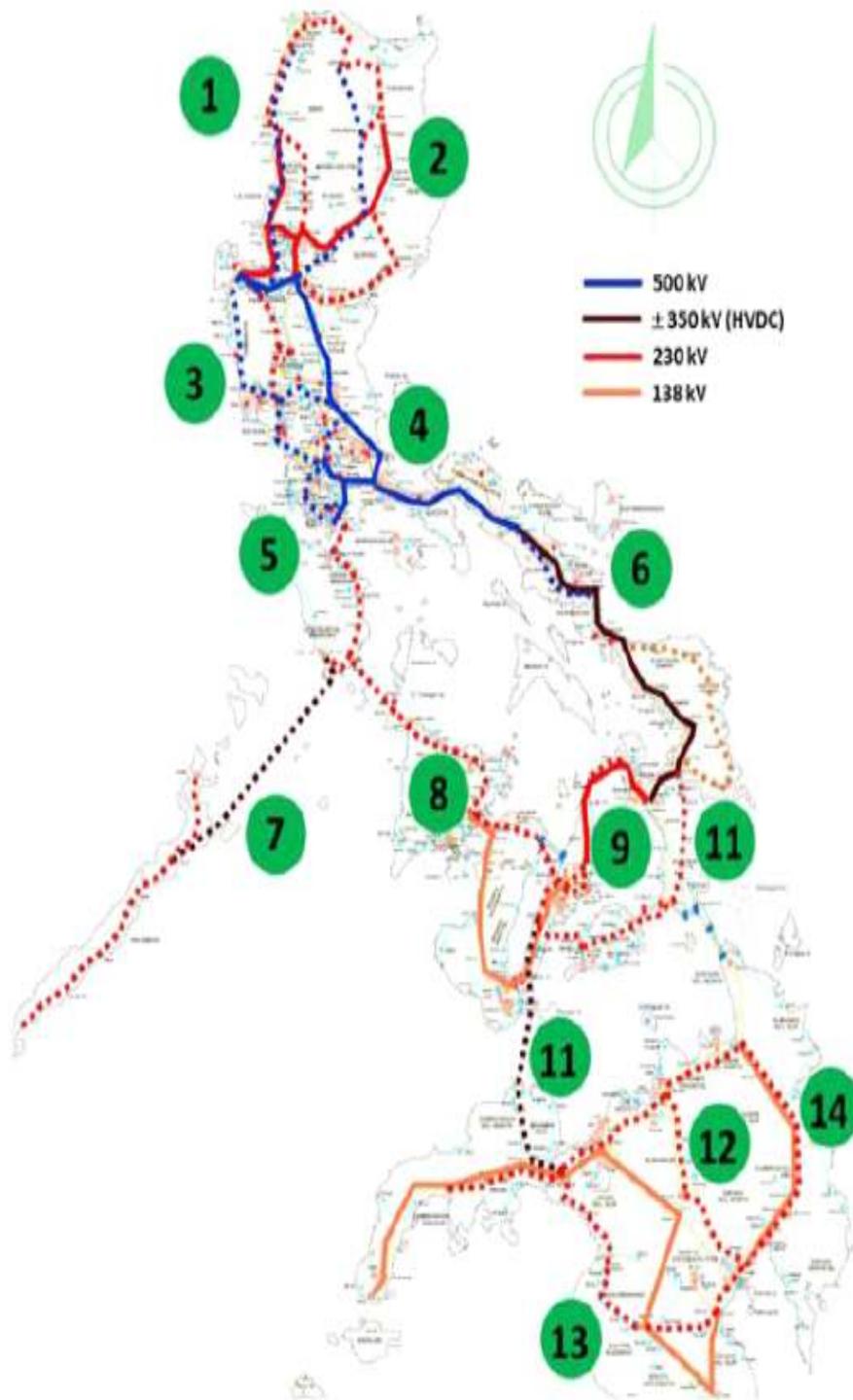


주) 반올림으로 인해 개별 합과 총계의 차이가 일부 다를 수 있음

* 출처 : Department of Energy('20.6) Power Situation Report 2014~2019

- 향후 송전망을 전국적으로 연결하여 필리핀을 하나의 발전권역으로 묶는 것이 에너지부(DOE)의 목표이며, 하나의 송전망에 의해 전력 공급이 더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

<필리핀 송전망 계획도>



* 출처 : Department of Energy(20.6) 2019 Power Situation Report

〈필리핀 송전망 계획〉

번호	제목	내용
1	볼로-라오그 500kV 중추망(2025.07)	- La Union 및 Mountain 지방의 대규모 발전용량 진입을 지원하고, Ilocos 지역의 추가 풍력 발전소 프로젝트 수용
2	내그사에그-카부가오 500kV 중추망(2035.12)	- Apayao 상류의 벌크 수력 발전 용량을 활용하고, 북부 루손의 풍력 발전 잠재력을 고려함
3	서부 루손 500kV 중추망(2025.06)	1단계: 카스틸레오스-헤르모사 500kV T/L (2020.06.) - 잠발레스 지역의 벌크 발전소를 수용할 500kV 규모의 서부 회랑(Corridor) 개발 2단계: 카스틸레오스-볼로 500kW T/L (2024.08) - 루손에 500kV 중추망에 대한 N-2 contingency를 통해 추가 송전선 용량을 제공하고 시스템의 신뢰성 향상 목표
4	메트로 마닐라 500kV 중추망 루프(2021.09.)	- 송전선 용량을 증설하고 루손 로드 센터(load center)의 수요 증가에 대응
5	바탕가스-민도로 상호연결(2024.12)	- 송전선 용량을 증설하고 루손 로드 센터의 수요 증가에 대응
6	루손-비사야스 별도(bipolar) 운영(2030.12)	- 신규 발전소에 대응, 비사야 그리드로의 수입/수출
7	팔라완-민도로 상호연결 프로젝트PMIP(2024.12)	- 팔라완 본섬에 보다 안정적인 전력 공급 - 잦은 정전을 야기하는 전력 품질 문제 해결 - 오프-그리드 영역을 메인-그리드로 연결하는 정부의 지침 지원
8	세부-네그로스-파나이 230kV 중추망(2020.12.)	1단계: 네그로스-파나이 상호연결(2019.12.) - 기존 통로의 전송 용량 증설 - N-1 contingency 조항 유지 2단계: 세부 서브스테이션(substation) - 신규 발전소의 진입의 효과적인 전체 발전량의 신속한 전달 3단계: 네그로스-세부 상호연결 - 파나야 및 네그로스섬에서 비사야스 그리드의 잔여분 및 (가능하다면) 루손 그리드로의 초과 전력 송전 수용
9	메트로 세부 중추망 루프(2040.12)	- 장기적으로 적절한 공급시설 보장

번호	제목	내용
10	세부-보홀-레이테 230kV 중추망(2035.12)	- 부하(load) 증가를 지원하기 위해 공급의 신뢰성 향상
11	민다나오-비사야스 상호연결(2020.12)	- 민다나오 그리드를 포함하여 국가의 전력 시장의 개발 촉진 - 추가 공급 안정, 시스템 안정성의 향상 및 전원 공급 품질 향상 측면에서 시스템에 이점을 제공
12	민다나오 230kV 중추망(2019.12)	- 기존 통로의 전송 용량 증설 - N-1 contingency 조항 유지
13	서부 민다나오 230kV 송전 중추망(2040.12)	- 마구인다나오 및 잠봉가 반도에서의 전류 신뢰성 확보
14	동부 민다나오 230kV 송전 중추망(2025.01)	- CARAGA 및 Davao Oriental을 중심으로 기존 단일 회로의 보강 및 필요한 라인의 확장 수반

* 출처: Department of Energy(20.6) 2019 Power Situation Report

- 다만, 화석원료 발전 비중이 전체의 70.7% 수준으로 상당하며, 이에 따라 국제 유가 영향에 따라 전력 요금이 크게 변동될 가능성은 존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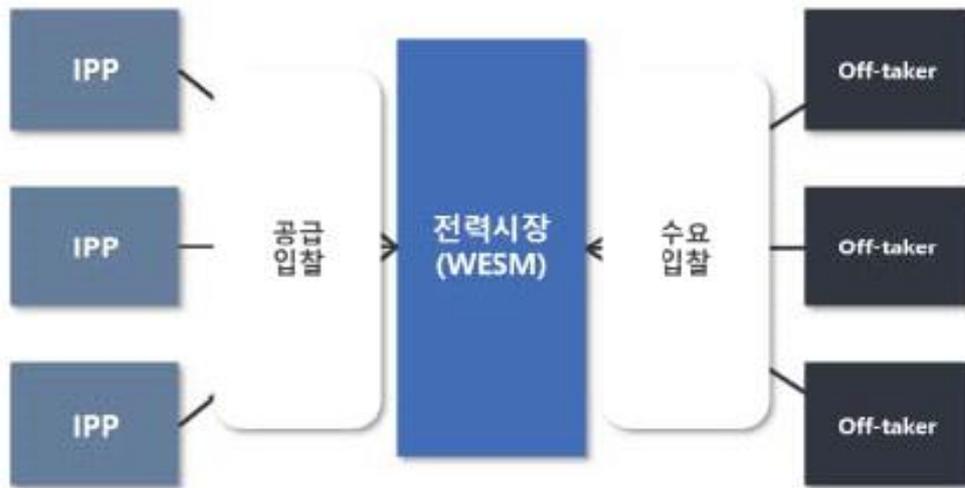
<필리핀 전력 설치 현황>

연료	전력 (MW) - Installed 기준			필리핀 계	
	루손	비사야스	민다나오		
석탄	6,929	1,399	2,089	10,417	
석유	2,628	749	950	4,327	
천연가스	3,452	0	0	3,452	
신재생 에너지	지열	865	955	108	1,928
	수소	2,593	21	1,147	3,761
	바이오	164	127	73	364
	태양열	460	476	84	1,020
	풍력	353	90	0	443
합계	17,444	3,817	4,451	25,712	

* 출처: Department of Energy(20.6)

- 필리핀 전력 판매 시장은 크게 WESM, PSA, RCOA 3가지로 구분
 - WESM(Wholesale Electricity Spot Market)은 도매전력현물시장을 의미함
 - 필리핀 전력은 원칙적으로 WESM을 통해 판매가 이루어짐
 - 발전사업자와 수요처 간 가격입찰을 통해 가격이 변동(수요와 공급에 따라)되며, 전력 가격은 매시간 결정되며, 하루 24개의 가격이 생성

〈WSEM 개요〉



- PSA는 전력공급계약을 의미하며, WESM의 가격변동위험 회피를 위해 발전사와 배전업체(DU)와 배전 협력업체 (EC)간 체결하는 계약
- (PSA 체결 절차: ① DU가 DOE에 PSPP* 제출(매년 3월 15일까지) ② DU, 공개경쟁입찰 (CSP) ③ IPP, CSP 응찰 ④ IPP, PSA(전력공급 계약) 체결 ⑤ DU, DRC의 PSA 승인)
- * 전력구매계획(Power Supply Procurement Plan, PSPP)은 다음과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향후 10년간 전력 및 수요의 예상치, 에너지 판매량, 일일 전력 부하량 및 부하지속곡선, 기존 계약서 및 발전소의 Due Diligence Report, DU의 현재 수요 및 공급현황, 구매자들에게 전달될 off-grid EC의 전력가격
- WESM에 비해 PSA는 가격 변동성 및 수급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방식으로 판단됨

〈WESM과 PSA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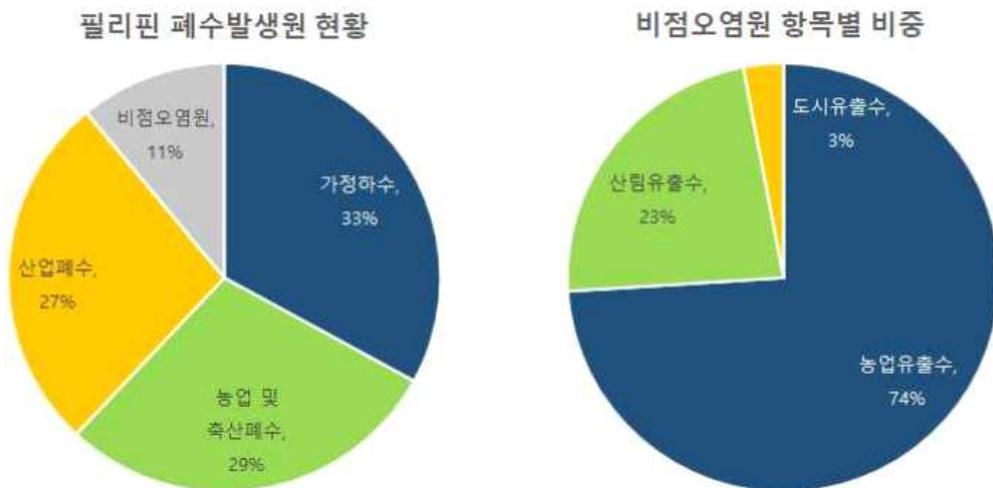
구분	WESM	PSA
가격	전력수급에 따라 변동성 큼	고정가격+Index에 따른 미미한 변동
물량	전력수급에 따라 불확실성 상존	불확실성이 거의 없음
대체전력	전력판매는 못하나 공급의무 없음	고장정지시 대체전력 공급의무 발생
수익제고	전략적 입찰을 통해 수익제고 가능	전략적 수익창출 한계
규제	시장개입, 규정변경에 따른 영향	CSP 계약승인 필요 (상당기간 소요)
수금	Collection 리스크는 미미함	직접 수금에 따른 Collection 리스크
계약관리	시장 참여전략 수립(입찰, 정산 등 트레이딩 조직 상시 운영)	계약협상, 수금 등 지속적 고객관리 필요

* 출처 :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내부자료

- RCOA(Retail Competition and Open Access)는 소매 경쟁 및 공개 진입 제도임
 - 소매 전력 기업(Retail Electricity Suppliers, RES*)은 WESM, 발전사에서 전력 구매 후 750kW 초과 고객(산업, 가정, 서비스 등의 부문에서 최종적으로 전력을 소비하는 소비자 중 전력 소비 능력이 750kW를 초과하는 소비자)에게 판매
- * RES는 발전사 및 WESM에서 대량으로 전력을 구매하여 경쟁소비자에게 전력을 공급하도록 허가된 민간기업으로 정의

- (수도 분야) 필리핀은 수도 관련기관 간의 협력 부족 등으로 인해 하수처리 시스템이 제대로 정비되지 않아서 우기에 도시 내 하수관이 범람하여 지상의 협잡물들이 수로로 흘러 들어가면서 수자원 오염이 가속화됨(EISHUB, 2018)
 - 필리핀의 수자원은 강 85.43%(78개), 바다 12.16%(111개), 호수 2.41%(22개)로 구성됨
 - 하수처리 시스템이 제대로 정비되지 않아서 우기에 도시 내 하수관이 범람하며, 지상의 협잡물들이 수로로 흘러 들어가면서 수자원 오염이 가속화됨
 - 필리핀의 폐수 발생량은 연간 약 220만 톤으로 추산되며, 가정하수와 농업 및 축산폐수가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
 - 비점오염원으로 인한 BOD 오염부하는 연간 약 435,000MT으로 추산되며, 농업 유출수로 인한 영향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남

〈필리핀 폐수 발생 관련 현황〉



* 출처: EISHUB('18) 필리핀 물산업 진출전략

- 필리핀의 하수보급률은 약 1% 수준으로 전체 인구의 약 74%가 공중화장실 또는 정화조 형태의 위생시설을 이용하고 있고, 나머지 약 25%는 별도의 처리 과정 없이 하천 등으로 방류중
- 물 산업 시장은 2013년 7억 9천만 달러 규모에서 2018년 10억 달러 규모로 성장하였으며, 상수도 관련 시장 3억 달러, 하수도 관련 시장 3억 3천만 달러, 운영 부문 3억 1천만 달러로 성장
- 필리핀 정부는 2002년~2011년에 걸쳐 물 산업과 관련하여 연평균 약 4억 7,865만 달러를 투자하였음
 - 수질 관리 ODA의 수혜 국가로 JICA와 JBIC를 통한 일본 정부, ADB, USAID, United Nations System, WB를 통한 원조를 받음
- 필리핀 물 환경 정책으로는 1979년에 발표한 National Water Code(PD 1067), 2004년에 발표한 philippines Clean Water Act(RA 9275)와 Clean Water Act 등이 있음
 - 2002년~2011년 연평균 정부예산을 기준으로 했을 때, 물 공급 및 위생 시스템 개선을 위한 예산은 2,051만 달러로 전체 예산의 43%, 농업용수를 위한 예산이 48.5%, 강 개발을 위한 예산이 32.5%로 높은 비중을 차지
 - 2002~2011년 ODA 연평균 예산은 8,188만 달러이며, 물 공급 및 위생 시스템 개선을 위한 예산은 약 5.5%로 재난방지 및 준비, 홍수 방지를 위한 예산이 48.7%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함
 - 2020년까지 필리핀 수도를 통해 하루 6억 L의 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4억 2,500만 달러 규모의 댐과 수자원 터널 프로젝트를 승인하였으며, PPP 사업을 통해 민간의 참여와 투자를 촉구하고 있음
- 한국수자원공사(K-water)는 2016년 1월, PPP-BOT 방식으로 2,000억 원 규모의 불라칸 상수도 사업을 수주한 바 있으며, 2019년 12월에는 팜팡가 수자원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사업을 진행 중임
 - 불라칸 상수도 사업 : 불라칸의 가뭄 및 지하수 오염에 따른 물 부족 문제로 상수도 확충을 위한 PPP를 추진, 일 38.8만m³ (1단계 20만, 2단계 18.8만)의 상수를 310만 명 주민에게 공급하는 사업으로 2046년 1월까지 운영 후 이전
 - 팜팡가 수자원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사업 : ODA 사업으로 2023년 4월까지 구축 완료 예정

라. 인프라 정책

□ (인프라 정책) 두테르테 대통령은 열악한 인프라 개선을 통해 경제발전의 기반을 다지기 위해 취임 후인 2017년부터 시행하는 대규모 건설 프로젝트인 Build, Build, Build Program*을 발표

* Build-Build-Build Program (BBB 정책)은 두테르테노믹스(Dutertenomics)로 불리는 10대 사회 경제 발전 계획 사업 중 인프라 산업 개혁을 위한 6개년(2017-2022) 정책으로 두테르테 대통령은 향후 5년간 인프라 황금기(golden age of infrastructure)로 만들 것이며, 75개의 주요 인프라 프로젝트(IFPs*)에 1,680억 달러 투자, 200만 명 고용 창출을 목표로 함을 밝힘

○ BBB 정책은 공공인프라 지출을 2017년 GDP의 5.4% 수준에서 2022년 7.3% 수준까지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함(약 8조~9조 페소)

- BBB 정책은 우선 추진 프로젝트인 인프라 플래그십 프로젝트(Infra Flagship Projects, IFPs) 목록을 포함

- IFPs 외에도 교통, 홍수관리, 수자원, 에너지, 통신, 하수도, 위생처리 시설, 고체 폐기물 관리 등 총 4,900여 개의 프로젝트를 실행할 계획

○ 2019년 11월 필리핀 정부는 BBB 프로그램에 따른 IFPs 목록을 수정하였으며, 최초 75개(2.4조 페소 규모)에서 29개가 추가되어 현재는 104개(4.2조 페소 규모)의 IFPs가 진행되고 있으며, 수송 인프라 개선에 집중하고 있는 상황

- 104개의 IFPs 중 교통 운송 분야가 70개로 대부분을 차지(프로젝트 예산 규모로는 91.48%)함

- 교통 운송 분야 상위 5개 프로젝트의 규모는 약 2.1조 페소로(한화 약 47조 8천억) 전체 IFPs 규모의 절반 가까이 될 정도로 대규모 프로젝트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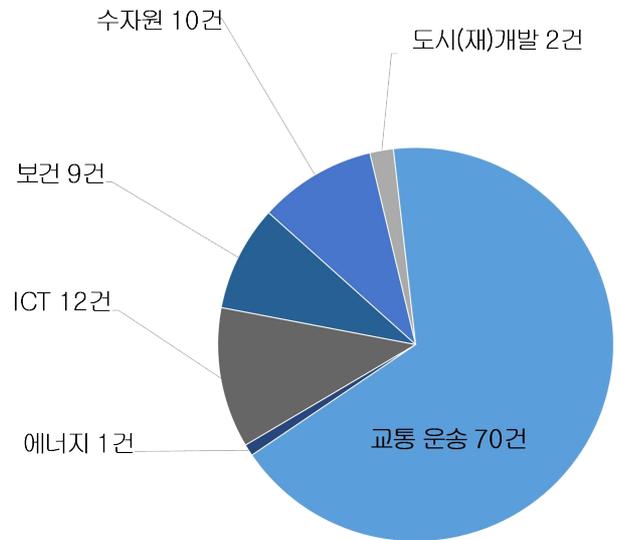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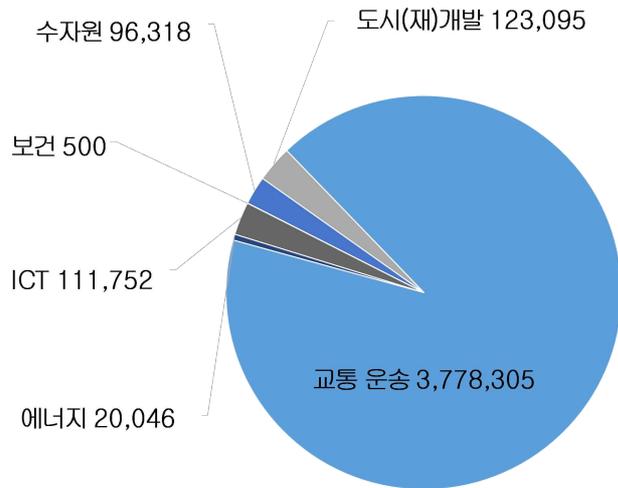
- 73개의 교통 운송 분야 프로젝트 중 도로 35개, 철도 19개, 항공 12개, 항만 2개, 기타 2개로 주로 도로와 철도에 집중되어 있으며, 항만의 경우 상대적으로 인프라 조성이 잘되어있기에 IFPs 목록에 많이 포함되지 않음

- 에너지 인프라의 경우 전력시장 민영화 방침에 따라 주로 민간 사업자(IPP)에 의해 진행되고 있으므로 정부가 추진하는 IFPs 목록에는 2건만 포함되었음

<IFPs 분야별 규모, 건 비중>

(단위: 백만 페소)

(단위 : 백만 페소)



* 출처: NEDA('20.08) IFPs

- IFPs List 중 PPP가 아닌 경우 정부예산, 공적개발원조 등의 방식으로 프로젝트 진행

<IFPs List>

(단위: 백만 페소)

분류	프로젝트명	규모	PPP여부
교통 운송	New Manila International Airport	735,654	PPP
	North South Commuter Railway Extension (PNR North 2, PNR South Commuter)	628,420	NON-PPP
	Metro Manila Subway Project Phase 1	356,974	NON-PPP
	PNR South Long Haul	175,318	NON-PPP
	North South Commuter Railway (PNR North 1)	149,130	NON-PPP
	Ninoy Aquino International Airport	102,115	PPP
	Quezon-Bicol Expressway	87,296	PPP
	Mindanao Rail Project Phase 1	81,686	NON-PPP
	C5 MRT 10 Project	81,470	PPP
	Davao City Expressway	80,651	NON-PPP
	Cebu Monorail System	78,890	PPP
	Cebu-Mactan Bridge and Coastal Road Construction Project	76,413	NON-PPP
	MRT 7	75,000	PPP
	MRT 11	71,110	PPP

<IFPs List>

(단위: 백만 페소)

분류	프로젝트명	규모	PPP여부
교통 운송	Panay-Guimaras Negros Bridge Phase 1	65,701	NON-PPP
	Manila Metro Line 1 Cavite Extension (Baclaran - Niog, Bacoor) (a.k.a.LRT1CaviteExtensionProject)	64,915	NON-PPP
	LRT 6 Cavite Line A/ Modified LRT 6 Project Phases 1 (Niog-Dasma City) and 2 (Dasma City- Tagaytay)	50,380	PPP
	Subic Clark Railway	50,031	NON-PPP
	MRT 4	49,841	NON-PPP
	Davao City Bypass Construction Project	46,805	NON-PPP
	Laquindingan Airport	45,751	PPP
	Southeast Metro Manila Expressway Project	45,290	PPP
	Metro Manila Skyway Stage 3	44,860	PPP
	Davao International Airport	39,524	PPP
	Davao City Coastal Road Project, including Bucana bridge	28,265	NON-PPP
	Metro Cebu Expressway Project	26,625	NON-PPP
	Improving Growth Corridors in Mindanao Road Sector Project (former Tawi Tawi Interlink Bridge and Guicam Bridge)	25,257	NON-PPP
	Cavite-Tagaytay-Batangas Expressway Project	25,240	PPP
	TPLEX Extension Project	23,947	PPP
	NLEX-SLEX Connector Road	23,302	PPP
	Samal Island-Davao City Connector Bridge	23,040	NON-PPP
	MRT 3 Rehabilitation Project	21,966	NON-PPP
	Bacolod-Silay International Airport	19,240	PPP
	Davao Public Transport Modernization Project (DPTMP)	18,600	NON-PPP
	Cebu Bus Rapid Transit	16,309	NON-PPP
	Clark International Airport Expansion Project Phase 1	14,972	PPP
	Pasacao-Balatan Tourism Coastal Highway	14,972	NON-PPP
	Road Network Development Project in Conflict Affected Areas in Mindanao	14,302	NON-PPP
	Southern Luzon Expressway Toll Road 4	13,100	PPP
	Metro Manila Logistics Network: Pasig River and Manggahan Floodway Bridges Construction Project a) North and South Harbor Bridge b)Palanca-VillegasBridge c) East-West Bank Bridge 2	12,801	NON-PPP
	C5 Southlink Expressway Project	12,645	PPP
	NLEX Harbor Link Extension to Anda Circle	12,000	PPP
	LRT 2 West Extension	10,120	NON-PPP
	New Cebu International Container Port	9,961	NON-PPP
LRT 2 East Extension	9,759	NON-PPP	
Camarines Sur High-Speed Highway Project	9,235	NON-PPP	

<IFPs List>

(단위: 백만 페소)

분류	프로젝트명	규모	PPP여부
교통 운송	Metro Manila Logistics Network: Pasig River and Manggahan Floodway Bridges Construction Project a) J.P. Rizal-Lopez Jaena Bridge (Marikina River) b) J.P. Rizal-St. Mary Bridge (Marikina River) c) Marikina-Vista Real Bridge (Marikina River)	9,163	NON-PPP
	EDSA Greenways	8,512	NON-PPP
	Panguil Bay Bridge	7,375	NON-PPP
	Bacolod-Negros Occidental Economic Highway	7,339	NON-PPP
	Iconic Bridge Projects for Socio Economic Development	5,963	NON-PPP
	Metro Manila Logistics Network: China Grant Bridges a) Binondo-Intramuros Bridge b) Estrella-Pantaleon Bridge	5,947	NON-PPP
	Metro Manila Logistics Network: Bonifacio Global City-Ortigas Center Link Road Project	5,720	NON-PPP
	Metro Manila BRT Line 1 (Quezon Ave)	5,463	NON-PPP
	Arterial Road ByPass Project Phase III (Plaridel Bypass)	5,261	NON-PPP
	Bicol International Airport Development Project (New Legaspi)	4,798	NON-PPP
	Iloilo International Airport	4,593	PPP
	Panglao-Tagbilaran City Offshore Connector Bridge	4,400	NON-PPP
	Sindangan-Bayog-Lakewood Road, Zamboanga del Sur and Zamboanga del Norte	4,153	NON-PPP
	Taguig Integrated Terminal Exchange	4,000	PPP
	Kalibo International Airport	3,844	PPP
	New Bohol (Panglao) International Airport	3,791	PPP
	Fort Bonifacio-Makati Sky Train	3,520	PPP
	Surallah-T'Boli-San Jose Road, South Cotabato	3,473	NON-PPP
	Cagayan de Oro Coastal Road	2,842	NON-PPP
	Unified Grand Central Station	2,783	NON-PPP
	M'lang (Central Mindanao) Airport (Central Mindanao (M'lang) Development Project)	2,600	NON-PPP
	Boracay Circumferential Road	1,660	NON-PPP
	Samar Pacific Coastal Road Project	1,126	NON-PPP
General Santos Airport	1,096	NON-PPP	

<IFPs List>

(단위: 백만 페소)

분류	프로젝트명	규모	PPP여부
에너지	Agus-Pulangi Rehabilitation Project	20,000	NON-PPP
	Agus 3 Hydroelectric Power Project (225 MW)	46	PPP
ICT	ICT Capability Development and Management Program	33,983	NON-PPP
	philippines Identification System	26,260	NON-PPP
	Safe philippiness Project Phase 1	20,314	NON-PPP
	National Broadband Program	20,305	NON-PPP
	National Interoperable Automatic Fare Collection System Project (formerly Automated Fare Collection Clearing House)	4,723	NON-PPP
	Road Transport Information Technology Infrastructure Project Phase I (LTO IT)	3,190	NON-PPP
	Luzon Bypass Infrastructure Project	1,000	NON-PPP
	LTO Central Command Center	950	NON-PPP
	Motor Vehicle Recognition and Enhancement System	750	NON-PPP
	National Government Data Center	277	NON-PPP
보건	Virology Science and Technology Institute of the philippiness	500	NON-PPP
수자원	Wawa Bulk Water Supply Project	20,000	PPP
	Jalaur River Multipurpose Project - Stage II, Iloilo	14,819	NON-PPP
	Balog-Balog Multipurpose Project Phase II, Tarlac	13,370	NON-PPP
	New Centennial Water Source - Kaliwa Dam Project	12,189	NON-PPP
	Aqueduct No. 7 Project	7,429	NON-PPP
	Malitubog-Maridagao Irrigation Project	5,445	NON-PPP
	Chico River Pump Irrigation Project	4,373	NON-PPP
	Bohol Northeast Basin Multipurpose Dam Project	4,270	NON-PPP
	Water District Development Sector Projects (ADB-WDDSP)	4,240	NON-PPP
	Lower Agno River Irrigation System Improvement Project, Pangasinan	3,500	NON-PPP
	National Irrigation Sector Rehabilitation and Improvement Project (NISRIP)	3,393	NON-PPP
Angat Water Transmission Improvement Project	3,290	NON-PPP	

<IFPs List>

(단위: 백만 페소)

분류	프로젝트명	규모	PPP여부
도시 (재)개발	Ambal Simuay River and Rio Grande de Mindanao River Flood Control Projects	39,220	NON-PPP
	Pasig-Marikina River Channel Improvement Phase IV	33,097	NON-PPP
	New Clark City Phase 1 a) National Government Administrative Center Phase 1A b) Filinvest Mixed Use Industrial Development Phase 1 - Site Development	18,000	PPP
	Cavite Industrial Area Flood Management Program	9,890	NON-PPP
	Metro Manila Priority Bridges for Seismic Improvement Project	7,933	NON-PPP
	Emergency Assistance for Reconstruction and Recovery of Marawi (Output 2: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 Plan for a Greater Marawi, Stage 2)	6,835	NON-PPP
	Integrated Disaster Risk Reduction and Climate Change Adaptation Measures in the Low-Lying Areas of Pampanga Bay	6,151	NON-PPP
	Marawi Rehabilitation (China Grant) a) Bridge and Bypass Project b) Grand Padian Market and Sports Complex	999	NON-PPP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 Plan for Greater Marawi (JICA grant)	970	NON-PPP

* 출처: NEDA IFP List('20.08)

- 국가경제개발청(NEDA)에 따르면 100개*의 IFP 중 현재 34개가 시행되고 있고 43개의 프로젝트는 6개월~8개월내에 착공할 것이라 발표하였으며, 2023년까지 모든 프로젝트를 완료할 것이라는 목표를 설정

* 2020년 2월 기준의 IFPs List이며 세부 내역은 공개하지 않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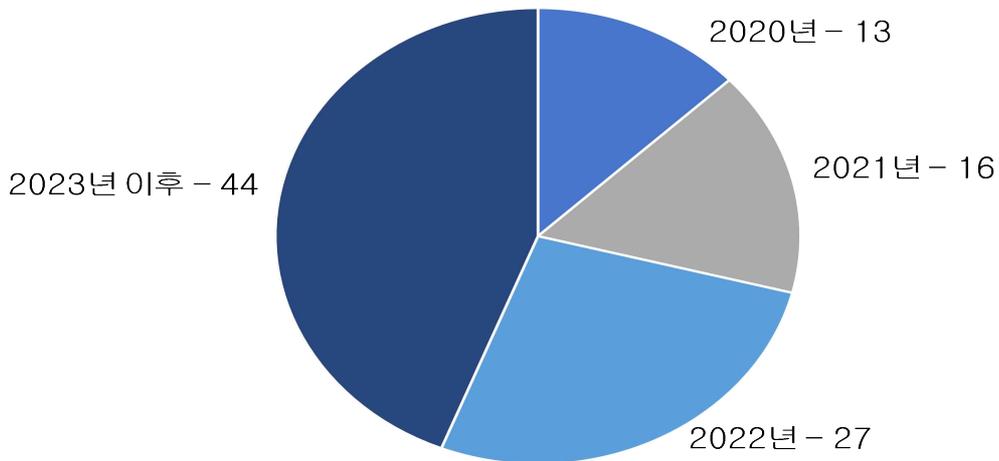
<BBB 프로젝트 진행 상황>

상태	프로젝트 수	규모
진행 중	34	6,337억 페소
6~8개월 내 착공	43	3조 485억 페소
F/S 상위 단계	8	1,591억 페소
정부 승인 상위 단계	15	5,455억 페소
합계	100	4조 3,868억 페소

* 출처: NEDA('20.02)

〈목표 완공 연도에 따른 IFPs 수〉

(단위: 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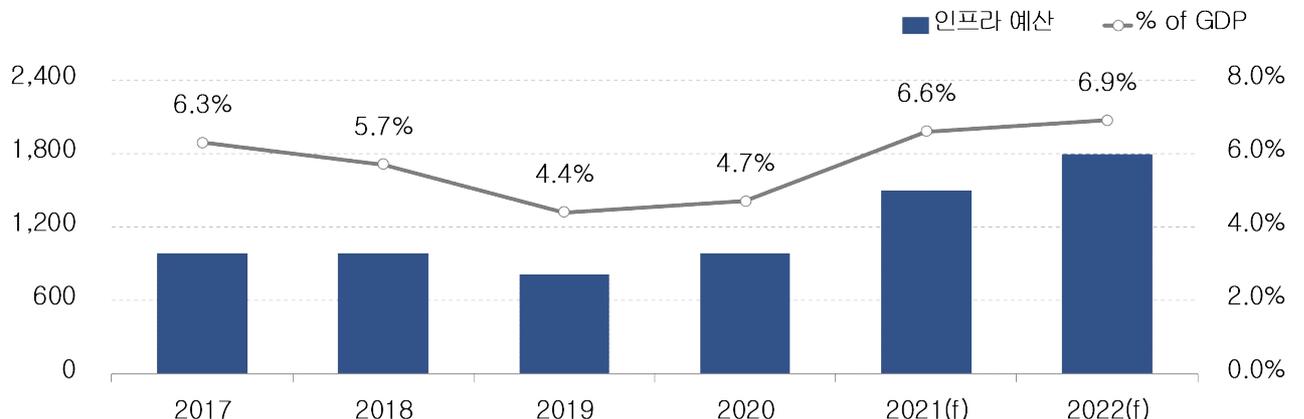


* 출처: NEDA('20.02)

- (인프라 예산) 2017년 이후 필리핀 정부의 GDP 대비 인프라 프로젝트 예산 비율은 매년 4% 이상 유지하고 있으며, 향후 인프라 예산은 증가할 것으로 전망
 - 두테르테 정부의 BBB 정책 추진 이후 급격히 증가 추세
 - 인프라 부문의 경우 2020년 예산안 주요 4개 부문(인프라, 인적개발, 식량안보, 국가안보) 중 하나로 지정될 만큼 국가적 관심 대상이며 필리핀 예산관리부에 따르면 2020년 인프라 예산 중 BBB 프로그램에 약 3,113억 페소 배정
 - 국가경제개발원은 정부의 대규모 인프라 예산 지출 의지에 따라 2022년에는 역대 인프라 최고 예산 배정이 예상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음
 - 다만, COVID-19의 지속 여부 등 외부 변수에 따라 예산의 변동이 가능하므로 지켜볼 필요가 있음

〈공공인프라 예산 및 GDP 비중〉

(단위: 십억 페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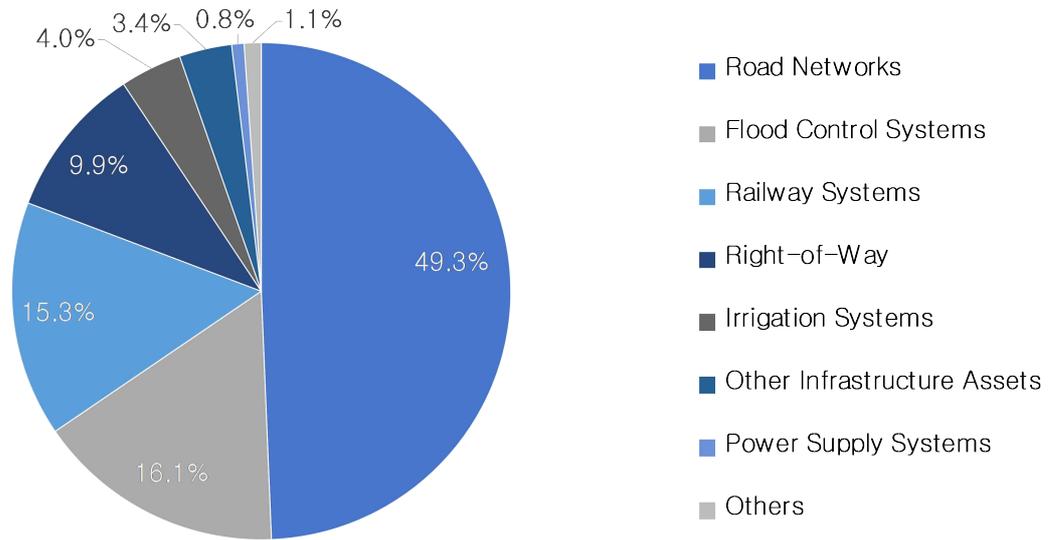
* 출처: NEDA('20.08)

○ 필리핀 예산관리부(DBM*)에서 발표한 2020년 인프라 지출 계획(초안)에 따르면 총예산 6,371억(발표 초안 금액임) 페소 중 절반 가까이(3,140억, 49.3%)가 도로 인프라에 배정되었음

- 홍수 통제 시스템(16.1%)과 철도 시스템(15.3%)에 대한 예산 배정 비중도 큼

* DBM (Department of Budget and Management)

〈인프라 분야별 예산 비중〉



* 출처: DBM - Budget of Expenditures and Sources of Financing 2020

〈인프라 분야별 예산 배정 초안〉

(단위: 천 페소)

소분류	금액	대분류
Airport Systems	1,181,000	Budgetary Support to Government-Owned and/or Controlled Corporation
	346,468	Infrastructure Outlay
Communication Networks	100,000	Investment in Government-Owned and/or Controlled Corporations
	71,734	Infrastructure Outlay
Flood Control Systems	102,743,582	Infrastructure Outlay
Irrigation Systems	25,705,073	Budgetary Support to Government-Owned and/or Controlled Corporation
Other Infrastructure Assets	7,341,206	Budgetary Support to Government-Owned and/or Controlled Corporation
	474,002	Investment in Government-Owned and/or Controlled Corporations
	14,001,494	Infrastructure Outlay

〈인프라 분야별 예산 배정 초안〉

(단위: 천 페소)

소분류	금액	대분류
Power Supply Systems	2,717,469	Budgetary Support to Government-Owned and/or Controlled Corporation
	76,208	Investment in Government-Owned and/or Controlled Corporations
	2,411,145	Infrastructure Outlay
Railway Systems	1,720,000	Budgetary Support to Government-Owned and/or Controlled Corporation
	95,561,407	Infrastructure Outlay
Right-of-Way	63,154,085	Infrastructure Outlay
Road Networks	2,251,748	Repairs and Maintenance - Infrastructure Assets
	7,959,168	Budgetary Support to Government-Owned and/or Controlled Corporation
	108,889	Investment in Government-Owned and/or Controlled Corporations
	303,763,960	Infrastructure Outlay
Seaport Systems	135,317	Investment in Government-Owned and/or Controlled Corporations
	206,186	Infrastructure Outlay
Sewer Systems	50,000	Investment in Government-Owned and/or Controlled Corporations
	46,059	Infrastructure Outlay
Water Supply Systems	325,317	Budgetary Support to Government-Owned and/or Controlled Corporation
	5,000	Investment in Government-Owned and/or Controlled Corporations
	4,646,786	Infrastructure Outlay

* 출처: DBM - Budget of Expenditures and Sources of Financing 2020

- 실제로 예산관리부(DBM)에서 2020년 예산(약 4.1조 페소) 중 BBB 프로그램 주무 부처인 공공도로사업부(DPWH)와 교통부(DOTr)에 각각 2,038억 페소, 1,075억 페소를 배정함
- DPWH 예산은 도로·다리 인프라를 위해 사용되며, DOTr 예산 중 절반 이상이 철도 인프라에 배정됨에 따라 실제 예산 배정에서도 도로와 철도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확인

<2020년 BBB 프로그램 관련 주무부처 예산 규모>

부처	주요 사업 및 예산 규모
공공사업도로부(DPWH)	- 네트워크 개발: 1,191억 페소 - 자산보존: 518억 페소 - 교각건설: 329억 페소
교통부(DOTr)	- 철도교통: 605억 페소 - 해양교통: 24억 페소 - 항공교통: 5.73억 페소

* 출처: DBM('20.10) 2020 National Budget

- 또한 DBM에서 제안하는 2021년 예산(Proposed National Budget, 약 4.5조 페소)에서도 인프라 개발 관련 예산을 증가시켰으며, BBB 프로그램 관련해서는 DPWH와 DOTr에 각각 약 2,740억 페소, 1,227억 페소를 배정
- 대규모 인프라 개발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약 1조 1080억 페소의 예산을 배정할 계획이며 이는 전체 GDP의 5.4%에 해당함
- DPWH의 경우, 자산보존과 관련된 예산이 약 2배 가까이 증가하였음
- DOTr 예산은 철도교통에 배정되는 비중이 더 커졌음(DPWH는 주로 도로, 다리, 상하수도·홍수통제사업 등을 DOTr은 철도, 공항, 항만(항만청 통해 주로 발주) 등의 프로젝트를 주관한다는 차이점이 존재)

<2021년 예상 BBB 프로그램 관련 주무부처 예산 규모>

부처	주요 사업 및 예산 규모
공공사업도로부(DPWH)	- 네트워크 개발: 1,246억 페소 - 자산보존: 1,016억 페소 - 교각건설: 478억 페소
교통부(DOTr)	- 철도교통: 1,063억 페소 - 해양교통: 162억 페소 - 항공교통: 2억 페소

* 출처: DBM('20.10) 2021 Proposed National Budget

마. 인프라 시장

- (수송 인프라 투자) 정부 정책 방향에 따라 수송 인프라 투자는 주로 공공 주도로 진행되고 있음
 - 필리핀 교통부(DOTr)는 민다나오에 두 개의 새로운 공항을 건설할 계획으로, Zamboanga City의 New Zamboanga 국제공항과 Barangay Tawantawan의 Central Mindanao 공항 개발 프로젝트임
 - New Zamboanga 국제공항 프로젝트에는 1조 3,930억 페소(288백만 달러)를 투자하며 Barangay Tawantawan의 Central Mindanao 공항 개발 프로젝트에는 150백만 페소(310만 달러)를 투자
 - 특히 Central Mindanao 프로젝트를 위한 토지를 확보하기 위해 Zamboanga City에 2억 페소(413만 달러) 예산이 할당되었으며, 건설은 2021년에 시작되고 2022년에 운영을 시작할 예정
 - 필리핀 교통부(DOTr)는 마닐라 근처에 신공항 건설(예산 13,793백만 달러)을 추진하고 있으며, San Miguel Corporation이 운영을 담당
 - 2019년 프로젝트가 시작되었으며, 현재 계약 허가 상태
 - 연간 1억 명의 여객 수송량 추정
 - 필리핀 교통부(DOTr)는 Makati-Pasay-Taguig Mass Transit System, Metro Manila Rail 프로젝트(예산 8,302백만 달러)를 추진
 - Tokyo Metro Co, Japan International Cooperation이 현재 타당성 검토 수행 중이며, 20km 길이로 철도 건설 계획 중
 - 필리핀 교통부(DOTr)는 Metro Manila Subway Project, Phase I, Metro Manila 프로젝트(예산 6,863백만 달러)를 추진
 - 자국 회사인 EEI Corporation과 일본 회사인 Takenaka Corporation, Fujita Corporation, Shimizu Corporation가 건설을 담당하며, 일본 회사인 Japan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가 재원조달을 담당
 - 36km 길이로 철도 건설 계획 중이며 현재 계획 단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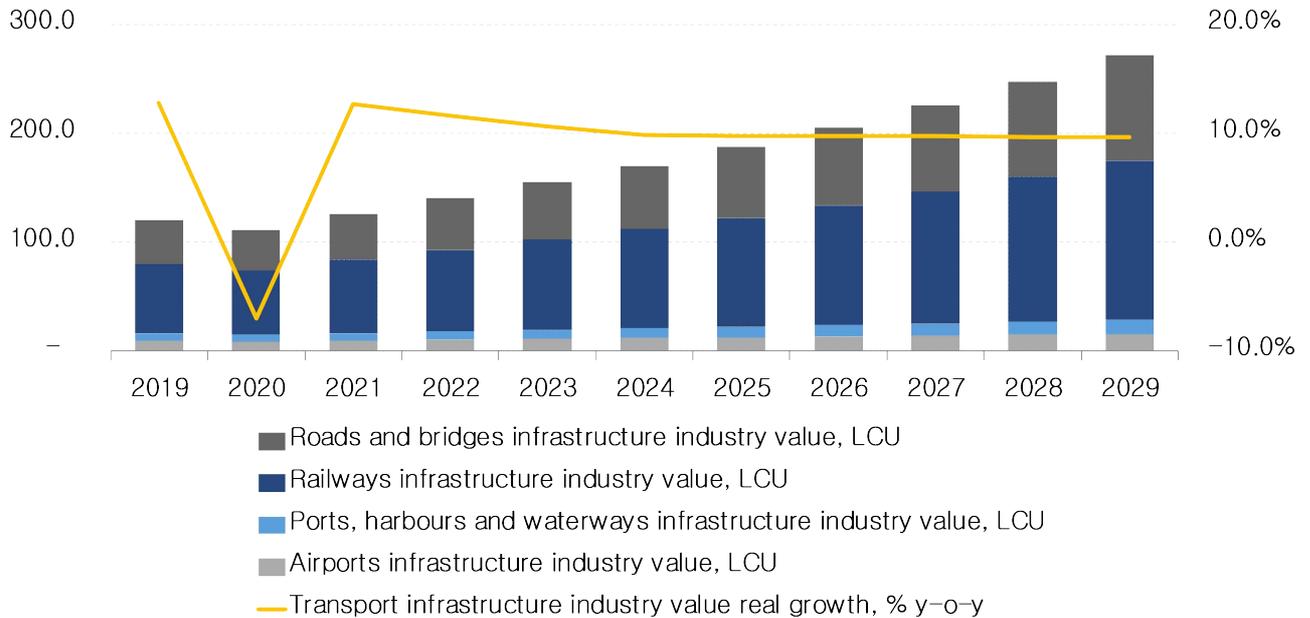
- 필리핀 공공사업도로부(DPWH)는 Bataan (Central Luzon) - Cavite (Calabarzon) Interlink Bridge 프로젝트를(예산 3,677백만 달러)를 추진
 - Asian Development Bank가 재원조달을 담당하고 있으며, 현재 PF 조달 완료
 - 31km 길이로 도로 및 다리 건설 계획 중
- (에너지·유틸리티 인프라 투자) 전력 투자의 경우 민간에 의한 주도로 인프라 투자가 진행되는 것이 특징
 - AC Energy philippiness (ACEN)은 필리핀 중부 루손에 150MW의 총 용량을 가진 두 개의 새로운 태양광 발전소를 개발 예정
 - 최초의 75MW 플랜트는 Citicore Renewable Energy Corp와의 50대50 합작 투자로 개발될 예정(33억 페소, 6.8천만 달러)
 - Zambales Province의 Palauig에 위치한 두 번째 75MW 발전소는 29억 페소(6 천만 달러)의 투자로 개발될 예정(최종 완공은 22년 1분기 예정)
 - 아시아 개발 은행(ADB)은 필리핀 수도인 메트로 마닐라의 상하수도 인프라 프로젝트를 지원하기 위해 1억 2,600만 달러의 대출을 승인
 - 길이 15km, 지름 3.6m의 수로 건설에 투자될 예정이며, 이는 시스템의 물 전송 용량을 50m³/s에서 2025년까지 66m³/s로 증가
 - Power Source First Bulacan Solar 컨소시엄은 2021년 1월 말 필리핀에서 43억 페소(8,340만 달러)의 태양광 발전 프로젝트에 착수할 것으로 예상하며, 건설 허가를 확보
 - 컨소시엄은 Meralco Power Generation (40%), Power Source Global Holdings (36%) 및 Sunseap International(24%)로 구성됨
 - 불라칸 지방의 산미구엘사(SMC)에 50MW 태양광 시설을 건설 예정(Sumec Complete Equipment & Engineering Co가 프로젝트의 엔지니어링 담당)
 - 플랜트에서 생산되는 전력은 20년 구매 계약에 따라서 kWh당 4.69페소 (0.919 달러)에 Meralco에게 판매될 예정이며, 연간 2% 물가상승을 반영

- 필리핀 에너지부처(DOE)는 팔라완 산 비센테(San Vicente) 지방 자치 단체의 풍력 발전 단지 개발과 관련하여 PERC의 재생 가능 에너지 자회사인 PGEC와 서비스 계약을 체결
 - 계약에 따라 PGEC는 풍력 에너지를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을 개발하고 운영할 계획이며 현재 상업적 실행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 타당성 조사 수행 중
- Aboitiz Power Corporation은 약 340억 페소를 투자하여 975MW의 태양광 및 풍력 프로젝트를 건설할 계획
 - 태양광 프로젝트는 650MW 규모로 San Manuel, Labrador, Bugallon, Aguilar, Mangatarem, Infanta 및 Mabini 지역에 설치될 계획이며, 풍력 프로젝트는 325MW 규모로 Aguilar, Bugallon 및 Mangatarem에 설치될 계획
 - 일부 계획에 대한 타당성 조사가 수행 중이며, 2020년 말 또는 2021년 초에 건설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
- Angat Hydropower Corporation (산미구엘사의 자회사)은 GE Renewable Energy와 218MW Angat 수력 발전소 개선 계약을 체결
 - Angat River에 있는 당 수력 발전소는 1967년에 시험 운전되었음
 - 이번 개선 프로젝트에 따라 GE Renewable Energy는 2개의 50MW Francis 터빈, 4개의 50MW 발전기, 3개의 업그레이드된 보조 터빈과 발전기를 새로 공급할 계획(총 226.6MW 생산량 증가 예상)으로 2023년 가동 예상
- Manila Electric Company는 Quezon 지역에 Atimonan Coal-Fired Power Plant 프로젝트(예산 2,554백만 달러)를 추진하며 현재 계획 단계
 - 1,200MW 규모로 지어지는 발전소는 석탄(coal) 발전으로 이루어질 예정
- Lanao Kauswagan Power Station 프로젝트(예산 2,500백만 달러)는 북부 민다나오 지역의 Lanao del Norte에 추진되며, 현재 건설 직전 단계
 - 540MW 규모로 지어지는 발전소는 석탄 발전으로 이루어질 예정이며, Power Partners, philippines Investment, Alliance for Infrastructure, Ayala Corporation이 사업 지원, International Finance Corporation이 재원조달 역할

□ (시장 현황 및 전망)

- Fitch에서 발표한 2020 필리핀 인프라 보고서에 따르면 COVID-19의 영향으로 필리핀 인프라 시장은 기존 대비 2020년에 크게 축소될 것으로 예상(음의 성장률 예측)
- 2021년 이후부터는 회복세 전환으로 인프라 시장은 2029년까지 지속하여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수송 인프라 시장의 확장은 도로 및 철도 시장 확장이 주요 요인
 - 수송 인프라는 2021년과 2029년 사이에 연평균 7.1 % 성장할 것으로 예상
 - 피치 보고서에 따르면 총인구는 2028년까지 13% 증가하여 1억 2,200만 명으로 늘어나고 실질 GDP 성장률이 2029년까지 매년 평균 6% 이상으로 예상됨
 - 이에 따라 수송 인프라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킬 것으로 추정(2028년까지 총 차량 대수가 2020년의 두 배 이상이 될 것으로 예측)

〈필리핀 수송 인프라 시장가치 성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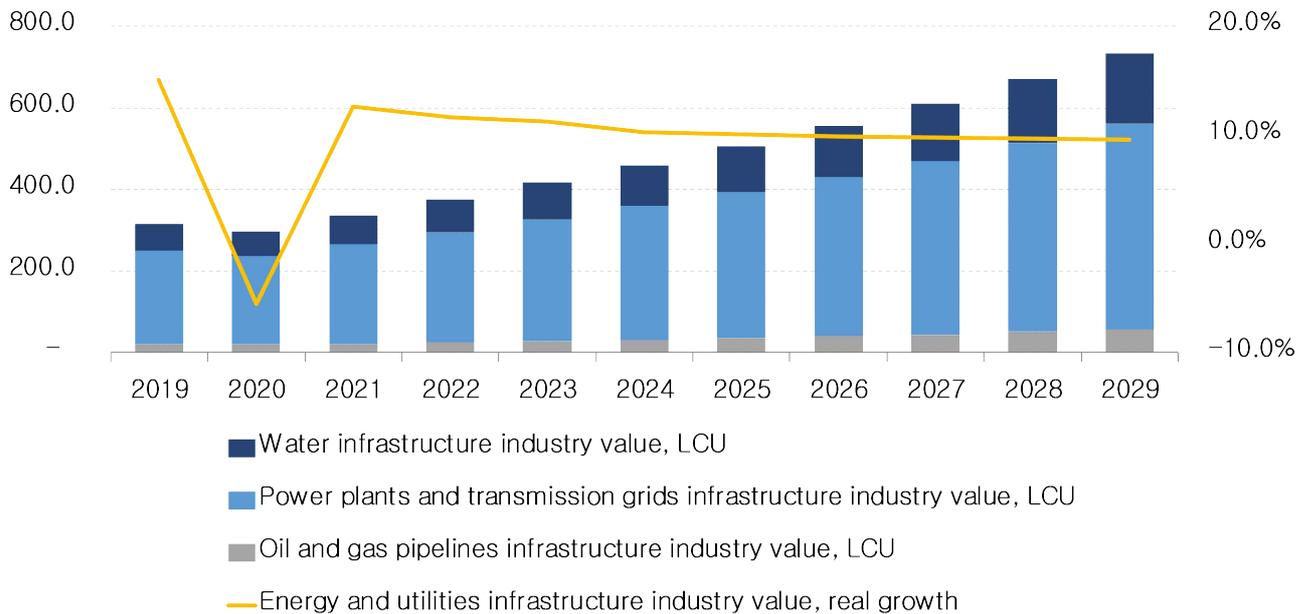
주) Industry value는 해당 산업에서 신규로 창출 가능한 부가가치를 의미

* 출처 :Fitch Solution

- 필리핀의 에너지·유틸리티 시장은 인구 증가추세에 따라 급격한 도시화 및 산업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발전소, 송전망 및 수도 시설에 대한 투자가 필요함에 따라 향후 10년 동안 상당한 성장을 보일 것으로 추정됨

- 마닐라와 같은 주요 대도시는 물 부족(400,000m³/d)으로 인한 수도 시설의 발전이 예상되며, 농촌 지역은 전력 인프라 발전이 예상
- 에너지·유틸리티 인프라는 2021년과 2029년 사이에 연평균 7.2%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며, 특히 에너지 부문에서 민자발전사(IPP)의 참여가 커지고 있음
- 필리핀 에너지부처(Department of Energy)의 전력개발계획에 따르면 2030년 까지 추가로 12,300MW의 발전 용량 설치가 요구됨

〈필리핀 에너지·유틸리티 인프라 성장〉



(주) Industry value는 해당 산업에서 신규로 창출 가능한 부가가치를 의미

* 출처: Fitch Solution

- 2020년 6월 KPMG 경제정책 연구소의 발표에 따르면 인프라에 100달러를 지출할 때마다 장기적으로 민간 부문의 생산량은 13달러(중간값)와 17달러(평균값) 증가함
- 인프라 지출이 미화 1천억 달러에 달하면 정규직에 상응하는 약 1백만 달러의 일자리 성장이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
- 또한 인프라 프로젝트 파이프라인의 지연이 경제 회복에 큰 타격을 주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COVID-19 기간 인프라 투자가 신속한 경제 회복에 효과적인 도구로 인지되고 있으므로 향후 활발한 투자가 예상됨

2 한국 투자 현황

가. 대필리핀 투자·진출 통계

- (투자·진출) 필리핀에 대한 한국 기업의 직접투자는 2010년부터 2019년까지 누적된 한국 기업 진출업체 수로 9위에 해당하며, 투자금액 기준으로는 25위에 해당하고, 제조업·건설업의 비중이 크다는 것이 특징
- 최근 10년간 500개 이상의 신규법인이 설립, 32억 달러 이상의 투자가 진행되었으며, 제조업·건설업의 비중이 전체의 83.18% 수준

<한국의 주요 FDI 투자 국가>

(단위: 개, 백만 달러)

구분	합계	중국	미국	싱가포르	필리핀	기타
진출기업	33,715	7,119	5,635	863	585	19,513
구성비	100%	21%	17%	3%	2%	58%
투자금액	398,797	41,360	98,010	14,097	3,276	242,054
구성비	100%	10%	25%	4%	1%	61%

* 출처: 한국수출입은행, 해외직접투자('10-'19 누계)

<대필리핀 투자 규모 2010-2020>

구분	신규법인수(개)	투자금액(백만 USD)
2010	75	233
2011	82	208
2012	70	938
2013	54	457
2014	51	94
2015	43	154
2016	55	166
2017	48	566
2018	48	179
2019	42	203
2020	31	107
(1982-2020)합계	1,967	5,84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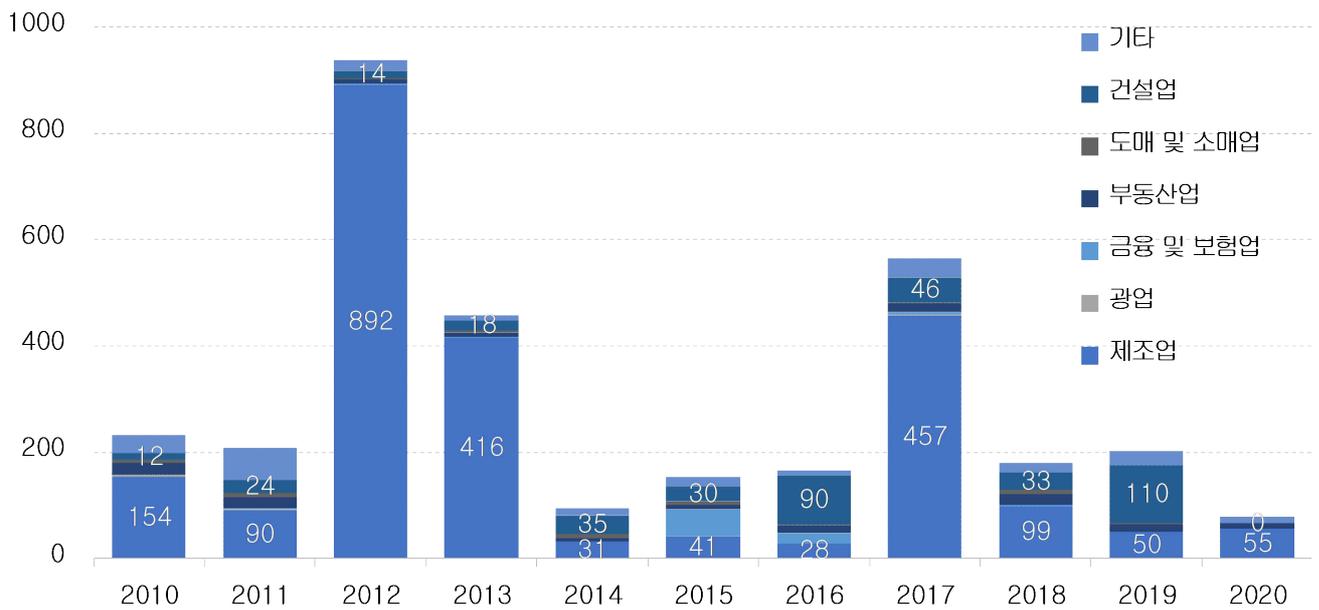
* 출처: 2020 한국수출입은행 해외직접투자통계

〈대필리핀 업종별 투자(2010~2020)〉

(단위: 백만 달러)

구분	제조업	광업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업	도매 및 소매업	건설업	기타	합계
2010	154	3	1	22	5	12	36	233
2011	90	2	2	20	9	24	61	208
2012	892	-	3	8	2	14	19	938
2013	416	-	1	9	4	18	9	457
2014	31	-	1	5	9	35	13	94
2015	41	-	52	8	5	30	18	154
2016	28	-	20	15	2	90	11	166
2017	457	3	3	18	2	46	37	566
2018	99	-	2	19	8	33	18	179
2019	79	-	0	14	2	110	30	235
2020	72	-	1	14	0	3	17	107
합계	2,359	8	86	152	48	463	269	3,385
비중	69.7%	0.24%	2.54%	4.49%	1.42%	13.68%	7.95%	100.00%

* 출처: 2020한국수출입은행 해외직접투자통계



주) 제조업(그래프 하단)·건설업(그래프 상단)의 투자금액이 표시되어 있음

- 2018년 Business World가 발표한 필리핀의 TOP 1000 기업 중 한국 기업이 11개가 포함되었고, 이 중 조선, 식음료, 전기·생산, 자동차, 전자·생산, 반도체, 사료 등 7개 기업이 제조업

<TOP 1000 중 한국기업 목록>

(단위: 백만 페소)

순위	회사명	분야	매출액	증감률	순이익	증감률
45	HHIC-Phil., Inc.	조선	37,540	-24.5	47	-61.6
47	Samsung Electronics philippiness Corp	전자,판매	36,065	9.6	265	-8.5
59	Pepsi-Cola Products philippiness, Inc.(롯데칠성 투자)	식음료	30,362	9.0	853	5.1
80	Samsung Electro-Mechanics philippiness Corp.	전기,생산	24,567	2.4	24,388	2.3
113	Hyundai Asia Resources, Inc.	자동차	19,032	40.9	19,008	41.1
217	LG Electronics philippines, Inc.	전자,생산	10,290	11.1	-4.0	86.9
266	SFA Semicon philippiness Corp.	반도체	8,292	14.1	305	-50.2
316	KEPCO SPC Power Corp.	발전	6,908	3.2	2,562	6.3
451	KEPCO Ilijan Corp.	발전	4,776	14.5	2,086	5.4
455	Daelim philippiness, Inc.	건설	4,743	14.5	-78	94.6
606	CJ philippiness, Inc.	사료	3,252	19.7	181	37.7

* 출처: Business World('18.01), philippines TOP 1000 Corporation

□ 기업규모별 투자동향

<기업규모별 신규법인 설립건수>

(단위: 건수)

투자규모	2016	2017	2018	2019	2020
대기업	10	7	9	11	4
중소기업	30	29	23	16	14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기업규모별 투자신고 추이>

(단위: 백만달러, 건수)

투자규모	2016		2017		2018		2019		2020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대기업	26	113	34	504	39	74	46	168	22	59
중소기업	113	45	122	55	116	94	85	60	83	44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나. 한국기업 수주

- (최신 동향) 한국 기업의 인프라 프로젝트 수주가 증가하면서 건설사 및 엔지니어링사의 진출이 활발함
 - 2019년 9월, 한국의 국토교통부 장관은 필리핀 ADB의 총재와 면담하여 한국 기업의 인프라 시장 진출 지원 및 협력 방안을 논의한 바 있음
 - 또한, 같은 시기에 양국 장관 및 기관장 등 60여 명이 참여하는 '한-필리핀 인프라 협력 포럼'에 참여하여 양국 간 인프라 정책을 공유함
- (운송 인프라) 2011년부터 10년간 전체 수주금액 중 철도 사업이 66.4%, 도로 사업이 20.6%로 비중이 컸음

〈필리핀 수송 인프라 사업 수주 현황〉

(단위: 백만 달러)

구분	도로	철도	항만	공항	합계
2011	25.7	0.1	7.9	4.4	38.1
2012	0.9	-	0.5	0.1	1.5
2013	33.8	-	-	-	33.8
2014	1.8	-	-	82.9	84.7
2015	54.8	-	-	1.0	55.8
2016	51.5	-	-	-	51.5
2017	-	-	-	0.9	0.9
2018	19.5	-	94.3	1.5	115.3
2019	125.5	-	-	-	125.5
2020	0.6	1,010.4	3.3	-	1,014.3
누계	314.0	1,010.5	106.1	90.8	1,521.4

주) 2020년은 10월말까지의 현황

* 출처: 해외건설협회 종합정보서비스('20.10), 수주통계

□ 주요 완공공사

(단위:천미불)

업체	공사명	발주처	계약금액	공사기간
디엘이앤씨	페트론 정유시설 프로젝트(RMP-2) - EPC	Petron Corporation	2,087,719	2011/11/01 2014/06/30
에이치제이 중공업	수빅 조선소 건설공사 - 2차 사업	HHIC-PHIL	866,090	2007/11/22 2010/04/30
에이치제이 중공업	수빅 조선소 건설공사 - 1차 사업	HHIC-PHIL	666,142	2006/05/02 2008/03/31
디엘이앤씨	JG Summit 나프타 분해 공장 건설공사	JG Summit Petrochemical Corporation	469,874	2009/12/21 2016/06/08
포스코건설	마신록 석탄화력발전소 확장공사	AES Philippines	450,941	2015/12/04 2021/06/01
디엘이앤씨	팍빌라오 420MW 석탄화력발전 공사	Pagbilao Energy Corp.(SPC)	335,129	2014/05/30 2018/02/16
두산 에너지빌리티	세부 유동층보일러(CFB) 석탄화력발전소(206MW) 프로젝트	KEPCO SPC Power Corporation	323,452	2007/12/10 2011/05/25
디엘이앤씨	Petro FCC 증설공사	Petron Corporation	221,243	2006/02/01 2008/07/04
에이치제이 중공업	마닐라 경전철 공사 - PKG 3	경전철청	220,395	1997/10/10 2004/10/21
디엘이앤씨	에스엠 200메가와트 석탄화력발전소	알스즈 코퍼레이션	210,723	2011/08/01 2016/04/29
한화건설	뉴에라 유니버시티 아레나 건설공사	뉴에라 대학교	196,113	2011/08/04 2015/05/31
에이치제이 중공업	마닐라 경전철 공사 PKG.2	경전철청	156,493	1997/09/17 2003/10/16
에이치제이 중공업	라권딩간 공항 건설공사	교통체신청	117,806	2008/01/17 2013/06/30
삼성물산	피비콤 오피스 타워 신축공사	FILINVEST DEV& PBCOM	108,232	1997/03/26 2000/04/01
디엘이앤씨	일리한 복합화력 발전소 건설공사	KEPCO Philippines Corp.	106,317	1999/03/15 2001/10/31
디엘이앤씨	페트론 BTX 프로젝트	Petron Corporation	100,812	2007/04/10 2009/04/02
현대건설	ADB본부 신축공사	아시아개발은행	95,133	1986/01/06 1989/09/09

업체	공사명	발주처	계약금액	공사기간
에이치제이 중공업	아구스강 제4차 수력발전 계획 1단계 공사	전력청	77,617	1979/07/19 1984/09/30
포스코건설	더샵 클락힐즈 아파트 신축공사	JB Clark Hills Corp.	70,658	2017/11/01 2020/11/30
대우건설	올림픽 하이츠 프로젝트	MEGAWORLD - DAEWOO CORP.	70,190	1996/09/01 1999/02/28

□ 지사 및 법인 설립현황

가. 현지지사 개설현황

업체	지사명	소재지
대우건설	마닐라지사	Pasig City, Philippines
디엘이앤씨	필리핀지점	Mandaluyong City, Philippines
삼미건설	Sammi Construction Co., Ltd. Manila Branch Office	Makati city, Manila
삼보기술단	Sambo Eng.	City of San Fernando, Pampanga
수성ENG	SOOSUNG Engineering Co., Ltd.	Pasig City, Metro Manila, Philippines
SG신성건설	마닐라지점	Makati City, Metro Manila Philippines
에이치제이 중공업	마닐라지점	Manila, Philippines
일성건설	ILSUNG CONSTRUCTION CO., LTD.	Makati City, Metro Manila Philippines
농어촌공사	필리핀 주재사무소	Ortigas, Pasig, Metro Manila
한일건설	Hanil Engineering & Construction Co., Ltd. - Philippine Branch	CBD Area, SBFZ, Philippines 2222
한전KPS	일리한지사	Makati City, Metro Manila Philippines
현대ENG	Hyundai Engineering Co., Ltd. Manila Branch	Makati City, Philippines

나. 현지법인 설립현황

업체	법인명	소재지
GS건설	GS East Asia Manila Inc.	마닐라
KTI E&C	KTIPHIL INC.	TOLEDO CITY, CEBU
KWM산업기술	KWM INDUSTRIES PHILIPPINES INC.	Subic Bay Freeport zone 2200
경남기업	KEANGNAM(PHILS) CONSTRUCTION & ENGINEERING CO., INC.	MAKATI, METRO MANILA, PHILIPPINES
계룡건설	AVANTA CONSTRUCTION CORPORATION	LAGUNA, REGION IV-A, Philippines 4028
공간종합	Global Team Space Phils., Inc.	Pasig City, Metro Manila
금양그린파워	KUMYANG ELECTRIC CORP.	Batangas city, Philippines
다원 아이디앤씨	DAWON INTERNATIONAL DEVELOPMENT & CONSTRUCTION, INC	MAKATI, METRO MANILA
대금	Dai Geum Construction Philippines Inc.	Pasig City, Philippines
대명지이씨	DAEMYOUNG GEC CORPORATION	METRO MANILA
대아이앤씨	AYOS TO KABALIKAT CONSTRUCTION CORP	bel air cor.
대우건설	DINAMICO CONSTRUCTION, INC.	TAGUIG CITY, NCR, FOURTH DISTRICT, Philippines
대우조선해양	DSME CONSTRUCTION PHILIPPINES, INC. (DSCP)	Condo Roxas Boulevard Pasay City
대우조선해양	DSCN DSME Construction New Clark Corporation	Pampang, Angeles City
동아지질	PETER GROUND IMPROVEMENT INC.	QUEZON CITY, METRO MANILA, PHILIPPINES
동양	TONGYANG CONSTRUCTION & DEVELOPMENT PHILIPPINES CORPORATION	MAKATI, METRO MANILA
동일기술공사	Degign Science - Dong Il Consortium Corporation	White Plains, Q.C., Philippines
디엘이앤씨	DAELIM PHILIPPINES, INC.	Makati, Metro Manila
명승종합건설	KUMSUNG PHILS.INC.	ORTIGAS CENTER, PASIG CITY
미동이앤씨	Midongphil Construction Corp.	Makati City
범진기공	BUMJIN PHILIPPINES CONSTRUCTION INC.	Battan City
벽산건설	BECCO PHILIPPINES, INC	MAKATI, Metro Manila

업체	법인명	소재지
벽산건설	BECCONAX PROPERTY & DEV. CORP. (J/V)	MAKATI, Metro Manila
삼미건설	SAMMI-PHIL C&D (Construction and Development) Corporation	Pasig City
삼성물산	SAMSUNG DESIGN PHILIPPINES INC.	MAKATI,METRO MANILA
삼성물산	SAMSUNG CONSTRUCTION CO. PHILIPPINES, INC.	Makati City Metro Manila
삼우CM건축	SAMOOCM CONSULTANCY PHILIPPINES, INC.	METRO MANILA
상명전기	Phil. Sang Myung Electrical Construction Corp.	Malate Manila
서진전력	Seojin Electric Power(Phil.) Corporation	Pasig City, Metro Manila
성전사	SUNGJUN INC.	Makati City, Philippines
성창이앤씨	PHILSPEC CONSTRUCTION INC.	MALATE MANILA
세보엠이씨	SEBO MEC PHILIPPINES CORP.	Makati City, Metro Manila, Philippines.
신신이앤씨	SS CLARK TRADING & BUILDERS INC.	Pampanga, Phillipines
쌍용건설	SSANGYONG Construction Philippines, Inc	Makati City, Philippines
에스테크건설	jawoon phils. inc	Alavang. manila
에이치엔씨	HNC PHILS.CONST.INC.	MAKATI CITY
에이치엘 디앤아이한라	HAPHILA CONSTRUCTION CORP.	MAKATI CITY, PHILIPPINE
에이치제이 중공업	Hanjinphil Corporation	Makati City
엘에스폼웍	LS FORMWORK CO., LTD CORP.	Malate Manila, Philippines
우림이앤씨	WOOLIM E&C LTD. COPORATION	Mandaluyoung City
유빈스	PHILKO UBINS LTD. CORP.	PASIG, MANILA
유한기술	Yuhantech Philippines Inc.	Makati City, Metro Manila
중선ITC	JSP ITC Corporation	Pasig City, Phillipines
태승이앤씨	TAESEUNG E&C PHILIPPINES INC.	Makati City
포스코건설	Ventanas Philippines Construction Inc.	필리핀 마닐라
한일건설	Hanil E & C Subic Inc.	Subic Commercial and Light Industrial Park, SBFZ, Philippines

업체	법인명	소재지
한전KPS	KEPCO KPS PHILIPPINES CORP.	Paseo De Roxas City/Town Makati Province Metro Manila
현대ENG	GALING POWER & ENERGY CONSTRUCTION CO. INC.	Makati City, Philippines
휴먼텍	HUMANTECH KOREA PHILS. CORP.	Clarkfield, Pampanga
흥우건설	HEUNGWOO PHILIPPINES CONSTRUCTION INCORPORATED	Kaunlaran Village, Caloocan city
흥화	PHILIPPINE HEUNGHWA CORPORATION	SAN JUAN, M.M., PHILIPPINES

□ (에너지 인프라) 주로 발전소 수주가 이루어졌으며, 2011년부터 10년간 전체 수주금액은 48억 달러 이상

〈필리핀 에너지 인프라 사업 수주 현황〉

(단위: 백만USD)

구분	발전소	송전시설	합계
2011	323.1	-	323.1
2012	650.6	0.5	651.1
2013	401.5	-	401.5
2014	1,487.9	-	1,487.9
2015	749.5	-	749.5
2016	837.4	-	837.4
2017	2.8	-	2.8
2018	436.0	-	436.0
2019	3.5	-	3.5
2020	-	13.0	13.0
누 계	4,892.3	13.5	4,905.7

(주) 2020년은 10월말까지의 현황

* 출처: 해외건설협회 종합정보서비스('20.10), 수주통계

- (용역 수주) 한국 기업들은 모든 분야에서 고르게 수주하고 있으며, 최근 10년간 수주액은 2억4천만 달러 이상

〈필리핀 용역 수주 현황〉

(단위: 백만USD)

구분	O&M	종합	조달	설계	CM	기타	합계
2011	-	-	-	6.9	0.5	7.4	14.8
2012	7.5	-	-	6.9	12.5	2.9	29.8
2013	12.2	12.3	-		1.5		23.5
2014	-	-	-		1.9	5.2	6.9
2015	3.4	9.0	35.9	0.9	0.2	8.6	58.1
2016	4.3	7.5	-	1.7	4.6	1.8	20.0
2017	16.7	2.8	-	7.3	1.4	3.5	31.7
2018	-	2.2	-	1.5	3.7	4.3	11.7
2019	15.1	0.7	-	6.7	2.2	5.7	30.4
2020	-	2.1	-	3.1	0.8	10.7	16.7
누계	59.2	36.5	35.9	34.5	29.3	48.2	243.6

(주) 2020년은 10월말까지의 현황

* 출처: 해외건설협회 종합정보서비스('20.10), 수주통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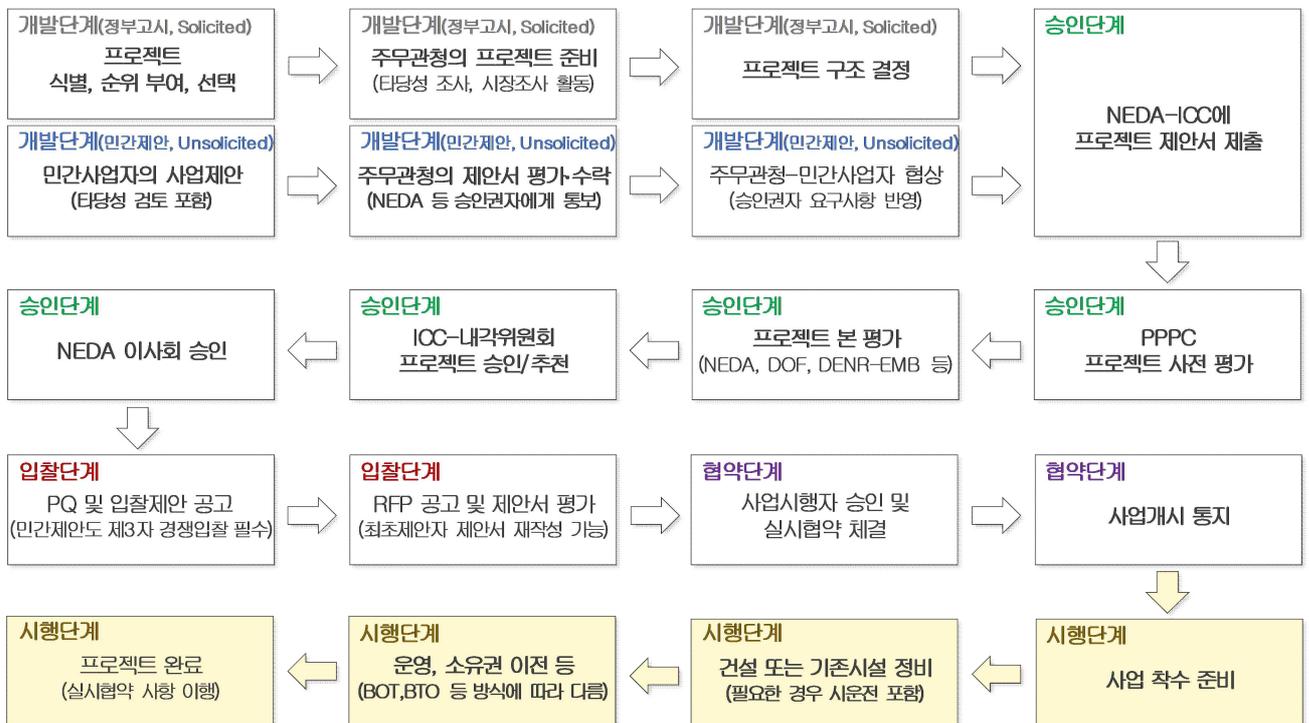
- 현대건설, 필리핀 남부도시철도 건설 본계약 체결
 - 필리핀 대통령 서명식 참석해 “경제 성장 위한 철도 인프라 가속화” 의지 표명
 - 현대건설, 2022년 9월 필리핀 남부도시철도 낙찰통지서 접수 이후 본계약 체결, 수도 마닐라~남부 칼람바 56km 구간 중 3개 공구서 9개 역사와 약 32km 철도 건설
 - 마르코스 대통령, 경제 성장 위한 철도사업 가속화 선언하고 국책 과제로 중점 추진, 총 사업비 약 2조원 규모 남부도시철도 계약식 직접 참석하며 확고한 의지 표명
 - 도심 교통난 완화로 이동편의 높이고 교통체계 개선 통한 탄소중립 및 경제발전 기대, 글로벌 시장서 입증한 K건설 경쟁력 기반해 양국 신뢰 높이고 인프라 협력 강화할 것

3 주요 PPP 사업 현황 및 전망

가. PPP 사업 현황

- (PPP 사업 현황) 이미 허가되어 진행·완료된 PPP 중 전력·수도 PPP가 절반 이상(50.4%)을 차지하고 있으며, 전력 PPP의 경우 대부분 민간에서 정부로 완료·이관된 상황
- 전력 PPP의 경우 2001년 민영화 추진 이전의 프로젝트가 상당수로 확인되며, 최근 트렌드는 정부 발주보다는 민간발전사(IPP)에 의한 독립 발전 형태가 대다수
- PPP Center의 PPP 프로젝트 목록에서 Awarded PPP를 확인할 수 있음 (<https://ppp.gov.ph/list-of-projects/>)

<PPP 프로젝트 허가(Awarded) 후 시행단계>



〈시행단계 PPP 현황〉

(단위: 개수)

구분		건설 전	건설 중	운영	완료·이관	합계
수송	도로	1	3	10	-	14
	철도	-	2	2	-	4
	항만	2	-	1	-	3
	항공	2	2	2	-	6
에너지·유틸리티	전력	-	-	8	32	40
	수도	1	2	14	-	17
	폐기물	-	-	1	-	1
기타	IT	-	-	3	7	10
	농업	1	1	6	-	8
	교육	-	1	1	-	2
	도시개발	1	2	4	1	8
합계		8	13	52	40	113

(주) 대중교통은 도로에 포함

* 출처: PPPC('20.11), Project Lists

〈허가된 PPP 사업 List〉

(단위: 십억 페소)

구분	프로젝트명	단계	규모	사업구조
도로	Cavite-Laguna Expressway (CALAX)	건설 중	35.43	BTO
도로	Cebu-Cordova Link Expressway (CCLEX)	건설 중	27	Joint Venture
도로	Daang Hari-SLEX Link Road (Muntinlupa-Cavite Expressway) Project	운영단계	2.23	BTO
도로	Legazpi City Grand Terminal Project	운영단계	1.38	BLT
도로	Manila North Luzon Expressway (NLEX)	운영단계	17.84	Joint Venture
도로	Manila-Cavite Toll Expressway (CAVITEX)	운영단계	6.32	Joint Venture; BT
도로	Metro Manila Skyway (MMS) Stage 3	건설 중	20.20	Joint Venture
도로	Metro Manila Skyway (Stage 1)	운영단계	20.20	Joint Venture Agreement
도로	NAIA Expressway Project (Phase II)	운영단계	17.93	BTO
도로	South Integrated Transport System (ITS) Project (Taguig Integrated Terminal Exchange)	건설 전	5.20	BTO
도로	South Luzon Tollway Extension (SLEX) Project	운영단계	23.05	Joint Venture Agreement

〈허가된 PPP 사업 List〉

(단위: 십억 페소)

구분	프로젝트명	단계	규모	사업구조
도로	Southern Tagalog Arterial Road (STAR) Project	운영단계	2.32	BTO
도로	Southwest Integrated Transport System (ITS) Project (Parañaque Integrated Terminal Exchange)	운영단계	2.50	BTO
도로	Tarlac-Pangasinan-La Union Expressway (TPLEX) Project	운영단계	35.00	BTO
철도	Automatic Fare Collection System	운영단계	1.72	BOO
철도	Light Rail Transit Line No. 3 (MRT 3)	운영단계	31.58	BLT
철도	LRT Line 1 Cavite Extension and Operation & Maintenance	건설 중	64.90	BTO
철도	MRT Line 7	건설 중	62.70	BGTOM
항만	Cavite Barge Gateway Terminal	건설 전	0.00	0
항만	Iloilo-Guimaras Ferry Terminal Complex Project	운영단계	0.13	Joint Venture
항만	Redevelopment of the Port of Irene	건설 전	4.05	BOT
항공	Bulacan International Airport Project (New Manila International Airport)	건설 전	735.63	BOT
항공	Caticlan Airport Development Project	건설 중	2.35	CAOT
항공	Clark International Airport Expansion Project – Engineering, Procurement and Construction (EPC)	건설 중	12.55	BT
항공	Clark International Airport Expansion Project Operation and Maintenance	건설 전	5.61	BOT
항공	Lal-lo Airport Project	운영단계	0.00	Joint Venture Agreement
항공	Mactan-Cebu International Airport Passenger Terminal Building	운영단계	17.52	BOT
전력	Ambuklao Hydro Electric Power Plant	완료·이관	4.58	ROL
전력	Bakun A/B and C Hydroelectric Power Plant	운영단계	4.00	BOT
전력	Bataan EPZA Diesel Plant	완료·이관	1.49	BOT
전력	Bauang La Union Diesel Power Plant	완료·이관	9.64	BOT
전력	Benguet Province Mini Hydroelectric Power Plant	완료·이관	1.06	BOO; EPSA(Electric Power Supply Agreement)
전력	Binga Hydroelectric Plant	완료·이관	6.90	ROL

〈허가된 PPP 사업 List〉

(단위: 십억 페소)

구분	프로젝트명	단계	규모	사업구조
전력	Bohol Provincial Electric System Project	운영단계	0.24	ROOM(Rehabilitate-Own-Operate-Maintain)
전력	Bunker-Fired Diesel Generator Power Station Project (Pinamucan, Batangas Diesel Power Plant)	완료·이관	5.79	BOT
전력	Calaca Batangas Diesel Power Barges	완료·이관	3.76	BOO
전력	Caliraya-Botocan-Kalayaan (CBK) Power Plant	운영단계	21.70	BROM
전력	Cavite EPZA Diesel Plant Project	완료·이관	1.06	BOT
전력	Clark Air Base Diesel Plant	완료·이관	0.22	ROM
전력	Engineering Island Power Barge Project	완료·이관	1.13	BOO
전력	General Santos 50 MW Bunker C-Fired Diesel Power Plant	완료·이관	2.89	BOO
전력	Iligan City Diesel Plant I (58 MW Bunker-Fired Diesel Generating Power Station)	완료·이관	2.89	BOT
전력	Iligan City Diesel Plant II (40 MW Bunker-Fired Diesel Generating Power Station)	완료·이관	1.93	BOT
전력	Ilijan Natural Gas Combined Cycle Power Plant (1200 MW Natural Gas Combined Cycle Power Project)	운영단계	46.29	BOT
전력	Leyte-Cebu Geothermal Power Plant	완료·이관	14.73	BOT
전력	Leyte-Luzon (Malitbog) Geothermal Power Plant	완료·이관	30.40	BOT; ECA(Energy Conversion Agreement)
전력	Leyte-Luzon Geothermal Power Plant (Leyte Geothermal Power Optimization)	완료·이관	2.22	BOT; PPA(Power Purchase Agreement)
전력	Limay Bataan Combine Cycle Gas Turbine Power Plant Block A Project	완료·이관	14.37	BTO
전력	Limay Bataan Combined Cycle Gas Turbine Power Plant (GTTP) Block B Project	완료·이관	16.88	BTO
전력	Makban Binary Geothermal Plant	완료·이관	1.59	BOT
전력	Malaya Thermal Power Plant 1 & 2 Project	완료·이관	12.06	ROMM

〈허가된 PPP 사업 List〉

(단위: 십억 페소)

구분	프로젝트명	단계	규모	사업구조
전력	Mindanao Coal-Fired Thermal Power Plant	운영단계	14.95	BOT
전력	Mindanao Diesel Power Barges Project	완료.이관	0.02	BTO
전력	Mindanao I Geothermal Plant	완료.이관	3.84	BOT
전력	Mindanao II Geothermal Plant	완료.이관	3.49	BOT
전력	Naga Thermal Plant Complex Project	완료.이관	2.89	ROM
전력	Navotas Diesel Power Barge 1 & 2	완료.이관	5.30	BOO
전력	Navotas Gas Turbine 1-3 Project	완료.이관	1.93	BOT
전력	Navotas Gas Turbine 4 Project	완료.이관	1.93	BOT
전력	North Harbor Diesel Power Barges Project	완료.이관	3.76	BOO
전력	Pagbilao Coal-Fired Power Plant Project	운영단계	42.82	BOT
전력	San Roque Multi-purpose Hydroelectric Powerplant	운영단계	55.02	BTO
전력	Sual Coal-Fired Thermal Power Plant Project	운영단계	57.86	BOT
전력	Subic, Zambales Diesel Power Plant I Project	완료.이관	0.00	0
전력	Subic, Zambales Diesel Power Plant II Project	완료.이관	5.79	BOT
전력	Toledo, Cebu Coal Thermal Power Project	완료.이관	1.69	PFSA(Power and Fuel Supply Agreement)
전력	Zamboanga Diesel Power Plant Project	완료.이관	5.30	BOO
수도	Bohol Provincial Waterworks System Project	운영단계	0.69	ROOM(Rehabilitate-Own-Operate-Maintain)
수도	Bulacan Bulk Water Supply Project	운영단계	24.41	BOT
수도	Butuan City Water District JVA for Water Supply Development and Water Treatment	운영단계	0.00	Joint Venture
수도	Cabanatuan City Water District Joint Venture	운영단계	5.03	Joint Venture
수도	Casecnan Multi-Purpose Irrigation and Power Project	운영단계	31.34	BOT
수도	Clark Water Supply and Sewerage Project	운영단계	2.40	Joint Venture

〈허가된 PPP 사업 List〉

(단위: 십억 페소)

구분	프로젝트명	단계	규모	사업구조
수도	Daraga Water District Joint Venture Project	운영단계	1.05	Joint Venture
수도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the San Simon Waterworks System	운영단계	0.00	Memorandum of Agreement
수도	Jaen Water District Joint Venture	운영단계	1.07	JVA (Joint Venture Agreement)
수도	Joint Venture Project on Bulk Water Supply (JV1) 170 MLD Bulk Water Supply Project	건설 중	2.80	Joint Venture
수도	MWSS Privatization Project	운영단계	337.54	Concession Agreement
수도	Passi City Water Supply and Distribution System	운영단계	0.00	Memorandum of Agreement
수도	Puerto Galera Sewerage and Wastewater Treatment Plant Project	건설 전	0.00	Build-Transfer scheme under the BOT Law
수도	Subic Water and Sewerage Project	운영단계	5.79	Joint Venture
수도	Tagum Water District Bulk Water Supply Project	건설 중	0.53	Joint Venture
수도	Tarlac City Water District Joint Venture	운영단계	0.00	Joint Venture
수도	Zamboanga City Water District Non-Revenue Water Reduction Project	운영단계	0.00	Joint Venture
폐기물	Hermosa Sanitary Landfill	운영단계	0.00	ROT
IT	Alien Certificate of Registration Identity (ACR-I) Card Project	운영단계	0.14	BOT
IT	Angeles City Government Operations-Information Management System Project	완료.이관	0.04	BLT
IT	City of Koronadal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Project	완료.이관	0.03	BOT
IT	Civil Registry System – Information Technology Project (Phase II)	운영단계	1.59	BTO
IT	Civil Registry System Information Technology Project Phase 1	완료.이관	3.13	BTO
IT	Database Infrastructure and Information Technology System	완료.이관	3.62	BOO
IT	Improving Philpost’s Financial and Operational State Through ICT/E-Commerce Opportunities Project	완료.이관	3.09	BLT

〈허가된 PPP 사업 List〉

(단위: 십억 페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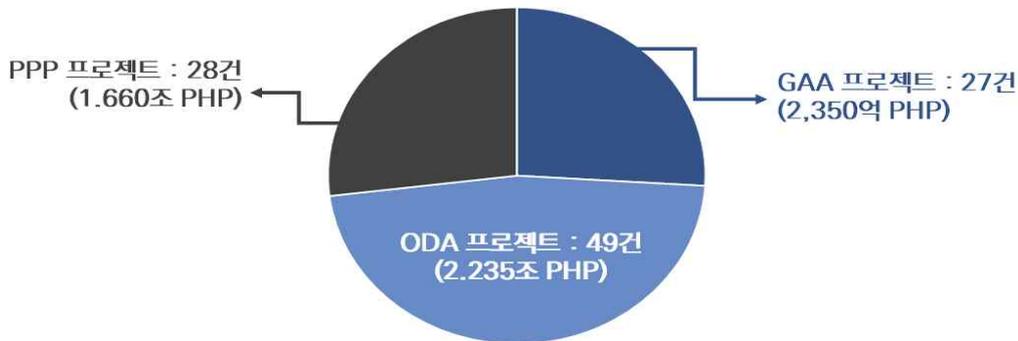
구분	프로젝트명	단계	규모	사업구조
IT	Land Titling Computerization Project (LTCP)	운영단계	3.95	BOO
IT	Malabon Digital Infrastructure Project	완료·이관	0.02	BTO
IT	Pampanga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완료·이관	0.05	BTO
농업	Butuan City Slaughterhouse Project	운영단계	0.00	ROMM(Rehabilitate-Operate-Maintain-Manage)
농업	Cauayan Mega Market	건설 전	0.30	BOO
농업	Dapitan Public Market	운영단계	0.04	BOT
농업	Mandaluyong Marketplace	운영단계	1.11	BOT and BT
농업	Marulas Public Market	운영단계	0.09	Joint Venture
농업	New San Fernando Slaughterhouse Project	운영단계	0.02	BOT
농업	Rehabilitation and Operation of the Cabanatuan City Slaughterhouse Project	운영단계	0.03	ROT
농업	Tanauan City Public Market Redevelopment Project	건설 중	0.00	DBTO(Design-Build-Transfer-Operate)
교육	PPP for School Infrastructure Project (PSIP) – Phase I	운영단계	9.89	BLT
교육	PPP for School Infrastructure Project (PSIP) – Phase II	건설 중	3.86	BT
도시개발	Bataan Bunker Building at the Capitol	운영단계	2.40	Joint Venture
도시개발	Cauayan City Entertainment and Cultural Center	건설 중	0.30	Concession Agreement
도시개발	New Clark City National Government Administrative Center (NCC NGAC)	건설 중	13.16	Joint Venture
도시개발	Pabahay sa Riles Project	운영단계	0.40	Joint Venture
도시개발	Passi City Socialized Housing Project	운영단계	0.00	Memorandum of Agreement
도시개발	Rehabilitation of Municipal Slaughterhouse, Operation and Maintenance of the Whole Kalibo Meat Plant	건설 전	0.03	Joint Venture
도시개발	Talisay City Hall Building Project	완료·이관	0.16	BT
도시개발	Valenzuela City Town Center Project	운영단계	0.17	JVA(Joint Venture Agreement)

* 출처: PPPC('20.11), Project Lists

나. PPP 사업 전망

- (PPP 사업 전망) 필리핀 PPP 시장은 정책적인 지원, 도시화 증가, 제조업 육성, 대외원조의 증가, 건설시장의 확대 등으로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전망함
- (정책) 필리핀 행정부는 BBB 정책에 따라서 인프라개발에 대해 적극적인 추진 의지가 있으며, 이에 따라 PPP에 대한 기회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
 - 최근 필리핀 정부에서는 BBB 정책의 추진력을 얻기 위해 기존 75개였던 IFPs의 수를 104개(4.2조 페소 규모)로 늘리면서 PPP 프로젝트를 8개에서 28개로 변경
 - 필리핀 행정부가 기존 추진해온 대규모 인프라개발사업(BBB)의 이행 부진, COVID-19로 인한 국가재정 부족 문제 등에 대한 해법으로 향후 민관합작투자사업(PPP) 확대가 예상

〈자금조달 방법에 따른 IFPs 수〉



(주1) GAA(Government Accounts Act): 정부회계법에 의한 예산을 의미;

(주2) ODA(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선진국에 의한 공적개발원조를 의미

* 출처: NEDA('20.08)

- 2020년 10월, 필리핀 재무부 장관은 COVID-19로 인한 경기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BBB 프로젝트에 따른 인프라 개발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임을 밝힘
 - CREATE* 법안을 통과하여 외국인 투자유치를 적극적으로 모색할 계획
 - * CREATE (Corporate Recovery and Tax Incentives for Enterprises Act) : 5단계의 종합세제개혁 프로그램 중 2단계로, 법인세 완화 및 인센티브 개혁을 담고 있음
- 필리핀 마닐라 소재 싱크탱크 연구소 STRATBASE ADR INSTITUTE는 5.29(금) '민관합작투자(PPP)를 통한 COVID-19 경제 분야 대응 논의' 아래 화상회의 계기, 필리핀 정부의 대규모 인프라개발 프로젝트(BBB) 아래 민관합작투자 동향 및 COVID-19 대응 경기 부양책으로서 PPP 향방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

- **(도시화)** 필리핀의 도시인구 증가에 따른 도시화율 증가
 - 도시 내 위생시설, 자동차 및 지하/지상철, 병원, 전력, 네트워크 등의 인프라에 대한 수요가 높아질 것으로 전망
 - 필리핀의 인구 밀도는 2015년 315.14명/km²에서 2018년 357.69명/km²으로 약 13% 증가했고, 2019년 기준 도시인구 증가율은 연간 약 1.88%
 - 필리핀은 인근 동남아시아 국가 중 싱가포르, 방글라데시, 베트남과 더불어 제곱킬로미터당 250명 이상의 인구 고밀 국가

<필리핀 인구 관련 통계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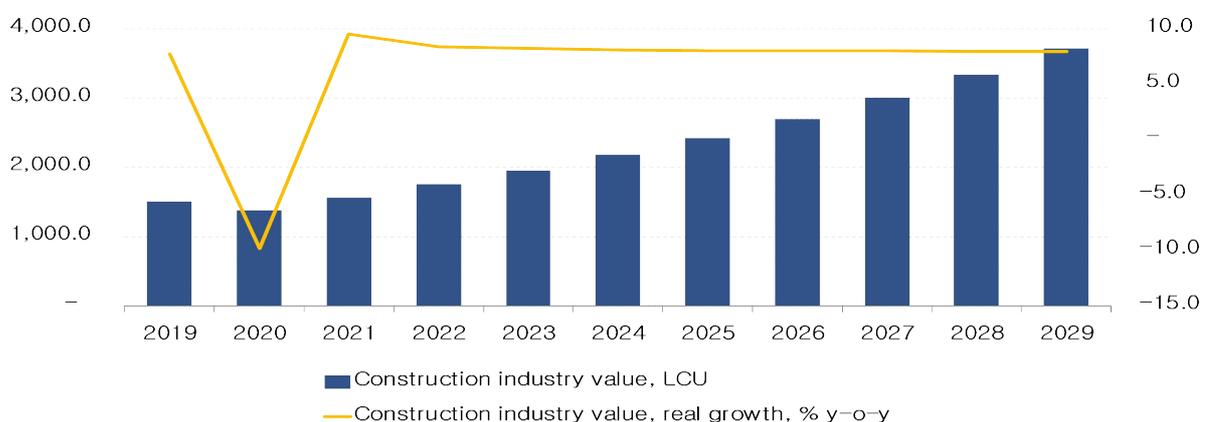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필리핀 인구수(천 명)	102,113	103,664	105,173	106,652	108,117
필리핀 인구증가율	1.58%	1.51%	1.45%	1.40%	1.36%
필리핀 인구 밀도(명/km ²)	342.47	347.67	352.73	357.69	-
필리핀 최소 위생 서비스 사용률	74.26%	75.40%	76.53%	-	-
도시민 비율	46.28%	46.48%	46.68%	46.91%	47.15%
도시민 연평균 증가율	1.99%	1.92%	1.89%	1.88%	1.88%
도시 내 슬럼가 거주민 비율	-	43.50%	-	42.90%	-
도시민 최소 위생 서비스 사용률	77.51%	78.00%	78.49%	-	-

* 출처: World Bank(20.10)

- 2019년 기준 필리핀의 인구는 약 1억 811명으로 이 중 47.15% (약 5,097만 명)가 도시에 거주
- 도시 거주민의 비중은 2015년 45.33%에서 연평균 약 2%p 증가하였고, 2025년에는 1천만 명이 추가로 증가하여 약 42%에 이를 것으로 예상
- 필리핀 도시 거주민 중 슬럼가에 거주하고 있는 인구 비율은 2018년 기준 42.90%로 2010년 40.90% 대비 약 2%p 증가
- 세계은행에 따르면, 2017년 기준으로 기초(최소) 위생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인구는 전체 인구의 76.53% 수준. 2010년 68.70% 대비 증가하였으며 도시 거주민의 78.49%가 기초(최소) 위생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음
- 세계은행은 2017년 기준으로 필리핀 도시 거주민의 약 97.69%가 수도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 추정하였으나, 2017년 기준으로 전체 인구의 46.65%, 도시민의 61.47%만이 안전하게 관리된 식수를 공급받는 상황

- 향후 10년간 필리핀의 인프라 개발사업은 도시화로 인해 증가하는 도시인구를 위한 교통 및 전력 네트워크, 수도 시설 등 기반시설 개발에 집중될 것으로 예상
- 필리핀은 아시아 국가들 가운데 인구 밀도가 가장 높은 국가 중 하나이며 메트로 마닐라 등 주요 도시의 인구 증가 속도 대비 인프라 시설 성장 속도는 더딘 편임
- (제조업) 필리핀의 제조업 성장으로 인해 전체 프로젝트 중 특히 운송 및 전력부문의 인프라 자산에 대한 투자 및 지원이 예상됨(필리핀은 저임금의 풍부한 노동력을 바탕으로 해외투자를 유치하고 있음)
- (대외원조) 필리핀은 ADB, WB, AIIB 등 국제기구뿐만 아니라 일본, 한국 등 인근 국가로부터 받는 대외원조가 확대 추세에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많은 PPP 프로젝트가 진행될 가능성이 있음
 - 국제기구(WB·ADB·AIIB 등) 원조 자금을 통한 프로젝트 지원이 더욱 확대되어 전력·운송·수자원·IT 등 모든 분야의 프로젝트가 다수 진행 중
 - 필리핀 두테르테 정부는 아키노(Aquino) 전 정부와 유사하게 PPP 방식으로 대규모 인프라개발 모색
- 그러나 2017년 중반 이후 소위 'Hybrid PPP'가 키워드로 부상하면서 정부투자 및 지출을 확대
- (건설시장 확대) Fitch는 인프라 산업을 포함한 건설시장의 규모가 2021년부터 2029년까지 매년 약 8% 이상씩 꾸준히 성장할 것으로 전망
 - 2020년 COVID-19으로 인한 시장 불황은 2021년부터 회복세로 전환 예상

〈필리핀 건설 시장 규모 전망(2019~2029)〉



주) Industry value는 해당 산업에서 신규로 창출 가능한 부가가치를 의미

* 출처: Fitch Solution

〈필리핀 건설 산업 규모 전망(2019~2029)〉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시장규모(10억 페소)	1,502	1,383	1,563	1,752	1,957	2,179	2,425	2,698	3,001	3,337	3,712
실질성장률(yoy, %)	7.7	-9.8	9.5	8.4	8.2	8.1	8.0	8.0	8.0	8.0	8.0
GDP 대비(%)	8.1	7.0	7.2	7.3	7.5	7.7	7.8	8.0	8.2	8.4	8.6

* 출처: Fitch Solution

4 발주 예상 PPP 현황

가. 주요 프로젝트

- (IFP Lists) IFP 목록 중 PPP에 해당하는 프로젝트는 총 28개이며, 입찰이 아직 시작되지 않아 사업자가 참여 가능한 프로젝트는 현재 21개로 확인됨

〈실행기관(IA)/지방정부기관(LGU) 약어〉

약어	전체 이름
PPA	Philippines Ports Authority
DOTr	Department of Transportation
MIAA	Department of Transportation and Manila International Airport Authority
LTFRB	Land Transportation Franchising and Regulatory Board
TIEZA	Tourism Infrastructure and Enterprise Zone Authority
DPWH	Department of Public Works and Highways
CAAP	Civil Aviation Authority of the Philippines
PNR	Philippines National Railways
NHA	National Housing Authority

〈IFPs-PPP 리스트(2020)〉

(단위: 백만 페소)

프로젝트명	규모	발주처	제안주체	입찰가능여부
Urban development and redevelopment (including disaster risk mitigation) sector				
New Clark City Phase 1	18,000	BCDA	Solicited (정부발주)	사업시행자 선정
Water resources sector				
Wawa Bulk Water Supply Project	20,000	MWss	Solicited (정부발주)	입찰 예정
Power and energy				
Agus 3 Hydroelectric Power Project (225MW)	46	DOE	Solicited (정부발주)	입찰 예정
Transport and mobility				
C5 Southlink Expressway Project	12,645	DPWH	Solicited (정부발주)	입찰 예정
Clark International Airport Expansion Project Phase 1	14,972	DOTr/BCDA	Solicited (정부발주)	사업시행자 선정
Metro Manila Skyway Stage 3	44,860	DPWH	Solicited (정부발주)	사업시행자 선정
MRT 7	75,000	DOTr	Unsolicited (민간제안)	사업시행자 선정
Southern Luzon Expressway Toll Road 4	13,100	DPWH	Solicited (정부발주)	사업시행자 선정
NLEX-SLEX Connector Road	23,302	DPWH	Unsolicited (민간제안)	입찰 예정
Southeast Metro Manila Expressway Project	45,290	DPWH	Solicited (정부발주)	입찰 예정
New Manila International Airport	735,654	DOTr	Unsolicited (민간제안)	사업시행자 선정
Taguig Integrated Terminal Exchange	4,000	DOTr	Solicited (정부발주)	사업시행자 선정
Quezon-Bicol Expressway	87,296	DPWH	Solicited (정부발주)	입찰 예정
Cavite-Tagaytay-Batangas Expressway Project	25,240	DPWH	Unsolicited (민간제안)	입찰 예정
TPLEX Extension Project	23,947	DPWH	Unsolicited (민간제안)	입찰 예정
NLEX Harbor Link Extension to Anda Circle	12,000	DPWH	Unsolicited (민간제안)	입찰 예정
Ninoy Aquino International Airport	102,115	DOTr	Unsolicited (민간제안)	입찰 예정
New Bohol (Panglao) International Airport	3,791	DOTr	Unsolicited (민간제안)	입찰 예정
C5 MRT 10 Project	81,470	DOTr	Unsolicited (민간제안)	입찰 예정
Cebu Monorail System	78,890	DOTr	Unsolicited (민간제안)	입찰 예정
MRT 11	71,110	DOTr	Unsolicited (민간제안)	입찰 예정
LRT 6 Cavite Line A/ Modified LRT 6 Project Phases 1 (Niog-Dasma City) and 2 (Dasma City- Tagaytay)	50,380	DOTr	Unsolicited (민간제안)	입찰 예정
Laguindingan Airport	45,751	DOTr	Unsolicited (민간제안)	입찰 예정

〈IFPs-PPP 리스트(2020)〉

(단위: 백만 페소)

프로젝트명	규모	발주처	제안주체	입찰가능여부
Davao International Airport	39,524	DOTr	Unsolicited (민간제안)	입찰 예정
Bacolod-Silay International Airport	19,240	DOTr	Unsolicited (민간제안)	입찰 예정
Iloilo International Airport	4,593	DOTr	Unsolicited (민간제안)	입찰 예정
Kalibo International Airport	3,844	DOTr	Unsolicited (민간제안)	입찰 예정
Fort Bonifacio-Makati Sky Train	3,520	DOTr	Unsolicited (민간제안)	입찰 예정

(주) 입찰가능여부 판단은 2020년 11월 PPP Center List를 기준으로 하였음

* 출처: NEDA('20.10), Revised List of IFPs 2020.08

□ 2021 IFP (Infrastructure Flagship Projects) 수정 리스트

참고: 아래 *로 표시된 프로젝트는 2017년, 2019년 및 2020년에 승인된 이전 IFP 목록의 일부였으며 이미 완료되었기 때문에 현재 목록의 일부로 간주되지 않음.

다음 개정 이전에 완료된 모든 프로젝트는 더 이상 후속 목록에 포함되지 않음

번호	프로젝트명	시행기관	총사업비 (백만 페소)	자금원	분야
2021년 7월까지 개시를 위한 사업들과 이미 부분적으로 개통된 사업들 포함함.					
*	Delpan 교량에서 Napindan channel까지 Pasig 강을 따라 잔여 section의 개선	DPWH	1,000.00	일본ODA	도시개발
*	Pulangi 4 선택적 준설 3단계	NPC	244.88	GAA	발전 및 에너지
*	Sangley 공항	DOTr	1,436.20	GAA	운송 및 모빌리티
*	Angat 송수개선사업	MWSS	3,290.00	ADB ODA	수자원
*	Luzon 우회인프라사업	DICT/BCDA	1,000.00	GAA/CPF	정보통신기술
*	뉴 클락 도시 1단계 a. 국립정부행정센터 1A단계(15,000.00) b. Filinvest 혼합용도 산업개발 1단계 부지개발(3,000.00)	BCDA	18,000.00	PPP	도시개발
*	클락 국제공항 확장사업 1단계	DOTr/BCDA	14,972.00	PPP	운송 및 모빌리티
1	LRT2 East 확장	DOTr	9,759.31	일본ODA	운송 및 모빌리티
2	Metro Manila Skyway 3차	DPWH/TRB	65,390.00	STOA/PPP	운송 및 모빌리티
3	Metro Manila 물류 네트워크: 보니파시오 글로벌시-오르티가스 센터 연결 도로 사업	DPWH	5,723.90	GAA	운송 및 모빌리티

번호	프로젝트명	시행기관	총사업비 (백만 페소)	자금원	분야
4	Metro Manila 물류 네트워크: 차이나 대교 a) 비논도 - 인트라무로스 교량 (2021년 4분기 완성 예정) b) 에스트렐라 - 판타레온 교량	DPWH	5,947.10	중국 ODA	운송 및 모빌리티
2021년까지 완공을 위해 진행중인 사업들					
5	제너럴 산토스 공항	DOTr	1,096.00	GAA	운송 및 모빌리티
6	비콜 국제공항개발사업 (신 레가즈피)	DOTr	4,798.00	GAA	운송 및 모빌리티
7	통합 대중양역	DOTr	2,783.00	GAA	운송 및 모빌리티
8	LTO 중앙지휘센터	DOTr	950.00	GAA	정보통신기술
9	도로운송정보기술 인프라 사업 1단계 (LTO IT)	DOTr	3,190.00	GAA	정보통신기술
10	차량인식 및 강화시스템	DOTr	750.00	GAA	정보통신기술
11	수랄라-티볼리-산호세 도로, 남쪽 코타바토	DPWH	3,473.00	GAA	운송 및 모빌리티
12	그레이터 마라위 재건 및 개발계획 (JICA 보조금)	DPWH	970.97	일본ODA	도시개발
13	사마르 태풍양해안 도로 사업	DPWH	1,165.96	일본ODA	운송 및 모빌리티
14	국립관개부문 복구 및 개발사업(NIS RIP)	NIA	3,134.45	일본ODA	수자원
15	말리투복-마리다가오 관개사업	NIA	5,444.85	GAA	수자원
16	카가얀, 타고로안, 이무스 강 홍수위험관리사업(FRIMP)	DPWH	7,504.91	일본ODA	도시개발
2022년까지 완성을 위하여 진행중인 사업들					
17	신단간-바욕-레이크우드 도로, 잠보앙가 델 수르, 잠보앙가 델 노르테	DPWH	5,133.01	GAA	운송 및 모빌리티
18	보라카이 환상도로	DPWH	1,940.00	GAA	운송 및 모빌리티
19	NLEX-SLEX 연결도로	DPWH	23,302.00	unsolicited PPP	운송 및 모빌리티
20	팜팡가만 저지대 통합재난위험감소 및 기후변화 대응조치	DPWH	6,151.00	한국ODA	도시개발
21	카가얀 데 오로 해안도로	DPWH	3,166.53	GAA	운송 및 모빌리티
22	C5 남부 연결 고속도로 사업	DPWH/TRB	12,645.00	STOA/PPP	운송 및 모빌리티
23	남동 메트로 마닐라 고속도로 사업	DPWH/TRB	45,290.00	STOA/PPP	운송 및 모빌리티
24	치코강 펌프 관개사업	NIA	4,372.90	중국ODA	수자원
25	바로그-바로그 다목적 사업 2단계, 탈락	NIA	13,370.00	GAA	수자원

번호	프로젝트명	시행기관	총사업비 (백만 페소)	자금원	분야
26	더 낮은 아그노 강 관개 시스템 개선사업, 평가시안	NIA	3,500.00	GAA	수자원
27	타그이그 통합 터미널 환승	DOTr	4,000.00	PPP	운송 및 모빌리티
28	세부 고속버스(BRT)	DOTr	16,309.00	세계은행ODA	운송 및 모빌리티
29	다바오 공공운송 현대화 사업	DOTr	18,600.00	ADB ODA	운송 및 모빌리티
30	안전한 필리핀 사업 1단계	DILG	20,314.00	중국 ODA	정보통신기술
31	카가얀 데 오로강 홍수위험개선 및 관리사업	DPWH	8,549.18	일본ODA	도시개발
32	파식 마리키나강 수로개선사업 5단계	DPWH	4,572.65	GAA	도시개발
33	안다 서클에 NLEX 항만 연결확장	DPWH/TRB	12,000.00	STOA/PPP	운송 및 모빌리티
2023년 이상까지 완성을 위하여 진행중인 사업들					
34	디지털 전환 센터 (업그레이드 Tech4ED 사업)	DICT	33,983.00	GAA	정보통신기술
35	국립정부 데이터센터	DICT	277.00	GAA	정보통신기술
36	국립 브랜드밴드 프로그램	DICT	20,305.00	GAA	정보통신기술
37	MRT7	DOTr	75,000.00	unsolicited PPP	운송 및 모빌리티
38	엠랑 중앙 민다나오 공항	DOTr	2,600.00	GAA	운송 및 모빌리티
39	MRT3 복구 사업	DOTr	21,966.00	일본ODA	운송 및 모빌리티
40	북남 통근 철도(PNR 북부1)	DOTr	149,130.00	일본ODA	운송 및 모빌리티
41	메트로 마닐라 1호선 카비테 확장 (바클라탄-니오그, 바쿠르) (a.k.a LRT 1 카비테 확장사업)	DOTr	64,915.00	일본ODA/PPP	운송 및 모빌리티
42	간선 도로 우회사업 3단계 (플라리델 우회도로)	DPWH	5,260.65	일본ODA	운송 및 모빌리티
43	다바오 시 우회도로 건설사업	DPWH	46,805.00	일본ODA	운송 및 모빌리티
44	바콜로드-네그로스 사고 경제 고속도로	DPWH	8,095.00	GAA	운송 및 모빌리티
45	카마리네스 수르 고속도로사업	DPWH	9,235.00	GAA	운송 및 모빌리티
46	파사카오-발라탄 관광 해안고속도로	DPWH	14,972.29	GAA	운송 및 모빌리티
47	민다나오 도로부문 사업의 성장회랑 개선	DPWH	25,257.00	ADB ODA	운송 및 모빌리티
48	다바오시 해안도로사업 (부카나 교량 포함)	DPWH	28,265.00	GAA/중국ODA	운송 및 모빌리티
49	남부 루손 유료 고속도로 4	DPWH/ TRB	13,100.00	STOA/PPP	운송 및 모빌리티

번호	프로젝트명	시행기관	총사업비 (백만 페소)	자금원	분야
50	수(水)지구 개발부문 사업들 (ADB-WDDSP)	LWUA	4,240.00	ADB ODA	수자원
51	와와 벌크 물공급사업	MWSS	20,000.00	민간자금	수자원
52	일로일로 자라우르 강 다목적사업 2단계	NIA	11,212.00	한국ODA	수자원
53	필리핀 신원확인 시스템	PSA	26,260.00	GAA	정보통신기술
54	PNR 남쪽 롱 하울	DOTr	175,318.00	중국ODA	운송 및 모빌리티
55	북남 통근 철도 확장 (PNR North2, PNR South 통근)	DOTr	628,420.00	ADB ODA/ 일본ODA	운송 및 모빌리티
56	민다나오 철도 사업 1단계	DOTr	81,686.00	중국 ODA	운송 및 모빌리티
57	LRT 2 서부 확장	DOTr	10,120.00	GAA	운송 및 모빌리티
58	뉴 세부 국제컨테이너항	DOTr	9,195.00	한국ODA	운송 및 모빌리티
59	ESDA 그린웨이	DOTr	8,793.45	ADB ODA	운송 및 모빌리티
60	메트로 마닐라 지하철사업 1단계	DOTr	356,974.00	일본ODA	운송 및 모빌리티
61	뉴 마닐라 국제공항	DOTr	735,654.00	Unsolicited PPP	운송 및 모빌리티
62	MRT4	DOTr	49,841.00	ADB ODA	운송 및 모빌리티
63	판귈 베이 교량	DPWH	7,375.00	한국ODA	운송 및 모빌리티
64	지진 개선사업을 위한 메트로 마닐라 우선 교량들	DPWH	7,933.00	일본 ODA	운송 및 모빌리티
65	마라위 재건 및 복구를 위한 긴급 지원 (Output2: 그레이터 마라위를 위한 재건 및 개발계획 2단계)	DPWH	6,835.00	ADB ODA	도시개발
66	메트로 마닐라 물류 네트워크; 파식 강 및 망가한 홍수로 교량 건설사업 a) 북남 향만 교량 b) 팔란카-빌리지 교량 c) 동-서 뱅크 교량2	DPWH	15,845.84	중국 ODA	운송 및 모빌리티
67	사말 섬-다바오시 연결 교량	DPWH	23,040.00	중국 ODA	운송 및 모빌리티
68	민다나오 갈등 영향을 받은 지역에서 도로망 개발사업	DPWH	12,862.75	일본 ODA	운송 및 모빌리티
69	카비테 산업지역 홍수관리 프로그램	DPWH	9,890.00	일본 ODA	도시개발

번호	프로젝트명	시행기관	총사업비 (백만 페소)	자금원	분야
70	암발 시무아이 강 및 리오 그란데 데 민다나오 강 홍수 통제사업들	DPWH	39,220.00	중국 ODA	도시개발
71	파식-마리키나 강 수로 개선 4단계	DPWH	33,097.00	일본 ODA	도시개발
72	뉴 백년 수원-칼리와 댐 사업	MWSS	12,189.00	중국 ODA	수자원
73	7번 수로	MWSS	7,429.00	ADB ODA	수자원
74	메트로 마닐라 BRT 1호선(퀘손 가로)	DOTr	5,463.00	세계은행 ODA	운송 및 모빌리티
75	수빅 클락 철도	DOTr/ BCDA	50,031.00	중국 ODA	운송 및 모빌리티
76	메트로 마닐라 물류망; 파식 강과 망가한 홍수로 교량 건설사업 a) J.P 리잘-로페즈 재나 교량(마리키나 강) b) J.P 리잘-세인트 마리 교량(마리키나 강) c) 마리키나- 비스타 리알 교량(마리키나 강)	DPWH	9,163.00	ADB ODA	운송 및 모빌리티
77	세부-막탄 교량 및 해안도로 건설사업	DPWH	76,413.00	일본 ODA	운송 및 모빌리티
78	파나이-귀마라스 네그로스 교량 1단계	DPWH	65,701.16	ODA(TBD)	운송 및 모빌리티
79	COVID-19 대응 및 제한 보건 시스템 향상(HEAL)	DOH	21,353.75	ADB ODA	보건
80	필리핀 COVID-19 응급 대응 사업	DOH	20,090.00	세계은행 ODA	보건
81	필리핀 지진 위험 감소 및 회복사업	DPWH	15,086.80	세계은행 ODA	도시개발
82	메트로 마닐라 홍수관리 사업 1단계	DPWH	23,500.00	WB ODA / AIIB ODA	도시개발
83	필리핀 비로로기 과학 및 기술 연구소	DOST	500.00	GAA	보건
84	바탄 - 카비테 인터링크 교량	DPWH	175,656.25	ODA(TBD)	운송 및 모빌리티
파이프라인(아직 정부승인을 완료하지 않은 사업들)					
85	사회 경제 개발을 위한 아이코닉 교량 사업	DPWH	5,963.00	UK ODA	운송 및 모빌리티
86	팡라오-타그빌라란 시 해안 연결 교량	DPWH	6,797.96	중국 ODA	운송 및 모빌리티
87	다바오시 고속도로	DPWH	80,650.52	중국 ODA	운송 및 모빌리티
88	메트로 세부 고속도로 사업	DPWH	26,625.00	PPP/ GAA	운송 및 모빌리티
89	퀘손-비콜 고속도로	DPWH	87,296.00	PPP	운송 및 모빌리티

번호	프로젝트명	시행기관	총사업비 (백만 페소)	자금원	분야
90	카비테-타가이타이-바탄 가스 고속도로 사업	DPWH	29,918.61	Unsolicited PPP	운송 및 모빌리티
91	TPLEX 확장사업	DPWH	28,925.90	Unsolicited PPP	운송 및 모빌리티
92	뉴 보홀(팡라오) 국제공항	DOTr	3,791.00	Unsolicited PPP	운송 및 모빌리티
93	라구나 호숫가 도로망 사업	DPWH	177,856.10	ADB ODA	운송 및 모빌리티
94	필리핀 대학-필리핀 종합병원 암센터 PPP사업	UP-PGH	4,498.00	PPP	보건
95	일로일로항	DOTr/PPA	9,919.53	Unsolicited PPP	운송 및 모빌리티
96	다바오 사사항	DOTr/PPA	19,894.30	Unsolicited PPP	운송 및 모빌리티
97	제너럴 산토스항	DOTr/PPA	5,200.00	Unsolicited PPP	운송 및 모빌리티
98	라관딘간 공항	DOTr	45,751.00	Unsolicited PPP	운송 및 모빌리티
99	아구스 3 수력발전사업(225MW)	DOE	46.37	민간자금	발전 및 에너지
100	국립 상호운영가능 자동 요금징수 시스템 사업 (전 자동화 요금징수 정산소)	DOTr	4,723.00	한국ODA	운송 및 모빌리티
101	마라위 복구 (중국 보조금) a) 교량 및 우회 사업 b) 그랜드 파디안 시장 및 스포츠 단지	DPWH/DHSUD	998.70	중국ODA	도시개발
102	아구스-푸랑이 복구사업	NPC	20,000.00	세계은행 ODA	발전 및 에너지
103	일로일로 국제공항	DOTr	4,881.80	Unsolicited PPP	운송 및 모빌리티
104	다바오 국제공항	DOTr	50,745.21	Unsolicited PPP	운송 및 모빌리티
105	바콜로드-시라이 국제공항	DOTr	12,115.30	Unsolicited PPP	운송 및 모빌리티
106	카리보 국제공항	DOTr	5,513.21	Unsolicited PPP	운송 및 모빌리티
107	MRT 11	DOTr	81,793.38	Unsolicited PPP	운송 및 모빌리티
108	C5 MRT 10 사업	DOTr	112,264.22	Unsolicited PPP	운송 및 모빌리티
109	포트 보니파시오 -마카티 스카이 기차	DOTr	3,911.83	Unsolicited PPP	운송 및 모빌리티
110	세부 모노레일 시스템	DOTr	79,606.32	Unsolicited PPP	운송 및 모빌리티
111	LRT6 카비테 A선/ 수정된 LRT 6사업 1단계 (니오그-다스마시) 및 2단계 (다스마시-타가이타이)	DOTr	69,085.41	Unsolicited PPP	운송 및 모빌리티
112	니노이 아키노 국제공항	DOTr	107,534.29	Unsolicited PPP	운송 및 모빌리티

나. 기타 프로젝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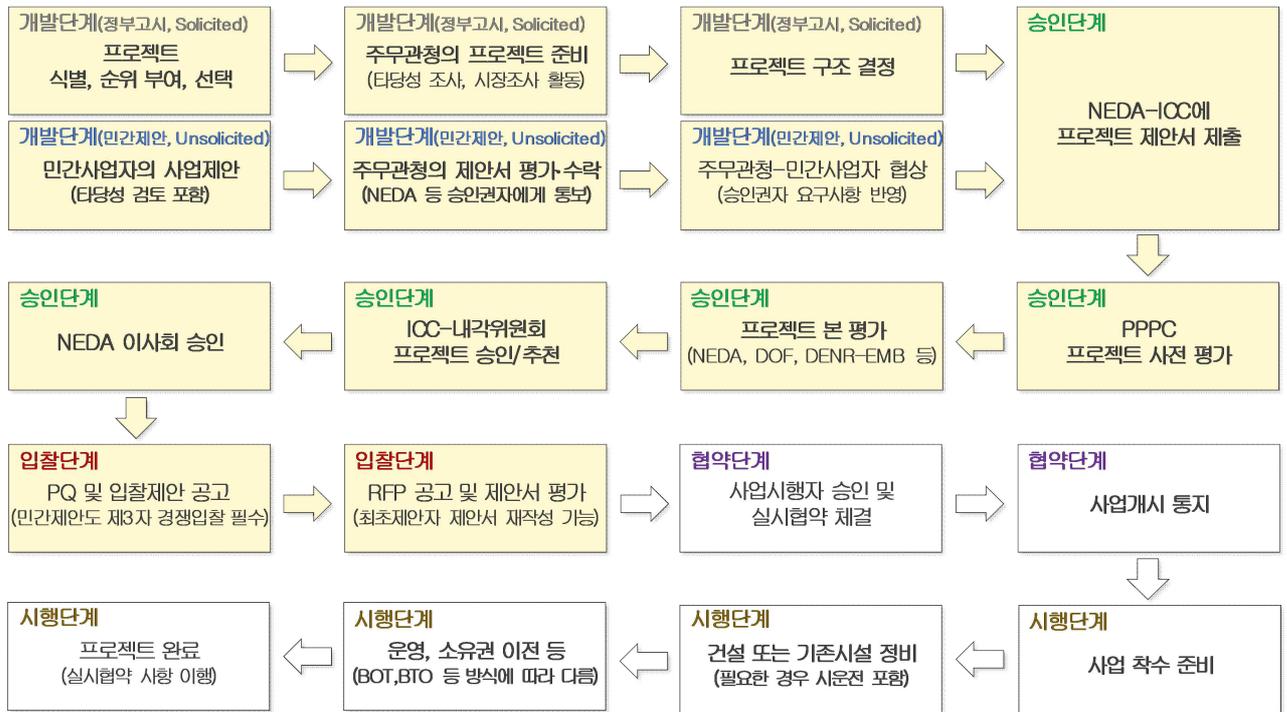
- (PPP Center Lists) 2020년 11월 기준, 필리핀 민관협력청(PPPC)에서 집계하고 있는 발주 예상(현재 입찰 진행 중인 프로젝트 포함) PPP 프로젝트는 개발단계 20건, 승인단계 22건, 입찰단계 8건으로 총 50건임
- PPPC에서 집계하는 PPP 프로젝트 목록에는 진행되고 있는 BBB 프로그램의 내용이 포함되며, 주기적으로 업데이트 되고 있으므로 홈페이지의 프로젝트 리스트를 참고하여야 함(<https://ppp.gov.ph/list-of-projects/>)
 - PPP 프로젝트 확인 후 각 발주처에서 진행하는 입찰 참여 가능
 - 발주체제는 중앙집중식이 아닌 개별기관별 발주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므로 각 중앙부처와 부속기관, 공기업 및 지방자치단체가 각각 개별적으로 필요한 물품과 용역, 공사계약을 발주함

〈주요 기관별 발주 분야〉

약어	전체 이름
공공사업도로부(DPWH)	도로·하천·홍수통제사업 등 공사
교통부(DOTr)	공항·항만(항만청)·철도·유무선통신·선박 등
보건부(DOH)	각종 의료장비·의약품 등 구매, 지역별 병원공사
교육부(DepEd)	각종 교육용기자재 구매, 학교시설공사
농업부(DA)	각종 농수로공사, 농지개선공사, 농기자재구매 등
국영전력회사(NPC)	발전소건설 및 송전선로공사, 전기관련 기자재 구매
국영석유회사(PNOC)	정유시설개수 및 관련기자재, 석유제품 등 구매
지방자치단체	공사·구매 등 각종사업을 포괄하여 발주

- 또한 필리핀 정부는 온라인 정부조달 시스템(PhilGEPS)을 구축하여 모든 입찰 정보를 해당 사이트를 통해 제공할 것을 의무화(근무일 기준 7일간 사이트에 게재, 일간지 1회 공고)
 - 공급업체, 제조업체, 계약자, 컨설턴트들은 온라인 정부조달시스템에 사전 등록해야 하며 등록된 기업만 시스템에 접근하고 정부 입찰에 참여할 기회가 있음
 - 국제경쟁입찰(ICB) 또한 PhilGEPS 게시판에서 확인 가능

〈PPP 프로젝트 개발~입찰단계〉



〈발주예정 PPP 사업 현황〉

(단위: 건)

구분		개발단계			승인 단계	입찰 단계	합계
		정부고시	민간제안				
			IA접수	협상			
수송	도로	2	1		4		7
	철도				8		8
	항만		3		2		5
	공항			2	6		8
에너지· 유틸리티	전력						0
	수도	2				2	4
	폐기물	1				1	2
기타	IT					2	2
	농업	2					2
	자산개발	2			1		3
	관광					2	2
	환경				1	1	2
	보건	5					5
합계		14	4	2	22	8	50

(주) 대중교통, 다리(bridge)는 도로에 포함

* 출처 : PPPC('20.11), Project Lists

<IA에 접수된 민간제안 PPP 프로젝트>

분야	프로젝트명	규모(페소)	발주처
Transportation	Davao Sasa Port Modernization Project	20.14 Billion	PPA
	Development, Operations and Maintenance of General Santos Port	5.2 Billion	PPA
	Iloilo Commercial Port Complex and Port of Dumangas Development Project	8.717 Billion	PPA
Property Development	Footbridge Development Project (Quezon City)	-	Quezon City Government

* 출처: PPPC('20.11) Project Lists

<협상단계인 PPP 프로젝트>

분야	프로젝트명	규모(페소)	발주처
Transportation	Unsolicited Proposal for the New Bohol International Airport	25.45 Billion	DOTr
	Ninoy Aquino International Airport (NAIA) Comprehensive Capacity Enhancement Project	107.53 Billion	MIAA

* 출처: PPPC('20.11) Project Lists

<승인단계인 PPP 프로젝트>

분야	프로젝트명	규모(페소)	발주처
Transportation	50 year Integrated Development Plan for Mactan Cebu International Airport (MCIA) Project	199.41 Billion	DOTr
	C5 MRT 10 Project	93.73 Billion	DOTr
	Cebu Monorail Transit System Project	73.24 Billion	DOTr
	Development, Operation and Management of Bacolod-Silay Airport	13.05 Billion	CAAP
	East-West Rail Project	55.46 Billion	PNR
	Fort Bonifacio – Makati Skytrain Project	3.66 Billion	DOTr
	Davao International Airport Development, Operation, and Management	39.5 Billion	CAAP
Road Network	Cavite-Tagaytay-Batangas Expressway Project	25.24 Billion	DPWH
Port	Davao People Mover	30.00 Billion	DOTr
Property Development	Development of the Former Manila Seedling Site Owned by the National Housing Authority (NHA)	45.15 Billion	NHA
Land,Road Network	Manila Bay Integrated Flood Control, Coastal Defense and Expressway Project	536.03 Billion	DPWH
Transportation	MRT-11 Project	71.10 Billion	DOTr
Transportation	Modified Light Rail Transit (LRT)-6	73.24 Billion	DOTr

<승인단계인 PPP 프로젝트>

분야	프로젝트명	규모(페소)	발주처
	Project (formerly LRT 6 Cavite Line A)		
Transportation	MRT 7 Airport Access – North Line	130.90 Billion	PNR
Transportation	MRT 7 Katipunan Spur Line	107 Billion	PNR
Transportation	North Luzon Express Terminal (NLET) Project	7.24 Billion	DOTr
Transportation	Operation & Maintenance of the Francisco B. Reyes Airport and the New Busuanga Airport	1.35 Billion	CAAP
Transportation	O&M and Facility Upgrade of Kalibo International Airport	3.84 Billion	DOTr
Environmental	Preservation and Development of Laguna de Bay Project	124.83 Billion	Laguna Lake Development Authority (LLDA)
Transportation	San Ramon Newport Project	11.4 Billion	Zamboanga City Special Economic Zone and Freeport Authority
Road Network	Tarlac-Pangasinan – La Union Expressway (TPLEX) Extension Project	24.10 Billion	DPWH
Transportation	Upgrade, Expansion, Operations and Maintenance of Laguindingan Airport	42.7	CAAP

* 출처: PPPC('20.11) Project Lists

<입찰단계인 PPP 프로젝트>

분야	프로젝트명	규모(페소)	발주처
Tourism	Balicasag Island Dive Resort (BIDR) Project	0.11 Billion	TIEZA
	Club Intramuros Golf Course Project (formerly Development and Management of the Club Intramuros Golf Course)	0.25 Billion	TIEZA
Information Technology, Transportation, Land	Road Transport Information Technology (IT) Infrastructure Project (Phase II)	0.30 Billion	DOTr and LTRFB
Water	Baggao Water Supply Project	84 Million	Municipal Government of Baggao
Environmental	General Santos City Sanitary Landfill Project	100 Million	City Government of General Santos
Water & Sanitation	Lumbo Spring Bulk Water Supply Project		San Pablo City Water District (SPCWD) and Dolores Water District (DWD)
Solid Waste Management	Quezon City Integrated Solid Waste Management Facility Project	22 Billion	Quezon City Government
Information Technology	Quezon City No Contact Apprehension Program		Quezon City Local Government

* 출처: PPPC('20.11) Project Lists

IV. PPP 주요 제도

1 PPP 제도 및 관련법

가. 개요

- (도입 배경) 1987년 필리핀 헌법 제20조에 따라 “국가는 민간 부문의 필수적인 역할을 인정하고 민간기업을 장려하며, 필요한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속 가능한 개발의 실현을 위해 PPP 관련 제도 및 법률을 제정
 - 필리핀 정부는 PPP 프로그램을 통해 민간 투자자를 안정적으로 끌어들이며 공공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고 판단
- (추진 경위 등) 필리핀 정부는 1987년 헌법의 기본 취지에 따라 PPP를 통한 인프라 확충의 중요성을 인식해 1990년 “BOT”법을 최초로 도입
 - 이후 민관협력센터(PPPC)을 설립 및 “BOT”법 개정 등을 통해 정부 주도 아래 PPP를 제도화

〈필리핀 PPP 제도 주요 연혁〉

연도	내용
1987	필리핀 헌법 제정(민간 부문의 필수적인 역할 인정)
1990	공화국법 6957호 통과(“BOT”법)
1993	행정명령 166호 발행(BOT 센터 설립)
1994	공화국법 7718호 제정(기존 “BOT”법 개정)
2002	행정명령 144호 발행(PPP를 국가 인프라 개발 계획의 주요 수단으로 인정)
2010	행정명령 8호 BOT센터를 PPP센터로 개편
2013	행정명령 136호 발행(PPP 이사회 창설)

* 출처: 필리핀 PPP 센터

- 필리핀 당국은 “BOT”법 뿐만 아니라 기타 참고할만한 법령 및 지침을 제시하였으며, 관련 기관 설립을 통해 PPP 제도의 정착 및 활성화를 추구

〈PPP 관련 주요 법령 및 참고사항〉

구분	내용
공화국법 제7718호	소위 "BOT"법으로 PPP 사업을 위한 개괄적인 원칙 및 절차를 제시하였음
공화국법 제10752호	국가 인프라 사업을 위한 부지에 대한 우선권(Right-of-Way) 획득에 관한 법률임(토지 보상 및 수용 과정 포함)
Joint Venture 가이드라인	PPP 사업을 위한 대표적인 추천체계인 JV의 구성에 대해 상세히 언급
PPP 이사회 가이드라인	법령에서 언급되지 않은 PPP 수행 과정에서 필요한 주제별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제공

* 출처: 필리핀 PPP 센터

〈PPP 관련 주요 유관기관〉

구분	역할
민관협력센터 (Public-Private Partnership Center, PPPC)	PPP 프로젝트 촉진 및 지원 기능 총괄 수행 (타당성 검토, 예산 관리, 모니터링 등) * PPP 이사회가 소속되어 있음
국가경제개발청 (NEDA, the National Economic and Development Authority)	① 국가 및 지자체를 위한 정책 및 프로젝트의 수립·조정 ② 인프라 프로젝트 검토, 평가 및 모니터링 ③ 정책 입안자들에게 개발 정책에 대한 비판적 분석을 제공
개발연구소 (philippines Institute for Development Studies)	국가 경제개발 기관 및 정부 계획자를 돕는 연구를 수행
경쟁위원회 (philippines Competition Commission)	반 경쟁적 행위를 규제함으로써 시장 경쟁을 촉진하고 유지하기 위해 설립된 독립적인 준사법기관
국가개발원 (Development Academy of the philippines)	정부 임원 및 관리자를 위한 교육 과정 제공
공공사업도로부 (Secretary of Public Works and Highways)	PPP사업을 포함한 제반 인프라개발사업 주무부처
교통부 (Secretary of Transportation)	

* 출처: 필리핀 PPP 센터

나. Republic Act 7718

- (제정 목적) 필리핀 정부는 국가 성장과 발전의 주요 동력으로 민간의 역할을 인정하고 PPP 사업의 활성화 및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해 관련 기본법 제정 (“BOT” 법)
 - RA 7718 (1994)는 PPP 사업 추진의 기본적인 개념을 설명하고 있으며, BOT 이외에도 BOO, BTO 등 다양한 방식의 추진 건에 대한 계약자 평가 및 선정 방법, 프로젝트 수행 방법, 참가 자격 등에 대한 사항을 다루고 있음
- (법령) 18개의 법령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본적인 용어 정의 및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한 기본 원칙 제시
 - 참여 주체 : 정부를 포함한 공공기관은 자금 조달, 건설, 운영 및 유지보수에 관하여 사전에 자격을 갖춘 민간 제안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 민간 제안자는 인프라 또는 개발 프로젝트에 폭넓은 경험과 전문가적 지식을 보유하고 있어야 함
 - 상환계획 : 프로젝트 제안자는 프로젝트로부터 발생하는 통행료, 수수료 및 임대료 등의 수익을 징수할 수 있으나, 합리적인 수익률이어야 하며, 어떤 상황에서도 계약 기간은 50년을 초과할 수 없음
 - 인센티브 : 10억 페소(한화 약 230억)를 초과하는 프로젝트는 투자위원회 등록 시 투자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음(구체적인 사항은 시행령에 기재)

※ RA 7718 Section 12

Investment Incentives. - Among other incentives, projects in excess of One billion pesos (P1,000,000,000) shall be entitled to incentives as provided by the Omnibus Investment Code, upon registration with the Board of Investments.”

- 프로젝트 조정 : 필리핀 지원 프로그램 조정위원회(CCPAP)는 이 법에 따라 시행되는 프로젝트의 조정 및 모니터링을 담당

- (시행령) 15개의 시행령 및 상세 조항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침 제시
 - 계약 형태 : BOT 외 8개 계약 형태만 법으로 인정되고 있음
 - BT, BLT, BOT, BOO, BTO, CAO, DOT, ROT, ROO
 - 투자 대상 : 적격 프로젝트 유형(Eligible Types of Projects)을 명시

<민관협력프로젝트 투자 대상>

구분	투자 대상
교통	공항, 항만, 철도, 고속도로, 대중교통시설
에너지	발전소, 변전 시설
IT인프라	통신·위성 서비스, 데이터베이스 인프라
생활인프라	공공 건물·주택, 상수도, 하수도 등
산업	관개시설, 간척시설, 상업시설, 창고
복지	교육 및 헬스케어 인프라
관광	관광단지, 관광특구

* 출처 : RA 7718

- 발주 및 입찰 형태 : 정부 고시사업과 민간제안방식으로 구분되며, 모든 공공 프로젝트의 경우 경쟁입찰이 원칙이며, 이는 민간제안방식의 경우도 해당
 - 정부고시사업은 PQ 평가가 RFP 입찰 절차에 포함되어 있는 1단계 방식과 분리되어 있는 2단계 방식으로 구분되어 있음(2단계 방식의 경우 PQ를 통과한 사업자만 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음)
 - 경쟁입찰의 경우 주요 일간지(philippines Star, Manila Bulletin 등)에 2주간 3회 이상 공고토록 하고 있으며 같은 사항을 공공사업도로부(DPWH)와 교통부(DOTr) 등 주요 발주기관 공공게시판에 게시
 - 입찰서류 또는 PQ 서류는 공사 규모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통상 최초 입찰공고 1주일 이후부터 3주 동안 입찰이 가능하며, 입찰서류 구입 시 해당 기업대표가 서명한 입찰참가 의향 서한을 제시하여야 함
 - 입찰보증금은 현금뿐만 아니라 현금성 자산(수표, 어음, 신용장 등)도 가능하며, 프로젝트 규모에 따라 최소 입찰보증금이 달라짐

〈공공프로젝트 최소 입찰 보증금〉

Project Cost	최소 입찰 보증금
50억 페소 미만	프로젝트 비용의 2%
50억 페소 이상 ~ 100억 페소 미만	프로젝트 비용의 1.5% 또는 1억 페소 중 더 큰 금액
100억 페소 이상	프로젝트 비용의 1% 또는 1.5억 페소 중 더 큰 금액

* 출처: RA 7718

〈정부고시사업 추진 절차(1단계 방식)〉

단계	주요 내용
사업 지정 및 우선순위 선정	- 주무관청은 사업의 타당성조사 및 사업승인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준비함.
승인권자 승인 (ICC, NEDA 이사회 등)	- 승인기관의 사업승인까지의 소요일수는 30일임.
PQ 및 입찰제안 공고	- 승인이 완료되면, 주무관청은 3주 연속 신문에 매주 1회 게재하여 공고함.
RFP 공고	- 주무관청은 RFP를 공고하며 제안자는 90~120일(사업규모에 따라 상이) 동안 서류를 준비함.
계획서 제출 및 평가	- 제안자는 자격평가,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위한 서류를 주무관청에 제출함. - 주무관청은 45일 이내에 모든 평가를 완료함.
실시협약의 승인	- PBAC(Pre-qualifications, bids, and awards committee)는 평가 완료 후 7일 이내에 주무관청에 실시협약 체결에 대한 권고를 제출함. - 주무관청은 PBAC 권고문 제출 이후 7일 이내에 권고문을 승인함. - 입찰 탈락자는 서면으로 그 결과를 통보받아야 함.
사업시행 승인	- 주무관청은 입찰통과자에게 사업시행 승인서를 발급하여 사업수행을 위한 필요 자료를 요청함. - 입찰통과자는 7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하며, 미제출 시 주무관청은 사업시행 승인을 무효화할 수 있음.
실시협약의 체결	- 서류제출 완료 후 조건 충족 시 주무관청과 사업시행자 간 협약을 체결함.
사업개시 통지	- 주무관청은 협약체결 이후 7일 이내에 사업개시 통지서를 발급함.

* 출처: 한국개발연구원(KDI) - 한국과 필리핀, 인도네시아 민간투자사업 비교 연구

〈정부고시사업 추진 절차(2단계 방식)〉

단계	주요 내용
사업선정 및 준비	- 주무관청은 사업의 타당성조사 및 사업승인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준비함.
승인권자 승인 (ICC, NEDA 이사회 등)	- 승인기관의 사업승인까지의 소요일수는 30일임.
PQ 및 입찰제안 공고	- 승인이 완료되면, 주무관청은 3주 연속 신문에 매주 1회 게재하여 공고함.
PQ 서류 준비	- 사업제안자는 공고일 마지막 날부터 30일까지 서류를 준비할 수 있음.
입찰자 사전심사	- 주무관청은 제출일 이후 30일 이내 PQ 통과 여부를 제안자에게 공지함.
RFP 공고	- PQ를 통과한 제안자를 대상으로 RFP를 공고하며 제안자는 90~120일(사업규모에 따라 상이) 동안 서류를 준비함.
계획서 제출 및 평가	- 제안자는 자격평가,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위한 서류를 주무관청에 제출함. - 주무관청은 45일 이내에 모든 평가를 완료함.
실시협약의 승인	- PBAC(Pre-qualifications, bids, and awards committee)는 평가 완료 후 7일 이내에 주무관청에 실시협약 체결에 대한 권고를 제출함. - 주무관청은 PBAC 권고문 제출 이후 7일 이내에 권고문을 승인함. - 입찰 탈락자는 서면으로 그 결과를 통보받아야 함.
사업시행 승인	- 주무관청은 입찰통과자에게 사업시행 승인서를 발급하여 사업수행을 위한 필요 자료를 요청함. - 입찰통과자는 7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하며, 미제출 시 주무관청은 사업시행 승인을 무효화할 수 있음.
실시협약의 체결	- 서류제출 완료 후 조건 충족 시 주무관청과 사업시행자 간 협약을 체결함.
사업개시 통지	- 주무관청은 협약체결 이후 7일 이내에 사업개시 통지서를 발급함.

* 출처: 한국개발연구원(KDI) - 한국과 필리핀, 인도네시아 민간투자사업 비교 연구

〈민간제안사업 추진 절차〉

단계	주요 내용
사업선정 및 준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간제안자가 사업제안서를 해당 주무관청에 제출하면 주무관청은 7일 이내 제안서 수신을 확인해주어야 함.
사업제안서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무관청은 30일 이내 제안서를 평가하여 제안 수락 여부를 결정하며, 수락할 경우 제안자는 최초제안자 지위가 부여됨. - 주무관청은 사업의 수락 여부에 대해 승인권자에게 통보하고, 수락할 경우 관련 서류를 승인기관에 제출함.
최초제안자와 협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무관청은 협상 시작 전 승인권자로부터 수익률(안)에 대해 사전에 확인받아야 함. - 협상은 90일 이내 완료되어야 하며, 완료된 이후 주무관청은 협상완료 보고서를 승인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제안서 및 협약안 승인 (ICC, NEDA 이사회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무관청은 30일 이내 제안사업 및 협약안을 승인하여야 하며, 승인할 경우 승인기관은 최초제안자에게 승인서를 발급하여야 함.
사용료 조건 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무관청은 입찰 전 사업에 적용할 사용료 공식과 이후 사용료 조정 시 사용할 물가지수 등을 승인기관의 확인 필요
최초제안자 조건 수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초제안자는 승인기관에서 승인한 모든 조건을 수용한다는 내용을 서면으로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함.
제3자 제안공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무관청은 3주 연속 신문에 매주 2회 제3자 제안공고를 게재함. - 최초제안자는 입찰보증하고 제3자 제안공고에 따라 제안서를 재작성함.
제3자 제안 준비 및 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3자 제안자에게는 서류준비를 위해 60일이 주어지며, 자격평가, 기술평가 및 가격평가 서류를 주무관청에 제출
제안서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무관청은 제출일 이후 75일 이내에 평가를 완료함.
실시협약의 승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BAC(Pre-qualifications, bids, and awards committee)는 평가 완료 후 7일 이내에 주무관청에 실시협약 체결에 대한 권고를 제출함. - 주무관청은 PBAC 권고문 제출 이후 7일 이내에 권고문을 승인함. - 입찰 탈락자는 서면으로 그 결과를 통보받아야 함.
사업시행 승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무관청은 입찰통과자에게 사업 시행 승인서를 발급하여 사업수행을 위해 필요한 자료를 요청 - 입찰통과자는 7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하며, 미제출 시 주무관청은 사업 시행 승인 무효화 가능

〈민간제안사업 추진 절차〉

단계	주요 내용
실시협약의 체결	- 서류제출 완료 후 조건 충족 시 주무관청과 사업시행자 간 협약을 체결함
사업개시 통지	- 주무관청은 협약체결 이후 7일 이내에 사업개시 통지서를 발급함

* 출처: 한국개발연구원(KDI) - 한국과 필리핀, 인도네시아 민간투자사업 비교 연구

○ 허가 기준 : 금액 기준에 따라 ICC*, NEDA, 지역개발위원회 등의 허가 필요

* ICC(투자조정 위원회, Investment Coordination Committee) : 국가경제개발청(NEDA, the National Economic and Development Authority) 소속 회의체로 공공 프로젝트 추진 규모 조정 및 결정 권한 보유

- 계약 초안에 대한 재무부(DOF)의 사전 검토를 받아야 하며 검토 후 계약이
 - ① 대중의 서비스 수준을 낮추는 변경
 - ② IRR이 기준 이하로 낮아지는 경우
 - ③ 프로젝트에 대한 정부 보조금을 프로젝트 금액의 5% 이상 증가시키는 경우
 - ④ 정부 이익에 해를 끼치는 경우는 재검토를 받아야 함

〈공공 프로젝트 허가 대상 구분〉

	구분	허가 주체
National Project	3억 페소 미만	ICC 승인 필요
	3억 페소 이상 또는 금액 미정	ICC 추천 후 NEDA (이사회)승인 필요
Local Project	2천만 페소 미만	지방개발위원회(MDC) 승인 필요
	2천만 페소 이상 ~ 5천만 페소 미만	도시개발위원회(CDC) 승인 필요
	5천만 페소 이상 ~ 2억 페소 미만	지역개발위원회(RDC) 승인 필요
	2억 페소 이상	ICC 승인 필요

* 출처: RA 7718

- 자격 상세 : 민간 사업자의 경우 법적 요구사항 충족, 유관 경험 보유, 충분한 재정적 여유의 자격이 요구됨

<PQ 요구사항>

총족 대상	내용
법적 요구사항	BOT 등 운영단계가 포함된 프로젝트의 경우, 제안자는 필리핀 국적을 가지고 있거나, 기업등록 및 감독위원회(SEC)에 등록된 법인이어야 하며, 운영단계에서는 내국인 지분이 최소 60% 이상이어야 함.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경우 사전에 심사를 거쳐야 하며, 컨소시엄 구성원의 의무와 책임을 이행한다는 약속을 하여야 함.
	<p>건설 활동을 위해서 사전적으로 DTI(통상산업부) 산하 기관인 PCAB (philippines Contractors Accreditation)으로부터 건설면허를 발급받아야 하며, 건설면허는:</p> <p>① Regular License(일반면허) ② Special License(특별면허)로 구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Regular License(일반면허): 필리핀인이 60% 이상 지분 보유한 법인에 발급 - Special License(특별면허): J/V, 컨소시엄, 외국 건설사, 특정 건설 프로젝트를 보유한 프로젝트 보유 기업에게 발급 <p>* 외국기업의 경우 Special License를 취득하는 경우 외국자본, 해외차관에 의한 사업으로, 국제경쟁입찰을 통해 참여가 허용된 경우에 한하며, 마찬가지로 운영단계에서는 내국인 지분 비율이 60% 이상이어야 함</p>
유관 경험	법인의 경우 단독 참여 시 법인의 명의로 프로젝트를 수행하였거나 컨소시엄으로 참여 시 각 컨소시엄 구성원들의 경험과 기여수준 (지분비율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평가
	다만, 주요 참여 직원(Key Person)의 경우 공공이 지정한 경험 기준을 별도로 충족하여야 함
재정적 여력	Equity의 경우 참여 법인의 순자산, 컨소시엄의 경우 주요 구성원의 순자산 등을 고려하여 프로젝트에서 요구하는 최소 자본(상응하는 예치금 납부 여력 포함)을 충족하여야 함
	Debt의 경우 프로젝트 수행자가 필리핀에 자회사 또는 지점이 있는 국내 범용 상업 은행 또는 국제 은행 또는 BSP가 인정하는 국제 은행으로부터 추천서를 받아야 함(거래를 하고 있으며, 재정 상태가 양호하고 해당 은행에서 프로젝트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는 자격 증명)

* 출처: RA 7718

○ 계약 이행

- 계약은 사전에 정한 대로 이행하여야 하며 계약이행과정에서 금액변경이나 설계변경을 요구하는 사항이 발생할 경우,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함
- 프로젝트 제안자는 프로젝트 건설 작업의 수행에 대한 보장을 위해 규정된 기간과 금액 수준만큼 이행보증금을 내야 하며, 보증방식에 따라 프로젝트 규모의 2%~10% 수준(현금 보증금의 경우 2%, 보증 채권의 경우 10%)
- 기성 지급은 통상 1개월 단위로 현지 은행 계좌로 입금되며 지급통화는 원칙적으로 필리핀 페소화이나 차관사업의 경우 계약 체결 시점에서 차관 공여 비율 범위 내에서 기준통화비율을 정할 수 있고 통상 미국 달러(또는 일본 엔화)와 페소화를 혼합하여 결정
- 통상 연간 5% 이상, 3년간 10% 이상의 물가변동이나 환율변동이 발생할 경우, 물가상승 보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차관사업의 경우 계약 당시에 통화비율을 정하도록 하고 환율보상은 하지 않는 것이 관례
- 또한, 필리핀 내 각종 반군 게릴라의 습격 등에 의한 피해 발생 시 보상규정이 모호하며 직접 보상하는 사례가 드물고 보험 등의 방법으로 위험에 대비

○ 계약 해지

- 민간의 해지권 : 공공이 계약에 명시된 주요 의무를 준수하지 않고, 상당 기간 시정하지 않는 경우, 사전 통지를 통해 계약을 종료할 수 있음(지출한 계약 비용에 대해 정부로부터 합리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음)
- 공공의 해지권 : 프로젝트 제안자가 계약한 기술 및 성능 표준에 따라 프로젝트의 완료, 운영 및 유지를 보장할 수 있도록 과업을 이행하지 않아 실질적으로 계약을 위반하는 경우 공공은 프로젝트 제안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함
- 지정된 시간 내에 수정하지 않을 경우, 공공은 ① 자산의 인수 ② 채권자들의 권리 행사 및 이익의 환수 명령을 진행할 수 있음
- 기타 사유 : 프로젝트가 책임 없는 사유로 종료되거나, 과업을 더 이상 진행할 수 없거나, 양자 간 합의로 해지되는 경우 (지출한 계약 비용에 대해 정부로부터 합리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음)

- 정부 지원: 직접적인 인센티브를 포함하여 기타 행정적 지원이 있음
 - 10억 페소 이상의 비용이 소요되는 프로젝트는 투자위원회(BOI)에 등록할 때 행정명령번호 226에 따라 투자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음
 - 10억 페소 미만의 비용이 소요되는 프로젝트는 투자위원회 등록 후 투자위원회가 투자 우선 계획(IPP)뿐만 아니라 경제 및 소비자 이익, 기술 및 재정 건전성과 같은 기준을 추가로 검토하여 결정

<공공프로젝트 정부 지원 형태>

지원 방식	내용
비용 부담	공공이 기반 시설의 구축 및 개발과 관련된 자본 비용의 일부 비율을 부담(단, 프로젝트 비용의 50%를 초과해서는 안됨.)
신용 보증	프로젝트 진행 당사자에 대한 국가적 신용 보증
정부 보조금	다음의 계약 형태를 의미함. (a) 프로젝트 구축비 또는 운영·유지에 드는 비용 일부를 지원 (b) 현물출자 (c) 부동산 관련 세금감면 또는 면제 (d) 프로젝트 인허가 관련 수수료 면제
자본 참여	공공이 프로젝트 회사의 지분권자로 직접 참여하는 형태
이행 부담	공공이 프로젝트의 결과에 대한 일부 책임을 부담 (예 : 공공의 위험 보험료 지불)
법률 지원	프로젝트 제안자가 피고에 해당하거나 청문회 등 상황에서 정부 변호사가 대리인으로 활동
보안 지원	프로젝트를 완료할 때까지 프로젝트 현장 근처에 필리핀 경찰 또는 군대를 배치

* 출처: RA 7718

다. Republic Act 10752

- (제정 목적) 필리핀 정부는 국가 인프라 사업의 신속한 시행을 위하여 인프라 부지에 대한 취득을 촉진하는 법률("The Right-of-way"법) 제정
 - 헌법 제3조에 제9항에 따라 공공의 목적을 위해 사유 재산을 침해해서는 안 되며, 토지 소유자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별도로 법령을 제정하였음
 - PPP 사업 진행 시 사업부지에 대한 보상가 산정, 수용 절차, 환경영향평가 등 고려해야 하는 사항을 명시

- (법령) 17개의 법령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토지 보상 및 수용에 관한 세부 지침 제시
 - 보상가 산정 : 토지의 현재 시가, 부지 내의 정착물에 대한 대체원가, 부지 내의 작물과 나무의 현재 시가를 합한 금액을 보상하여야 함
 - 자산 감정평가는 감정에 대한 적절한 경험이 있는 정부 금융 기관, 중앙은행 (BSP) 또는 중앙은행의 인증을 받은 공인 자산 감정인에 의해 이루어짐
 - 수용 : 부동산 소유자는 30일 동안 제시된 보상가에 대한 수락 여부를 결정 가격 제안을 수락하지 않는 경우, 시행자는 제6조 수용 절차에 대한 지침에 따라 수용 절차를 시작할 수 있음
 - 토지 소유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적절한 감정 금액을 통지한 후 법원에 예치한 경우, 법원은 검토 후 프로젝트 시행자에게 소유권을 넘겨받고 프로젝트를 시행하라는 명령을 내림
 - 토지소유권자를 알 수 없거나, 재산에 대한 분쟁이 있는 경우에도 수용으로 인해 이익을 받아야 할 사람을 위해서 동일한 절차로 예치하여야 함
 - 환경에 대한 고려 : 사업시행자는 프로젝트의 생태·환경적 영향을 고려해야 하며, 환경법, 토지사용조례, 공화국법 제7160호와 관련된 모든 조항을 참고해야 함

라. Joint Venture Guidelines

- (제정 목적) 공공 발주 시 민간과의 합작 투자 (JV)에 필요한 지침을 마련하기 위하여 국가경제개발청(NEDA)이 정부조달정책위원회(GPPB)와 협의하여 지침(Guideline)을 제정
 - JV를 통하여 민간 부문의 자원 및 전문 지식 활용하고 정부는 개발 목표를 추구할 수 있으며, 명확한 지침은 투명한 과정으로 계약이 체결되도록 함
 - 정부와 민간기업 간 합작 투자(Joint Venture: JV)에 대한 지침으로, 각 당사자는 당사자 간의 협약에 따른 수익, 위험 및 손실 배분을 위한 정책들을 조정하고 관리할 권리를 가짐
 - 합작 투자는 협약(Contractual JV)이나 합작기업 형태(Corporate JV)의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음
 - 경쟁 시장의 상황에 따라 일방 당사자는 타 당사자에 소유권을 이전 가능
 - 합작 투자(JV) 조달 및 협약에 관한 지침은 BOT법의 경쟁과 책임의 원칙을 따르고 있으나, BOT법과의 유일한 차이점은 최초제안자의 수정제안제도가 없다는 점임
- (JV 협약 절차) 제안서 제출부터 JV 협약까지 기본 방침을 준수하여야 하며, 단계별로 관련 부서의 승인이 필요

〈JV 협약 진행 절차〉

지원 방식	내용
제안서 제출	국가적 목표를 충족하여야 하며, 목표, 총비용, 자금 출처, 참여 범위 등 범위를 명확히 하며 기술적·재정적·법률적 측면을 포함한 실행 가능성도 판단하여야 함
제안의 승인	JV 회사 설립을 포함하는 프로젝트는 기본적으로 공기업관리위원회(GCG, Governance Commission for Government Owned and Controlled Corporations)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일정 조건(예: 1억 5천만 페소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ICC의 승인을 추가로 받아야 함
재무부 및 예산관리부의 승인	정부의 위험 부담, 보조금, 보증이 필요한 JV 프로젝트의 경우 재무부(DOF) 및 예산관리부(DBM)의 승인이 필요
JV 기업 사전승인	JV 기업을 기업등록및감독위원회(SEC)에 등록하기 전 공기업관리위원회에 제출되어 검토 및 승인을 받아야 함

JV 파트너 결정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를 통한 경쟁입찰로 JV의 민간 파트너사 결정
JV 협약의 승인	관련 주무부처의 승인
JV 협약의 조정	계약 체결 및 서명 후 JV 계약에 대한 모든 수정은 JV 가이드라인에 제시되어 있는 적절한 승인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명시된 해당 승인 프로세스를 준수하지 않으면 수정안은 무효 처리

* 출처: JV Guidelines

마. PPP Government Board Guidelines

- (제정 목적) PPPGB 주관하에 PPP 수행 과정의 실무적인 이슈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을 제공
- (PPPGB) 행정명령 136호에 따라 PPP Center 내에 관리위원회(PPP Governing Board, PPPGB)를 수립함
 - 관리위원회는 PDMF(Project Development and Monitoring Facility Service, 프로젝트개발 및 모니터링 시설 서비스)를 포함한 모든 PPP 관련 문제에 대해 전반적으로 정책을 결정하여야 함
 - PPPGB는 PPP 프로그램의 전략적인 방향을 설정하고 필리핀에서 PPP를 위한 정책 및 제도적 환경 조성에 책임이 있음
 - 관련 내용에 대해 PPPC는 PPPGB에 직접 보고할 의무 존재

〈PPPGB 구성〉

직위	담당
의장(Chairperson)	사회경제기획부장관(Secretary of Socio-Economic Planning)
부의장(Vice-Chairperson)	재무장관(Secretary of Finance)
구성원(Members)	예산관리부장관(Secretary of Budget and Management) 법무부장관(Secretary of Justice) 무역산업부장관(Secretary of Trade of Industry) 사무총장(Executive Secretary) 국가경쟁력위원회민간부문공동의장(Private Sector Co-Chairman of the National Competitiveness Council)

* 출처: PPPC('20.11)

〈가이드라인 List〉

연도	내용
2015	<p>PPPGB 결의안 No. 2015-09-01: PPP 모니터링 체계 및 프로토콜에 대한 지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PP 프로젝트 모니터링에 관여하는 주요 당사자의 역할과 책임 확인 - PPP 프로젝트 모니터링 시 필요한 정보의 생성, 처리 및 공유 프로토콜 정의 - 프로젝트 실행 중 얻은 향후 PPP 프로젝트의 계획, 평가 및 구현에 사용할 수 있는 교훈과 모범 사례(BP)를 문서화
	<p>PPP 프로젝트 해지 시 환급금(Termination Payment, TP)</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지 시 환급금은 해당 계약의 종료를 초래하는 PPP 계약에 제공된 사건 또는 일련의 사건 발생 시 정부 또는 양허인이 지급하는 금액을 의미함.
	<p>No. 05-2015 PPP 조달을 위한 정직한 조연자(Probity Advisor, PA) 임명에 관한 정책 회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PPP 조달 시행 전에 PA를 제도화하여 조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의 관리 및 독립적인 의견 제공을 목표로 하고, 완료된 프로세스가 probity requirement를 충족했는지 확인함.
	<p>VGF* (Viability Gap Funding) 지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중에게 합리적인 가격으로 제공함과 동시에 상업적인 유인을 향상하여 경제적으로 실행 가능한 PPP 프로젝트를 위한 VGF 계획(scheme)을 제도화 <p>*VGF란, 이미 경제적으로 실행할 수 있지만, 재정적 타당성이 없는 PPP 프로젝트에 현금으로 제공되는 건설 비용의 일부를 기부하는 형태의 정부 지원. VGF는 PPP 프로젝트를 재정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다른 대안이 없을 때 제공될 수 있음.</p>
	<p>PPP 프로세스에서의 모범 사례 제도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 간 PPP 조달 프로세스와 프로젝트의 실행에서 모범 사례 제도화하여, 이를 PPP 조달 프로세스 및 프로젝트 실행에 효과적으로 통합하는 실행 기관(IA) 안내
2016	<p>PPP 프로젝트의 식별, 선택 및 우선순위(Prioritization)에 대한 지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중기준분석(Multi-Criteria Analysis, MCA) 접근법을 활용한 PPP 프로젝트의 식별, 선택 및 우선순위 설정의 기준과 프로세스의 제도화 - MCA 접근법은 잠재적인 PPP 프로젝트를 결정하고, PPP 방식을 사용하여 조달될 가능성이 비교적 크며 신뢰할 수 있는 프로젝트 리스트를 생성하는데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음.
	<p>PPPGB 결의안 No. 2016-06-22: PPP 프로젝트를 위한 공공자문 및 참여에 대한 지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PP 프로젝트의 개발 및 실행에 있어서 투명성을 향상하기 위해 최종 관점에서 대중의 자문과 참여를 제도화
	<p>PPPGB 결의안 No. 2016-06-05: PPP 프로젝트 VfM 평가 지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의 목표는 시민에게 가장 비용 효율적인 방법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임. - PPP에서 VfM (Value for Money) 분석을 통해 인프라와 서비스가 저렴한 비용으로 제공되고 있는지, 관련 위험이 고려되고 있는지 확인할 것임.
	<p>PPPGB 결의안 No. 2016-06-04: PPP 프로젝트의 영향을 받는 공무원 관리 지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무원은 현대적인 공공인프라를 구축하고 효율적인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가장 큰 자산 중 하나임. - 이 지침은 PPP 프로젝트의 영향을 받는 공무원을 관리하기 위한 체계를 설정하는 것을 목표로 함.

〈가이드라인 List〉

연도	내용
2017	<p>PPPGB 결의안 No. 2017-12-06: PPP 프로젝트에서 제안자 선정을 위한 재정 입찰 매개변수 설정 지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 지침은 IA가 PPP 프로젝트에 있어서 가장 유리한 재정 입찰 매개변수의 결정에 사용할 수 있는 체계를 합리화하는 것을 목표로 함. - 위의 PPP 프로젝트는 정부와 사용자 커뮤니티의 최선의 이익을 가져오는 최선의 VfM를 보장할 프로젝트임.
	<p>PPPGB 행동강령(Code of Conduct for the PPP Governing Board)</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 강령은 PPPGB의 윤리 기준에 대한 지침을 수립하고 특정 상황에 적절한 태도를 결정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함임.
2018	<p>PPPGB 결의안 No. 2018-12-02-PPP 보호: 환경, 이주, 사회 및 젠더 문제의 주류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PP 프로세스에서 보호 문제와 관련된 지연을 방지하는 것을 목표로 함. - 이러한 지연은 인프라 및 개발 프로젝트의 통합을 요구하는 모든 보호 법률, 법령, 명령, 지침(issuance), 규칙 및 규정을 검토할 수 있는 일부 실행 기관(IA)의 제한된 자원 및 능력, 그리고 보호 요구사항이 PPP 프로젝트의 다양한 단계(개발, 검토 및 승인, 조달 및 실행)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제한된 이해로 인해 발생함.
	<p>공화국 법 No. 7718에 의해 개정된 공화국 법 No. 6957에 따른 민간 제안 관리 지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의 요구사항을 확실하게 이해하고, 조달규칙의 더욱 쉬운 적용과 민간 제안서(Unsolicited Proposals, USPs)의 처리에 있어서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모든 관련 지침 사이에 응집력 있는 연결을 확립하는 것을 목표로 함.
	<p>PPPGB 결의안 No. 2018-03-05 - 합작 투자 계약지원을 위한 PPPC의 체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합작 투자 계약(JVA) 관련 지침 및 정책의 맥락에서 JVA를 수행하는 정부 기관에 PPPC의 지원에 대한 체계를 제공하고자 함.
	<p>PPPGB 결의안 No. 2018-03-03 PPP 조달을 위한 PA 임명에 관한 지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는 공정하고 투명하며 효율적인 PPP 조달 프로세스를 보장하기 위해 전념 - 정부가 인프라에 대한 국내외 투자를 유치함에 따라 정직함(probity)은 이 보장에 대한 중요한 측면임.
2019	<p>PPPGB 결의안 No. 2019-07-02: 그린필드 정부 발주 하이브리드 PPP 프로젝트 관리에 대한 제안된 지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PP를 통해 실행된 인프라 프로젝트의 성공을 보장하는 실행 기관(IA)을 지원하는 동시에 하이브리드 PPP의 일반적인 정의를 권장하는 것을 목표로 함. - 또한, PPP 하이브리드 프로젝트에 내재된 위험을 해결하여 VfM 결과를 극대화 하는 지침을 제공함을 목표로 함.

* 출처: PPPC('20.11) PPPGB Guidelines and Issuance

바. PPP Center

- (PPPC의 역할) PPPC는 국가의 모든 PPP 프로젝트에 대한 중앙 조직화 및 감시 기관 역할을 하는 정부 기관임
 - PPPC는 국가의 PPP 프로그램 실행을 촉진함
 - 또한 프로젝트 준비에 관련된 모든 측면에서 실행 기관(IA)을 가능하게 함과 프로젝트 자문 및 촉진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가의 PPP 프로그램을 지원함

- (PPPC의 기능) PPPC는 국가 정부 기관, 정부 소유 및 통제 기업, 정부 금융 기관, 주립 대학 및 대학, 지방 정부 단위에 PPP 프로젝트를 개발하고 실행하기 위한 기술 지원을 제공함
 - 프로젝트 개발 및 모니터링 시설 관리 및 자금의 회전 기능 수행
 - 자금 회전의 경우, PPP 프로젝트의 준비 및 거래를 지원하는 데 도움이 되는 컨설턴트와 거래 자문가를 참여시키기 위해 IA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함

- (PPPC의 법적 근거) 센터는 2010년 9월 9일에 서명한 행정명령(EO) No. 8 시리즈에 의하여 설립됨
 - 이는 BOT 센터를 재조직하고 PPPC로 개명한 것
 - 이전의 BOT 센터는 통상산업부 산하의 부속기관이었으나, EO No. 8에 따라 현재 국가경제개발청(NEDA)의 산하의 기관이 됨
 - 2013년 5월 28일, EO 136이 서명되었는데 이는 EO No. 8의 특정 조항을 수정하고 PPPGB의 신설을 포함함
 - 이사회는 프로젝트개발 모니터링 시설(PDMF)을 포함한 모든 PPP 관련 문제에 대한 전반적인 정책 결정 기관의 역할을 하기 위해 만들어짐
 - PPPC는 PPPGB에 직접 보고하고 사무국의 역할 수행

- (구성) 센터는 상임 이사(차관)와 두 명의 사무차장이 이끌고 있으며, 센터는 서비스 단위별로 6개의 부서로 구성됨
 - 6개의 부서는 다음과 같음
 - 프로젝트개발 및 모니터링 시설 서비스
 - 프로젝트개발 서비스
 - 정책 수립 및 프로젝트 평가/모니터링 서비스
 - 역량 강화 및 지식 관리 서비스
 - 법률 서비스
 - 행정 서비스

- (프로젝트 수행 관련) PPPC는 프로젝트 실행에 있어서 민간 부문을 지원할 권한이 없음
 - EO No. 8에 따르면, PPP 센터는 IA에 기술 자문서비스를 제공하며, 이러한 IA는 정부 기관, 지방 정부 기관, 정부 소유 및 통제 기업, 주립 대학 및 대학으로 구성됨
 - 또한, PPPC는 PPP에 참여하고자 하는 민간기업에 대한 인증을 공개하지 않고 비공개 파트너로 하여금 인증 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함
 - 비공개 파트너는 입찰 요건을 이해하고, 프로젝트 입찰 과정에 참여하기 위하여 프로젝트 사전 검증 문서를 구매하면 됨

- (기술 서비스) PPPC는 민간 부문이 참여하는 프로젝트의 준비, 패키징, 구조화, 승인 및 입찰부터 국가 정부 기관, 지방 정부 기관 등의 IA를 지원함
 - PPP 실행 가능성에 대한 예비 평가 수행
 - 관련 IA나 지방 정부 기관 등과 함께 제시하고 논의할 프로젝트 개념 및 제안 검토 수행
 - 실제 입찰 관련 지원 제공(예: 사전 자격 프로세스, 입찰 평가, 계약 검토 등)
 - 프로젝트개발, 승인 및 실행과 관련된 다양한 기술, 재정, 법률 및 계약 문제,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식별하고 제공함
 - 계약 초안 및 기타 입찰 문서(RFP, 입찰자 지침 등) 검토 및 마무리

〈PPPC의 6가지 기술 서비스〉

구분	내용
(1)법률(Legal)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PPP 정책, 규칙 및 규정 구현(IRR) 및 기타 관련 운영 정책 문제에 대한 공식화, 검토 및 개선에 관한 법률 자문 제공 2. PPP 계약 변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잠재적인 소송을 해결하기 위한 권장 사항 검토 및 제공 3. 법률 연구 및 연구 수행 4. PPP와 관련된 법률, 행정 문제, 법원 결정 및 기타 법적 문제에 대한 데이터베이스의 유지 및 모니터링 5. 위의 기능 수행과 관련되어 제공되는 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안된 법률, 시행규칙 및 규정을 포함한 PPP 정책의 공식화와 관련된 법률 자문 및 지원 제공 - PPP 프로젝트 및 계약, 심사, 협상, 검증을 포함한 모니터링 및 시행과 관련된 법적 자문 및 지원 제공 - BOT 법, 정부 조달 개혁법 및 기타 관련법에 따른 계약, 약정, 거래 문서 및 기타 문서의 준비 및 검토 - PPP 프로젝트를 위한 기술 고문/자문이 준비한 계약 및 거래 문서 검토 - PPP 프로젝트 개발·촉진 및 지원과 관련된 법적 의견/자문/자문 준비 - 운영 관련 법적 자문 제공 - 의무적인 기능, 역할 및 책임을 수행함에 있어 PPPC가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에 법률 자문 및 지원 제공 - PPPC 및 직원, 직원의 내부 문서, 문제, 커뮤니케이션 및 기타 문서 검토 - PPPC 및 직원에게 계약/지원에 관한 법률 자문 제공 6. PPPC 법률 서비스는 모든 PPP 거래, 입찰 및 기타 모든 PPP 프로젝트 문서가 기존의 법률 및 규제 체계 및 정책을 기반으로 합법적인지 확인하는 데 중요함.
(2)정책 수립 및 지원 (Policy Formulation and Advocacy)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0년 EO No. 9의 2항에 따라, PPPC는 정책 수립부서(PFD)를 통해 PPP 프로세스의 정책 차이를 해결하고, 파이프라인에 있는 프로젝트의 실행을 신속하게 추적하기 위해 주로 PPP와 관련된 계획, 정책, 지침을 구현함. - PFD를 통해 정책 수립 및 분석뿐만 아니라 정책 지지 주도 - 프로세스의 정책상 차이를 해결하고 파이프라인에서 프로젝트의 구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주로 PPP에 대한 계획, 정책 및 구현 지침을 권장함.

〈PPPC의 6가지 기술 서비스〉

구분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PPPC는 국가 PPP 프로그램의 활성화 정책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BOT 법 개정으로 알려진 공화국 법(RA) No. 7718 개정안 통과를 적극 추진 중 - 개정안은 이해관계자의 요구에 대한 지속 가능성과 대응성을 보장하고 PPP 프로그램의 모범 사례를 제도화함.
(3)프로젝트 평가 (Project Evaluati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PPC의 주 업무중 하나는 PED (Project Evaluation Division)를 통해 ICC (투자조정위원회) 및 NDA (국가경제개발청) 위원회의 PPP 프로젝트 평가 및 승인을 촉진하는 것. - ICC-TWG (Technical Working Group)의 일원으로서 회폐 가치 분석, 상업적 타당성, 재무적 타당성, 재무 구조화에 대한 PPP 프로젝트의 초기 검토 수행 - ICC-TWG 및 ICC-내각위원회(CC)의 사무국 역할을 하며,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함.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평가 및 승인 프로세스를 문서화하여 ICC가 설정한 승인 조건을 IA가 준수하는지 확인 2) ICC-CC가 검토하고 승인한 PPP프로젝트의 현황에 대해 제안 기관에 피드백 제공
(4)프로젝트 모니터링 (Project Monitoring)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O No. 8의 2항에 따라, 프로젝트 모니터링 부서(PMD)는 RA No. 7718에 의해 승인된 약정 또는 계획에 따라 국가 정부기관(NGA) 및 지방 정부 단위(LGU)가 서로 다른 계약상 우선순위가 있는 PPP 프로젝트의 이행을 감시하고 촉진할 책임이 있음. - PPPGB는 PPP 프로젝트 모니터링을 위한 지침 역할을 하는 PPP 모니터링 체계 및 프로토콜을 제공하는 정책회람 No. 07-2015 승인 - PMD는 계약상 이정표와 의무가 준수되는지 확인하기 위해 프로젝트 진행 상황을 모니터링 함에 있어 IA 및 프로젝트 제안자와 긴밀히 협력하며, 프로젝트 구현 과정에서의 문제와 병목 현상을 관리 및 해결하기 위해 IA에 기술 지원 제공함 (정기 현장 검사 수행, 정기 조정회의 등 포함). - 경제 개발 클러스터를 위한 PPP 프로젝트에 대한 상태 업데이트와 같은 다양한 이해관계자에게 정기 보고서 작성 - 현재 PMD의 모니터링 범위는 15개의 통과된 국가 PPP 프로젝트와 이전 행정부에서 수행된 70여 개의 기타 프로젝트를 포함함.

〈PPPC의 6가지 기술 서비스〉

구분	내용
(5)역량 구축 (Capacity Building)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0 Eo. 8에 PPP 프로젝트 준비 및 개발 시 기관/LGU에 자문 서비스, 기술 지원, 교육 및 역량 개발 제공이 구체적으로 언급되었고, 이를 통해 PPP가 설립되었으며, 센터는 개발이 가능한 PPP 프로젝트 환경 조성을 촉진할 역량 구축 프로그램을 제도화함. - 역량 구축은 구조화된 PPP 인프라 프로젝트를 개발할 수 있는 역량을 IA에 부여하기 위한 것으로, 역량 구축 부서(CBD)가 제공할 수 있는 영역은 일반 PPP 프로젝트의 프로젝트 사전 구현 및 구현 단계의 스펙트럼을 포괄하는 역량 구축 체계를 기반으로 함. - 구현 전 구성요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1단계: 도입 및 시작 2단계: 계획, 식별, 구조화, 승인 3단계: 조달 및 재정(Award) - PPP 계약이 승인되면 구현, 모니터링 및 평가를 포함하는 구현 구성요소가 착수됨 - CBD는 요청 당사자의 필요에 부합되고 맞춤형된 전체 범위의 개입(교육, 인턴십, 브리핑 및 학습자료 제공 등)을 제공
(6)지식 관리 (Knowledge Managemen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식 관리란, 기업의 모든 정보자산을 식별, 갈무리, 평가, 검색 및 공유하는 통합 접근 방식을 촉진하는 분야로, 이러한 자산에는 데이터베이스, 문서, 정책, 절차 및 이전에 포착되지 않은 전문 지식과 경험이 포함될 수 있음. - KMB (Knowledge Management Division)는 PPP에서 국가의 PPP 의제를 홍보하고 IA의 커뮤니케이션 계획, 실행 및 PPP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부서 - KMB 전략의 일부는 의사 결정권자·정책 입안자의 지식 요구사항을 거버넌스 및 정책 차원에서 지원하고, 새로운 플랫폼, 도구 및 지식 제품을 제공하여 역량 개발을 위한 학습 및 혁신을 촉진하고 지식을 증진함으로써 PPP 프로그램에서 지식 관리를 주류화하는 것 - 기술 지원 외에도 PPP의 커뮤니케이션 부서로서 주요 기능 중 하나는 대중과 이해관계자에게 센터와 PPP 프로그램의 존재를 상세히 설명하고, 센터의 이미지를 유지하는 것임. - KMD는 유효한 PPP 프로젝트 데이터에서 PPP 프로그램 및 프로젝트에 대한 최신 정보를 수집·생성하여 지역 및 국제 행사에 사용될 인쇄물, 방송 미디어 및 온라인 콘텐츠와 같은 다양한 미디어 플랫폼에 배포

〈PPPC의 6가지 기술 서비스〉

구분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온라인 미디어의 경우, 경영정보시스템(MIS) 부서의 지원을 받아 웹사이트의 콘텐츠를 관리하고, 프로젝트 파이프라인, 입찰 게시판, 행사, 미디어 배포 및 인포그래픽을 적시에 업데이트하며, 센터에서 제공하는 쉽게 이용 가능한 소셜미디어 정보를 활용하고 PPP 행사 및 프로젝트에 대한 실시간 업데이트를 적극적으로 수행 - 또한, 커뮤니케이션 임무의 하나로 언론 브리핑과 행사 조정을 통해 방송, 인쇄물 및 온라인 미디어 분야에서 실무자 및 주요 의사결정자와의 관계를 구축하고 유지함 - PPPC는 PPP 지식 허브를 만들어 KMD가 PPP 지식 상품과 PF, 리스크 관리, 경제 보고서 등 PPP 관련 자료의 구축·유지·홍보를 담당하며, PPP 정보 및 문서화를 위한 중앙 저장소 역할을 함. - KMD는 방문 고객, 전화/이메일 문의 응대를 하며, PPPC와 PPP 프로그램에 대해 정보를 얻고 싶어 하는 국제 당사자(international parties)의 연구 방문을 담당함

* 출처: PPPC('20.11) About PPPC - Technical Service

2 외국인 투자 환경

가. 외국인 투자 환경 개요

- (외국인 직접투자) 2019년 필리핀의 외국인 직접투자 금액은 전년 대비 약 2.2배 수준으로 증가하였으며, 소수의 투자 유치기관 및 국가에 집중된 경향을 보임
 - 외국인 직접투자의 경우 필리핀 투자청(BOI) 및 필리핀 경제구역청(PEZA)이 주요 투자 유치기관이며, 이 두 곳의 외국인 직접투자 비중이 전체의 98.6%임 (2019년 기준)
 - 필리핀에는 공식적으로 7대 투자유치기관이 존재하며, 필리핀 투자청과 경제 구역청의 경우 전국적으로 투자유치가 가능(나머지 기관의 경우 특정 지역에 기반한 투자를 유치)

〈투자유치기관별 FDI 동향〉

(단위: 백만 페소)

순위	국가	2016	2017	2018	2019
1	Board of Investments(BOI)	89,396	21,737	103,967	335,740
2	philippines Economic Zone Authority(PEZA)	121,216	78,278	68,321	49,255
3	Subic Bay Metropolitan Authority(SBMA)	4,788	497	804	2,869
4	Clark Development Corporation(CDC)	2,296	3,919	2,768	1,257
5	Cagayan Economic Zone Authority(CEZA)	142	83	1,198	341
6	Authority of the Freeport Area Bataan(AFAB)	161	430	1,673	340
7	BOI-Autonomous Region of Muslim Mindanao(BOI ARMM)	1,040	695	235	307
합계		219,039	105,639	178,967	390,109

* 출처: 필리핀 통계청(순위는 2019년 기준)

- 주요 6개 국가의 외국인 직접투자 비중이 전체의 90.3%(2019년 기준)로 이전 3년 평균인 64.2%(2016년~2018년)보다 큰 폭으로 증가하였으며, 싱가포르, 중국, 한국의 투자가 증가한 것이 그 원인
 - 싱가포르, 중국, 한국의 경우 2018년 대비 2019년에 큰 폭으로 증가
 - 일본의 경우 필리핀의 최대 투자국 중 하나로 과거부터 꾸준히 투자를 진행하고 있음

<국별 대필리핀 FDI 동향>

(단위: 백만 페소)

순위	국가	2016	2017	2018	2019
1	싱가포르	24,056	10,156	21,181	176,342
2	중국	1,519	2,334	50,693	88,674
3	한국	16,135	3,371	1,885	41,479
4	일본	27,059	31,990	19,728	19,885
5	네덜란드	49,446	9,637	4,053	14,394
6	미국	31,428	8,741	12,858	11,728
7	태국	2,567	364	57	9,036
8	대만	1,608	10,834	4,201	2,813
9	호주	32,440	3,928	2,141	1,441
10	인도	1,596	411	512	915
기타		31,185	23,874	61,658	23,403
합계		219,039	105,638	178,967	390,109

* 출처: 필리핀 통계청(순위는 2019년 기준)

- (투자 환경) 필리핀의 현지 비즈니스 환경은 평가부문별로 차이가 심하며 종합적으로는 전 세계 국가 중 중위권에 해당
 - 세계은행이 발표한 2020 세계 주요국 기업환경평가 지수에 따르면 필리핀의 비즈니스 환경은 190개 조사국 중 95위로 딱 중간값에 해당함
 - 10개 지표 중 5개가 100위권 밖에 있으며, 특히 사업개시, 계약 이행 지표는 150위권 밖으로 투자 환경이 열악한 상황임

〈필리핀 부문별 투자 환경 현황〉

평가부문	평가요소	점수	순위
Starting a business (사업개시)	사업 시작에 필요한 최소자본금, 사업등록 절차, 소요시간, 비용 등	71.3	171
Dealing with construction permits (건축허가 취득)	허가승인절차, 소요시간, 비용 등	70.0	85
Getting electricity (전기공급)	절차, 소요시간, 비용 등	87.4	32
Registering property (부동산등록)	등록절차, 소요시간, 비용 등	57.6	120
Getting credit (신용거래)	신용거래 정보장치, 동산담보법, 파산법 등	40.0	132
Protecting investors (투자자 보호)	기업부채정보 공개 정도 등	60.0	72
Paying taxes (세제)	법인세율, 소요시간 등	72.6	95
Trading across borders (수출입)	절차, 소요시간, 비용 등	68.4	113
Enforcing contracts (계약이행)	상업분쟁 법적해결, 절차, 소요시간, 비용 등	46.0	152
Resolving insolvency (청산해결)	파산해결 소요시간, 비용 등	55.1	65

* 출처 : World Bank('19.10), Doing Business 2020 : Philippines

- (무역협정 체결 현황) 필리핀은 아세안국가 회원국으로 주로 아세안 공동체의 이름으로 이웃 국가들과 FTA 등을 체결하였으며, 일본 및 유럽 일부 국가 등과는 직접 무역협정을 체결하기도 함
 - 아세안(ASEAN)은 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의 10개 회원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정치·안보·경제·문화 등 주요 분야에서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고 있음
 - 주요 무역협정으로 아세안국가 사이에 맺은 FTA 개념인 ATIGA가 있으며, 이외에도 아세안과 한국, 중국, 일본, 인도 등 아시아 주요 국가들 사이에 FTA 협정을 체결하였음

- ATIGA (ASEAN Trade in Goods Agreement)는 아세안 상품 교역 협정으로 아세안국가 사이에 실질적인 FTA로 역할을 하고 있으며, 필리핀은 ASEAN 국가 내 수입 관세를 99.65% 제거함으로써 교역을 활성화함
- 아세안-한국 FTA는 2005년 12월에 체결하여 2006년부터 효력이 발생하였으며, 한국이 거대 경제권과 맺은 최초 FTA로서 의의가 있음
 - 아세안은 총 10개 회원국에 약 6억의 인구를 지닌 거대시장으로 미국, 중국, 일본, EU와 더불어 한국의 5개 교역 시장 중 하나임
 - 개성공단 제품에 대한 한국산 원산지 인정 조항 포함 등 한국 기업들의 시장 확장에 큰 도움이 되었음
- 일본의 경우 필리핀에 대한 경제적 원조가 막대하며, 필리핀의 해외 노동자 (OFWs)의 일본에 대한 대규모 인력 파견, 일본 자본의 투자유치 확대 등을 목적으로 직접 FTA 협정을 체결함
- EU의 경우 현재 아세안국가와 개별적으로 FTA를 진행하고 있으며, 추후 아세안-EU FTA 체결을 목표로 하고 있음
 - EU는 지난 2007년 아세안과 FTA 협상을 시작했으나 미얀마 인권 문제(로힝야족에 대한 학살 등)로 2009년 중단
 - 2017년 3월부터 협상을 재개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지지부진한 상황(유일하게 2019년 싱가포르와 최초로 FTA를 체결)
 - 필리핀은 비EU 국가 모임인 EFTA와 FTA 협정을 별도로 체결
- 필리핀-미국의 경우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FTA를 추진 중이었으나, 최근 악화된 필-미 관계로 인하여 협상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
 - 현재 필리핀은 미국과의 무역에서 일반특혜관세제도(GSP)를 적용받고 있음
 - * 일반특혜관세제도(GSP)란 미국 정부가 개발도상국과의 무역에서 사용하는 전략으로, 상대국의 대미 수출 품목이 특혜관세가 적용되지 않을 경우 무관세 혜택을 주는 제도. 이후 해당 상품의 경쟁력이 충분하다고 판단될 시 일반 관세 부과

〈필리핀 주요 무역협정 체결현황〉

협정명	체결국가	체결일자	발효일자
ASEAN Trade in Goods Agreement (ATIGA)	아세안 10개국	1992-01-28	1993-01-01
ASEAN-China Free Trade Area (ACFTA)	아세안 10개국, 중국	2002-11-04	2006-01-06
ASEAN-Korea Free Trade Area (AKFTA)	아세안 10개국, 한국	2005-12-13	2006-01-01
Philippines-Japan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PJEPA)	필리핀, 일본	2006-09-06	2008-10-08
ASEAN-Japan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AJCEPA)	아세안 10개국, 일본	2008-04-14	2008-12-01
ASEAN-Australia-New Zealand Free Trade Agreement (AANZFTA)	아세안 10개국, 호주, 뉴질랜드	2009-02-27	2010-01-01
ASEAN-India Free Trade Area (AIFTA)	아세안 10개국, 인도	2009-08-13	2010-01-01
Philippines-European Free Trade Association Free Trade Agreement (PH-EFTA FTA)	필리핀, EFTA	2016-04-28	2017-12-08
ASEAN-Hongkong Free Trade Agreement (AHFTA)	아세안 10개국, 홍콩	2017-11-12	2019-01-01

* 출처: philippines Tariff Commission

- 현재 논의 중인 주요 협정으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지역포괄경제 협력체(RCEP), 필리핀-한국 FTA 등이 있음
- 필리핀 당국은 2018년 12월 30일에 발효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에 가입 검토 중이며 기존 회원국이 제시하는 가입조건에 합의할 경우 CPTPP에 가입할 수 있음
- *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회원국: 뉴질랜드, 싱가포르, 칠레, 브루나이, 말레이시아, 베트남, 페루, 호주, 멕시코, 캐나다, 일본
- 아세안 10개국과 한국, 중국, 일본, 인도, 호주, 뉴질랜드가 10년 전부터 지역포괄 경제협력체(RCEP)에 대해 논의중이나, 이미 가입 예정 국가와 ASEAN이 대부분 FTA를 맺고 있으므로, 필리핀 정부는 협정이 발효되더라도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예상

- 한국과 필리핀 양국은 수교 70주년을 맞아 보다 포괄적인 경제 파트너십 구축이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한-아세안 FTA와 별도로 양국 간 FTA를 추진해 이를 조속히 타결하기로 합의함
- 한국과 필리핀은 지난 '19년 4월 FTA 추진에 합의하고 6월 협상을 개시했으며 현재까지 5차례에 걸쳐 공식 협상을 진행

〈한-필리핀 FTA 추진 현황〉

연월일	체결국가
2019-04-17	한-필리핀 FTA 추진 합의
2019-05-07	한-필리핀 FTA 추진 관련 공청회 개최(서울)
2019-06-04 ~ 05	제1차 한-필리핀 FTA 공식 협상 개최(서울)
2019-07-15 ~ 17	제2차 한-필리핀 FTA 공식 협상 개최(마닐라)
2019-08-12 ~ 14	제3차 한-필리핀 FTA 공식 협상 개최(부산)
2019-09-10 ~ 13	제4차 한-필리핀 FTA 공식 협상 개최(세부)
2019-11-25	한-필리핀 FTA 공동선언문 선언
2020-01-29 ~ 31	제5차 한-필리핀 FTA 공식 협상 개최(마닐라)

* 출처: 산업통상자원부

나. 외국인 투자법 제도

- (근거법) 필리핀 정부는 외국인의 투자로부터 국내 산업 및 자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외국인이 필리핀에 투자할 때 준수하여야 하는 지침들을 담은 공화국법 제7042호(외국인 투자법)를 제정
 - 제2조 기본 선언에 따르면 외국인의 투자는 필리핀인의 고용기회 및 생활 여건 및 복지를 개선하고, 자국의 수출과 외국시장에의 접근성에 대한 양적, 질적인 범위 확대와 연계되어야 함
 - 필리핀 자본의 보충재로 그리고 주로 국내시장에서의 기업들의 기술을 지원하는 형식으로 유치되어야 함

- 제8조에 의한 투자 제한 목록 작성 의무는 외국지분의 한도를 규정하는 헌법 내용을 반영
 - 헌법에 의거, 공공인프라 운영(Franchise, Certificate 포함, 모든 운영권 보유) 시 외국인 투자 지분율은 40% 이하로 제한되고 있으며, 해당 기업의 경영진과 이사는 반드시 필리핀 국적자여야 함
 - 외국인투자법(FIA) 부속서인 외국인 투자 제한 리스트(Foreign Investment Negative List)는 투자 제한 분야를 지정
 - 외국인의 투자가 제한되는 분야의 경우 일반적으로 현지 기업과의 파트너십 또는 조인트벤처(JV) 형태의 진출을 고려
 - Negative List는 일반적으로 2년마다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업데이트되며, 가장 최근 개정된 11차 Negative List(2018년 10월 발표)는 10차 Negative List에 이어 3년 만에 업데이트
 - 이외에 내외국인 대상 모두 적용하는 종합투자법(Omnibus Investment Code, 1987년 제정)이 있으며, 정부가 투자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 (투자 제한 및 제약사항) Negative List는 A 유형과 B 유형으로 나뉘며 일반적인 건설 및 공공인프라 사업의 경우 외국인지분 40% 한도로 투자가 가능

<Negative List A - 일반 산업 분야>

외국인 지분 허용	내용
0% (불허 구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Mass Media - 전문직: 엔지니어링, 의사, 회계, 건축, 형사, 화학, 세관중계, 환경설계, 조림업, 지질학, 인테리어디자인, 조경, 법률, 사서, 해양 사무관(Marine Deck나 Officer), 해양 엔지니어(Marine Engine Officer), 배관공, 설탕 기술자, 사회사업, 교사, 농부, 어부, 부동산 중개사, 호흡 치료사 - 납입 자본금 250만 달러 이하 소매기업 - 민간경호회사 - 소규모 광산개발업 - 다도해, 영해, 배타적 경제수역 내 해양자원 이용, 강, 호수, 만, 석호 내 소규모 천연자원 이용 - 조종석(Cockpit)에 대한 소유, 운영, 관리권 - 핵무기의 제조, 수리, 비축, 유통 - 생화학/방사능 무기 및 대인 살상용 지뢰 제조, 수리, 보관, 유통 - 폭죽 및 기타 관련 제품의 제조
25% 이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외 인력 송출업 - 국방 관련 건설 계약
30% 이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광고업
40% 이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BOT 법에 따른 인프라/개발 프로젝트, 국내 자금 조달을 통한 공공사업 건설 및 보수 계약은 외국인지분 40% 이하 소유 가능(국외 자금 조달 또는 지원 통한 국제경쟁입찰 프로젝트 제외) - 사유지 소유 - 공공사업 운영 및 관리 - 교육기관 소유, 설립, 운영(외국인 거주자 포함) - 쌀과 옥수수의 재배, 생산, 도정, 거래(소매 제외) 관련 사업 - 정부 소유, 국영기업과 기관에 제품 공급 계약 - 상업용 심해어선 운영 - 콘도 관련 프로젝트 투자 진출 시 콘도 Units에 대한 소유 - 필리핀 기업감독 및 관리위원회의 규제 받는 투자사 - 민간 무선통신 네트워크

* 출처: 필리핀 투자청(BOI)

〈Negative List B - 안보, 국방, 보건, 중소기업 보호 등 특수분야〉

외국인 지분 허용	내용
40% 이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필리핀 국립경찰(philippines National Police, PNP) 승인을 필요로 하는 관련 제품 및 원자재의 제조, 수리, 보관, 유통(탄약, 화약류 등) - 필리핀 국방부(DND, Department of National Defense)의 승인을 필요로 하는 관련 제품의 제조, 수리, 보관, 유통(총포류 등) - 유해 약물 제조, 유통 - 공중보건, 윤리상 문제로 법의 규제를 받은 사우나, 마사지 클리닉, 기타 유사 업종 - 경마 등 도박 관련 업종

* 출처: 필리핀 투자청(BOI)

- Negative List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면 일반적으로 외국인도 100% 지분 소유가 가능하나 업종별 관련법에 따라 외국인의 지분을 제한하고 있는 분야도 있음
 - 진출 전 필리핀 기업 등록 및 감독위원회(SEC)에 확인해야 함
 - 건설 분야의 경우 일반건설면허 취득 요건으로 인해 외국인지분이 40%로 제한되며, 물류 분야는 SEC Memorandum Circular No. 30 에 의거 외국인지분이 40%로 제한
 - 카지노사업, 은행업, 대부업, 캐피탈업, 증권투자업, 손해사정업 등 주로 금융업 관련하여 외국인지분의 100% 소유할 수 있으며, 은행업의 경우 국책은행이거나 필리핀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회사일 것을 조건으로 함
- 건설면허 등급 AAAA를 받는 경우 외국기업의 정부 및 민간 공사 프로젝트 단독 수주 가능
 - 이 등급을 보유한 외국법인(100% 외국인 지분)은 일반건설면허를 발급 받은 후 필리핀 내 민간건설프로젝트(사업 규모 제한)와 정부 건설프로젝트(국제경쟁입찰 PPP)에 참여할 수 있음

- (외국인 투자절차) 필리핀에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법인 또는 지사를 설립하는 형태로 진행되어야 하며, 크게 법인 등기, 납세자 등록, 사업자등록 절차 등으로 구성되며 외국 법인의 경우 최소 자본금 요건이 존재
 - 법인은 외국인 지분율이 40% 이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필리핀 기업으로 분류되며 이 경우 모든 행위의 책임은 해당 국가 내의 법인에만 미침
 - 외국인 지분율이 40%를 초과하는 법인이거나 지사(외국기업의 현지사무소)의 경우 사업으로 발생하는 모든 법률행위와 이익이 본사에 귀속되는 형태로 설립 시 최소 자본금 20만 달러의 요건이 존재

〈설립 절차 개요〉

단계	주제	내용
1	법인 또는 지사 등기 (SEC)	<p>신청서를 포함하여 다음의 필수서류를 제출하여야 함</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이름 확인 전표 (온라인 또는 SEC Name Verification Unit에서 제공하며 동일 회사명 존재 여부 파악 목적) 2. 정관 및 부칙 3. 신청 직전 1년 이내의 재무제표, 은행 계좌 증명서 등 4. 설립을 승인하는 이사회 결의서
2	임대차계약	법인 등기 완료되면, 사무실 임대차 등 각종 계약 체결 활동 가능
3	투자유치 기관등록	인센티브 받기 위해 투자청(BOI), 경제구역청(PEZA)에 등록 필요
4	납세자 등록 (TAX ID 획득)	<p>신청서를 포함하여 다음의 필수서류를 제출하여야 함</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SEC 등록증 또는 사업 라이선스(외국 법인의 경우) 2. 발급된 사업자 등록증 또는 사업자 등록증 신청서
	사업자 등록증 신청	Mayor's Permit 또는 Business Permit로 부르는 사업허가서는 각 해당 지방 정부(City, Municipality, Barangay 등) 이 발급. 여기에는 사무소에 대한 각종 위생, 소방점검 등이 포함되며, 동 절차가 끝나면 사무소 설립 절차가 종료

* 출처: KOTRA 국가지역정보

- (인센티브) 필리핀에서 투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가장 대표적인 국가기관은 통상산업부 산하 필리핀 투자청(BOI)이며, 주요 인센티브는 세금감면임
 - 투자청은 종합투자법(Omnibus investment code)에 의거하여, 인센티브를 제공
 - 이외에도 필리핀 경제구역청, 필리핀 투자청의 민다나오 지역 본부인 민다나오 자치구투자청, 수빅만관리청, 클락특구개발공사, 카가얀경제특구청, 잠보앙가 경제특구청 등이 대표적인 투자 인센티브 제공 기관
 - 종합투자법(Omnibus Investment Code)에 따르면 투자우선계획(IPP)에 부합하는 산업의 경우 필리핀 투자청에 등록 후 소득세 감면 등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음
 - 종합투자법에서 국가는 경제발전을 촉진시킬 것으로 기대되는 프로젝트에 재정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으며, 국가는 민간의 경쟁 관계가 아니라 투자 제도와 여건, 인센티브를 마련하고 지원하는 역할
 - 재정 인센티브는 기업의 설립 촉진 및 그 기업의 초기 사업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부여되며, 특정 기간이 달리 정해지지 않는 한, 기업의 투자 등록일이나 사업 개시일로부터 10년 후 만료
 - 당 법 제26조에 따라 투자우선계획은 이 법에 규정된 인센티브를 부여받을 자격이 있는 특정 산업을 제시하고 있음
 - 필리핀 통상산업부 산하 투자위원회에 의하여 작성(두테르테 대통령 집권 이후 가장 최근에 발표된 투자우선계획은 총 10개의 특정 산업과 1개의 지역을 지정

〈투자청의 투자인센티브〉

주제	내용
투자우선계획 (IPP)에 따른 유치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산품 가공을 포함한 제조 - 농업, 어업 및 임업 - 전략적 서비스 - 지방 정부 단위(LGU)의 민관합작사업을 포함한 사회기반시설 및 물류 - 마약 재활을 포함한 건강관리 서비스 - 대규모 주택사업 - 포괄적인 비즈니스 모델 - 환경 및 기후변화 - 혁신적인 신기술 분야 - 에너지 분야에서 서비스를 포함한 수출 사업, 수출업체 지원 활동, 수출 제품의 생산 및 제조와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특별법에 기인한 사업 활동 - 이슬람 민다나오 자치구 내의 사업 활동
인센티브 자격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센티브를 받으려는 기업은 수행하는 사업이 투자 우선 분야(IPP)에 해당하는 산업임을 입증하여 필리핀 투자청(BOI)에 등록하여야 함. - 개인 기업인 경우, 필리핀 현지인이 운영하는 기업이어야 하고, 회사인 경우, 원칙적으로 필리핀 현지인이 60% 이상의 의결권 있는 지분을 보유해야 하며, 60% 이상의 이사가 필리핀 현지인이어야 함. - 다만, 수출 중심의 기업이거나 투자유치우선분야(IPP)에서 개척 분야 (pioneer classification)로 인정받는 기업일 경우에는 더 높은 외국인 지분율을 인정 받을 수 있음.
주요 인센티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 개시연도부터 4년 ~ 6년 동안 소득세를 면제(또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8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추가 기간을 부여 ① 해당 프로젝트(사업)가 투자위원회가 정한 종업원 대비 자본 설비 비율을 충족시키는 경우 ② 국산 원료를 이용한 경우 ③ 사업 개시 후 최초 3년간 순 외환저축액이나 소득이 연간 500,000달러에 달하는 경우 - 최초 5년간 과세소득으로부터 직접 인건비 증가분의 50%를 공제(단, 해당 프로젝트(사업)가 투자 위원회가 정한 종업원 대비 자본 설비 비율을 충족시키는 경우만 해당) - 조건에 따른 관세 면제, 계약세 면제 - 직접적인 재정적인 인센티브 외에도, 외국인 근로자 고용시의 특혜, 통관 절차의 간소화 등 각종 비재정적 인센티브도 제공

* 출처: 필리핀 종합투자법, 통상산업부(DTI)

- 경제구역청(PEZA)은 필리핀의 양대 투자유치 기관임
 - 경제특구특별법(Special Economic Zone Act of 1995)에 따라 경제구역청장은 필리핀 전역에 걸쳐 PEZA 경제특구를 지정할 수 있고, PEZA 경제특구에 등록된 기업들은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음
 - 경제구역청(PEZA)에 등록된 기업들은 산업의 종류에 따라 통상적으로 4년~6년 까지의 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고,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면세 기간 연장도 받을 수 있음
 - 등록기업들에 모든 국세나 지방세를 부담하는 대신 총소득의 5%만을 특별세로 낼 수 있는 옵션 부여
 - 이외에도 경제구역청(PEZA)은 등록기업에 수입·수출 절차의 간소화, 외국인 노동자의 비자 혜택 등의 비 재정적인 혜택도 제공
- 필리핀 정부는 기존에 미군 기지로 사용되던 수빅만 지역과 클락 지역을 상업, 공업, 금융 중심지로 개발하기 위해 각 해당 지역을 수빅경제특구와 클락경제특구로 지정함
 - 수빅만관리청(SBMA)이나 클락특구개발공사(CDC)가 관리하도록 되어 있음
 - 교육, 언론 등 특수분야를 제외한 대부분 분야에서 외국기업의 100% 소유지분 설립 가능(단, 외국인지분 제한 업종 경우 경제특구에서만 사업할 경우 해당)하며, 외국기업의 주요 투자기지로 주목받고 있음
 - 수빅만관리청(SBMA)이나 클락특구개발공사(CDC) 또한 경제구역청과 마찬가지로 등록기업에 모든 국세나 지방세를 부담하는 대신 총 소득의 5%만을 특별세로 내면 되는 인센티브를 제공
 - 수빅경제자유구역(SBMA), 클락경제자유구역(CFZ)에 등록된 외국기업에는 재산세가 면제되고, 최장 75년간 토지임대 허용

□ 건설시장 규모와 추이

○ 현황

- 2020년 건설시장은 코로나19에 따른 정부의 ECO(Enhanced Community Quarantine) 정책 등으로 인해 인력과 공급망이 제한되어 -21.2% 성장에 그쳤음
- 2021년에는 교통과 에너지 인프라 부문이 회복되며 11.5% 성장한 것으로 추정됨
- 정부의 교통 및 에너지 분야 투자 지속으로 2022년 건설시장은 9.2% 성장할 것으로 전망됨
- 필리핀 공공사업도로부의 2021년 예산은 전년대비 61.3% 증가한 6,957억 페소(145억불)였으며, 교통부도 전년 대비 4.4% 증가한 879억 페소(18억불) 배정
- 2022년 예산(안) 역시 인프라와 BBB(Build, Build, Build) 프로그램 추진을 위해 1.18조 페소(230억불)로 제안되는 등, 관련 부문에 집중될 전망

<필리핀 건설시장 규모>

구 분	2019	2020	2021e	2022f	2023f
건설시장규모(억불)	509	401	447	488	535
성장률(%)	13.9	-21.2	11.5	9.2	9.6

※ f : forecast

※ 출처 : IHS Markit('21.12월)/명목(Nominal 기준), e는 추정치, f는 전망

- 교통 부문의 경우 2021년에는 23.1% 성장한 것으로 추정되며, 메트로, 고속도로, 공항 확장 등에 힘입어 2022~2030년까지 연평균 7.1%의 높은 성장세 유지 전망
- 발전 부문은 2020년 18.0% 마이너스 성장하였으나, 2021년에는 18.6% 성장한 것으로 추정되며, 2022~2030년까지 연평균 7.1%의 성장률을 유지할 전망
- 한편, 필리핀은 역내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PPP 프레임이 잘 구성돼서 민간자본 유치에도 긍정적인 상황임
- 다만, 관료주의 및 부정부패로 인한 프로젝트 추진 지연, 예산초과 등은 비효율적 요소로 평가됨

□ 건설면허 및 허가제도

○ 건설업 허가 등 제도

1) 일반 고려사항

- 관련 법 : Contractors' License Law (RA 4566)
- 주무부처 : The Philippine Contractors Accreditation Board (PCAB)
- 필리핀에서 건설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면허는 필수임
- 필리핀 건설면허의 종류는 일반면허 / 특별면허 두가지로 구성되므로, 각 공사의 상황에 맞게 선택발급이 필요
- 일반면허는 현지 시공사 및 필리핀인 지분 60% 이상의 현지법인이 해당
- 특별면허는 JV/컨소시엄/외국시공사가 차관공사 수행시에 해당
- 특별면허는 매년 갱신이 필요함(갱신기한 6.30)
- 특별면허는 도급한도 금액별로 등급이 나뉘짐
- 따라서 이에 해당하는 자본금을 예치하고, 필요 기술자를 확보하여야 함 (장비기술자 현지인 3명)
- 하도급 역시 면허 필수임

2) 건설업 면허 및 인허가 제도

- 건설업 면허는 분야별로 크게 일반건축(General Building), 일반 토목(General Engineering) 및 특수분야(Specialty) 3가지로 구분됨
- 이는 다시 건축분야 4종, 토목분야 5종 및 특수분야 14종 등 총 23개의 전문업종으로 세분화

3) General Engineering(GE)

- 전문화된 엔지니어링 지식과 기술을 요하는 토목공사의 시공이 가능한 건설업자 - 관개, 상하수, 홍수통제, 도로, 항만, 조선소, 기타 중공업 시설 등
- GE-1 Road, Highway, pavement, Railway, Airport horizontal structures & bridges
- GE-2 Flood Control and Irrigation
- GE-3 Dam, Reservoir and Tunneling
- GE-4 Water Supply
- GE-5 Port, Harbor and Offshore Engineering

4) General Building(GB)

- 건축 및 기타 구조물 개발과 관련된 건설업자
- GB-1 Building & Industrial Plant
- GB-2 Sewerage & Sewage Treatment/Disposal Plant
- GB-3 Water Treatment Plant & System
- GB-4 Park, Playground & Recreational Work

5) Specialty : 기전, 배관, 페인팅, 기계설치, 매매업 등의 전문건설업

- Sp-1 Foundation Work
- Sp-2 Structural Steel Work
- Sp-3 Concrete Pre-casting & Pre-stressing
- Sp-4 Plumbing & Sanitary work
- Sp-5 Electrical work
- Sp-6 Mechanical work
- Sp-7 Air-conditioning & Refrigeration work
- Sp-8 Elevator and Escalator work
- Sp-9 Fire-Protection work
- Sp-10 Waterproofing work
- Sp-11 Painting work
- Sp-13 Well-Drilling work
- Sp-14 Communication Facilities

- 면허는 각 업종마다, 시공실적·기술자·자본금 등 회사규모를 감안하여 7개 등급으로 구분하여 발급되며 매년 갱신이 필요
- 펠리핀 건설 면허 발급 통계(2016-2017, Distribution of PCAB Licensed Contractors)

<필리핀 건설 면허 발급 통계(2016-2017, Distribution of PCAB Licensed Contractors)>

분류	신규	갱신
AAAA	2	6
AAA	3	345
AA	6	130
A	64	972
B	171	1783
C	255	920
D	621	2584
E(Trade)	249	933
SUB TOTAL	1371	7693
TOTAL	9044	

자료: PCAB (필리핀 건설 면허 발급 위원회,
Philippine Contractors Accreditation Board, 2017.4.26.)

구분	업체 수
GE	2,761
GB	1,660
Specialty	247
Trade	259
Total	4,927

자료 : PCAB, CIAP

면허등록

- 외국건설업체는 차관공사 수행시 PCAB(Philippine Contractors Accreditation Board)에서 공사 건별로 특별면허(Special License, 매년 갱신 필요(6.30일))를 발급받아야 시공에 참여할 수 있음
 - 필요한 등급에 상응한 자본금을 필리핀 국내은행에 예치하여야 하고 장비와 기술자를 확보하여야 함
- 기타 공사는 현지법인을 설립하여 일반면허를 취득한 후 공사에 참여할 수 있음(한편 건설업 면허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SEC에 기업등록 절차 필요)

○ Regular License(일반면허)

- 국내 건설업자 및 필리핀인 지분이 최소 60% 이상인 현지 법인에 한하여 발급 (해당법인이 존재하는 한 자격 유효, 즉 개별건에 대하여 허가를 내주는 Special License와는 차이가 있음)
- 현재 정부는 외국인 투자확대를 위해 현지 지분한도 규제완화 검토 중
- 일반적으로 필리핀에서 Regular License로 건설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Securities and Exchanges Commission에 등록을 해야하며 건설면허법 및 외국인 투자법을 준수해야 함
- 추가로 BOT 사업의 경우는 100% 외국인 투자, 시공이 가능
-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에 등록된 업체에 한하여 Philippine Contractors Accreditation Board(PCAB)는 면허를 발급해 주고 있음

○ Special License(특별면허)

- 단일 특정 프로젝트의 건설을 위한 합작(J/V), 컨소시엄 또는 외국업체에게 발급(해당 프로젝트에 국한)
- 건설업 영위를 목적으로 SEC 등록을 필한 업체(현지법인, 지사 모두 가능)
- 면허 신청에 부합되는 최저 자본금 및 자격증 소지 기술자 보유 업체
- 현금 또는 장비의 형태로 필리핀에 투자된 자산 보유업체(해당 면허 만료일 이전에 자산의 양도, 임대 또는 본국 송환 불가)
- 신청자가 외국 건설업자의 자회사인 경우는 모기업의 연대보증서
- 필리핀 또는 다른 나라에서 동종/유사 프로젝트 수행실적 보유 업체
- PCAB에 관련 서류와 함께 신청서를 제출해야 발급
- 일반 또한 외국업체가 필리핀에서 발주하는 공사를 수주하기 위해서는 기업등록 등 일반절차 이외에도 다음과 같은 요건이 필요

- 공사 성격별 참여요건
 - ① 차관공사
 - 지사 설치, 면허 취득만으로 가능(외국인 100%투자 가능)
 - ② 순수 국내자금 공공공사
 - 국내 업체 또는 외국인 투자 지분 25% 미만인 합작기업만 가능(사장과 재무이사는 필리핀인, 수주 사실상 불가능)
 - ③ 민간공사
 - 외국인 투자 지분 40%미만인 합작기업 가능(100%도 가능 예정)
 - ④ 외국인 투자공사
 - 지사 설치 또는 100% 투자 가능
 - ⑤ 설계, 감리용역
 - 차관 사업만 외국 업체 참여 가능하나, 통상 Joint Venture를 요구
- 한편 지사 설치, 기업 등록, 면허 발급 등 각종 절차는 법상으로는 직접 신청하는 것이 가능하나, 행정 관행상 변호사를 선임하여 의뢰하지 않으면 사실상 불가능

□ 최근 필리핀 건설 면허 동향

- 필리핀 정부, 신규 건설 면허 등급 Quadruple (AAAA)도입 추진
 - 2016년, 필리핀 건설면허발급위원회 (PCAB: Philippine Contractors Accreditation Board)은 한-아세안 투자 포럼에서 AAAA등급 신설로 외국기업에 필리핀 일반 건설 면허 발급을 허용할 것이라고 밝힘
 - 한국 건설 기업들은 일반 건설면허를 필요로 하는 민간 프로젝트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외국인 지분 40% 미만의 법인을 설립, 일반 건설면허를 발급받은 후 참여해야 했음
 - AAAA등급을 취득해, 단독으로 민간 프로젝트를 수주가 가능해짐
 - 그러나, PCAB 관계자는 이번 AAAA면허 제도가 대형 외국건설기업 유치를 위함이라고 밝힘

□ 현지법인 설립절차

1. 현지법인 설립

- 담당 기관 :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SEC)
- 설립 절차
 - (1단계) 필리핀 기업등록 및 감독위원회(SEC) 등록(법인등기)
<http://www.sec.gov.ph> → online transactions → register corporation
 - (2단계) 임대차 계약
 - (3단계) 투자유치기관 등록
 - (4단계) 납세자 등록: 모든 사업자는 국세청(BIR)에 납세자 등록을 해야 함
 - 이는 영업(직접판매) 활동을 하지 않는 연락사무소도 마찬가지임
 - BIR 등록을 위해서는 소정의 Certification Fee와 인지세(청약자본금의 0.5%)를 납부해야 함
 - (5단계) 사업자등록
 - Mayor's Permit 또는 Business Permit로 부르는 사업 허가서는 각 해당 지방 정부(City, Municipality, Barangay 등)가 발급함
 - 여기에는 사무소에 대한 각종 위생, 소방점검 등이 포함되며, 동 절차가 끝나면 사무소 설립 절차가 일단락 됨. 매년 갱신이 필요하며 갱신 시 매출, 순익에 따라 지방세를 납부해야 함
- 기타 사항
 - SEC-I Register: 필리핀 SEC(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기업 등록 및 감독위원회)의 인터넷 기반 등록 시스템
 - SEC 등록(법인 등기)을 위해서는 'Name Verification' 통해 동일 회사명의 존재 여부 파악한 다음 정관 작성, 정관과 법인 등기 신청서를 제출한 후 아래 절차에 따른다(신청 완료 후 등기까지 1~2주 소요)
 - 법인(사무소) 설립 시는 자본금 외 SEC, BIR, Mayor's Permit 획득에 각종 수수료가 소요되며, 동 수수료 중 일부는 자본금 규모에 따라 차이
 - 일반적으로 법인 설립시 현지 대행사들은 300만 원 내외의 실비(SEC filing fee는 수권자본금x1%x0.2)와 100만 원 내외의 대행 수수료를 청구
 - 참고 : <http://www.sec.gov.ph/online-services/sec-company-registration-system/>

□ 해외지사 설립절차

- 담당/신청기관: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SEC)
- 필리핀 기업등록 및 감독위원회(SEC) 등록 : 현지법인 설립절차와 동일

□ 도급한도, 등급분류

- CIAP(Construction Industry Authority of Philippines) 산하 건설업면허발급청 (PCAB, Contractors Accreditation Board)에 면허발급 건설업자를 대상으로 자본금 규모에 따라 도급한도액에 따른 면허등급을 신청
 - 건설업면허가 필요한 사항에 대한 것은 아래 홈페이지에 관련 내용이 있음 (<http://pcametro.ph/blog/who-must-secure-contractors-license/>)
- 면허는 각 업종마다, 시공실적·기술자·자본금 등 회사규모를 감안하여 7개 등급으로 구분하여 발급(매년 갱신 필요)

등 급	최소 자본금(백만페소)
AAA	90
AA	45
A	9
B	4.5
C	3
D	0.9
Trade	0.045

자료 : PCAB, CIAP(Construction Industry Authority of Philippines)

- 공공공사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공공 건설업자로 PCAB에 등록을 하고 도급한도 분류를 받아야 함

〈 면허 등급에 따른 도급한도액 〉

(단위 : 백만페소)

도급한도 분류	기 준		도급한도 금액
	면허등급	실적 *	
Large B	AAA	150 이상	300 이상
Large A	AA	100 ~ 150	300 이하
Medium B	A	50 ~ 100	200 이하
Medium A	B	10~50	100 이하
Small B	C or D	10 이하	15 이하
Small A	Trade	0.5 이하	0.5 이하

* 현재까지 완공된 동종 프로젝트의 금액

자료 : PCAB, CIAP

- 도급한도의 분류는 면허신청자가 참여하고자 하는 프로젝트의 형태에 따라 분류되며 공종별 실적에 따라 공종별 등급분류 및 도급한도액이 다를 수 있음 (예 : 건축 Medium A, 토목 Medium B)

□ 입찰제도

1) 일반개요

- 필리핀에서 건설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필리핀 건설면허 발급위원회(PCAB)를 통해 프로젝트의 성격, 규모 등에 따라 정해진 건설(면허) 등급을 취득해야 하며 요건은 자본금, 기술인력보유자 수 등을 반영한 신용평점으로 결정

<필리핀의 건설면허 종류>

종류	내용
일반면허	- 공공 및 민간에서 발주하는 건설 프로젝트 수행 가능 - 필리핀 국적자 지분 보유 비중이 60% 이상인 필리핀 기업만 발급
특별면허	- BOT(Build-Operate-Transfer) 방식의 인프라 개발 프로젝트, 국제경쟁입찰방식의 외국차관 지원 프로젝트 수행 가능 - 합작투자, 컨소시엄, 외국 건설기업에 발급

- 필리핀 공사 종류 및 면허 등급은 다음과 같음

<필리핀의 공사 종류 및 면허 등급>

종류	일반토목	일반건축	전문건설
범위	전문 엔지니어링 지식, 기술이 필요한 공사 (도로·철도·공항·관개)	일반 건축 공사 (일반 건물, 공장, 하수처리장, 공원 등)	특정분야에 전문화 된 소규모 공사 (지하굴착, 도로포장, 준설 등)
등급	공사 종류에 따라 AAA, AA, A, B, C, D, Trade(전문건설만 해당) 등 총 7 등급으로 구분		
최소납입 자본금	4만 5천페소~9천만 페소(필리핀 내 외국법인의 최소 납입자본금은 20만 불)		

- PCAB는 AAA의 상위등급으로 AAAA등급을 추가해 총 8등급으로 운영 중임

<AAAA 등급 취득 요건 및 수주 가능 공사 범위>

취득요건	법인형태	필리핀에 등록된 100% 외국 지분으로 구성된 법인
	납입자본금	10억 페소
공사범위	일반토목(GE)	공사규모 30억 페소 이상
	일반건축(GB)	공사규모 50억 페소 이상

- AAAA등급이 도입되면서 외국기업의 정부 및 민간 공사 프로젝트의 단독 수주가 가능해짐
- 필리핀은 내국법인(외국인 지분 40% 미만)에만 일반 건설면허를 발급했음
- 하지만 AAAA 등급이 도입되면서 동 등급을 보유한 외국법인(100% 외국인 지분)은 일반건설면허를 발급 받은 후 필리핀 내 정부(ICB, BOT, PPP 등) 및 민간건설프로젝트에 참여 가능
 - ICB(International Competitive Bidding) : 국제경쟁 입찰
 - BOT(Build-Operate-Transfer): 민간이 건설하고 소유권은 정부나 지자체로 양도한 채 일정 기간동안 민간이 직접 운영해 사용자 이용료로 수익을 추구하는 방식
 - PPP(Public-Private Partnership): 민관협력 방식, 개발도상국에 개발지원을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이 협력해 수행하는 접근방식
 - 한편 ADB, IBRD 등 국제금융 재원공사의 경우 해당 기관의 회원국 업체는 합작법인을 설립하지 않고도 입찰참여가 가능
 - PQ 및 입찰참가 시 요구되는 절차 및 조건 등은 해당 국제금융기관 설정 가이드라인 및 조건을 준수해야 함
 - 국제금융기관 설정 가이드라인 및 조건이 없는 경우 필리핀 국내법, 대통령령 No.1594 및 시행규칙 적용
- 아시아개발은행(ADB)의 경우 자체적으로 공사 및 컨설팅서비스, 물품구매 등을 발주하는 경우가 많음
 - 이 경우 회원국(한국도 회원국) 업체에 대하여는 아무런 제한 없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
- 법률과 대통령령 등에 의하여 물품의 구매, 공사계약, 용역계약 등 3개 분야로 대별되며 공사발주 관련사항을 종합적으로 규제하는 법률은 없음

- 대부분 관할행정기관인 경제개발청(NEDA)을 통하여 대통령령(Presidential Decree, Executive Order No.302 (1997년 2월 개정) 으로 규제)
 - 공사계약 : Presidential Decree No. 1594(1995. 12 개정)Administrative Order No.129
 - 물품구매 : Executive Order No. 302(1996. 2. 19. 발령)Administrative Order No.129
 - 용역계약 : NEDA Guidelines on the Procurement of Consulting Services, Administrative Order No.129
- 모든 공공공사의 경우 원칙적으로 경쟁입찰에 의하여 실시하나 예외적으로 특별한 기술이나, 시간적·장소적 제한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지명 경쟁이나 수의계약 등의 방법을 실시
 - 건설공사 수의계약(Contract through Negotiation) 사유
 - 자연재해 등 긴급한 사유로 즉각적인 대응조치가 필요한 경우
 - 공개경쟁입찰에 의한 낙찰자 선정에 실패한 경우
 - 계속하여 연결되는 공사 등 공사의 분리가 곤란하고, 분리하여 발주할 경우 기본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되는 연계사업 등
 - BOT 프로젝트의 경우 사업제안서(Proposal)에는 세부 엔지니어링 설계, 적용될 요금의 스케줄, 입찰보증서, 기타 보조서류를 포함하는 타당성 조사보고서가 포함되어야 함
 - 세부 엔지니어링 설계, 시공 등은 관련 시행기관이 준비한 표준, 시방, 경제적 기준치를 충족시켜야 함
 - 국내 또는 외자조달 프로젝트의 파이낸싱은 원칙적으로 정부가 보증하지 않으며 정부금융기관의 금융제공은 총 프로젝트 비용의 20%로 제한
 - 민간부문 입찰은 특정한 규칙이 없고 프로젝트 발주자의 개인적인 관계나 건설업자의 평판과 경쟁력 등을 고려하여 낙찰자를 선정
 - 일반적으로 수의시담이나 지명입찰을 자주 사용(낙찰은 네고(Nego)과정을 통하여 합의로 결정되며 계약조건 등은 양측간의 계약서에 준함)

2) 입찰절차

- 경쟁입찰의 경우 주요 일간지(Philippine Star, Manila Bulletin 등)에 2주간 3회 이상 공고토록 하고 있으며 같은 사항을 해당관서의 공공게시판에 게시
 - 공공사업도로부(DPWH)와 교통통신부(MOTC), 농업부(MOA) 등 주요 발주기관은 차관사업의 경우 입찰공고 수일 전에 주요 대사관에 입찰 초청서한을 발송
 - 주필리핀 한국대사관의 경우 부처별 연간주요 입찰계획과 입찰공고 및 입찰초청서한을 최대한 수집하여 외교통상부 입찰정보란에 게재하고 진출기업에 공지하고 있음
 - 입찰정보 선점시 추후 입찰과정에서 연고권 주장 등 우위에 설 수 있는 기반 확보가 용이하므로 관계부처의 입찰관련 공무원을 상시 접촉하여 3~4개월후 입찰공고 예정사업을 미리 파악하여 대처하는 것이 필요

- 입찰참가자격
 - 100% 정부재원 공사의 경우 외국업체는 투자지분 25% 미만인 합작기업에 한하여 입찰참여가 가능하나 공사수주에는 사실상 어려움이 따름
 - ADB, IBRD, JBIC등 차관자금공사의 경우 차관공여비율(통상 75%~85%)에 관계 없이 관련 국제금융기관의 회원국이거나 차관 제공국에서 제한을 두지 않음
 - 외국업체는 본사 명의로 제한 없이 참여할 수 있으나 지사를 설치하고 현지에서 해당 프로젝트별로 건설업특별면허를 받아야 함
 - 설계감리용역의 경우 규정상으로는 외국업체의 단독참여가 가능하나 특수한 상황 등 현실적인 제약으로 현지업체와의 합작이 권장
 - BOT사업의 경우 외국인에 대한 출자제한 없이 100% 외국인 출자기업도 참여가 가능함
 - 외국자본이 참여하는 사업인 경우에는 차관사업과 동일하게 100% 외국인 출자 또는 지사명의로 시공참여가 가능

- 입찰서류 및 입찰참가
 - 입찰서류 또는 PQ서류는 공사규모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통상 최초 입찰공고 1주일 이후부터 3주간 판매함

- 입찰서류 구입시 해당기업대표가 서명한 입찰 참가 의향서한을 제시하여야 함
- 입찰서류 가격은 프로젝트 규모와 성격에 따라 다르나 대체로 50달러 내외이며 많게는 500달러 수준
- 입찰참가자의 입찰서류 준비기간을 보장하기 위하여 가격입찰일을 기준으로 최소한 다음에 제시한 일자 이전에 입찰서류를 발급(1억페소 이상의 공사는 통상 60일전)

예정가	입찰서류 교부일
최대 1,500만 페소까지	입찰서류 개봉 15일전
1,500만 페소 이상 5,000만 페소까지	입찰서류 개봉 30일전
5,000만 페소 이상 1억 페소까지	입찰서류 개봉 45일전
1억 페소 이상	입찰서류 개봉 60일전

- 입찰자격심사를 요구하는 프로젝트의 경우 PQ서류를 제출토록 하고 이를 통과한 기업에 한해 가격입찰에 응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그 외의 경우는 통상 기술과 가격제안을 동시에 제출토록 하고 기술제안을 통과한 기업에 한해 가격제안서를 개봉
 - 입찰심사가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심사기한을 정하여 심사토록 하고 있으나 최근 들어서는 보다 유연하게 심사기한의 연장을 허용하고 있는 추세
 - PQ서류 심사 : 제출 마감시한으로부터 22일(설계감리용역은 33일)
 - 입찰서 심사 및 입찰심의위원회 상정 : 입찰 개봉일로부터 22일
 - 관계당국 낙찰승인 : 입찰심의위원회 통과일로부터 22일
 - 낙찰통지서발급 : 승인일로부터 5일
 - 계약승인 : 낙찰자의 계약서 서명일로부터 10일
 - 착공지시서 발급 : 계약승인일로부터 10일(설계감리용역의 경우에는 15일간의 Nego기간을 별도로 허용)
- 입찰서 평가기준 및 평가절차
 - 일반적인 입찰서 평가기준은 관련법령에서 개괄적으로 규제하고 있고 차관사업의 경우는 차관제공기관에서 정한 가이드라인에 부합해야 함

- 구체적인 프로젝트별 심사기준은 각 부처별로 상이하게 운영하고 있으며 동일 부처 내에서도 프로젝트별로 달리 운영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심사기준은 없다고 할 수 있음
- PQ심사 또는 Two-Envelope System에서의 기술제안심사는 통상 재무구조, 유사공사실적, 장비 및 기술자보유, 제안 기술방법 등의 적합성과 경제성 등 4개 요소로 대별함
- 프로젝트별로 상이한 가점을 부여하여 평정하며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할 때 프로젝트별로 70~90점을 커트라인으로 정함
- 일단 기술자격을 통과한 업체에 한해 가격제안서를 개봉하며 기술 자격 불합격자는 가격제안 기회를 주지 않거나 가격제안서를 개봉하지 않음)
- 원칙적으로 Two-Envelope System에서는 최우수 기술제안자부터 가격을 개봉하고 개봉된 가격을 기초로 협상에 착수
- 합의가 곤란할 경우 차순위 업체의 가격을 개봉하고 협상에 다시 착수하는 것이 관례
- 설계감리용역 계약시에는 발주처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가격과 기술요소에 각각 100%씩의 동등한 가점을 부여하여 종합평가후 낙찰기업을 선정하는 방식을 이용하는 경우도 있음
- 최저가 낙찰을 기본으로 하나 통상 예정가격의 60% 미만 응찰자는 낙찰자격을 박탈하고 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내역서와 같이 제출하도록 되어 있음
- 내역서 세부항목과 총액항목이 다를 경우 내역서의 단가를 현저히 잘못 기재한 경우에는 세부항목의 기재내용을 우선하여 낙찰자를 조정
- 최저가 응찰자가 당연히 낙찰자가 되는 것은 아니며 종종 차순위자로 낙찰자가 뒤바뀌는 사례가 있음
- 발주처는 입찰 관련사항을 최종 심의, 의결하는 기구로 입찰심의위원회 (PBAC)를 설치해야 함
- 위원회는 발주사항에 대한 PQ심사, 입찰절차, 낙찰자 선정 등의 사항을 심의, 의결하여 최종 승인권자에게 승인을 요청함

- PBAC 구성
 - 의장(해당부처 상위공무원, 최소한 기관서열 3위 이내인 자)
 - 간사(해당기관의 법무담당관)
 - 관계분야 전문기술직원 1명
 - 관계분야 사업추진 경험 직원 2명
 - 건설협회, 토목협회 등 민간기관에서의 추천 1명

- 낙찰자로 선정된 응찰자에게 최종 승인일로부터 5일 이내 낙찰통보를 하고 통상 낙찰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
 - 일반적으로 계약체결 승인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착공지시서를 발급하나 차관사업의 경우 차관 제공기관과의 협의 등으로 보통 2배 정도의 기간이 더 소요됨
 - 마닐라 경전철 2호선 차량 및 신호체계 프로젝트의 경우 1997년 11월 입찰이 실시됐으나 차관제공자인 JBIC와의 이견으로 2000년 5월 입찰가격을 개봉한 사례도 있음

- 계약이행
 - 계약은 물품사양설명서, 시방서, 용역과업지시서 등에서 정한대로 이행하여야 하며 계약이행과정에서 금액변경이나 설계변경을 요하는 사항이 발생할 경우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함
 - 기성지급은 통상 1개월 단위로 현지은행 계좌로 입금됨
 - 지급통화는 원칙적으로 필리핀 페소화이나 차관사업의 경우 계약 체결시점에서 차관공여비율 범위내에서 기준통화비율을 정할 수 있음. 통상 미국달러(또는 일본 엔화)와 페소화를 혼합하여 결정
 - 통상 연간 5%이상, 3년간 10%이상의 물가변동이나 환율변동이 발생할 경우 물가상승 보상을 청구할 수 있음
 - 차관사업의 경우 계약당시에 통화비율을 정하도록 하고 환율보상은 실시하지 않는 것이 관례
 - 또한 필리핀 내 각종 반군계렬라의 습격 등에 의한 피해발생시 보상 규정이 애매하며 직접 보상하는 사례가 드물기 때문에 보험 등의 방법으로 위험에 대비

- 입찰보증은 입찰금액의 2.5% 이내로 통상 보증기간은 입찰 개봉 후 12일 이내 120일을 초과하는 경우 별도 연장조치가 가능
- 이의신청제도
 - 이의신청은 해당관서 → 분쟁조정위 → 법원제소의 절차로 진행되는데 대부분 해당관서와 협의하여 이의부분을 조정해 나가고 있음
 - 분쟁조정위나 법원으로 가는 경우는 드문 상황이나 2개 이상의 정권에 걸친 사업, 독직사건으로 조사중에 있는 사업 등 문제사업에는 해당기관과의 이의조정이 어려운 경우가 많음
 - 이 경우는 분쟁조정기관을 거치거나 법원에 제소하여 해결하는 것이 불가피함 (법원 판결은 지방법원은 2~3년, 고법, 대법까지 갈 경우 통상 5년 이상 소요)
 - 건설공사의 경우 분쟁조정위로 건설산업청(CIAP) 소속의 건설업분쟁조정위가 있으나 조정능력은 미약한 편임

3) 발주부서

- 발주체제는 중앙집중식이 아닌 개별기관별 발주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므로 각 중앙부처와 부속기관, 공기업 및 지방자치단체는 각각 개별적으로 필요한 물품과 용역, 공사계약을 발주
 - 공공사업도로부 : 도로·하천·홍수통제사업 등 공사
 - 교통통신부 : 공항·항만(항만청)·철도·유무선통신·선박 등
 - 국방부 : 무기구매·군사시설공사, 군함·항공기·각종물품 등
 - 보건부 : 각종 의료장비·의약품 등 구매, 지역별 병원공사
 - 교육문화체육부 : 각종 교육용기자재 구매, 학교시설공사
 - 농업부,관개청 : 각종 농수로공사, 농지개선공사, 농기자재구매 등
 - 국영전력회사 : 발전소 개수 및 송전선로공사, 전기관련 기자재구매
 - 국영석유회사 : 정유시설 개수 및 관련기자재,석유제품 등 구매
 - 기지전환개발공사 : 토지개발공사, 토지매각사업 등
 - 지방자치단체 : 공사·구매 등 각종사업을 포괄하여 발주
- 주(78개 Provincial Government)와 시·읍(82개 Cities, 1,525 Municipalities) 등 지방자치단체 사업은 사업의 특성과 자금원은 중앙정부와 다를 바 없음(차관자금에 의한 사업도 빈번함)

- 단위사업별 규모는 공사계약의 경우 대부분 500만불 미만, 구매계약의 경우 100만불 미만으로 사업규모가 작고 지역 유지에 의한 자재 및 수송수단의 독점, 독점적인 공급라인 형성으로 외국기업의 참여가 어려운 실정

□ 보증제도

1) 개요

- 계약마다 다르며 아래 수치는 필리핀 진출 시공사의 통상적인 수준임
- 입찰보증 : 총 입찰가의 2.5% 이상
- 선수금 보증 : 10~15%
- 계약보증 : 5~20%
- 하자보증 : 5~10%

2) 관련법률

- 필리핀 건설보증 관련 법으로 ‘Republic Act 9184’ 가 있음

3) 현황

- 필리핀의 건설공사 수행시 발주처에 제출하는 지급보증서는 은행보증서 (Bank Guarantee)와 보증증권(Surety Bond)으로 대별됨
- 현행 필리핀 입찰법은 Bank Guarantee와 Surety Bond를 모두 인정하고 있음. 특히 대부분의 차관공사를 발주하고 있는 공공사업부(DPWH)에서도 Surety Bond를 인정
- Procurement Guideline에 P-Bond를 은행보증으로 한정시키고 있는 ADB는 필리핀 국내입찰법보다는 ADB의 Guideline에 따르도록 DPWH에 요구하고 있음
- 현지 Surety Company들은 대통령령 1594호(Presidential Decree. 1594)를 근거로 Surety Bond도 인정될 수 있도록 DPWH는 계약서상에 Surety Bond 관련조항을 추가, Surety Bond를 인정하고 있는 실정

4) 특징

- 현재 DPWH는 차관공사 발주시 가급적 은행보증서 제출을 요구하고 있기는 하나 Surety Bond 제출도 허용하고 있음
- 재정능력이 떨어지는 건설업체들은 Bond 발급 신청시 은행들로부터 Bank Guarantee를 발급받기보다는 수수료는 다소 높으나 무담보 조건으로 발급해 주는 보험회사들의 Surety Bond를 대부분 이용하고 있음
- 한때 발주처에서 보험회사들의 부실로 Bank Guarantee만을 요구한 적이 있으나 현지 건설업체들이 대거 입찰에 참여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 Surety Bond를 이용할 수 있도록 다시 허용하였음
- 외국업체에게도 적용이 되며 아국업체 A사는 최근 DPWH 발주 도로공사의 입찰- 계약과정에서 편의성에 따라 현지 은행인 PCB의 지급보증서, 국내은행의 지급보증서 및 현지 보험회사의 Surety Bond를 발주처에 제출하였음
- DPWH의 또 다른 도로공사를 수주한 B사 역시 선수금보증서를 Surety Bond로 제출하였음
- C사의 경우는 공사수행 중 공사금액 증가분에 대하여 Surety Bond로 제출한 사례도 있었음. 이 회사의 당초 Performance Bond는 은행보증서였음

5) 유의사항

- 필리핀 Surety Bond 취득은 북미의 그것과는 차이가 있음
- 실질적인 1차 PQ의 기능을 담당할 정도로 철저한 보증심사를 거침
- 건설업자에게 Surety Bond를 발급하고 있는 미국이나 캐나다의 경우와는 달리 필리핀에서는 일정 구비서류만 갖추면 쉽게 Surety Bond를 발급받을 수 있음
- 유의할 점은 DPWH내에 지급보증에 대한 구체적 적용규칙이 없고 발주담당자의 재량권에 좌우되고 있다는 점임
- 발주 시 공고문에 지급보증서 형태 및 제출조건을 명시하지만, 발주처 담당자와의 인간관계 유지에 따라서 까다로운 Bank Guarantee보다 Surety Bond로 처리 될 수 있도록 양해받는 사례가 다반사임

□ 시공관리제도

1) 기성지불

- 기성은 월별단위 또는 시공금액이 최소 1백만 페소를 초과하였을 때 지불

2) 유보금

- 기성지급액의 10%
- 건설업자에게 지불될 총금액 기준이며, 시공액의 50%가 완료되는 시점까지 매 기성에서 유보함
- 건설업자들은 총 유보금과 동등한 금액의 Surety Bond로 유보금 대체 가능

3) 클레임 및 분쟁해결

- 공공 또는 민간부문에서 발생한 클레임 및 분쟁의 해결은 필리핀 건설산업중재법(행정부령 1008 참조)에 의거 처리
- 분쟁이 발생한 경우, 건설산업중재위원회에 회부되어 중재위원의 중재 절차를 밟게 됨
- 중재위원회의 결정은 양측에 대하여 최종적이며, 구속력을 지님

□ 부동산 개발절차

1) 부동산시장 환경

- 외국인의 토지 소유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고 없음
- 외국인의 자본지분이 40% 이하인 필리핀 내 기업의 경우에는 가능
- 플랜트 및 빌딩 건축, 토지개발을 요하는 프로젝트의 경우 우선 주택 토지사용 규제위원회(HLURB)의 허가서(1-2주 소요)를 받고 투자지역 관할 지방정부의 부동산 취득에 관한 허가를 득해야 함

2) 부동산 개발 절차

- ① 법인설립 - ② 토지권리 확보 - ③ 인허가 - ④ 투자금 송금

① 법인설립

- 정관 및 내규 작성 후 필리핀 증권거래위원회(SEC) 등록
- 정관 작성 시, 필리핀 법인이 한국본사 또는 한국 금융기관에게 차입하는 경우 사전에 차입, 제3자보증 또는 담보제공 등에 대한 근거규정 마련
- 최소 납입자본금(외국인 지분 40%이상인 경우) : 20만불

② 토지권리 확보

- 필리핀인이 6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는 필리핀 회사만이 토지 소유가 가능
- 토지소유 회사의 전체 이사 60% 이상도 필리핀 현지인이어야 함
- 외국인 100% 지분보유한 회사의 경우 토지 장기임대차의 방법이 있음
- 50년 상한에 1회에 한하여 25년 연장 가능
- 장기임대차 계약을 위해 사전에 BOI, SBMA(수빅만 관리청) 또는 CDC(클락개발공사) 등에 등록 필요

③ 법인구조 및 인허가

- 토지 소유를 위해 필리핀 현지인이 60%이상의 지분을 보유하여야 함
- 외국인 100% 지분의 운영회사 + 필리핀인이 60%의 지분을 보유하는 토지 소유회사와 합작투자방식도 가능
- 부동산 개발 인허가는 운영회사, 토지소유회사는 토지소유 및 출자

④ 투자금의 송금

- 필리핀 중앙은행(BSP)의 사전승인 필요
- 부채 : 자본금비율 수준을 75:25로 유지하는 등의 까다로운 심사기준이 있음
- 사전승인이 필수는 아니나, 미승인 시 폐소에서 달러 환전에 제약이 있을 수 있음(필리핀 국내은행 거래 시)
- 대안으로 달러화로 지급받거나 필리핀 중앙은행의 규제를 받지 않는 외환거래시장을 통하여 송금하는 방법

□ 부동산시장 관련 각종 권리

○ 소유권

- 토지에 관한 권리는 소유권만 인정되고 있으며 독립적인 이용권 및 개발권 등은 불인정
- 따라서 자기 소유가 아닌 토지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소유자와 장기 임대차 계약에 의하여 임차활용하는 방법밖에 없음

○ 토지 임차권

- 외국인에 대한 토지의 임대기간은 공장부지의 경우 최대 50년이며 추가로 25년간 연장 가능
- 이 경우 투자금액은 임대차 계약후 3년 이내에 필리핀 국내로 반입되어야 함
- 이밖에 토지개발은 소유주나 소유주와의 합작투자 방법에 의한 개발만 허용

- 수용 및 보상
 - 정부의 사유토지 수용은 공익을 위해서만 가능하며, 이 경우 정부의 보상가격은 정부의 감정가격에 준함

□ 현지건설업체

1) 현황

- 1990년 이후 건설시장의 양적팽창과 함께 건설업체 수도 꾸준히 증가
- 중소 영세업자들은 건설시장 호황과 함께 사세를 확장하였으며 이로 인해 중대형 건설업체 수가 늘어나기 시작함
- 1997년 금융위기로 발주물량이 급감함에 따라 상당수의 건설업체가 자금난으로 도산한 적도 있음
- 동시에 신규 건설업체 등록도 꾸준히 늘어났다가 최근 건설업체 면허 갱신 시 요건 충족여부에 대한 심사강화로 감소추세
- 현지업체 수준은 도로공사 등 단순 토목공사에는 경쟁력이 있으나 실제 시공능력은 우리업체에 비해 다소 떨어짐
- 일정 규모 이상의 공사에 참여하기 위해 강한 협상력과 자본력을 겸비한 현지업체 또는 외국업체와 J/V를 맺어 입찰에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함

2) 주요 업체

- 필리핀 건설산업청은 매년 건설면허 취득 현지 주요 건설업체 리스트를 발표함
- 2020년 및 2021년 ENR 250개 상위 업체에 해당하는 필리핀 건설회사는 없음
- Makati Development Corporation
 - 매출과 순이익(2016년 자료기준) 면에서 필리핀에서 가장 큰 건설회사로 간주됨
 - MDC는 업력 45년, 아얄라 몰 마니라 베이, 아얄라 몰 베르모사, 하이 스트리크 사우스 코러레이트 플라자와 같은 국내 400개 이상 프로젝트를 했음
 - 4개의 자회사가 있는데, MDC Build Plus, Inc, MDC Concrete Inc., MDC Equipment Solutions, Inc.,과 MDBI Construction Corporation임

- Megawide Construction Corporation
 - 퀘존시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공항 인프라 및 EPC, 태양광사업을 영위
 - 주요 프로젝트들에는 막탄-세부 국제공항, 클락 국제공항, 파라나퀘 통합 터미널 거래소, 더블 드래곤 플라자, 도시 데카 타워 이디에스에이 및 네그로스 섬의 실라이 25메가와트 태양광발전소 등이 있음
 - 선진 시설을 사용하는 자체 프리캐스트 플랜트를 소유함

- D.M. Consunji, Inc (DMCI)
 - 필리핀에서 가장 오래되었고 다양한 건설사업을 하는 회사이며, 주요 4개 부문은 건축, 에너지, 인프라 및 유틸리티 및 플랜트임
 - 65년이 지난 지금, 랜드마크 프로젝트를 포함한 1,000개 이상의 프로젝트 프로필을 자랑함
 - 여기에는 필리핀 문화센터, 거룩한 희생의 교회, 그리고 필리핀 국제 컨벤션 센터가 있음
 - 또한 마닐라의 솔레어 리조트와 카지노, NAIA 고속도로, 마카티의 록웰 비즈니스 지구 건설의 배후에 있음

- Engineering Equipment, Incorporated (EEI)
 - EEI는 산업들에서 다양한 포트폴리오 등 6개의 자회사를 보유
 - 발전소, 정유 공장, 석유화학 플랜트, 시멘트 공장, 광산 채광시설, 산업 플랜트, 건축, 인프라, 물 배분소, 식량통제 시스템, 철구조물, 모듈러 조립등 다양함

- Sta. Clara International Corporation
 - 1976년 이후 건설산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필리핀에서 건설 리더들중에 하나로 성장함
 - 발전 및 유틸리티, 인프라, 토목엔지니어링 부문에서 활동
 - 건설 프로젝트들에는 NAIA 3번 터미널, 세부 톨레도 60 메가와트 태양광발전소, 수빅-클락-탈락 고속도로, Pagbilao 발전소, 20MLD 퀘존시 콘크리트 저수지 등이 있음

- Atlantic, Gulf & Pacific Company of Manila
 - 1900년에 설립되어 필리핀 기반을 가지고 건설산업에서 유일한 다국적 조직이 되었음
 - 금속 석고 베이스, 가공된 바 조이스트 및 콘크리트 보강 철근과 같은 기타 구조용 금속 가공품 제조 전문이며, 필리핀 최초 스틸 교량 뿐만 아니라 마닐라 상수 및 하수 시스템의 배후에 있음
 - 남동아시아에서 가장 큰 것중 하나로 간주되는 비탄가스 바우안 조립공장을 자랑함
 - LNG 사업에 도전하여 가장 큰 LNG 모듈들 중 하나를 건설하는 주요 계약을 수주함

- DDT Konstract, Inc
 - 1998년에 설립된 회사로서 Pasay 시 해변 주택, 마카티 시 이튼 웨스트엔드 스퀘어, Taguig 시 유데나 타워, 세부 시의 세부 거래소와 같은 주택 및 상업 빌딩에 선호된 건설회사였음
 - 완전 자동 프리캐스트 공장에 처음으로 투자한 회사중 하나이며, 농업 생산품 배급, 쌀 생산, 돼지 사육, 양식업을 포함하는 사업 다각화를 달성하였음

- DATEM, Inc
 - 1984년 설립후 주거, 주택, 사무실, 호텔, 리조트, 기관, 상업 및 레크리에이션 구조물, 종교 건축 등과 같은 프로젝트들을 수행
 - 마켓, 마켓 몰, Taguig의 세렌드라 1차 및 2차, 아얄라 에비뉴를 따라 있는 건축물들을 수행함
 - 마카티에 있는 Rockwell의 발전소 몰을 완성하기 위해 호주 회사와 제휴했으며 퀘존 시의 ELJ 커뮤니케이션 센터를 건축한

- MDC Buildplus, Inc
 - 자회사인 MDC Buildplus, 줄여서 MDC BP는 총 수익 면에서 상위 10개 건설 회사에 진입함
 - Bacolod 와 Iloilo에서 프로젝트 건설에 특별히 집중하며, MDC의 주택, 중층 및 맞춤형 건설 요구사항을 담당함
 - Avida, Amaia 와 Bellavita 개발을 위한 EPC/CM을 제공함

- Monolith Construction & Development Corporation
 - 1987년 이후 200개 이상 프로젝트 수행했고 필리핀에서 가장 선호되는 건설회사 중 하나
 - 메트로 마닐라에서 창고부터 주택 건축까지 다양한 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고층 콘도미니엄, 사무실, 상업 타워, 컨벤션 센터, 쇼핑몰 건축으로 포트폴리오 확장을 시작해옴
 - 포트폴리오 : 아세아나 쓰리 BPO, 즐리비 타워, 에스엠 씨사이드 시티, 마카티 은행, 메이플라워 BPO 빌딩, 월드 커머스 플레이스 등
 - 건설면허 구분 : AAAA(가장 높은 등급), AAA, AA, A, B, C, D, E (Trade) 등 총 8가지로 분류
- BMI Fitch에 따르면, 교통부문에서 필리핀 기업의 수주 비중은 36%이며, 발전 부문에서의 수주 비중은 18%임
- 발전 부문 주요 업체로는 산 미구엘(San Miguel), 멜라코(Meralco), 퍼스트젠, Aboitiz Power, AC Energy 등이 있음

□ 외국업체 진출현황

1) 현황

- 필리핀은 외국 건설사가 단독으로 일반면허를 발급받을 수 없음
- 따라서 외국기업 40%, 현지 기업 60% 지분으로 별도의 법인을 설립해야 함
 - 단, PPP, BOT 등 투자개발형 사업은 100% 외국 지분으로 구성된 법인도 필리핀 정부 발주 PJT에 진출 가능함
 - 현재, PCAB에서 외국기업이 일반 건설면허를 받을 수 있는 AAAA 등급을 신설 허용 (2017.3.)
 - 외국업체는 정부 및 민간 공사 프로젝트 단독 수주 가능함
 - 등급 취득을 위한 최소 납입 자본금과 수주가능 공사의 한도액이 크기 때문에 중소기업은 수혜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큼

○ 외국업체 진출현황

- 현재 필리핀 건설시장에 진출한 외국업체는 아래와 같음

업체명	국가
Bechtel Corporation	미국
CH2M Hill Companies, Ltd.	미국
Soletanche Freyssinet Group	프랑스
M+W Group GmbH	독일
Black & Veatch Corporation	미국
Van Oord nv	네덜란드
Jan De Nul Group	룩셈부르크
Gammon Construction Limited	홍콩
McConnell Dowell Corporation Limited	호주
Permasteelisa S.p.A.	이탈리아
Schuco International KG	독일
Impresa Pizzarotti & C. S.p.A.	이탈리아
Egis Group	프랑스
SMEC Holdings Limited	호주
Waagner-Biro Aktiengesellschaft	오스트리아
Swing Corporation	일본
William Hare Group Limited	영국
Sinohydro Corporation Co.,Ltd	중국
CPG Corporation Pte. Ltd	싱가포르
Jurong Engineering Limited	싱가포르
Golder Associates Ltd.	캐나다
Link (THM) Group	싱가포르
RSEA Engineering Corporation	태국
Sheedy Drayage Co.	미국
MTD Capital Bhd	말레이시아
China Electric Power Equipment and Technology Co., Ltd.	중국
The First Northeast Electric Power Engineering Co.	중국
Perunding Eagles Engineers Sdn. Bhd.	말레이시아
The Louis Berger Group, Inc.	미국
Lahmeyer International GmbH	독일
MPC Ferrostaal GmbH	독일
UEM Group Berhad	말레이시아
Black & Veatch Holding Company	미국
Jardine Engineering Corporation	홍콩
Leighton Asia Limited	홍콩
TenCate Geosynthetics Asia Sdn. Bhd.	말레이시아
International Elevator & Equipment, Inc.	필리핀
dck worldwide, LLC	미국
Biwater Holdings Limited	영국
EMTA Insaat A.S.	터키
Onduline S.A.	프랑스
Wong and Ouyang (HK) Ltd.	홍콩

□ 공사발주기관

1) 정부부처

○ 공공사업도로부

- 담당업무 : 교통인프라, 하천, 홍수통제사업, 도로 등

- 연락처

전화 : +63-2-304-3300

주소 : Bonifacio Drive, Port Area, Manila, Philippines

홈페이지 : www.dpwh.gov.ph

○ 교통부(Department of Transportation, DoTr)

- 담당업무 : 교통인프라, 공항, 항만 등

- 연락처

전화 : +63-2-726-4925

주소 : The Columbia Tower Ortigas Avenue, Barangay
Wack-wack, Mandaluyong City, 1555

홈페이지 : <http://dotr.gov.ph/>

○ 에너지부(Department of Energy, DOE)

- 연락처

전화 : +63-2-479-2900

주소 : Energy Center, Rizal Drive, Bonifacio Global City, Taguig
City, Philippines 1632

홈페이지 : <https://www.doe.gov.ph/>

○ 국가관개청(NIA)

- 담당업무 : 상하수도, 수처리, 댐 건설

- 연락처

전화 : +63-2-922-2795

주소 : NIA Complex, EDSA, Diliman

홈페이지 : www.nia.gov.ph

2) 기타

- Cebu City Government
- Taguig City Government
- Metropolitan Manila Development Authority
- The Philippine Economic Zone Authority
- Civil Aviation Authority of the Philippines
- Megaworld Corporation
- JG Summit Holdings, Inc.
- EEI Corporation
- DMCI Holdings, Inc.
- Manila Electric Co
- Lopez Holdings Corporation
- Ayala Corporation

□ 투자여건

1) 현황

- 두테르테 정부는 외국인 투자 유치 확대를 위해 법인세 및 재산세 세율을 인하하겠다고 언급하였음
- 아울러 10대 핵심공약을 통해 외국인의 필리핀 자산 소유를 제한하는 헌법조항을 완화시킬 계획이었음. 새로 취임한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주니어 대통령도 같은 합의를 가지고 있음

2) 투자유치정책

- 경제성장 및 고용증대를 위해 외국인 투자 유치를 장려
- 외국기업이 투자한 자금과 그로 인해 발생한 이익금에 대한 외화 환전 및 본국 송금을 보장
- 1967년 공업화 촉진을 위한 투자우대법을 제정하고 1968년 투자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투자청(BOI)을 설립하면서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한 기본 틀을 마련
 - 투자청(BOI)은 외국인 투자 촉진, 투자업무의 효율화, 외국인 투자의 허가 및 감독 등을 관할하는 기관으로 주요 업무는 다음과 같음

- ① 투자우선순위 작성
 - ② 외국인 투자 신청서 접수 및 검토·승인
 - ③ 외국인투자업체의 투자법규 이행 여부 감독
 - ④ 등록업체의 인센티브 부여기간 연장 및 중지결정
 - ⑤ 외국인의 필리핀 투자 및 사업활동 관리
 - ⑥ 외국인의 필리핀 투자 안내 및 정보제공 등이 있음
- 정부는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한 관련 법규 및 제도를 정비하고 적극적인 투자유치의 일환으로 1987년 종합투자법(OIC)을 제정
 - 1991년에는 외국인투자법(FIA)을 제정하여 소매업, 토지소유, 자원개발, 공공시설 소유, 금융기관 및 대중매체 등을 제외한 모든 분야에 대한 외국인의 투자를 허용
 - 최근 정부는 투자청을 통해 고용창출, 생산성 증대, 기술수준 향상 및 국제경쟁력 제고에 기여하는 산업에 대한 외국인투자 유치를 경제 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음

3) 관련법규

- 종합투자법(OIC)
 - 기존의 투자우대법, 수출진흥법 및 외국인 사업활동 규제법 등을 통합하여 외국인투자 관련 조치 일원화
- 외국인투자법(FIA)
 - OIC의 외국인투자 제한품목을 대폭 개정, 투자제한방식을 Positive System에서 Negative System으로 전환
 - 또한 수출기업의 의무출자비율을 70%에서 60%로 하향 조정하고 BOI의 사전심의에 의한 외국인기업의 설립을 허용하였으며 외국인투자 승인절차 간소화
- 투자자임대법(Investor's Lease Act of 1993.6)
 - 외국인 토지임대기간이 종전 최대 50년에서 추가로 25년 재연장 가능

- BOT
 - 1994년 BOT법을 제정,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국내외 민간투자를 적극 유치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
 - 특별경제지대법
 - 농업, 상공, 관광, 금융, 투자 및 금융센터로서의 특별경제지대를 개발하여 별도의 세제상 특혜를 부여
 - 수출가공지대 및 산업공단 등지의 특별경제지대를 관장하기 위한 특별경제지대청(PEZA) 설립
 - 인센티브를 부여받을 수 있는 특별경제지대 및 산업공단
 - Philippine Economic Zone Authority(PEZA, www.peza.gov.ph)
 - bic Bay Metropolitan Authority(SMBA, www.sbma.com)
 - Clark Development Corporation (CDC, www.clark.com.ph)
 - Cagayan Economic Zone Authority(<http://ceza.gov.ph/>)
 - Phividec Industrial Authority(<http://www.piamo.gov.ph/pia/>)
 - Zamboanga Economic Zone Authority (<http://www.zambofreeport.com.ph/>)
- 4) 투자우대 사항
- 고용기회 확대, 근로자의 기술수준 제고, 경제발전 기초 제공, 국제경쟁력 배양 및 수출기여의 기준에 부합하는 산업에 인센티브와 특권을 보장
 - 특히, 전략산업으로 석유, 석탄, 전기, 가스 등 에너지 관련사업에 대한 외국인투자 지분을 100%까지 허용
 - 인센티브를 부여받기 위해서는 종합투자법(OIC)에 의해 규정된 인센티브를 관장하고 있는 BOI에 등록절차가 필요(Executive Order 226)함
 - C의 제시기준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BOI가 매년 발표하는 투자우선순위계획(IPP)에 합당해야 함
 - 정부가 매년 작성하는 IPP상의 자격요건을 갖춘 외국인투자자는 동 계획에 의한 특별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투자청에 사전등록 필요
 - 외국인투자법(FIA)에 의해 BOI에 등록된 기업이 IPP에서 규정한 산업에 투자할 경우 특혜가 적용

- 법인소득세, 수출관세, 부가가치세, 수출세, 부두사용료, 수출부과금 및 수입관세(생산제품의 70% 이상 수출시)를 면제하고 인건비 증가분에 대해 50%의 세액을 공제하는 특혜 부여
- IPP에 신규 등록된 개척산업에 대해서는 사업개시 후 6년간, 비개척산업의 경우 4년간 법인소득세가 면제
-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2-8년간 면세 연장이 가능 등록기업이 사업을 확장한 경우 확장분에 대해서는 3년간 법인소득세 면제
- 종합투자법(OIC)에 규정된 저개발지역에 투자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비개척산업 일지라도 개척산업과 동등한 혜택을 부여하고 공장가동에 필요한 주요 인프라 및 공공시설 건설비용 전액에 대하여 세액 공제
- OIC 규정에 따르면 IPP에 제시되지 않는 사업분야라도 외국인투자자(외국인 지분 40% 이상인 기업)는 생산제품의 70% 이상을 수출해야 일반적인 인센티브를 부여 받을 수 있음
- BOI의 투자장려 업종은 수출지향 프로젝트, 노동집약적 산업, 부존 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제고하는 프로젝트, 근로자의 기술 향상에 기여하는 프로젝트 등

5) 투자규제 사항

- 종합투자법(OIC, 1987년)에 따라 외국인투자의 지분참여를 40%로 제한하는 차별적 조항은 1991년 외국인투자법(FIA) 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규정
 - 투자금지 업종에 포함되지 않는 사업, 투자우선계획(IPP)에 해당하는 사업, 생산제품의 70% 이상을 수출하는 기업 및 수출가공지대에 입주한 기업에 대해서는 100% 외국인 직접투자(단독) 허용
- 외국인 지분소유가 제한되고 있는 분야는 2년마다 경제개발청(NEDA)이 외국인 투자제한업종을 지정
- 부동산의 경우 플랜트 및 빌딩 건축, 토지 개량을 요하는 프로젝트의 경우 우선 주택토지사용 규제위원회의 허가서(1-2주 소요)를 받고 투자지역 관할 지방정부의 부동산 취득에 관한 허가 필요
- 외국인은 토지를 소유할 수 없고 필리핀인의 참여지분이 60% 이상인 사업체만 토지를 취득할 수 있으며 외국기업에게는 임차만 허용되며 임차기간은 최대 50년이고 추가로 25년을 갱신할 수 있음

□ 투자신청 및 허가절차

- 1991년 외국인투자법(FIA) 제정으로 100% 외국인투자 지분참여가 허용되고 투자절차도 간소화
- 외국인투자법(FIA)에 의한 투자 인센티브¹⁾를 받지 않는 신규투자는 투자청에 신고할 필요없이 증권거래위원회나 통상산업부(DTI) 산하 무역 규정 및 소비자보호국에 직접 등록
- 수출형 투자업체 또는 투자우선계획(IPP)에 의한 업종의 경우 투자 인센티브가 제공
 - ▲소득세 면제, ▲자본재 및 원부자재 반입시 관세 및 내국세 면제, ▲부두 사용료, 수출세 및 제반 관련 요금 면제, ▲투자철회보장, ▲외국인 투자분에 대한 국가로부터의 징발 제외 등
 - 투자 인센티브를 받는 외국인투자의 경우 투자청(BOI)의 승인을 받아야함
 - 특별경제지대내의 인센티브는 특별경제지대청의 허가를 전제조건으로 하며 BOI가 정한 형식에 따라 투자사업의 사업타당성 검토보고서를 제출해야 함
- 회사등록 신청절차는 원칙적으로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신청서를 접수한 후 3일 이내 완료되나 실제로는 통상 2~3주 소요되며 경우에 따라서는 4주 이상도 소요
 - * 현지법인 설립 : 지사설치제도 참조
- 투자 업종별로 관련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금융기관 : 필리핀 중앙은행(BSP, Bangko Sentral Pilipinas)
 - 보험회사 : 보험위원회(IC, Insurance Commission)
 - 석유 및 가스개발사업 : 에너지부(Department of Energy)
 - 천연자원 탐사 및 잠재적인 공해산업 : 환경자원부 (Department of Environment and Natural Resources)
- 허가된 투자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현지직원 채용, 사업부지 선정 및 공장건설, 기계 및 원자재 수입, 환경저해사업 등과 관련해서는 별도의 구비서류가 요구됨

- 투자수익의 과실송금시 필리핀 중앙은행(BSP)에 신고해야 하며 사업청산시에는 투자사업 허가기관에 청산보고 필요
- 두테르테 대통령은 2022년 3월 두차례에 걸쳐 외국인 투자제한 완화 개정안을 서명함
 -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을 통해 현지 투자 관할 공무원 처벌 규정을 강화했으며, 외국인투자촉진위원회(IIPCC)를 신설하여 해외 투자유치 및 마케팅 계획을 수립해 나갈 예정
 - 2022년 6월 취임한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주니어 정부도 전임 대통령의 경제정책을 이어갈 것으로 판단됨

※ 투자유관기관

▶ 투자청(BOI, Board of Investment)

- 주소 : Industry & Investments Bldg. 385 Sen. Gil Puyat Avenue, Makati City 1200, Philippines
- Tel. : (632) 890-1332, 895-3641
- Fax. : (632) 895-3512
- Homepage : <http://www.boi.gov.ph>
- 외국인투자정보센터(One-Stop Action Center) 운영
- 주요기능 : 외국인투자 촉진, 투자업무의 효율화, 외국인투자 허가 및 감독 등을 관할하며 투자우선순위를 결정하고 투자 우선계획(IPP)을 입안하는 역할을 담당

▶ 중앙은행(BSP, Bangko Sentral Pilipinas)

- 주소 : Central Bank Bldg., A Mabini St., Malate, Manila 1004 Philippines
- Tel. : (632) 524-7011
- Fax. : (632) 523-1252
- Homepage : <http://www.bsp.gov.ph>
- 주요기능 : 외자도입 및 과실송금의 허가, BOI의 심의를 거쳐 등록 허가를 받은 외국인 투자기업의 등록 관계업무를 담당

- ▶ 특별경제지대청(PEZA, Philippine Economic Zone Authority)
 - 주소 : 6th Fl., Almeda Building III, Roxas Boulevard corner San Luis Street, Pasay City, Philippines
 - Tel. : (632) 551-3454, 551-3455
 - Fax. : (632) 891-6380
 - Homepage : <http://www.peza.gov.ph>
 - 주요기능 : 특별경제지대를 개발과 관련한 업무 관장

- ▶ 증권거래위원회(SEC,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 주소 : SEC Building, EDSA, Greenhills Mandaluyong City, Metro Manila Philippines
 - Tel. : (632) 726-0931 to 39
 - Fax. : (632) 725-5293
 - Homepage : <http://www.sec.gov.ph>
 - 주요기능 : 법인설립 허가 및 주식공개 등의 업무를 취급

- ▶ 경제개발청(NEDA, National Economic and Development Authority)
 - 주소 : 12 Saint Josemaria Escriva Drive, Ortigas Center, Pasig City 1605 Philippines
 - Tel. : (632) 631-0945~68
 - Fax. : (632) 631-3747
 - Homepage : <http://www.neda.gov.ph>

- ▶ 노동&고용통계국(BLES, Bureau of Labour and Employment Statistics)
 - 주소 : 3rd Fl., Dole Bldg., Gen Luna Corner San Jose St., Intramuros, 1002 Manila Philippines
 - Tel. : (632) 527-3577, 527-3578
 - Fax. : (632) 527-3579
 - Homepage : <http://www.manila-online.net/bles/>

□ 국제금융기관 지원현황

1. 세계은행

- 2015년 7월 기준, 세계은행은 필리핀에 291개, 총 200억불을 지원함

2. 일본의 대 필리핀 ODA 지원동향

- 필리핀 1위 ODA 공여국이며 분야별로는 인프라 및 재난방지에, 지역적으로는 메트로마닐라와 민다나오에 중점 지원
- 일본은 2006년 이래 민다나오 분쟁지역 개발 프로그램인 J-Bird (Japan - Bangsamoro Initiative for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 사업 진행
 - 일본은 2017.10월 두테르테 대통령 방일 계기에 1조엔(약90억불)의 경제협력 및 개발원조 지원을 약속
 - 2016.10월 방일시에는 해안경비정 2척(1.6억불), 민다나오 농업협력사업 (46백만불) 유상원조 약속
 - 2017.1월 아베총리 필리핀 방문시에는 마약재활프로그램(18백만불), 경찰순찰차(5백만불), 민다나오 방사모로지역 배전망(7백만불), 민다나오 분쟁지역 교육지원(7백만불)

3. 중국의 대 필리핀 ODA 지원동향

- 중국은 아키노 행정부에서는 남중국해 문제 등으로 필리핀과 소원한 관계였으나, 두테르테 행정부 이후 인프라를 중심으로 ODA가 크게 확대 추세
- 2017. 3월 마약 재활 센터 건립(15백만불), Surigao주 지진 피해 지원(1백만 불)
- 2016.10월 두테르테 대통령의 중국방문 계기에 중국은 약 240억 불의 경제협력을 약속(민간투자 150억 불 및 ODA 90억 불)
 - 다만, 일본과 달리 ODA 사업 진행이 느리게 추진되고 있으며, 실제 어떤 사업에 지원되는지 구체계획이 부족함.

□ 금융정책

1) 금융정책

- 폐소화의 안정 및 교환성유지, 국내생산 및 고용확대, 소득의 향상을 금융정책의 주요 목표로 설정하고 있음
- 정책목표 달성은 중앙은행 채무증서, 채무성증권, 국채의 매매를 통한 공개시장조작, 지불준비율조절, 상업은행과의 외화 및 스왑, 식량증산, 비전통 상품수출, 에너지산업용 재할인율, 수입신용규제 등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음

2) 금융제도

- 필리핀 금융산업은 여수신 등 일반적 금융활동에 더해 금융임대업, 파생상품 계약, 온라인 banking 등 신금융기법이 보급되고 있는 단계이나, Leasing, 채권매수업 등 금융업은 미발달 상태임
- 은행 개설 및 신규 금융상품의 판매를 위해서는 BSP 승인이 필요함
 - 필리핀은 Offshore Banking을 허용하고 있는 나라이며, 금융시장의 부정부패 해소를 위해 2001년부터 자금세탁방지법을 시행하고 있음
- Offshore Banking : 비과세 지역에서의 외환거래를 일컫는 말로 역외 펀드라고도 함
 - 거주자가 아니더라도 외환거래가 자유롭고 세금이 낮은 것이 특징으로, 바하마, 사모아, 케이만 제도 등이 오프쇼어 banking을 인정하고 있는 대표적인 나라임
 - 자금의 출처를 묻지 않기 때문에 금전거래 상의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음
- 외국기업의 경우, 지분 투자 목적의 경우 자금차입은 금지되어 있으나, 기타 기업 운영 자금 조달 조건은 필리핀 국내 기업과 동일
 - 단, 장기대출은 MDB 프로젝트 차관, 선진국 원조성 차관에 대해서만 허용

□ 현지금융조달

1) 개요

- 외국인 투자 기업도 BSP, BOI, NEDA 및 Department of Finance의 4개 기관 대표로 구성된 Inter-Agency Committee의 승인을 획득할 경우 필리핀 기업과 차별없이 국내금융의 수혜 가능
- 종전에는 모든 금융이 폐소화에 의해서만 이루어졌으나, 중앙은행 Circular 1389호(1993.4.13)에 의거 중앙은행의 사전승인을 얻어 외화 금융의 수혜가 가능
- 국내금융은 상환기간 30~90일의 단기금융과 120~180일의 중기 금융, 360일 이상의 장기금융으로 구분
- 여신 이자율은 floating system이 적용되고 있는데 정부의 국채발행 규모에 의하여 크게 영향을 받고 있음
- 정부의 국채발행 규모가 커지면 이의 인수를 위한 국채수익률이 올라감에 따라 시장 이자율도 올라가며 반대의 경우 이자율도 내려감
- 우대여신금리(Prime Lending Rate)는 91일 만기의 단기국채 수익률 (Maturity) 보다 대략 1% 정도 높은 수준에서 결정됨
- 높은 거래비용 등으로 회사채 발행을 통한 자금조달 미미
 - 거래 시스템 발달 저조, 회사채 평가기관의 공신력 결여, 높은 거래비용 등으로 회사채 발행이 부진하여 국채 비중이 총발행 채권의 90%에 달함
- 회사채 발행을 위해서는 필리핀 기업등록 및 감독위원회(SEC) 등록비, 수입인지세, 발행대금 등을 납부해야 함
- 회사채 운용을 위해서는 연간 신탁관리 의뢰비, 등록유지 및 지불대행비, 유통시장 관련 비용 등을 납부해야 함

2) 송금

- 필리핀 기업 활동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청산잔여금, 배당, 이자소득 포함)의 자유로운 모국 송금을 보장하고 있음
- 다만, 필리핀 중앙은행(BSP)에 등록하도록 하고 송금 시 각종 증빙 자료를 요구하고 있음

- 외국인 투자기업이 수익금을 모기업에 송금하기 위해서는 폐소를 외화로 환전해야 하며 기업은 외화 송금 시 필리핀 중앙은행에 등록해야 함
- BSP 등록이 완료되면 필리핀 정부는 등록된 기업에게 중앙은행 등록서류(Bangko Sentral Registration Document, BSRD)를 발급
- 일단 BSRD가 발급되면 중앙은행에 등록된 것으로 간주되며 송금 시마다 동 등록서류 및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일반 은행에서도 송금이 가능
- 현재 아국은행은 KEB 하나은행, 산업은행, 신한은행, 기업은행, 우리은행 등이 진출하였으며 외화송금, 기업 금융자문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KEB 하나은행(마닐라지점)

- 홈페이지 : <https://global.lqbank.com/lounge/manila/et/main.html>
- 주소 : 21st Zuellig Building cor. Paseo De Roxas, Makati City
- 연락처 : +632-848-1988

○ 산업은행(마닐라지점)

- 주소 : 8th Floor One World Place Building, 32nd St, Taguig, 1630 Kalakhang Maynila
- 연락처 : +632-643-0700

○ 신한은행(마닐라지점)

- 주소 : 21F Units 1&2, RCBC Savings Bank Corporate Center, 1634, 26th St, Taguig, Kalakhang Maynila
- 연락처 : +632-405-6300

□ 외환관리

1) 개황

- 필리핀 중앙은행(BSP) 총재를 위원장으로 하는 통화위원회가 외환정책을 수립하고 외환통제를 하고 있음
- 1993.4.13일 공포된 BSP의 외환 자유화조치로 일부 특정산업에 속하는 기업을 제외한 민간인의 자유로운 외화소지 및 자유로운 송금이 가능

- 기업이 수출대전을 100% 보유할 수 있게 하는 등 외환 자유화 추진
- 외환거래가 자유화되었지만 외환시장에서 폐소화의 거래를 억제하기 위해 10,000페소 이상 되는 폐소화의 대내외 송금시 BSP의 승인이 요구됨
- 외국인(주도)기업이 외환수령액을 폐소화로 환전할 수 없도록 규정
- 환율은 변동환율제에 따라 자유로운 외환의 매입, 매출을 허용하고 있지만 규제 제도 존재
 - 필리핀 은행연합회(PAP)는 1998년 6월 1일부터 외환시장에서의 환율변동제를 적용하여 하루 중 전일 가중 평균환율의 $\pm 6\%$ 변동시 거래 정지
- 필리핀 거주자(필리핀에서 영업하는 외국기업 포함)는 필리핀 내에서 외환을 자유롭게 매매할 수 있으며, 외환의 유출입도 대체로 자유로운 편임
- 2011년 11월 외국인직접투자 자금에 대한 폐소화 환전 규정이 폐지되었으며, 등록외국법인과 외국기업 임원의 외화수령액 또한 폐소화 환전이 요구되지 않음

2) 외환 통제(투자유입의 경우)

- 중앙은행, 증권거래위원회(SEC)나 무역규제 및 소비자보호위원회에 등록된 모든 외국인 투자기업은 중앙은행 등록필증(DBRD)을 구비하여야 함
- 국내 들어오는 모든 투자는 등록을 필해야 하며 국적요건을 충족시켜야 함 (중앙은행과 투자청이 정한 일반 가이드라인과 관련 법률 준수)
- DBRD는 영업철수, 투자회수, 현금 배당금이나 이자를 본국으로 송금할 수 있는 권리 증명서 역할을 함
- 외국인투자는 투자 시점에서의 환율로 환산하여 현지 화폐로 계산되며, 현금 투자 및 현물 투자도 가능(현물투자의 경우 중앙은행 Circular 1318에 표기된 상품에 한함)

3) 외국자본에 대한 규제

- 자본 : 모든 외국인 투자는 현금 또는 현물이든 중앙은행에 등록 (자본 및 수익의 본국 송금시 필요)
- 대부금 : 외국자본으로부터 자금 차입은 중앙은행의 사전허가를 득해야 함
 - 중앙은행은 일정한 가이드라인을 정해 외국자본 차입신청에 대한 심사를 하고 외국자본 차입신청서는 중앙은행이 사안별로 처리

- 모든 기업, 금융기관, 정부기관들은 그들의 외국자본 차입현황을 중앙은행에 보고해야 함
- 현지에서의 외국기업 차입행위는 다음과 같이 자유화 및 단순화되어 시행
- 서로 상이한 정부기관으로부터의 사전 행정처리 폐지
- 구비서류 간소화(외국기업에 대한 빈번한 보고서 제출요구는 분기 혹은 반기 1회로 변경)

4) 예금계좌

- 법인은 증권거래위원회(SEC) 또는 통상산업부(DTI)에 등록을 해야 계좌를 개설할 수 있으며 개인은 외국인 등록증을 필해야 계좌를 개설할 수 있음
- 중앙은행에 관련계약이나 외국인 투자가 등록되지 않으면 로얄티, 임대료, 수수료, 배당금, 이익금, 기타 다른 무형의 지불금 등이 거래중지 계좌로 간주됨

5) 과실송금

- BSP 또는 저축은행에 적법하게 등록한 모든 투자에 대해 완전하고 즉각적인 자금송금이 허용되며 현지은행은 BSP의 승인없이 외환으로 전환한 투자수익을 매각, 송금할 수 있음
- 1992년 9월 1일부로 중앙은행은 사전 승인 없이 중앙은행 투자 등록증(DBRD)의 제출만으로 투자자본의 본국 송환 및 배당금, 이자의 송금이 가능해짐

6) 대부금과 이자

- 외환 대부금이 금융권으로부터 구입한 외국환으로 서비스가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외환 대부금으로부터의 수익금이 공인된 은행에 매각되어야만 함
- 외국환 대부금과 관련된 지불은 중앙은행 Circular 1277의 규제를 받으며, 이에는 대부금의 성질의 일부를 차지하는 계약이나 계획에 대한 지불금도 포함

7) 로얄티와 서비스 수수료

- 로얄티 및 임대계약은 일반적으로 자동 갱신조항 없이 5년을 초과해서는 안됨(단, 일정한 조건하에 5년 이상의 기간으로 계약할 수도 있음)
- 제한적인 비즈니스 조항을 포함할 수도 없으며, 계약문구의 해석은 필리핀 국내법에 따른다는 조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8) 아국 금융기관 진출현황

- 현재 필리핀에 진출한 아국 은행은 KEB하나은행, 산업은행, 신한은행, 기업은행, 우리은행 등이 있음
- 아국 금융기관 업무 : 필리핀 진출 아국기업 송금, 금융 자문 등 서비스 제공

□ 보험회사

1) 현황

- 필리핀 내 보험회사의 관리·감독은 재무부 산하 보험위원회 (Insurance Commission)가 담당
 - 보험위원회 웹사이트 : www.insurance.gov.ph

2) 주요 보험사(건설부문)

○ AIG Philippines

- 주소 : 30th Floor Philam Life Tower 8767 Paseo de Roxas, Makati City, Philippines
- 웹사이트 : <http://www.aig.com.ph/>
- TEL : (+632) 878-5400

○ AXA Philippines

- 주소 : AXA @ GT Tower, 6813 Ayala Avenue, Makati, 1200 Metro Manila
- 웹사이트 : <https://www.axa.com.ph/>
- TEL : (+632) 581-5292

- MAPFRE
 - 주소 : 8th Floor, Mapfre Insular Corporate Center, Acacia Avenue, Madrigal Business Park, Metro Manila
 - 웹사이트 : <http://www.mapfre.com.ph/insurance-ph>
 - TEL : (+632) 459-4727

- BDO Unibank
 - 주소 : 7899 Makati Avenue Makati City 0726, Philippines
 - 웹사이트 : <https://www.bdo.com.ph/>
 - TEL : (+632) 631-8000

- CHUBB
 - 주소: 24th Floor Zuellig Building Makati Avenue corner Paseo De Roxas Makati City 1226
 - 웹사이트: <https://www.chubb.com/ph-en>
 - TEL: +63-2-8496000

□ 공사 관련 보증

1) 현황

- 필리핀의 건설공사 수행 시 발주처에 제출하는 지급보증서는 은행 보증서(Bank Guarantee)와 보증증권(Surety Bond)으로 대별됨
- 현행 필리핀 입찰법은 Bank Guarantee와 Surety Bond를 모두 인정하고 있음
- 특히 대부분의 차관공사를 발주하고 있는 공공사업부(DPWH : Department of Public Works & Highways)에서도 Surety Bond를 인정
- Procurement Guideline에 P-Bond를 은행보증으로 한정시키고 있는 ADB는 필리핀 국내입찰법보다는 ADB의 Guideline에 따르도록 DPWH에 요구하고 있음
- 현지 Surety Company들은 대통령령 1594호를 근거로 Surety Bond도 인정될 수 있도록 DPWH를 상대로 Lobby를 펼쳐 DPWH는 계약서 상에 Surety Bond 관련조항을 추가, Surety Bond를 인정하고 있는 실정임

2) 특징

- 현재 DPWH는 차관공사 발주시 가급적 은행보증서 제출을 요구하고 있기는 하나 Surety Bond 제출도 허용하고 있음
- 재정능력이 떨어지는 현지 건설업체들은 Bond 발급 신청 시 Cash 담보 등을 요구하는 은행들로부터 Bank Guarantee를 발급받는 경우는 흔하지 않음
- 대부분 수수료는 다소 높으나 무담보 조건으로 발급해 주는 보험회사들의 Surety Bond를 대부분 이용하고 있음
- 한때 발주처에서 보험회사들의 부실 등을 이유로 Bank Guarantee만을 요구한 적이 있으나 현지 건설업체들이 대거 입찰에 참여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자 Surety Bond를 공히 이용할 수 있도록 다시 허용하였음
- 차관공사에 참여하는 외국업체에게도 동일한 조건을 적용, 아국의 A사의 경우 최근 DPWH 발주 도로공사의 입찰 - 계약과정에서 그때그때의 편의성에 따라 현지 은행인 PCIB의 지급보증서, 국내은행의 지급보증서 및 현지 보험회사의 Surety Bond를 발주처에 제출하였음
- DPWH의 또 다른 도로공사를 수주한 B사 역시 선수금보증서를 Surety Bond로 제출하였음
- 또다른 사례로 C사는 공사 수행 중 공사금액 증가분에 대하여 Surety Bond로 제출한 사례도 있었음. 이 회사의 당초 Performance Bond는 은행보증서였음

3) 유의사항

- 필리핀 Surety Bond 취득은 북미의 그것과는 차이가 있음
- 미국과 캐나다의 경우 실질적인 1차 P.Q의 기능을 담당할 정도로 철저한 보증심사를 거쳐 건설업자에게 Surety Bond를 발급받는 구조
- 이와 다르게 필리핀에서는 일정 구비서류만 갖추면 쉽게 Surety Bond를 발급받을 수 있음
- 유의할 점은 DPWH내에 지급보증에 대한 구체적 적용규칙이 없고 발주담당자의 재량권에 좌우되고 있다는 점
- 물론, 발주시 공고문에 지급보증서 형태 및 제출조건을 명시하지만 발주처 담당자와의 인간관계 유지에 따라서 까다로운 Bank Guarantee보다 Surety Bond로 처리될 수 있도록 양해받는 사례가 다반사

□ 고용주책임보험

1) 사회보장제도

- 필리핀 사회보장위원회는 근로자의 질병, 사망, 출산 등의 복지제도 수행을 위해 사회보장시스템(SSS)을 운영함
- 모든 근로자(자영업자 포함)는 SSS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함
- 단, 월 급여 1,000페소 이하의 가사보조인은 가입의무가 면제되며 해외에서 근무하는 필리핀 근로자는 선택적으로 가입 가능
- 즉, 고용주가 직원을 채용한 후 30일 이내에 SSS 가입 신청서를 사회보장위원회에 제출해야 함
-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 SSS 신고 시에 SEC 등록증 상의 필리핀 대표 서명이 첨부된 SSS Form R-1, R1A, 정관,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함께 제출해야 함
- 고용주는 직원을 고용한 월의 마지막 날(30일 또는 31일)에 첫 SSS 분담금을 납부하고 이후 매월 근로자에게 2번째 월급 지급 후 SSS 분담금을 납부해야 함
- 필리핀에서는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통상 월급을 2차례(15일, 30일)에 걸쳐 지급함
- SSS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미납금과 함께 3% 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됨
- SSS분담금은 근로자의 경우 매월 급여에서 공제되며 고용주는 직접 납부
- 필리핀 정부 및 산하기관 고용 인원,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 근무시 SSS 가입이 면제됨

2) 국민건강보험

- 필리핀 내 모든 고용주와 근로자는 PhilHealth에 국민건강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함
- 단, 특정 지방의 경우 기업이 근로자에게 적정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시 건강보험 가입의무가 면제됨
- 고용주는 매월 10일까지 PhilHealth 또는 지정은행에 국민건강보험 분담금을 납부해야 하며 근로자는 매월 급여에서 공제됨

- 총 건강보험료는 근로자 월급의 3%를 넘지 않으며 이를 고용주와 직원이 절반씩 분담
- 자영업자의 경우 연간 순이익의 3%를 초과하지 않는 선에서 납부
- 고용주는 매월 15일까지 건강보험료 납부 내역 (Remittance Report (RF-1))을 PhilHealth에 제출해야 함
- 분담금 납부와 통보 의무가 이행되지 않은 경우 의료보험 혜택이 박탈 될 수 있고 고용주는 이에 대해 책임져야 함

3) 주택개발뮤추얼펀드

- 필리핀 정부는 근로자의 주택자금 대출 등을 목적으로 주택개발 뮤추얼펀드(HDMF)를 운영 중
- 가입대상 : 사회보장제도(SSS) 및 Government Service Insurance System(GSIS) 의무가입 대상 근로자
- 고용주는 신규직원 채용 시 30일 내 운영주체인 Pag-IBIG에 주택개발 뮤추얼펀드(HDMF)를 등록해야 함

〈주택개발뮤추얼펀드 월 분담금〉

(단위 : %)

월급여	근로자	고용주
PHP 1,500 이하	1	2
PHP 1,500 초과	2	2

※ 출처 : 필리핀 공공법 No.9679

□ 입국비자

1) 입국비자

- 13년 8월 1일부터 비즈니스 또는 관광목적으로 필리핀에 입국하려는 여행자는 귀국 비행기표와 입국 시 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 남아있는 여권 소지 시 30일 혹은 그 이하의 기간 동안 비자 없이 체류 가능
- 체류기간 연장 시 출입국사무국(이민국)에 21일이 경과하기 전에 여권과 함께 비자연장신청을 하여야 하며 보통 6개월 연장이 가능하나 체류 목적을 분명히 하여 최대 12개월까지도 연장이 가능

- 필리핀 입국이 비자 없이 불가능한 국적자들과 비자 없이 입국 가능하나 예정 체류 기간이 30일 넘는 여행자들은 필리핀 입국 전 단기 방문자 비자를 신청해야 함
- 비자 종류별 신청 시 구비서류 및 방법은 이민국(Bureau of Immigration) 웹사이트(<http://www.immigration.gov.ph/>) 참고
 - * 2021년 5월 1일 기준, 필리핀은 코로나 19로 인해 외국인 임시 입국 제한 조치를 시행 중이며, 최근 브라질, 인도 등 변이 바이러스로 인한 피해가 확대되면서 유효비자에 대한 제한을 격상 시킴. 자세한 내용은 이민청과 상담 권장

2) 관련기관

- 주한필리핀 대사관(Embassy of the Republic of the Philippines)
 - 주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동 5-1번지
 - Tel : (02) 796-7387~9
 - Fax : (02) 796-0827
 - 이메일 : seoulpe@philembassy-seoul.com
 - 대사 : RAUL S. HERNANDEZ

□ 출입국 수속

1) 입국

- 필리핀 법무부는 2015.7.15부터 입국 시 여권 잔여기간 6개월 제한 규정을 폐지
- 국가경쟁력위원회와 이민청이 보다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목적에서 건의하여 이뤄진 것
- 필리핀을 방문하려는 외국인은 출입국 시점에 유효한 여권을 소지하고 있으면 여권 유효기간으로 인해 더 이상 출입국에 제한을 받지 않게 됨
- 입국 시 입국 심사대를 거쳐 수화물을 찾고 세관심사를 마친 후 공항 건물 밖으로 나오면 됨
- 입국심사는 외국인 전용라인을 이용해야 하며 입국신고서와 함께 여권, 항공권을 제시
- 무비자 입국시 21일 이하 체류 관광객의 경우는 출국용 항공권을 함께 제시

- 세관심사 시 기내에서 작성한 세관신고서를 제출하며 1-2개의 손가방만 휴대한 경우 블루라인(Nothing to declare)을 이용
- 블루라인을 통과할 경우라도 세관원이 검사를 위해 가방을 열어볼 것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음

2) 출국

- 항공권이 없으면 공항내 진입이 불가능하므로 탑승수속시 환승객은 동행하지 못하며 공항건물 출입시 항공권 및 여권을 제시해야 함
- 출국 순서
 - ① 수화물 X-Ray 투시기 통과 및 탑승객 금속탐지기 통과
 - ② 해당 항공사 카운터에서 수화물을 발송하고 항공기 탑승권을 수령
 - ③ 출국 심사장으로 진입하며 출구심사 전 1인당 550페소의 공항이용료 납부
 - ④ 출국심사대에 출국신고서와 함께 여권, 탑승권, 공항이용료 납부 영수증을 제시
 - ⑤ 출국심사를 마치면 면세구역내로 진입하여 해당 탑승구에 가서 항공기 탑승
 - 6개월 이상 체류한 외국인의 경우 사전에 이민국으로부터 발급받은 출국확인서(Exit Clearance Certification)을 제출해야 함

3) 환전

- 통화단위는 페소(Peso, 100센타보)이며 현재 통용되는 지폐로는 1,000페소, 500페소, 200페소, 100페소, 50페소, 20페소 등
- 은행에서 환전하는 경우 영업시간 10시~14시까지 가능하나 시간이 많이 걸리는 편으로 주로 호텔이나 시내 사설환전소를 이용
- 최근 들어 치안이 불안해지면서 환전소 이용객이 범죄의 대상이 되기 쉬운 바, 환전소 이용시 유의할 필요가 있음
- 주로 목요일에는 환율이 높은 편이며 특히, 주말이나 은행업무시간이 끝난 오후의 환율은 낮은 편임

4) 코로나19 발발 이후(2021.4.15. 기준)

- ATF는 '21.4.15(목), 당초 3.22~4.21간 시행중인 외국인에 대한 입국금지 기한을 4.30(금) 23:59분까지 연장하고, 입국 허용의 대상으로 3.22(월) 이전 필리핀 외교부로부터 예외적 입국 승인을 받은 경우를 추가함
- 2021.3.22.(월) 00:01분부터 4.30.(금) 23:59분까지 아래를 제외한 모든 외국인의 입국금지
- 유효한 9e(외교비자) 혹은 47(a)(2)(특별취업비자)를 소지한 외교관 및 국제기구 종사자들과 그들의 가족들
- 주재국 외교부(이민노동자 담당 차관실)와 해외노동자복지국(노동부 산하)로부터 승인을 받은 의료목적의 귀환에 관련된 외국 국적자들
- 선원교체를 위한 Green Lanes 프로그램하에 항구를 통해 도착하며 유효한 9c(선원비자)를 소지한 외국 선원들
- 필리핀 국적자와 동반 입국하고 유효한 비자를 소지한 외국 국적의 부모, 배우자, 자녀
- National Task Force의 의장 혹은 의장의 공식 위임 대표자에 의해 허가받은 응급, 인도적 목적 또는 이에 준하는 사례들 (유효한 비자 보유)
- 2021.3.22.(월) 이전 외교부(DFA)로부터 유효한 문서로 예외적 입국 승인을 받은 경우

□ 진출전망

1) 진출시 유의사항

- 신규 입찰 지연사례 빈번
 - 정부는 인프라 수요에 비해 재원이 부족한 현실을 감안하여 PPP 방식의 사업추진을 적극 모색 중
 - 투자승인이 지연되면서 신규입찰 지연사례 증가
- 자재 및 토지보상 관련 문제
 - 건설자재 및 장비 수급은 주로 수입에 의존(싱가포르, 일본, 미국 등) 하고 있는 가운데 통관이 지연되고 높은 관세(장비 약 30%) 책정으로 공기지연 및 추가비용 발생

- 용지보상의 경우 발주처의 귀책사유가 대부분이나 착공 이후 발주처의 늦장 대처로 원가상승과 공정부진 요인 발생, 추가 간접비 투입 사례 빈번

2) 진출전략

- 현지 파트너와의 유기적인 전략적 협력관계 구축
- 정부발주 사업은 주로 현지 대형 건설업체, 고도의 기술력을 요하는 사업은 외국기업의 참여가 일반화되고 있는 상황
- 현지 유력 개발사 및 외국 건설업체와 협력을 통한 입찰참여 모색 필요
- ADB 등 차관 지원 사업 등에 지속적인 관심 필요
 - ADB 재원 프로젝트는 물론 최근 대규모 ODA 지원을 약속한 중국 주도의 AIIB 지원사업과 일본의 차관지원 사업에도 지속적인 관심 필요
 - 우리나라의 금융지원을 활용한 진출기반 확대 도모
- 수익성과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전문분야 집중
 - 발전차액지원제도(Feed-in Tariff)를 통한 태양광, 풍력, 지열 등 신재생에너지 분야 진출도 적극 모색 필요
 - 풍부한 실적과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발전 및 석유화학 플랜트 프로젝트 집중

3) 수주전망

- 우리기업은 필리핀에 진출한 이후 2021년 기준 산업설비(87억불)와 토목(61억불) 그리고 건축(14억불) 순으로 수주
- 2021년에 우리기업은 필리핀 정부가 강력히 추진 중인 교통 인프라 중 철도 및 교량 부문을 중심으로 수주 활동을 활발히 전개할 전망

3 조세 제도

가. 조세 제도 개요

- (근거법) 필리핀 정부는 소득세 체계 및 징수절차를 간소화하고 탈세 및 허위신고 행위에 대한 세무당국의 권한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며 세수증대와 함께 건전한 재정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1997년 12월 세제개혁법을 발표하였음
 - 이후 2005년 11월 1일에 발표된 RA9337, 2008년 7월 6일 발표된 RA9504, 2018년 1월 2일 발표된 RA10963 등 개정 과정을 거쳐 현재의 조세제도에 이르게 되었음
- (관계기관) 주무부처는 국세청(BIR)으로 재무부의 관리·감독하에서 내국세 및 공과금, 위약금의 처분 및 징수, 국세심판소나 법원에서 결정된 사건들에 대한 법적 처벌 및 벌금 부과에 관한 보유
 - 특히 필리핀 국세청은 세법에 따른 신고일의 마지막 날 혹은 실제로 신고서를 제출한 날 중 늦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세무조사를 수행할 수 있음
 - 3년의 제척기간이 만료되기 이전에 적법한 세무조사 없이 세금을 추가징수할 수 없음
 - 납세자가 사기나 부정한 행위로 세금을 거짓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거짓, 고의 및 누락을 발견한 날로부터 10년간 세무조사를 수행·세금 징수가 가능함
- (회계연도) 일반적으로 과세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나 필리핀 국세청의 승인을 득한 후 별도의 과세기간을 정할 수는 있음
 - 현지법인, 지점 등 사업 주체에 상관없이 매 분기 종료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예정신고·납부 하여야 하고 일반적인 연 단위(역년 기준) 과세기간을 취하는 경우 당해 과세기간 종료 후 이듬해 4월 15일까지 세무서에 확정신고를 하여야 함
- (세제개혁) 두테르테 대통령은 필리핀 내 빈곤을 퇴치하고 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하고자 종합세제개편 프로그램(CTRP)을 진행 중
 - 이 개혁안은 필리핀 국민의 빈곤 퇴치 및 경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것(총 4부)

〈종합세제개편 프로그램〉

단계	법안	내용	비고
Package 1	The Tax Reform for Acceleration and Inclusion	개인소득세 인하 및 단순화 등 불평등한 세제 개혁	법안 통과 (2018년 1월)
Package 1B	Tax Amnesty	부동산 세금감면 및 세금 연체에 대한 사면 기회 제공	
Package 2	Corporate Income Tax&Incentives	법인세 완화(20%) 및 사회 공헌 성장을 위한 인센티브 제공	2020년 11월 현재 법안 통과 진행 중
Package 2+	Sin Taxes&Mining Taxes	주류, 담배세와 같은 특별소비세 인상 및 광물자원 채석 과정에 부과되는 여러 세목에 대한 합의	추후 입법 예정
Package 3	Real Property Valuation	부동산 자산 평가 방법 조정 및 과세 표준 확대	
Package 4	Passive Income and Financial Taxes Motor Vehicle Users Charge	이자 수익, 배당금, 자본 소득의 세율 단일화 및 인지세 조정	

* 출처: 필리핀 재정부(Department of Finance)

- 제1차 세제개혁법안(TRAIN Law, The Tax Reform for Acceleration and Inclusion)은 개인소득세 인하, 부가가치세 면제 범위 축소, 유류세·자동차세·설탕세 등 특별소비세 적용 등이 주요 골자였음
 - 세제개혁을 통해 향후 인프라 개발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려는 목적도 있었음

〈TRAIN 법률 주요 개정사항〉

구분	세목
국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득이 25만페소 이하인 개인에 대하여 소득세를 면제함. - 소득이 800만페소를 초과하는 개인에 대하여 35%의 최고세율을 적용함. - tax-exempt benefits 한도를 8만2천페소에서 9만페소로 높임. - 복권 및 로또 당첨금은 20% 세율의 원천징수로 납세 의무가 종결됨. - 부가수당세(Fringe benefits tax)의 세율을 32%에서 35%로 높임. - 다국적기업의 지역본부 혹은 지역운영본부, 역외은행, 석유회사에서 근무하는 개인에 대한 15%의 특례세율을 폐지함.
부가가치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가가치세 적용대상 거래가 확장됨. - 재화를 판매하고 중앙은행법에 따라 대금을 외화로 결제하는 거래가 영세율 대상 거래에서 제외되었음. - 아래의 거래가 부가가치세 면세거래에 포함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필리핀 중앙은행에 금을 공급하는 경우 · 비만, 고콜레스테롤, 고혈압 처방 의약품을 공급하는 경우 · 협회비, 회비 등 실비 변상으로 수금한 요금 · 합병 등 거래를 통하여 부동산을 공급하는 경우 -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기준금액이 변경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화나 용역의 공급 중 공급가액이 연간 300만페소를 넘지 않는 경우의 거래(기존 1,919,500페소에서 기준금액이 인상됨) · 임대료가 월 1만5천페소를 초과하지 않는 부동산의 임대(기존 12,800페소에서 기준금액이 인상됨) · 2021년부터 거래되는 공급가액이 200만페소를 초과하지 않는 저가 부동산의 공급(기존 3,199,200페소에서 기준금액이 인하됨)
기타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속세: 기존 5구간 세율이 6%의 고정세율로 변동됨. - 증여세: 기존 7구간 세율이 6%의 고정세율로 변동됨(단, 증여금액이 25만 페소 이하의 금액에 대하여는 면제됨). - 소비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동차에 대한 소비세가 기존 판매가격 구간별 2~60%의 한계세율 적용에서 4~50%의 종가세로 변동됨. · 탄산음료, 착향음료, 주스, 에너지드링크 등의 가당음료에 대한 소비세가 신설됨. · 성형수술에 대한 5%의 소비세가 신설됨 - 증권거래세: 기존 0.5% 세율에서 0.6% 세율로 인상됨.

* 출처: 필리핀 세법연구센터, Tax Changes You Need to Know

- 기업 관련 조세제도 변경이 주요 골자인 2차 세제개혁법안(CITIRA)이 2019년 9월 13일 하원을 통과하였으며, 2차 법안은 법인세 인하, 조세 인센티브 면제 혜택 등이 쟁점으로 현재 상원 통과 진행 중인 상황이며 다음의 주요 내용을 포함
 - 법인세율을 2029년까지 현재 30%에서 20%로 매년 1%씩 점진적 인하
 -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은 최초 10년간 인센티브 수혜가 가능하며, 추가 요건 충족 시 추가로 9년간 인센티브 수혜가 가능
 - 소득세 면제 기간(Income Tax Holiday) 이후 기업은 2020년 18%에서 2030년 13%까지 감소되는 특별 감소 소득세율을 적용
 - 기업은 특별 감소 소득세율을 적용받는 대신 인건비, 직원 교육비, R&D 비용, 설비투자비용 등의 분야에서 감면 가능
 - 기존 기업들의 경우 일몰(Sunset)기간이 주어지는데 이 기간이 끝나면 기업은 제2차 세제개혁 법안의 인센티브를 수혜 가능
 - 기존보다 간소화된 투자기관 등록 절차 등

나. 조세 체계

- (조세 구성) 국세와 지방세로 나누어지며, 법인이 부담해야 할 주요 조세로 법인세, 원천징수세가 있음
 - 국세는 연방정부에서 부과하고 국세청에서 담당하며, 지방세는 주(Province), 시(City), 군(Municipalities), 바랑가이 지방단체(Barangays)가 과세 및 징수함

〈필리핀 세목 분류〉

구분	세목
국세	① 개인소득세(Personal Income tax)
	② 법인세(Corporate Income tax)
	③ 부가가치세(Value Added Tax)
	④ 상속세(Estate Tax), 증여세(Donor's Tax)
	⑤ 특별소비세(Excises Tax)
	⑥ 비율세(Percentage Tax)
	⑦ 인지세(Documentary Stamp Tax)
	⑧ 원천징수세(Withholding Tax)
지방세	① 부동산세(Real Property Tax)
	② 사업세와 면허세(Business Tax and Barangay Clearance)
	③ 주민세(Community Tax)
	④ 공공요금(Public Utility Charge): 수도 요금, 국도 이용 요금 등

* 출처: 필리핀 재정부(Department of Finance)

- (법인세) 주로 영리법인의 국내·외 원천소득(외국법인의 경우는 국내 원천소득만 해당)에 일반적으로 25%의 세율로 법인세를 부담함

과세소득	법인세율 (%)
일반적으로 모든 원천의 순소득에 대해	25%
총자산 1억 페소 이하 및 순과세소득이 5백만 페소 이하 국내 기업의 모든 원천 순소득에 대해	20%
법인 운영 개시년도 이후 4번째 과세연도에 시작하는 총소득에 대한 최저 법인세; 최저 법인세는 25%의 법인세가 총소득에 대한 2%의 최저 법인세 미만일 경우 부과된다.	2% (2020년 7월 1일부터 2023년 6월 30일까지 최저 법인세율은 1%)

- 필리핀의 법인세는 아래 열거된 11가지 유형의 법인을 제외한 모든 법인에 대해 과세(단, 열거된 단체에 해당하더라도 이윤을 목적으로 활동하고 얻은 이익은 과세대상에 포함)
 - 국내 법인은 필리핀 법에 따라 설립되거나 조직된 법인이다. 필리핀 내에서 합법적으로 무역 또는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허가를 받은 외국 법인을 '거주 외국 법인'이라 함
 - 내국법인의 경우 국내·외를 막론하고 법인세를 부담하는 반면, 외국법인의 경우 필리핀 내 원천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법인세를 부담
 - 지점 이익에 대한 소득세율은 기업 이익에 대한 세율과 같음. 일반적으로 지사가 해외로 송금하는 수익은 그 세금 요소에 대한 공제 없이 송금을 위해 적용되거나 배정된 총 수익을 기준으로 15%의 세율(지점송금세)이 적용됨
 - 특정 조세 조약에 따라 더 낮은 세율이 적용될 수 있음
 - 필리핀 경제 지역 당국(PEZA)에 등록된 지점이 송금하는 적격 활동의 수익은 면세됨

〈필리핀 법인세 비과세대상〉

세목

- | |
|---|
| ① 영리를 목적으로 설립되지 않은 노동, 농업이나 원예 관련 단체 |
| ② 자본금 없는 상호저축은행(mutual savings bank)과 영리 목적 없이 공동의 이익을 위해 설립 및 운영되는 협동조합은행(cooperative bank) |
| ③ 상조회, 공제회와 같이 회원을 대상으로 한 독점적인 혜택을 위해 운영하는 이익단체나 협회로서 롯지시스템(lodge system)에 따라 운영되는 경우 또는 직원들이 조직한 공제 조합이나 비주식회사로서 해당 단체의 회원이나 그들의 부양가족을 대상으로 사망, 질병, 사고에 대한 보상을 지급하거나 혜택을 제공하는 경우, 그 단체 |
| ④ 회원을 대상으로 배타적으로 운영되는 묘지관리법인(cemetery company) |
| ⑤ 비주식회사나 협회로서 종교, 자선사업, 과학, 체육 및 문화, 재향군인의 재활을 위하여 조직 및 이용되는 경우, 단체의 순이익이나 자산의 일부가 회원, 창립자, 임원이나 특정인의 이익으로 귀속되지 않는 경우, 그 단체 |
| ⑥ 상공회의소나 무역위원회 중 개인 주주의 이익 또는 개인의 순이익이나 수익을 위해 조직되지 않은 경우, 그 단체 |
| ⑦ 시민단체나 조직으로서, 사적 이익을 위해 설립되지 않고 사회복지 목적을 위해 운영되는 경우, 그 단체 |
| ⑧ 이익분배 및 영리 목적이 없는 교육기관 |
| ⑨ 정부 교육기관 |

〈필리핀 법인세 비과세대상〉

세목

- ⑩ 농민, 태풍이나 화재 관련 상호보험회사, 상호관개회사, 상호전화회사, 지역 특유의 단체로서 비용충당을 목적으로 회비와 수수료, 평가에서 얻은 수입만으로 운영되는 경우, 그 단체
- ⑪ 농민이나 농장주 등의 회원이 생산한 물품을 홍보하며 판매대리인 역할을 수행하는 협동조합으로서, 판매수입에서 판매비용을 차감한 이익을 회원이 생산한 수량을 기준으로 배분하는 경우, 그 단체

* 출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신흥국의 세정연구(필리핀) (‘19.12)

○ 법인세율은 25%로 아래와 같이 최저한세 납부액을 최소한도로 하여 적용됨

〈필리핀 법인세 산출세액 계산〉

세목

일반세율의 적용	최저한세의 적용
총이익 (Total Taxable Income) (-)	총이익 (Total Taxable Income)
총비용 (Deductions) (=)	
법인소득세의 각 사업연도 소득/과세표준 (Net Taxable Income or Loss) (X)	(X)
일반 세율 (30%) (=)	최저한세율 2%
1. 산출세액 (Income Tax Due)	(=) 2. 최저한세액
최종 산출세액 = Max (1.산출세액, 2.최저한세액)	

일반세율 30%에서 25%로 인하, * 출처: 필리핀 법인소득세 신고서식 BIR Form NO.1702

- 내국법인과 거주자 외국 법인은 분기마다 각 분기종료후 60일 이내에 법인소득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여, 각 사업연도에 대해 총 4차례 법인소득세를 신고
 - 1분기, 2분기와 3분기에 해당하는 사업연도 동안 발생한 누적소득을 대상으로 예납 신고를 하며, 4분기가 종료된 후 전체 사업연도 소득을 대상으로 사업연도 종료 후 4번째 달 15일까지 확정 신고함
 - 지연납부 시, 해당 세액의 25%를 가산세로 부과
 - 분기별 법인세 예납 : 각 분기종료후 60일 이내에 예납
 - 최종 법인세 연간 납부 : 사업연도 종료 후 4번째 달 15일까지 납부
(출처: <https://taxsummaries.pwc.com/philippines>, 2022.06.30.)

〈법인의 각 사업연도에 대한 소득세의 신고 방법〉

전자신고 (eFPS Filer)	대상 법인	고액 납세자 포함 모든 법인
	신고 방법	국세청 전자신고 및 납부시스템(Electronic Filing and Payment System, eFPS)을 이용한 온라인 신고
	신고 장소	필리핀 국세청 전자신고 및 납부 홈페이지(https://efps.bir.gov.ph/)에서 신고
서면신고 (Non-eFPS Filer)	대상 법인	고액 납세자 제외
	신고 방법	세무신고서 1부를 직접 제출
	신고 장소	Authorized Agent Bank, Authorized Agent Bank가 없는 지역은 지방국세청 소재 the Revenue Collection Officer, duly Authorized City나 Municipal Treasurer
수기 작성 세무신고서의 서면신고 (Manual Filer)	대상 법인	고액 납세자 제외
	신고 방법	세무신고서 복사본 3부를 직접 제출
	신고 장소	지방 국세청 산하 세무신고센터(Tax Filing Center)

* 출처: 필리핀 국세청 신고안내

- 조세혜택은 세액공제, 세액감면과 비과세로 구분되며, 대표적으로 외국납부세액 공제와 종합투자법에 따른 법인세 감면이 대표적인 항목
 - 내국법인이 외국 정부에 납부한 소득세(Any Income Taxes)는 외국납부세액 공제 형태로 법인의 산출세액에서 차감되거나, 비용의 형태로 법인의 과세표준에서 차감
 - 투자법에 따라 등록된 법인은 선도기업, 비선도기업과 개발기업으로 구분되며, 각 법인은 법에서 정한 기한 동안 법인세를 최대 100% 감면받을 수 있으며 세액감면 기간은 선도기업의 경우 6년, 비선도기업의 경우 4년, 개발기업은 3년

□ (개인소득세)

- 필리핀은 거주민들의 전세계 수입에 대해 개인소득세를 부과
 - 필리핀에 거주하든 아니든 비거주자와 외국인은 필리핀 내에서 수입에 대해서만 세금이 부과됨
 - 거주자이든 아니든, 외국인의 소득에 대한 세율은 그들의 소득의 성격(즉, 보상 소득, 최종 세금의 대상이 되는 소득 또는 기타 소득)에 따라 달라짐
 - 사업을 하고 보상 수입을 받는 거주 외국인 및 비거주 외국인에 대한 세율은 다음과 같음

○ 2018년 1월 1일부터 개인소득세율:

과세소득(폐소)		column 1에 대한 세금 (폐소)	초과에 대한 세금 (%)
이상	미만		
0	250,000	-	0
250,000	400,000	-	20
400,000	800,000	30,000	25
800,000	2,000,000	130,000	30
2,000,000	8,000,000	490,000	32
8,000,000		2,410,000	35

○ 2023년 1월 1일부터 개인소득세율:

과세소득(폐소)		column 1에 대한 세금 (폐소)	초과에 대한 세금 (%)
이상	미만		
0	250,000	-	0
250,000	400,000	-	15
400,000	800,000	22,500	20
800,000	2,000,000	102,500	25
2,000,000	8,000,000	402,500	30
8,000,000		2,202,500	35

- 체류 외국인은 무국적이거나 다른 나라의 국적을 가지고 있으며 체류 기간에 대한 명확한 의도가 없지만 일시적이거나 체류자가 아닌 필리핀에 거주하는 사람*
 - * 필리핀에서 무기한 계약으로 일하는 국외 거주자는 잠재적으로 이 범주에 속함
- 대부분의 국외 거주자들은 그들의 계약이 특정 기간 동안의 계약이기 때문에 비거주 외국인으로 분류될 것
- 필리핀에 와서 어느 역년이든 180일 이상 체류하는 비거주 외국인은 필리핀에서 무역이나 사업에 종사하는 비거주 외국인으로 간주됨

- 할당 기간이 적용되는 역년 중 필리핀에 총 체류하는 기간이 180일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필리핀에서 무역이나 사업에 종사하지 않는 비거주 외국인으로 간주될 수 있음
 - 일정 기간 필리핀에 파견된 외국인은 일반적으로 필리핀에서 무역이나 사업에 종사하는 비거주자로 간주
 - 개인소득세 확정 신고납부기한 : 4월 15일
 - 개인소득세 예납일자 : 필리핀은 직원들의 경우 PAYE(Pay As You Earn) 시스템을 따르는데, 이 시스템은 현지 고용주가 원천징수세 메커니즘을 통해 수행
 - 이 제도에 따르면 고용주(현지 기업)는 매달 직원의 보수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하고 송금할 책임이 있음
- * 우리의 세금 규정은 소득과 원천징수세의 연말정산을 12월에 수행하도록 요구

□ (원천징수) 필리핀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은 특정 개인이나 법인에게 소득이나 대가를 지급할 때, 지급액에 일정 비율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징수하고, 과세당국에 대신 납부하는 절차인 원천징수제도를 따라야 함

○ 배당소득, 이자소득, 임대소득 등에 부과하며 최대 원천징수세율은 30% 수준

<소득종류별 원천징수세율>

소득 종류	구분	세율
배당소득	- 내국법인이 내국법인이나 거주자 외국법인에게 지급한 배당은 원천징수 대상에서 제외	-
	- 비거주자 외국법인이 내국법인으로부터 수취하는 배당소득은 수취자인 비거주자의 본국에서 외국납부세액 공제가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15
	- 외국납부세액 공제가 안되는 경우	30
이자소득	- 일반적인 경우	-
	- '상위 20,000개 기업'이나 정부 기관이 발행하거나 참여하지 않은 채무 (loan)와 관련된 이자 지급액	2
	- Offshore Banking Units이나 Foreign Currency Deposit Units에 대한 이자 지급	10
	- 은행 예금에 대한 이자, 예금 대리 및 신탁 기금이나 이와 유사한 약정에서 얻은 수익이나 기타 금전적 이익	20
	- 확대된 외화예치 시스템(expanded foreign currency deposit system)에 따른 외화예치금에서 발생한 이자	15
	- 채무 상품에서 발생한 이자	20
	- 비거주 기업에게 지급하는 이자	20

〈소득종류별 원천징수세율〉

소득 종류	구분	세율
로열티 소득	- 내국법인이 내국법인이나 거주자 외국법인에게 지급한 로열티	20
	- 비거주자 외국법인에게 지급한 로열티	30
	- 도서, 문학작품, 음원에 대한 로열티	10
	- 영상물(cinematographic film)의 임대 등	5
기술지원 및 서비스	- 최근 사업연도의 총이익(gross income)이 72만페소 이하인 경우	10
	- 최근 사업연도의 총이익(gross income)이 72만페소를 초과한 경우	15
임대소득	- 사업용 부동산의 계속 사용이나 소유를 위한 임대, 금융리스 자산을 제외한 사업용 동산의 사용이나 소유를 위하여 연간 1만페소를 초과한 금액으로 임대, 위성·송신장비·전력기기(pole) 임대, 광고게시판과 영상물 임대	5
자본이득	- 자본자산으로 분류된 토지, 건물의 양도	6
	- 일반자산(ordinary asset)으로 분류된 부동산의 양도, 교환이나 이전	1.5 ~ 6

* 출처: 필리핀 국세청 신고안내

□ (관세) 필리핀 관세의 종류는 크게 공동실효특혜관세(CEPT)와 기본관세로 나눌 수 있으며, 평균적으로 7% 내외 수준이나 한국의 경우 FTA체결 영향으로 대부분의 품목에 대한 관세가 0~5% 수준

- 공동실효 특혜관세는 아세안 회원국에 적용되는 관세율임
- 기본관세율은 아세안 비회원국에서 적용되는 관세율이지만 양국 간 자유무역협정(FTA)이 체결되어 있다면, 낮은 관세율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이를 위해 수입통관 시 원산지 증명서(C/O)를 세관에 제출해야 함

□ (부가가치세)

- 연예인, 뮤지컬, 라디오, 영화, 텔레비전, 무대 감독, 그리고 세관, 부동산, 주식, 이민, 상업 중개인에 의해 제공되는 서비스를 포함하여 직업 또는 전화의 연습 또는 연습에서 수행되는 서비스에 12%의 VAT가 부과
- 부가가치세의 표준세율은 매출액 기준 12%를 적용하며, 부동산세의 경우 취득세는 3%·보유세는 1%~2%·양도세는 6% 수준
- 부가가치세는 건설, 서비스 용역, 주식, 부동산 거래, 임차료, 창고서비스, 요식업, 전화 및 각종 유틸리티 요금, 금융서비스 등 각종 서비스와 수입품(제품 수입 시)에 대해 표준세율 12% 적용

- 영세율 및 비과세 적용 대상도 있음
 - 외국 수출업체의 경우(일정 요건 충족 필요) 영세율(0%) 적용
 - 비식용 농림수산물, 비료, 종자, 사료 수입품, 천연가스, 석탄 및 관련 원료 수입, 엔진, 부품 수입, 5천 톤 이상 여객/화물선 수입 시 부가세 비과세 적용
- 부가가치세의 신고납부: 월별 신고를 할 경우, 익월 20일에서 25일 내로 신고서를 직접 또는 전자양식으로 제출. 분기별 신고를 할 경우, 과세 분기 이후 익월 25일까지 신고서를 직접 또는 전자양식으로 제출

□ (기타 조세)

- 부동산세 관련하여 취득·보유·처분 단계로 구분할 수 있음
 - 취득시점: 취득세(0.5%)·등록세(0.25%)·인지세(1.5%) 등을 부담하며 통상적으로 매매가액 또는 공시가격의 3% 수준임
 - 보유시점: 부동산세는 용도에 상관없이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부담하여야 하며, 부동산평가액에 세율을 곱하여 산정(수도지역은 메트로 마닐라 부동산 세율은 2%, 지방지역은 1%)
 - 처분시점: 중개인 수수료를 포함하여 일반적으로 매매가액 또는 공시가격의 6%를 매도인이 부담함
- 인지세 : 거래와 문서 유형에 따라 다양한 세율 적용함
- 증여세/상속세 : 거주 개인과 비거주 개인 모두 순자산에 6%의 세율로 세금 부과됨

□ (사회 보장세)

- 종업원은 월 급여에 따라 36.30페소에서 581.30페소까지 이르는 사회보장 기여금을 납부해야함
- 고용주 또한 종업원을 위한 기여금을 납부해야 함
- 외국 국적의 근로자가 납부하는 연간 최대 사회 세금은 2022년 과세연도의 PHP 32,700
- 사회적 세금은 사회보장제도(SSS)와 필리핀 건강보험공사(PHIC)에 대한 기부금으로 구성됨
- 필리핀에서 일하고 있는 외국인들은 더 이상 국내 개발 상호 기금(HDMF)에 기부할 필요가 없음
- 고용주들은 직원들의 기부금과 일치해야 함

다. 이중과세 방지 협정

- (체결 현황) 필리핀의 경우 투자 활성화 목적으로 이중과세방지협정*을 개별 국가간 체결하고 있으며, 필리핀과 조세조약을 맺은 국가는 19년말 기준 43개국
 - * 이중과세방지협정(double tax avoidance agreement) : 소득발생자와 소득귀속자의 국적이 다른 경우, 국제적인 이중과세를 회피하고 동시에 탈세를 방지할 목적으로 2개국 간 체결되는 조약
 - 대한민국의 조세조약은 1986년 11월 체결되었으며, 조세조약에 따라 법인세 납부 시 외국납부세액공제 가능

〈필리핀 조세조약 체결 현황〉

국가명	시행일자	체결일자/장소
호주	1980.1.1.	1979.5.11./마닐라
오스트리아	1983.1.1.	1981.4.4./비엔나
바레인	2004.1.1.	2001.11.7./마닐라
방글라데시	2004.1.1.	1997.9.8./마닐라
벨기에	1981.1.1. 2000.1.1.	1976.10.2./마닐라 1996.5.11./마닐라
브라질	1992.1.1.	1983.9.29./브라질리아
캐나다	1977.1.1.	1976.3.11./마닐라
중국	2002.1.1.	1999.11.18./베이징
체코	2004.1.1.	2000.11.13./마닐라
덴마크	1998.1.1.	1995.6.30./코펜하겐
핀란드	1982.1.1.	1978.10.13./마닐라
프랑스	1978.1.1. 1998.1.1.	1976.1.9./킹스톤 1995.6.26./파리
독일	2016.1.1.	2013.9.9./베를린
헝가리	1998.1.1.	1997.6.13./부다페스트
인도	1995.1.1.	1990.2.12./마닐라
인도네시아	1983.1.1.	1981.6.18./마닐라
이스라엘	1997.1.1.	1992.6.9./마닐라
이탈리아	1990.1.1.	1980.12.5./로마

〈필리핀 조세조약 체결 현황〉

국가명	시행일자	체결일자/장소
일본	1981.1.1. 2009.1.1.	1980.2.13./도쿄 2006.12.9./마닐라
한국	1986.11.9.	1984.2.21./서울
쿠웨이트	2014.1.1.	2009.11.3./쿠웨이트 시티
말레이시아	1985.1.1.	1982.4.27./마닐라
멕시코	2019.1.1.	2015.11.17./마닐라
네덜란드	1992.1.1.	1989.3.9./마닐라
뉴질랜드	1981.1.1. 2008.12.2.	1980.4.29./마닐라 2002.2.21./웰링턴
나이지리아	2014.1.1.	1997.9.30./마닐라
노르웨이	1998.1.1.	1989.5.22./마닐라
파키스탄	1979.1.1.	1980.2.22./마닐라
폴란드	1998.1.1.	1992.9.9./마닐라
카타르	2016.1.1.	2008.12.14./도하
루마니아	1998.1.1.	1994.5.18./부쿠레슈티
러시아	1998.1.1.	1995.4.26./마닐라
싱가포르	1977.1.1.	1977.8.1./마닐라
스리랑카	2019.1.1.	2000.12.11./마닐라
스페인	1994.1.1.	1989.3.14./마닐라
스웨덴	2004.1.1.	1998.6.24./마닐라
스위스	2002.1.1.	1998.6.24./마닐라
태국	1983.1.1. 2019.1.1.	1982.7.14./마닐라 2013.6.21./마닐라
터키	2017.1.1.	2009.3.18./앙카라
아랍에미리트	2009.1.1.	2003.9.21./두바이
영국	1979.1.1.	1976.6.10./런던
미국	1983.1.1.	1976.10.1./마닐라
베트남	2004.1.1.	2001.11.14./마닐라

* 출처 : 필리핀 국세청

- 한-필 조세조약 원천징수세 제한세율은 다음과 같음
 - 배당소득세(제10조)
 - 가. 수익적 소유자가 배당금을 지급하는 법인의 자본금의 최소한 25% 이상을 직접 소유하는 법인인 경우 : 총 배당액의 10%
 - 나. 기타의 경우 : 총 배당액의 25%
 - 이자소득세(제11조)
 - 가. 공모 발행된 공채, 사채 또는 이와 유사한 채무에 대하여 지급되는 이자의 경우 : 이자총액의 10%
 - 나. 기타의 경우 : 이자총액의 15%
 - 사용료세(제12조) : 사용료 총액의 15%
 - 사용료: 문학, 예술 또는 학술작품의 저작권, 특허, 상표, 의장 또는 신안, 도면, 비밀공식 또는 비밀공정의 사용이나 사용권 또는 산업상, 상업상 또는 학술상의 설비나 산업상, 상업상 또는 학술상의 경험에 관한 정보의 사용이나 사용권에 대한 댓가로서 받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

4 노동 관련법

가. 개요

- (근거법) 고용과 관련된 주요 법령 및 규정으로 1974년 제정된 대통령령 제442호 The Labor Code of The philippiness와 그 법령의 시행령인 Omnibus Rule가 있음
 - 필리핀 노동법은 직원의 고용 및 해고에 대한 규칙을 규정하고 있음
 - 근무 시간 및 초과 근무를 포함한 근무 조건, 휴일 급여, 연말보너스 및 퇴직 급여와 같은 직원 혜택에 관한 사항과 단체 교섭뿐만 아니라 노동 조합의 조직과 회원에 관한 지침도 기재되어 있음
 - 노동법에는 근로자에게 유리한 조항들이 포함되어 있으며, 대표적으로는 일부 예외적인 사항을 제외하고는 정규직의 해고가 금지되어 있다는 점과 노조에 대한 권리가 명시적으로 인정된다는 점임

- (관계기관) 필리핀 고용노동부는 노동과 고용 및 해고의 주요 정책 결정, 설계, 조정 및 행정기관으로서 고용의 촉진, 노동자의 복지 향상, 고용 관계의 증진을 담당

나. 노동법 내용 상세

- (근로조건) 필리핀의 노동법상 근로조건은 공무원, 임원을 제외한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며, 일일 평균 8시간 근무·유급휴가 제공 등을 명시
 - 공무원, 경영진, 현장직원 등은 이 법에 의한 근로조건 보장 대상이 아님
 - 공무원은 정부, 정부산하단체, 공기업 근무자를 의미
 - 경영진은 회사를 경영하는데 주요 구성 인물들로 경영관련 부서 및 경영관련 세부 담당 업무를 하는 자들 및 경영관련 직원을 의미함
 - 현장직원은 주 사업장 또는 사용자가 속한 직장의 지사로부터 떠나 업무를 수행하는 종사자이며, 현장에서의 실제 근무 시간을 확실하게 계산하기 힘든 자를 의미함
 - 이 외의 모든 영리/비영리 기업 및 기관의 근로자는 다음의 근로조건 규정을 적용받음

〈노동법상 근로조건〉

구분	내용
근로시간 정의	근로시간은 근로자가 직장에 출근하거나, 일하도록 요구받은 시간이며, 근무시간 중의 단기의 휴게 시간은 근로 시간에 포함.
평균 근로시간	하루 8시간을 초과하지 않음. (최소 백 만명의 인구와 최소 백 개의 임원 병상을 보유한 병원 및 치료소를 가지고 있는 시 또는 시읍면에 속한 준 의료직원의 일일 근무시간은 식사시간을 제외하고 주 5일간 하루 8시간이나(주40시간), 응급상황 시 주6일 또는 48시간 근무까지 가능, 생산직 주 48시간)
식사시간	최소 60분 보장
야간근무 수당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 사이의 근무에 대해서 10% 야근근무 수당 수령
초과근무 수당	하루 8시간 이상을 근무하는 근로자는 기본급의 25%에 상응하는 초과 근무 수당을 수령(공휴일 또는 휴무일의 경우는 30%)
상계금지	특정한 사유로 행해지는 단축근무는 근무일의 초과근무 시간과 상계처리되어서는 안되며, 근로자에 대한 초과근무 시간만큼 휴일을 제공함으로써 초과근무 수당 지급 의무를 피할 수 없음.

〈노동법상 근로조건〉

구분	내용
사용자의 초과근무 (또는 휴무일 근무) 요구	<p>사용자는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초과근무를 수행하도록 근로자에게 요구 가능</p> <p>(a) 국가 전시 상황이거나 국회 또는 대통령에 의해 전국적 또는 국부적 비상령이 선포되었을 경우</p> <p>(b) 심각한 사고, 화재, 홍수, 태풍, 지진, 유행병 또는 그 외 재산 및 재앙에 의한 인근 지역의 실제 임박한 비상상황으로 인해 인명 및 재산의 피해와 국민의 안전이 위협받는 경우를 막기 위한 경우</p> <p>(c) 사용자의 막대한 손실 및 피해 또는 기타 여러 유사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기계, 설비 및 장치에 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p> <p>(d) 부패하기 쉬운 물건의 심각한 손실 및 피해를 막아야 하는 경우</p> <p>(e) 8시간 전에 시작된 업무의 완결 또는 지속이 사용자의 기업운영에 심각한 장애 또는 해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p> <p>모든 정부기관 및 민간기업은 공휴일에도 운영가능하나 이 경우에도 고용주는 6일 연속 근무시 24시간 이상의 휴일을 제공해야 함.</p>
주간 휴무일	<p>모든 사용자는 영리든 비영리든 근로자에게 매 6일 연속된 정상근무 이후 최소 24시간 계속해서 쉴 수 있는 시간을 줄 의무가 존재하며, 근로자의 주당 휴무일을 결정하고 편성해야 함.</p>
유급휴가	<p>상시 근로자 10인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장에서는 최소 1년간 근로를 제공한 모든 근로자에 대해 연간 5일간의 유급휴가를 제공하여야 함.</p>

* 출처: 필리핀 노동법

- (임금) 노동법에서 최저임금제 및 임금 지급에 관한 방식을 규정하고 있음
 - 필리핀의 최저임금은 국가 임금생산성 위원회(NWP) 승인하에 노사정 대표가 참여하는 14개 지역임금책정위원회(RTWPB)에 의해 규정하고 있으며, 14개 지역별로 각각 일일 최저임금을 발표
 - 지역별 임금 위원회는 고용주, 근로자, 정부대표로 구성되며 각 지역별로 매년 1일 최저임금을 협의 결정함
 - 업종별 최저임금 현황은 국가임금생산성 위원회 웹사이트 (<http://www.nwpc.dole.gov.ph/>)에서 확인 가능함
 -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반드시 법정통화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함
 - 현금 이외의 약속어음, 상품권, 할인권, 기념품, 티켓, 차용증 등의 지급 방식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나, 일부 법률상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됨

- 사용자는 최소 1달에 1번 임금을 지급하여야 함
 - 사용자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으로 인해 임금 지급이 지연되는 경우, 사용자는 그러한 사유가 해소된 후 즉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함

□ (시간외 수당)

- 정규 근무일 : 정상임금의 125%
- 공휴일, 일요일 및 특별 휴일 : 정상임금의 110%
- 법정 공휴일이 주당 정기 휴일과 겹친 경우 정상임금의 200%

□ (퇴직금)

- 퇴직금 계산시 가장 최근 급여가 기준임.
- 단, 6개월 이상 근무는 1년으로 간주됨.
- 회사의 폐쇄 또는 손실을 방지하기 위한 긴축경영 상황, 직원의 질병으로 인해 해고할 경우, 퇴직금은 근속연수 x 0.5개월 급여 중 높은 금액으로 지급

□ (복리후생)

- 고용주는 통상적으로 근로자에게 임금 이외에도 급식비, 교통비 등을 제공하고 기숙사까지 제공하는 기업도 있으나 극히 드문 편
- 근로자의 휴가의 경우, 1년 이상 근무한 직원의 경우 1년에 5일의 유급 휴가가 제공됨
 - 다만, 직원수가 10인 이하의 소규모 기업이거나 노동부 장관에 의해 경영 및 재무상태가 좋지 않은 기업의 직원에는 적용되지 않음

□ (연말 수당/상여금) 1975년 마르코스 정권 아래 근로자의 급여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사용자는 의무적으로 연말 보너스를 준비하여 지급해야 함

- 12월에 정규 급여의 100%를 지급함(13번째 달 급여)
- 모든 고용주는 고용 상태와 상관없이 월 1,000페소 미만의 기본급(실무적으로는 모든 직원에게 지급)을 받는 직원에게 매년 12월 24일 이전에 연봉의 1/12에 해당하는 연말 보너스를 지급하여야 함
 - 동일 직장에서 1개월 이상 근무 시 모든 직원은 연말 보너스 수령 가능
 - 비영리기관·공공기관 종사자, 개인 고용인 및 업무 단위로 채용된 자 등은 연말 보너스 의무 적용대상이 아님

- (고용보험) 필리핀에서는 사회보장제도, 의료보험, 국민주택기금의 3대 고용 보험이 존재
 - 필리핀에서 근로자를 고용하려는 경우 3대 보험 가입은 필수이며, 통상 임금 외에 근로자에게 제공되어야 하는 기본 복리후생으로 사용자의 선택이 아닌 의무사항임
 - 사회보장제도(SSS): 근로자의 질병·장애·출산·퇴직·사망 등 기본적인 생활 위기에 대비하기 위한 제도로 60세 이상의 직원, 가사보조인 등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는 월 1,000페소 이상의 급여를 받는 모든 근로자는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함
 - 국민건강보험제도(PhilHealth): 근로자의 질병과 부상에 대한 예방과 치료를 주요 목적으로 하는 사회보장제도
 - 정 지방의 해당 기업이 적정한 의료서비스를 별도로 제공할 경우 건강보험 가입 의무가 면제되며 이 외의 모든 사용자와 근로자는 국민건강보험제도에 가입하여야 함
 - 국민주택기금: 주택 융자 프로그램으로 필리핀 정부에서 국민의 저축을 장려 및 서민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시작된 펀드
 - 가입 시 단기 대출, 주택자금 대출(서민용 주택을 사면 연 3%의 저금리로 돈을 빌려주고 최장 30년간에 걸쳐 분할상환이 가능) 등의 혜택을 누릴 수 있음
 - 가입 대상은 사회보장제도 의무가입 대상자, 국방·소방·치안서비스 종사자, 외국에서 일하는 근로자(OFW) 등이 있으며 외국인은 혜택 적용 불가

〈필리핀 사회보장제도 부담〉

(단위: 페소)

월급여 수준	사회보장 분담금		
	합계	사용자 부담	근로자 부담
2,000	240	160	80
3,000	360	240	120
4,000	480	320	160
5,000	600	400	200
6,000	720	480	240
7,000	840	560	280
8,000	960	640	320
9,000	1080	720	360
10,000	1200	800	400
11,000	1320	880	440
12,000	1440	960	480
13,000	1560	1040	520
14,000	1680	1120	560
15,000	1800	1200	600

* 출처: 사회보장위원회(Social Security Commission)

<필리핀 국민건강보험제도 부담>

(단위: 페소)

월급여 수준	사회보장 분담금		
	합계	사용자 부담	근로자 부담
10,000 이하	300	150	150
10,000 초과 ~ 60,000 미만	300~1,800	150~900	150~900
60,000 이상	1,800	900	900

* 출처: 국민의료보험공단(Health Insurance Corporation)

<필리핀 국민주택기금 부담>

(단위: 페소)

월급여 수준	사회보장 분담금		
	합계	사용자 부담	근로자 부담
1,500 이하	급여의 3%	2%	1%
1,500 초과	급여의 4%	2%	2%

* 출처: 주택개발뮤추얼펀드(Home Development Mutual Fund)

- (의료서비스 제공) 모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구급처지에 대한 충분한 교육 훈련을 제공하고, 노동부가 규정한 규정에 따라 구급약과 장비 배치 및 구급시설을 갖추어야 함

<요구되는 응급의료 서비스 시설>

근로자 수 기준	내용
50인 미만	노동부장관이 응급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함
50인 이상 ~ 200인 미만	사용자가 상근공인간호사 서비스 제공
200인 이상 ~ 300인 미만	사용자가 상근공인간호사 서비스, 시간제 의사·치과의사 서비스 등 제공
300인 초과	100인의 근로자에 대하여 1인 1침대를 수용할 수 있는 치과 및 병원 또는 구급병원의 시설을 갖추어야 할 뿐만 아니라 상근 의사, 치과의사, 상근공인간호사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함

* 출처: 필리핀 노동법

□ 고용절차

1) 개요

- 필리핀 고용 종류는 아래와 같음
 - 정규직(Regular Employee)
 - 임시직(Casual Employee) : 특별한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직종인 경우 임시직을 고용할 수 있음. 다만 임시직이라고 해도 통산 1년 이상 근무하면 자동적으로 정규직이 됨
 - 견습직(Probationary Employee) : 6개월 동안 견습직으로 채용, 6개월이 지나면 자동으로 정규직이 됨

2) 관련법률

- 필리핀 노동법은 1974년에 제정됐고 2007년 RA9481로 개정됨
- 공식명칭은 대통령령 442호(수정) ‘필리핀 노동법’ (PRESIDENTIAL DECREE NO. 442(AS AMENDED) ‘LABOR CODE OF THE PHILIPPINES’)임
- 필리핀 노동법 제 61조, 280조, 281조는 정규직, 임시직, 견습직을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음
 - 정규직(제280조) :
 - ① 일상적으로 회사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
 - ② 1년 이상 근무한 직원은 근무의 연속 여부와 상관없이 해당업무가 존재하는 한 정규직으로 간주
 - 임시직(제280조) :
 - ① 특별한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근로자
 - ② 계절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
 - ③ 계약시작부터 종료시점을 명시한 업무
 - 견습직(제61조, 제281조) :
 - ① 6개월 이하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
 - ② 정규직 자격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고용주가 근로자에 통보함으로써 견습계약 종료가능
 - ③ 견습직 수행 기간 동안 고용주는 근로자에게 해당 최저임금의 75% 이상 지급해야 함

3) 해고

- 필리핀 노동법 제282조는 정당한 사유,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근로자를 해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정당한 사유 :
 - ① 고용주의 합당한 명령에 불복종하거나 심각한 과실을 저지른 경우
 - ② 반복적으로 의무를 대만히 한 경우
 - ③ 고용주에 대한 신의를 저버리거나 기만한 경우
 - ④ 고용주 및 가족에 대한 범죄행위 또는 이에 준하는 잘못을 저지른 경우
- 노동법 283조는 구조조정 시 긴축경영, 잉여인력 정리, 조업중단 및 사업장 폐쇄 시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도록 규정
 - 하지만 위와 같은 경우에도 해고 1개월 전 노동부에 신고하여 해고된 근로자에게는 근무연수 × 1개월 분의 급여를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함
- 필리핀 노동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적법한 절차 관련 고용주는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고사유 및 해고 결정에 대한 통지를 해야함
 - 위와 같은 사항을 위반할 경우 해고 근로자는 노동부 산하 노동중재위원회 (NLRC)에 고소 가능
 - NLRC는 노동부 산하 중재기관이나 실제로는 지방노동법원에 준하는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이 곳의 판결은 통상 법원판결과 동일한 구속력을 가지고 있음
 - 근로자가 고용주를 NLRC에 고소 후 최종 판결까지 평균 2~4년 소요

4) 휴가

- 1년 이상 근무한 직원에게는 연간 5일의 유급휴가를 제공해야 함
 - 다만, 직원 수가 10인 이하이거나 노동부 장관에 의해 경영 및 재무 상태가 심각한 상태인 기업의 직원에게는 적용되지 않음

5) 참고사항

- 15세 미만은 고용할 수 없음
 - 단, 부모나 보호자 책임 하에 일할 순 있음
-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경우 노동부 장관이 정한 시간 내에 위험한 직종이 아닌 경우 고용할 수 있음

- (해고 및 계약해지)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계약해지가 불가능하며, 법률에 따라 고용 관계를 해지할 수 있는 사유를 열거
 - 1년 이상 고용되어 업무를 진행할 경우 정규 고용으로 간주되며, 1년 미만일 경우 임시 고용으로 인정
 - 수습 기간은 업무 시작일로부터 6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수습기간을 포함하여 1년 이상 고용되는 경우도 정규직으로 인정
 - 정규직에 대하여 사용자는 동 법에 따라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은 한 근로계약 해지가 불가능함
 - 부당하게 해지한 경우 법률에 따라 근로자 원상 복귀 의무를 지며 부당해고 발생 기간 중 급여, 복지, 수당 등 근로 대가도 지급하여야 함
 - 사용자는 근로자의 귀책 사유가 인정되는 다음의 경우에 고용 관계를 종료할 수 있음
 - 업무에 관련하여 심각한 잘못을 범하거나 사용자나 상사의 합법적인 명령에 따르지 않을 때
 - 불성실하고 습관적인 근무 태만
 - 사용자나 그 대표자가 근로자에게 주었던 신뢰에 의심이 가거나 깨어질 경우
 - 근로자가 사용자나 사용자의 대리인 혹은 그들의 가족에게 범죄행위나 공격을 할 경우
 - 기타 앞에 열거한 내용과 유사한 경우
 - 또한 사용자는 사업장 폐쇄, 위생 예방 등 부득이한 경우에 법률에 근거하여 근로자와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 노동비 절감, 정리해고, 손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근로자와 노동부에 해고 예정일 1개월 전까지 통보하고, 사업장을 폐쇄하거나 근로자의 고용을 해지할 수 있음
 -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개월분의 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함
 - 근로자가 질병을 앓고 있고 동료 직원의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경우 사용자를 이를 근거로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개월분의 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함
 -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해당 직원에게 해고 관련 서면 통보가 이루어져야 하며 이때 해고 사유를 명시하고, 직원에게 이에 대한 반박 기회를 제공하여야 함

- **(퇴직 관련)** 퇴직금은 해당 업체에서 최소 5년 이상 근속한 직원에게만 지급되며, 노동법상 퇴직 연령(65세), 퇴직금 지급액(근속연수*22.5일분 급여) 등을 규정
 -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근로 모든 직원은 단체협약 또는 고용계약서에 명시된 일정 나이가 되면 정년퇴직할 수 있음
 - 노사단체협약 또는 기타 규정에 별다른 명시가 없는 경우 일반적인 정년퇴직 연령은 60세, 단 65세에 이르면 강제 퇴직해야 함
 - 직원 퇴직 시 사용자는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며, 법령상 규정된 액수보다 작아서는 안됨
 - 퇴직금 계산 시 기준급여는 가장 최근 급여이며, 사용자가 퇴직금 감액 목적으로 급여를 삭감한 경우, 삭감 전 급여가 기준 급여
 - 퇴직금 계산식: Daily Rate X 22.5일* X 근속연수
 - * 법령상 명시되어 있는 퇴직금 계산일수로 15일분의 월급과 연말 보너스를 12달로 나눈 일수(2.5일분)와 5일간의 유급휴가분을 합하여 계산
- **(노동조합)** 회사법에 의거 설립된 모든 사업체 또는 정부 법인에 속한 근로자는 고용인에 대해 조합 형성 및 단체 교섭 권리가 있음
 - 단, 회사 정책을 제정 및 수행하거나 고용, 이동, 정직, 임시 해고, 소환, 인사 교육 등을 담당하는 관리직 근로자는 노동조합을 형성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조합에 가입 또는 조력하지 못함
 - 근로자는 단체 교섭, 상호이익, 보호 증진을 위해 단체행동권이 보장되며, 국익에 반하지 않는 한 합법적으로 설립된 노조는 파업, 시위가 가능
 - 사용자는 노동조합의 행동에 대해 직장폐쇄(lock-out) 조치로 대항할 수 있음
- **(여성 근로자)** 여성 인권에 향상을 위해 여성 근로자 고용 시 참고하여야 할 다양한 제약사항을 기재
 - 연령에 관계없이 여성 근로자를 고용할 경우 보상 여부를 불문하고 사용자는 근로시간에 관하여 아래의 지침을 따라야 함

<노동법상 여성근로자 고용>

산업	내용
일반 산업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의 야간근무를 금지
상업	자정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의 야간근무를 금지
농업	야간에 9시간 연속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는 한 야간근무를 금지

* 출처: 필리핀 노동법

- 사용자는 여성 근로자를 위하여 남성 근로자와 분리된 세면실과 화장실을 만들고 탈의실을 제공하여야 하며, 직장 내 여성근로자의 편의를 위해 업무 현장에 보육원을 마련하여야 함
- 사용자는 6개월 이상 근무한 여성 근로자에게 1년 간의 출산 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예상분만 일자 전 2주간 그리고 출산 이후 4주간은 근로자의 기본급을 전액 지급하여야 함
- 이외에 사용자가 남성 근로자에 비해 여성 근로자에게 다음과 같은 차별을 행하는 경우 불법행위로 처벌당할 수 있음
 - 임금, 급여, 그 밖에 다른 형태의 보수 및 부가혜택을 포함한 보상금의 지급이 동등한 업무에 근로하고 있는 남성 근로자보다 여성 근로자에게 더 적게 지급하는 경우
 - 승진, 훈련기회, 학업 및 장학금 지급 등의 기회에서 남성 근로자보다 여성 근로자가 불리한 경우
 - 미혼의 여성 근로자에게 결혼하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고용하거나, 결혼을 사유로 실질적인 해고, 차별 등을 행하는 경우
 - 마찬가지로 임신으로 인한 차별도 불법행위로 판단
- (미성년자 고용) 부모 또는 후견인의 책임하에 일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5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고용될 수 없으며,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자는 노동부장관이 결정한 시간 및 기간만 고용될 수 있음
- (외국인 고용) 외국인을 고용하려는 경우 반드시 노동부로부터 고용허가서(AEP)를 취득하여야 하며, 고용허가서 발급 후 노동부 허가 없이 무단으로 전직 불가능
 - 외국인에 대한 고용허가서는 해당 직종에 맞는 필리핀 구직자가 없는 때에만 발급됨
 - 경제특구 등 특별지역에서 채용하는 경우 경제특대구청 등 관리기관의 추천에 의거 노동허가서가 발급될 수 있음

V. 진출 사례

1 프로젝트 현황

가. 수송 인프라

- (도로·다리 분야) 계룡건설이 현지 업체인 폴리카피오와 PBM-1 도로공사를 수주하였으며, 평화엔지니어링은 Battan-Cavite 교량 설계 용역을 수주
 - 필리핀 공공사업도로부(DPWH)는 일본국제협력기구(JICA)로부터 공적자금을 지원 받음
 - 필리핀 루손섬 중북부 지역의 애링개이-산타/비간 시티 146km 구간(Section-1)과 산타/비간 시티-라오그 시티 96km 구간(Section-2) 도로의 개·보수 및 유지보수 사업을 발주하였으며, 국내 기업인 계룡건설이 수주

〈PBM-1 도로공사 1공구 & 2공구〉

사업주체	계룡건설(60%), 폴리카피오(40%, 현지업체)
총사업비	총 7,600만 달러 (1공구 4,300만 달러, 2공구 3,300만 달러)
규모	1공구 L=146km, 2차로 B=6.70m, 2공구 L=96km, 2차로 B=6.70m
사업방식	NON-PPP
사업기간	60개월
진행현황	2015년 08월 ~ 2017년 02월 : 기존도로 보수 및 개선 2015년 08월 ~ 2020년 08월 : 장기유지보수

* 출처 : 계룡건설 홈페이지

- 필리핀 공공사업도로부(DPWH)는 TY Lin International, 평화 엔지니어링과 마닐라만에 있는 Bataan-Cavite Interlink Bridge 프로젝트의 엔지니어링 설계를 위해 5,900만 달러(약 700억 원) 계약을 체결
 - 아시아 개발은행(ADB)이 지원하는 1,755억 페소(36억 달러)의 프로젝트로 총 길이 32.1km의 장대 교량 2개 건설이 포함되며 Bataan과 Cavite 지방을 연결하여 두 지방 사이의 이동 시간을 5시간에서 40분으로 감축
 - 세부 엔지니어링 작업은 2020년 11월부터 2022년 1월까지 진행되며, 2022년 말에 착공될 예정

〈Bataan-Cavite Interlink Bridge 사업〉

사업주체	평화 엔지니어링(50%), TY Lin International(50%) 조인트벤처 형태
총사업비	엔지니어링 설계: 약 700억원(EPC 총 사업비는 약 3조 7,000억원)
규모	32.1km
사업방식	NON-PPP
사업기간	TBD
진행현황	2020년 10월 20일 : 국제 경쟁입찰 수주

* 출처 : 한국전력공사 보도자료('14.04)

- (철도) 2020년 9월 필리핀 정부의 대규모 사업인 남북철도공사에서 현대건설, DL이앤씨가 수주에 성공함에 따라 올해 철도 인프라 수주금액이 크게 발생
 - 필리핀 정부는 북부 클라크에서 수도 마닐라를 거쳐 남부 칼람바에 이르는 총연장 163km의 남북철도 사업을 진행 중
 - 이 중 현대건설과, DL이앤씨가 수주한 MCRP는 마닐라 북부 말로로스과 클라크를 잇는 필리핀 최초의 수도권 광역고속철도임

〈남북철도사업(Malolos-Clark 프로젝트) 패키지 개요〉

섹터	Rail	주관	필리핀 교통부(DOTr)
1호 패키지	현대 건설, 메가 와이드 건설, 동아 지질 공업 컨소시엄이 수주하였으며(PHP 180 억, 미화 371.44 만 달러), 17km 철도 육교, 7개의 캔틸레버 교량, Calumpit 및 Apalit에 있는 2개의 역사 건물 건설로 구성		
2호 패키지	Acciona Construction philippiness와 DL이앤씨의 합작 투자를 통해 진행되며(PHP33.71bn, USD694.78mn), 16km 육교와 San Fernando의 역사 건설을 포함		
3호 패키지	이탈리아-태국 개발공사가 수주하였으며(PHP 1594 bn, USD 328.5 mn), 12km 고가 철도 및 앙헬레스와 클라크에 역사 2개 건설을 포함하며 공사는 4년 안에 완료될 것으로 예상		

* 출처 :Fitch Solution

- 말로로스클라크 철도 프로젝트(MCRP) 1공구(MCRP)는 현대 건설, 메가 와이드 건설, 동아 지질 공업 컨소시엄이 수주하였으며(PHP 180 억, 미화 371.44 만 달러), 17km 철도 육교, 7개의 캔틸레버 교량, Calumpit 및 Apalit에 있는 2개의 역사 건물 건설로 구성

<말로로스-클라크 철도 프로젝트(MCRP) 1공구>

사업주체	현대건설(57.5%), 메가와이드, 동아지질
총사업비	5억 7,300만 달러
규모	지상 역사 2개, 고가교량 17km 건설
사업방식	NON-PPP
사업기간	착공일로부터 48개월
진행현황	2020년 09월 : 프로젝트 수주 2020년 11월 : 착공

* 출처 : 현대건설 홈페이지

- 말로로스클라크 철도 프로젝트(MCRP) 2공구(MCRP)는 DL이앤씨가 스페인 건설사 악시오나와 조인트벤처를 설립해 공동으로 시공(DL이앤씨 지분은 50%로 수주액은 약 3,626억원)하는 프로젝트로 총공사비는 6억1,697만달러(약 7,252억 원)

<말로로스-클라크 철도 프로젝트(MCRP) 2공구>

사업주체	DL이앤씨(50%), Acciona Construction philippiness(50%) 조인트벤처 형태
총사업비	6억1697만달러(약 7252억원)
규모	15.8km 고가교량 및 1개 역사 건설
사업방식	NON-PPP
사업기간	착공일로부터 48개월
진행현황	2020년 09월 : 프로젝트 수주

* 출처 : 현대건설 홈페이지

- (공항) 금호건설과 GS건설로 이루어진 국내 컨소시엄이 푸에르토 프린세사 공항 공사 사업을 수주 및 프로젝트 완료

<푸에르토 프린세사 공항 공사>

사업주체	금호건설(60%), GS건설(40%)
총사업비	1억 달러, EDCF에서 조달
상수도규모	여객터미널, 화물터미널, 관제탑 신설 기존 활주로 확장 공사
사업방식	Joint Venture, Design-Build 방식으로 필리핀 교통부(DOTr)로부터 수주
사업기간	공사기간 30개월
진행현황	2014년 08월 : 착공 2017년 01월 : 준공

* 출처 : 금호건설 홈페이지, kotra

나. 에너지 · 유틸리티 인프라

- (전력) 한국전력이 필리핀 일리한(Ilijan) 가스복합화력 건설·운영 사업(일리한 프로젝트)과 Sual 화력 발전소 프로젝트를 진행하였음
 - 일리한 프로젝트는 1996년 12월 수주 이후 2002년 6월 상업 운전을 시작했으며, 20년간 운영 후 필리핀 정부에 인계하는 BOT 사업
 - 극심한 전력난을 겪던 필리핀 정부가 사업 기간 중 연료 및 부지를 무상 제공하고, 전력량 및 판매가격을 보장하는 등 사업성과 수익성이 장기적으로 확보됨
 - BOT 사업 중 국내 최초로 현지법인을 설립하여 PF 방식으로 재원을 조달함
 - 최초로 필리핀에서 진행한 PPP 프로젝트로 미국의 Enron, Sithe, AES, 영국의 Power Gen, 독일의 Siemens, 일본의 미쓰비시, 마루베니 등 세계 유수의 기업들과 경쟁하여 최종 낙찰자로 선정
 - 2017년 말까지 누계매출 약 2조 1,000억 원을 달성하였으며, 대림, 효성, 현대중공업 등 20여 개의 국내 기업이 기자재 공급 및 시공에 참여함으로써 수출 부대 효과도 1.4억 달러를 달성

<필리핀 일리한 가스복합화력 건설·운영 사업>

사업주체	한국전력공사(51%), 미쯔비시(21%), TeaM Energy(20%), 구주전력(8%)
총사업비	약 7.21억 달러 = 자본금 1.78억 달러(25%) + 차입금 5.43억 달러(75%)
설비용량	1,200MW 가스복합 (600MW x 2기)
사업방식	PPP(BOT 방식)
사업기간	20년 (2002년 6월 ~ 2022년 6월)
진행현황	1996년 12월 16일 : 국제 경쟁입찰 수주 2002년 06월 05일 : 상업 가동 2020년 현재 : 발전소 운영 중

* 출처 : 한국전력공사 보도자료('14.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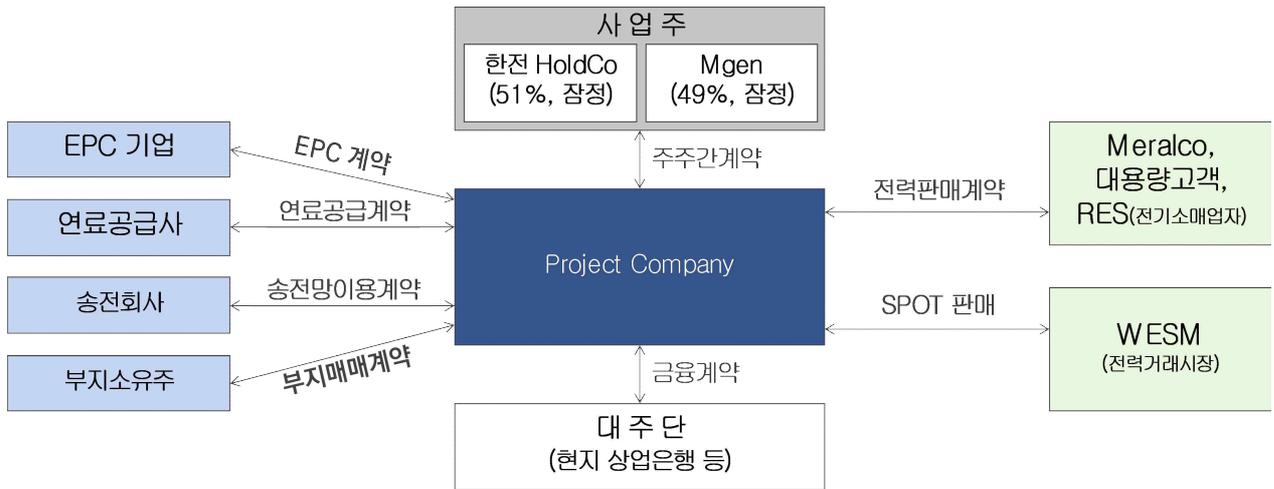
- 한국전력기술이 수주한 Sual 화력 발전 프로젝트는 필리핀 팡가시난주의 수알시에 1000MW 용량의 석탄화력발전소를 건설하기 위한 타당성조사 용역
 - 자본금은 한전 및 파트너사 지분비례 출자 예정이며, 차입금은 현지은행 Project Financing으로 진행 예정
 - EPC 업체는 현재 1순위인 두산중공업과 협상 중이며(미정 상태), O&M 업체는 아직 선정하지 않음

<KEPCO Sual Coal Power Plant 프로젝트>

사업주체	한국전력공사(51%), MGen(49%)
총사업비	약 18억 달러(추정) - 자본금 30%, 차입금 70%로 구성
설비용량	1,000MW(500MW*2기)
사업방식	PPP(BOO 방식)
사업기간	30년
진행현황	2016년 3월 : 사업타당성조사용역 계약체결 및 착수 2019년 2월 : EPC 1순위 업체 선정(두산중공업) 2020년 2월: 환경영향평가 승인 취득 2025년 8월(예정) : 상업 운전

* 출처 : 김성환의원실 - 한국전력 제출자료

<KEPCO Sual Coal Power Plant 프로젝트 사업구조>



RES : Retail Electricity Supplier (전기소매업자)

WESM : Wholesale Electricity Spot Market (전력거래시장)

* 출처 : 김성환의원실 - 한국전력 제출자료

- 양갓 다목적댐은 필리핀 마닐라 북동쪽 58Km 지점에 위치한 수력 발전용량 218MW 규모로 한국수자원공사가 국제경쟁입찰로 시행한 “양갓댐 발전시설 매각사업”에 참가함
 - 최종 낙찰자(낙찰액 4억 4천 1백만 달러)로 선정된 후 산미구엘에 60% 지분 매각(외국인 투자법 제한)
 - 국내 기업이 해외의 준공된 다목적댐을 인수해 운영하는 국내 첫 사례

<필리핀 양갓댐 발전시설 프로젝트>

사업주체	한국수자원공사(40%), 산미구엘(60%)
인수대금	4억 4천 1백만 달러(100% 인수기준)
설비용량	218MW(총 7기: 주발전기 4기, 보조발전기 3기)
사업방식	NON-PPP
사업기간	50년
진행현황	2010년 4월 : 국제 경쟁입찰 수주 2014년 10월 : 필리핀 정부로부터 인수인계 후 상업 발전 개시

* 출처 : 한국수자원공사 보도자료(14.10)

- (수도) 한국수자원공사는 양갓댐과 연동하여 불라칸 상수도 사업도 진행
 - 불라칸 상수도 사업 프로젝트는 2014년부터 운영 중인 Angat 댐으로부터 원수를 받아 정수처리 하여 공급함으로써 마닐라 수도권의 댐과 광역 상수도를 동시에 관리하는 종합 물관리 사업임
 - 2016년 4월 착공 이후 2019년 1월 1단계 상업 운전을 개시했으며, 30년간 운영 후 필리핀 정부에 인계하는 BOT 사업
 - 1997년 마닐라 상수도 민영화 사업 시행 이후, 필리핀 정부가 약 20년 만에 시행한 민간 투자사업으로 발주기관은 필리핀 마닐라 상하수도청(MWSS)
 - 급속한 도시화로 물 부족 문제가 발생한 불라칸 지역의 문제 해소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

〈필리핀 불라칸 상수도 사업〉

사업주체	K-water, 루손청정수개발공사(산미구엘사의 자회사), 한진중공업
총사업비	약 2,065억 원
상수도규모	길이 : 72km = 1단계 39km + 2단계 33km 지름 : 1,600 ~ 300mm 기타 : 펌프장 1개소(정수장 내), 조절지 1개소 등 정수 : 388,000m ³ /일 = 1단계 200,000m ³ /일 + 2단계 188,000m ³ /일
사업방식	PPP(BOT 방식)
사업기간	30년 (2016년 1월 ~ 2046년 1월)
진행현황	2016년 04월 15일 : 착공 2019년 01월 14일 : 1단계 완료 및 상업 가동

* 출처 : 한국전력공사 보도자료('14.04)

2 사업 성공 및 실패 요인

가. 일반적인 인프라 투자 이슈 분석

- (참여자 관점) 사업 참여자 입장의 일반적인 해외사업 추진상의 문제점 및 성공 요인 분석
 - 한국능률협회컨설팅의 이한중 교수의 제언에 따르면 해외사업 추진을 위해 투자자가 견지하여야 하는 투자원칙으로 진출 상품에 대한 경쟁력 구비 및 내부 조직·인원에 대한 역량 구축이 필요
 - 한국전력의 해외 진출 경험을 토대로 분석(한국전력은 현재 전 세계 27개국 41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으며, 필리핀의 경우 첫 해외사업 개척지로 말라야 중유발전소, 일리한 화력발전소 등이 대표적인 진출 사례임)

〈해외사업 추진상의 문제점 및 성공의 요건〉

항목	내용
문제점 및 실패 원인	사업에 대한 경쟁력 부재
	해외사업 추진을 위한 내부 역량 및 해외사업 추진 경험 부족
	사내 해외사업 지원 체제 미비(근무직원에게 대한 복지, 예산 배정 등)
성공요인	해외 인프라 사업 진출 전 기업의 예산, 조직, 인력에 대한 구축이 선행
	PPP형 사업의 경우에는 최소 3년에서 5년의 준비 기간 필요(준비기간 동안에는 KOICA 자금을 활용한 서비스형 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순차적으로 EDCF 자금을 활용한 사업에 참여함으로써 해외사업에 대한 감각을 키우고 그 후 PPP형 사업에 진출하는 것이 바람직)
	외부 전문인력의 자문을 적절히 활용(국제계약, 국제금융, 기술, 보험, 회계분야 등에서 어떻게 이들을 잘 관리하고 활용하느냐가 실제 사업의 성공여부를 결정짓는 주요 요인)
	전략적 제휴 및 협력관계 구축 시 외부업체의 신뢰성을 철저히 조사
	장기적인 관점에서 현지의 지역 전문가를 육성
해외사업 조직 활성화를 위해 제도 및 교육 시스템 구축 필요	

* 출처 : 한국능률협회컨설팅(주) 'PPP사업을 통한 한국전력 해외진출 경험과 성공요건'

- (시장 관점) 필리핀 PPP 사업에 효율적으로 진출하기 위하여 필리핀 인프라 시장에 대한 SWOT 분석 수행
 - 정부 정책에 따라 시장 규모의 확장 가능성이 높은 것이 장점이나 이에 대응하기 위한 인프라 제도가 미흡한 상황이며, 해외 의존도가 높다는 것이 약점으로 지적

〈SWOT 분석〉

항목	내용
Strengths 강점	인프라 관련 규제가 국내외 민간 부문의 참여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개방적
	필리핀은 아시아에서 가장 높은 전기요금을 부과하는 시장구조로 인해 민간 주체의 시장 참여 유인이 큼
Weaknesses 약점	건설장비는 주로 일본, 미국, 싱가포르에서 수입되며 수입의존도가 매우 높음
	제도적으로 열악하여 과거 여러 프로젝트가 지연된 바 있고, 다수의 PPP가 발표되었으나 재검토를 위해 철회된 바 있음
	프로젝트의 금융, 건설, 운영사업 분야가 있는 대기업이 인프라 시장 장악
Opportunities 기회	두테르테 대통령은 BBB 정책을 통해 2022년까지 인프라에 7조 페소를 투자하여 인프라 황금기를 약속
	두테르테 대통령은 기존계약을 유지한 상태로 프로젝트 이행 지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PPP 프로그램을 재검토하겠다고 함
	중국과의 관계 개선으로 인해 여러 산업 분야, 특히 운송 분야에서 중국기업 참여 증가 예상
	전력 및 주택에 대한 많은 수요가 관련 분야의 성장을 촉진할 것
Threats 위협	PPP 정책은 프로젝트의 신속한 진행이 더더서 잠재 투자자의 관심도가 낮음
	필리핀 정부의 용수권 연장계약 철회는 단기 투자자의 신뢰도를 떨어뜨림
	중국 정부가 지원하는 입찰에서 민간기업을 언더컷(저가 수주) 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중국기업의 참여 증가는 투명성과 경쟁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음
	필리핀의 고질적인 부패(Transparency International 2019, 113위/180)

* 출처 : Fitch Philippines Infrastructure Report('20.11)

나. 현지 진출 사례를 통한 분석

- (성공사례) 수익구조의 명확화, 현지업체와의 전략적 제휴 및 현지인 채용, 수주 분야에 대한 역량 확보 등이 성공의 주요 요인

〈성공사례 A〉

- 한국전력은 필리핀 일리한 가스복합화력 건설 및 운영사업(1,200MW)을 국제경쟁입찰을 통해 1996년 12월 수주
- 전체사업비 미화 7.1억달러 중 자본금으로 사업비의 25%인 미화 1.78억달러가 투입됨
 - 그중 51%인 미화 9,100만달러만 한전이 투자하고 미국 IPP회사인 미란트사 등 3개사가 잔여 미화 8,700만달러를 투자
 - 따라서 나머지 사업비인 미화 5.31억달러는 현지SPC인 일리한 법인 명의로 프로젝트 파이낸싱 조달
 - 결론적으로 한전은 전체 사업비중 약 13%의 자금으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막대한 자금조달 능력이 사업의 성공요소 중 하나로 판단됨
- 한전이 추진한 일리한 화력발전소 사업은 전체 사업비의 미화 약 7.1억달러 중 약 2,800만달러 정도가 각종 외부전문가의 자문비용으로 들어갔으며, 이로 인해 사업 추진의 효율성 극대화
- 필리핀 일리한 사업의 경우 현지법인과 경영 자문 계약을 통해 배당 수입 이외에 별도로 경영자문 수입으로 매년 약 60억 정도를 받고 있을 정도로 확실한 수익 모델 구축
- 또한, 한전은 1996년 필리핀 진출 이후 지속적으로 지역협력사업을 시행하여 발전소 주변지역에 대한 교육, 의료, 생계지원사업과 농어촌지역의 전화사업을 완료함으로써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수행하였으며, 이는 필리핀 내 한전의 위상을 높이는 결과로 이어짐

* 출처 : 한국능률협회컨설팅(주) PPP사업을 통한 한국전력 해외진출 경험과 성공요건, 한국전력 보도자료

〈성공사례 B〉

- 양갓 다목적댐은 필리핀 마닐라 북동쪽 58km 지점에 위치한 수력발전용량 218MW 규모의 댐(소양강댐 200MW)으로, 마닐라시 수돗물 공급량의 약 98%를 담당하는 시설
- 한국수자원공사는 수익성이 검증된 필리핀 전력시장 진출을 위해 지난 2010년 4월 필리핀 정부에서 국제경쟁입찰로 실시한 '양갓댐 발전시설 매각사업'에 참가해 최종 낙찰자(낙찰액 4억 4,100만 달러)로 선정
- 한국수자원공사는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현지 최대기업인 산미구엘에 지분 60%를 매각하는 계약도 체결하였으며, 산미구엘로부터 지분매각으로 약 300억원을 수령하였으며 이로 인해 경영전반의 수익성을 향상(약 15% 수준의 투자수익성 확보)
- 양갓댐 발전시설 인수는 우리기업들이 고부가가치 분야인 투자개발형 운영관리사업(TOO)에 진출했다는 점에서 의미

* 출처 : 아시아경제 등 뉴스기사 발취

〈성공사례 C〉

- 현대건설은 필리핀 교통부가 발주한 약 6,700억원(5억 7,300만달러) 규모의 필리핀 남북철도 제1공구 공사를 2020년 9월 18일 수주
- 현대건설이 주관사를 맡았으며 전체 수주 금액 중 약 3,838억원(57.5%)가 현대건설의 지분 - 또 현대건설은 현지업체인 메가와이드(Megawide) 및 토공 전문건설사 동아지질(한국)과의 전략적 제휴로 경쟁력을 높였음
- 현대건설은 남북철도와 유사한 국내외 다수 대형 철도 공사의 풍부한 수행 경험(파나마 메트로 3호선 공사 수주 등)과 높은 기술력 등을 강점으로 기술, 상업 부문에서 세계 유수의 경쟁사 제치며 글로벌 경쟁력을 확인

* 출처 : ChosunBiz 등 뉴스기사 발취

〈성공사례 D〉

- DL이앤씨는 필리핀 교통부가 발주한 약 7,252억원(6억 1,697만달러) 규모의 필리핀 남북철도 제2공구 공사를 2020년 10월 8일 수주
- 스페인 건설사 '악시오나'와 조인트벤처를 만들어 공동으로 시공하며, 대림산업 지분은 3,626억원(50%)
- 국내 호남고속철도와 베트남 하노이 경전철 등을 통해 축적한 기술력과 수행 능력을 인정받아 공사를 수주

* 출처 : 조선일보 등 뉴스기사 발취

〈성공사례 E〉

- 자동차 와이어링 하네스 제작업체인 A사는 기존에 중국에 제조공장을 설립하여 운영했으나, 중국 지역의 급격한 임금 상승과 미-중 무역전쟁에 대한 불안감으로 인하여 동남아시아 지역에 제조공장 이전을 검토함
- 공장 이전 모색을 위해 필리핀, 베트남, 캄보디아 등 동남아시아 여러 후보 지역을 한국에서 조사하였고, 베트남과 필리핀 중에서 공장 설립 지역을 결정하기로 하고 KOTRA의 도움을 받아 현지 조사를 실시
- A사는 공장을 지을 수 있는 베트남 지역을 유력 후보로 두었으나, 베트남 지역 역시 최근 급격한 임금 상승과 인력수급 가능성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여 최종적으로 필리핀 지역으로 진출 결정
- A사는 KOTRA 한투센터 담당직원으로부터 법인 설립 과정과 현지 공장 설립을 위한 제반사항에 대한 정보를 받음. 또한 필리핀 경제자유구역청으로부터 공장을 지을 수 있는 유력 후보 지역을 소개받아 마닐라항과 가까운 경제특구인 카비테지역에 공장을 설립
- 최근 약 300여 명의 필리핀 현지인을 채용하여 공장을 가동하기 시작하였으며 매우 순조롭게 공장 운영 중

* 출처 : 2020 필리핀 진출전략_KOTRA

〈성공사례 F〉

- 한국계 진출 건설사인 A사는 필리핀 정부의 인프라 프로젝트를 다른 건설사와 수주해 필리핀에 진출함
 - A사의 건설팀은 이미 필리핀 현지에 법인을 개설해 공사를 준비하고 있었으며, 공사를 지원할 플랜트설계팀은 현재 인도와 베트남에 법인이 있는 상태로 해외 각국에서 동사가 수주한 공사의 설계를 담당하였음
- A사는 최근 인도 법인 설계 기사들의 임금상승 문제로 대안을 모색하던 중 필리핀 기사들이 업무숙련도, 임금, 언어 소통 면에서 인도 법인과 비교해 손색이 없음을 파악해 필리핀에 설계법인을 계획하게 됨. 그러나 필리핀 법상 외국인 또는 기업이 관련 업종으로 진출할 수 없음을 확인하고 마닐라 무역관에 해결방안이 없는지 지원을 요청함.
- 필리핀 외국인 투자법은 외국인 지분제한 분야를 60%부터 0%까지 열거하고 있으며 건축설계(엔지니어링)는 외국인 지분 0%(지분소유금지) 분야임. A사는 법인 설립을 위해 현지 로펌 등에 수차례 의뢰를 했으나 법적 제약으로 힘들다는 답변을 받거나 더미(dummy, 현지인 주주)를 세워 진출하라는 조언을 먼저 받음. 다만 이런 경우, 필리핀에서 강력히 단속하고 있는 Anti-Dummy법에 저촉될 우려가 있고 최악의 경우 법인의 지분이 현지 주주들에게 넘어갈 수도 있게 됨.
- 위와 같은 경우, 진출을 희망하는 기업은 필리핀 기업등록 및 감독위원회(SEC)에 등록할 때 작성하는 기업 정관을 변경해 등록하게 되면 간접적으로 진출이 가능함. 예를 들어, 건축설계로 등록하려고 하면 외국인의 명의 또는 지분으로 등록할 수 없게 되지만 법인의 정관을 '건축설계를 지원하는 컨설턴트 법인' 또는 '건축설계를 지원하는 BPO(Business Process Outsourcing) 법인'으로 등록 시 법인등록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BPO는 외국기업이 100% 지분을 소유할 수 있는 업종이며 투자유치기관에 등록해 투자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함.
- A사는 무역관의 조언에 따라 2014년 법인설립과 필리핀 최대 투자유치기관인 필리핀 경제자유구역청(Philippine Economic Zone Authority, PEZA) 등록까지 완료함. 이는 합법적 방법을 사용해 국내기업 중 필리핀 내 최초 건축설계 분야 법인 설립에 성공한 사례로, 이를 통해 건축설계 분야의 필리핀 시장 진출 교두보를 마련했다는 데 의의가 있음

* 출처 : 2019 필리핀 진출전략_KOTRA

- (실패사례) 외국인 투자 제한(지분율 한도) 제도와 필리핀 현지 상황에 대한 충분하지 않은 파악이 투자 실패의 원인

〈실패사례 A〉

- B사는 그랩이나 우버와 같은 공유자동차 플랫폼 사업을 진행하는 업체로, 한국과 싱가포르에서 공격적으로 사업을 확장
- B사는 필리핀 도로교통 인프라가 매우 열악한 반면 현지의 자동차 수요는 많은 점에 착안하여, 공유자동차 플랫폼 사업이 매우 유망하다고 판단, 몇 개월 동안 필리핀 교통 시장 조사를 시작
- 그러나 필리핀의 대중교통 사업(택시 포함)에 대하여 자국 산업의 보호 및 공공성을 위하여 외국인의 지분을 최대 40%까지만 허용
 - 공유자동차 플랫폼 사업은 외국인이 투자하기에는 지분 제한 문제로 인하여 경영권 확보가 되지 않는 문제 발생
 - 더욱이 최근 다른 외국기업들 역시 공유자동차 플랫폼 관련 필리핀에 진출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필리핀 도로교통부(LTRFB)에서 추가 라이선스를 발급하고 있지 않으며, 기존 공유자동차 플랫폼 기업들의 카르텔이 형성되어 있어 진출에 난항

* 출처 : 2020 필리핀 진출전략_KOTRA

〈실패사례 B〉

- K사는 필리핀 진출 초기부터 태국 및 중동지역에서의 공사를 통해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다양한 정부 주도 관급 프로젝트에 활발히 참여하여 성공을 거두었으나, Bicol지역의 도로공사에 따른 공사대금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필리핀 정부의 예산문제 등으로 자금회전에 어려움을 겪게 된 것으로 알려짐.
- 필리핀의 건설 시장은 아직도 상당부분 외국기업에 대해 폐쇄적인 분위기가 팽배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국내기업들이 시장선점이라는 장밋빛 환상에 젖어 성급하게 달려드는 경향이 있음.
- 특히, 현지법인만 설립하면 관급공사나 민간부문의 건설 프로젝트를 수주할 수 있으리라는 안이한 판단을 갖고 철저한 시장분석이 간과될 경우, 크게 낭패를 경험하게 됨을 유의할 필요가 있음.
- 필리핀의 건설시장 참여에 대한 당국 입장은 주재국 정부가 추진하는 관급공사의 경우에도 대금 미지급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고, 민간공사의 경우에도 관청의 인허가 비리 및 NGO의 반발 가능성이 높음을 유의하여, 프로젝트 수주시 예상되는 미래수익 보다는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
- 아울러, 프로젝트에 참여할 경우, 가급적 위험을 최대한 분산 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한데, 예를 들면 ADB, World Bank, IMF 등과 같은 국제기구의 지원기금 또는 특정국가가 지원하는 원조자금으로 추진하는 프로젝트를 우선적으로 참여하고, 가급적 단독 참여하기보다는 컨소시엄을 구성하거나 현지기업의 하청 형태로 참여하는 것이 수익은 감소하지만 안전을 보장 받을 수 있음.

* 출처 : 환경부 - '필리핀 환경산업 시장 현황조사 및 성공적 진출전략 수립'

다. 진출 리스크

- (개요) 대금결제 지연, 외국인 투자 제한(지분율), 행정 관행 비효율성이 PPP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참고해야 할 주요 진출 리스크라고 판단됨

〈진출 시 주요 유의사항 및 대응전략 요약〉

대금결제 지연에 유의	
현황	기존 거래 경험이 있는 기업일지라도 현지 바이어가 특별한 사유 없이 결제금액 납부를 지연시키는 사례 발생
대응전략	필리핀 바이어 특성상 문제가 생긴 경우 상대방의 연락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신용장 활용, 계약서상 결제금액 납부기한 명시 등 법적으로 제시 가능한 근거서류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함.
외국인 투자제한 리스트 확인	
현황	필리핀은 자국민의 사업권 보호를 위해 1991년부터 외국인 투자제한 리스트를 만들어 발표
대응전략	원칙상 리스트에 포함되지 않는 분야는 외국인 지분을 100% 허용하나 업종별 관련법에 따라 제한하는 분야도 있으므로, 진출 전 필리핀기업 등록 및 감독 위원회(SEC)에 확인 필요
무역사기 조심	
현황	현지 사업자등록증 및 계약서를 위조하고 필리핀 기업을 사칭해 물류비 혹은 물품비 횡령 시도 사례 종종 발생
대응전략	회사 유선번호 및 회사 계정 이메일이 아닌 개인 번호·이메일을 사용하는 경우 의심해볼 필요가 있으며, 실제 거래 시 제품 구매 비용을 완납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는 것을 명심. 필리핀에서 한국으로 입금 시 영업일 기준 3~5일이 소요되므로 입금 후 충분한 시일을 갖고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의심 가는 경우 무역관을 통해 바이어 확인 요청 필요
행정관행 비효율성에 따른 비용 증대	
현황	전산 시스템이 미비하고 여러 부서를 방문해 구비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 인증이나 서류 발급 시 상당 기간 소요
대응전략	가급적 구비서류를 완벽하게 준비해 가는 것이 최선이며 해당 정부기관 방문 전 사전 문의도 문제 요소를 줄이는 방법. 2019년 7월 시행된 Ease of Doing Business Act는 정부 부서의 서류 발급 기간을 3일, 7일, 20일로 제한하는 등 절차 개선 의지를 보이는 만큼 향후 제도적 개선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

* 출처 : KOTRA 2020 필리핀 진출전략

- (대금결제 지연) 국내 건설업계가 최근 필리핀 수주에 집중하는 것과 관련, 필리핀 정부 등 발주처 재정 악화에 따른 리스크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
 - BBB 등 두테르테 정부의 대규모 인프라 확충 정책으로 실질적인 대금결제 역량을 넘어선 예산 배정의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음
 - 주요 원인은 무역적자 지속으로 재정 부담이 많이 되었기 때문이며, 투자자들의 대금 지급 리스크 관리가 필요
 - 단순 정부 발주 도급사업뿐만 아니라 수익형 민자사업인 BOT, BTO 등의 진출 구조를 고려하는 것이 필요

 - (외국인 투자제한) 외국인 투자제한 조항은 외국인 투자의 최대 걸림돌로 40% 지분율의 참여 한도가 적용되는 상황
 - 종합투자법에 따라 외국인 투자지분 참여가 40%로 제한되었으나 1991년 외국인 투자법(Foreign Investment Act of 1991, RA7042) 제정을 통해 외국인 100% 직접투자가 이론적으로는 허용
 - 그러나 주요 업종을 이른바 ‘네거티브 리스트’에 포함, 외국인 투자 참여에 여전히 제한을 두고 자국 산업·기업 보호 등에 활용
 - 건설공사 수행에 필수요건인 건설면허 취득 시 분야에 따라 외국인 지분 제한 적용, 외국기업의 사업 수주에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음
 - 이론적으로는 100% 지분 소유가 가능하나 현실적으로는 우리기업이 수주할 수 있는 공사 대부분의 경우 지분이 40% 이하로 제한됨
 - 두테르테 정부는 FDI 유치 확대를 위해 지분율을 현행 40%에서 70%까지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자 하였으나, 이는 헌법 개정이 필요하여 실현 가능성은 미지수임
 - 외국인 투자지분 제한 등의 장애물 해결방식으로 더미(dummy)*를 활용하는 경우가 상당수이나 이 경우 경영권 분쟁의 불씨를 키우는 경우임
 - 시간이 걸리더라도 현지 상황과 다른 투자사례의 비교·분석을 통해 합법적인 방식과 절차로 투자하는 것을 권장
- * 현지인을 서류상의 소유권자로 내세워 사업체를 운영하는 방식으로 외국인 투자지분이 제한된 업종에서 사실상 많이 활용

- (현지 업체와의 협력 필요) 시장 동향을 파악하는 데 필요한 객관적인 수치 및 분석 자료가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감안, 현지 사정을 잘 알 수 있는 자료 확보 및 관계자 확보가 중요
 - 아얄라, 산미구엘을 필두로 경쟁력을 갖춘 현지 건설사 다수 포진
 - 그 외에도 건설면허 최고 등급을 획득한 건설·부동산 전문기업* 다수가 외국 기업과 합작·컨소시엄을 통해 주요 인프라 프로젝트 수주 중
 - * 산타클라라(Sta. Clara), 엠디씨(MDC), 메가월드(Megaworld), 디엠씨아이(DMCI), 데이탐(Datam), 엠피아이씨(MPIC), 메가와이드(Megawide) 등
 - 건설 분야 외국기업 진출 제한으로 직접 사업 수주는 사실상 불가능, 주로 현지 건설 대기업의 하청이나 ODA 프로젝트, 필리핀 정부로부터 특별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사업 등을 추진

- (외국인 토지 소유 제한) 외국인 토지 소유는 불가하며 장기 임대만 가능
 - 토지 소유가 가능한 현지 기업의 경우 사업 추진 시 해당 부지·부동산의 가치 증대 가능성을 반영하여 저가 입찰이 가능, 사업 수주 가능성이 커져 외국기업 입장에서는 경쟁에서 절대적으로 불리

- (비효율적 행정 관행) 행정처리가 느리고, 부정·부패 등 이슈가 존재하므로 충분한 시간을 두고 사업 추진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함
 - 선진국과 비교 시 불투명하고 비효율적인 행정 관행, 관공서·업계에 만연한 부정·부패 등의 이슈로 투자자로서는 사업 추진이 어려움
 - 예: 통관 기간이 규정보다 오래 걸리니 관세 환급을 제대로 시행하지 않는 등 보이지 않는 장벽이 존재
 - 행정처리 과정에서 부정·부패와 연결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며, 충분한 시간을 두고 신중하게 대응하는 것이 필요
 - 단기적 성과를 위해 법·규정을 피해갈 수는 있으나 결국 역효과가 나는 등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으므로 가급적 정석을 통한 시장 진출 모색을 권장

- (신재생에너지 정부 지원 중단) FIT (Feed-In-Tariff) 조정 등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지원 축소 여파 확산
 - 관련 업계의 신규 투자 중단*은 물론 인근 국가로 사업 이전 및 이에 따른 고용 악화 우려 증가
 - * 필리핀 대표 에너지기업인 First Gen사의 경우 9건의 신규 사업 잠정 중단

- (높은 전력 요금) 필리핀에서는 높은 전력 요금으로 도전(전기를 노선에서 빼내는 행위)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 필리핀은 세계에서 5번째로 전력 요금이 비싼나라로 평균 1kw당 240원 정도
 - 현지 업체들의 발전·송전·배전 분야에서 독과점 형태로 전력을 공급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전력 요금의 가격 경쟁이 발생하지 않고 있는 것이 원인임
 - 사업 추진 전 안정적인 전력 공급 체계를 갖추는 것이 중요

- (치안 불안) 종교 갈등에서 비롯된 테러 등 치안 불안이 존재
 - 민다나오 지역의 이슬람 반군 활동 등 사업 추진 과정에서 변수가 생길 가능성이 존재
 - 전반적으로 치안이 불안하며, 이를 고려하여 현지 인력 파견 및 관리가 이루어져야 함

VI. 인적 정보

1 PPP 관련 발주기관 현황

가. 수송 분야 진행 주요 발주처 및 프로젝트

- (도로) Department of Public Works and Highways (DPWH)

<도로 분야>

발주처	주요 프로젝트
DPWH	Cavite-Tagaytay-Batangas Expressway Project
	Tarlac-Pangasinan – La Union Expressway (TPLEX) Extension Project
	Central Luzon Link Expressway (CLLEX) Phase 1 O&M and Phase 2

- (철도) Philippines National Railways (PNR), Department of Transportation (DOTr)

<철도 분야>

발주처	주요 프로젝트
PNR	East-West Rail Project
	MRT 7 Airport Access – North Line
	MRT 7 Katipunan Spur Line
DOTr	C5 MRT 10 Project
	Cebu Monorail Transit System Project
	Fort Bonifacio – Makati Skytrain Project

- (항만) Philippines Ports Authority (PPA), DOTr

<항만 분야>

발주처	주요 프로젝트
PPA	Davao Sasa Port Modernization Project
	Development, Operations and Maintenance of General Santos Port Iloilo Commercial Port Complex and Port of Dumangas Development Project
DOTr	Davao People Mover
	Cavite Barge Gateway Terminal

- (공항) Civil Aviation Authority of the Philippines (CAAP), DOTr, Bases Conversion and Development Authority (BCDA)

<공항 분야>

발주처	주요 프로젝트
CAAP	Davao International Airport Development, Operation, and Management
	Development, Operation and Management of Bacolod-Silay Airport
	Operation & Maintenance of the Francisco B. Reyes Airport and the New Busuanga Airport
DOTr	Unsolicited Proposal for the New Bohol International Airport
	Ninoy Aquino International Airport (NAIA) Comprehensive Capacity Enhancement Project
BCDA	50 year Integrated Development Plan for Mactan Cebu International Airport (MCIA) Project
	Clark International Airport Expansion Project Operation and Maintenance
	Clark International Airport Expansion Project – Engineering, Procurement and Construction (EPC)

나. 전력·유틸리티 분야 진행 주요 발주처 및 프로젝트

□ (전력) National Power Corporation (NPC)

〈전력 분야〉

발주처	주요 프로젝트
NPC	Bakun A/B and C Hydroelectric Power Plant
	Caliraya-Botocan-Kalayaan (CBK) Power Plant
	Ilijan Natural Gas Combined Cycle Power Plant (1200 MW Natural Gas Combined Cycle Power Project)

□ (수도) Metropolitan Waterworks and Sewerage System (MWSS),
National Irrigation Administration (NIA)

○ MWSS는 DPWH의 부서로 메트로 마닐라의 수처리 민영화 담당 기관

〈수도 분야〉

발주처	주요 프로젝트
MWSS	Bulacan Bulk Water Supply Project
	MWSS Privatization Project
NIA	Casecnan Multi-Purpose Irrigation and Power Project

다. 기타 분야 진행 주요 발주처 및 프로젝트

- (IT) DOTr, Philippines Statistics Authority (PSA)

〈IT 분야〉

발주처	주요 프로젝트
DOTr	Road Transport Information Technology (IT) Infrastructure Project (Phase II)
	South Integrated Transport System (ITS) Project (Taguig Integrated Terminal Exchange)
	Southwest Integrated Transport System (ITS) Project (Parañaque Integrated Terminal Exchange)
PSA	Civil Registry System – Information Technology Project (Phase II)
	Civil Registry System Information Technology Project Phase 1

- (자산개발) Tourism Infrastructure and Enterprise Zone Authority (TIEZA), National Housing Authority (NHA)

〈자산개발 분야〉

발주처	주요 프로젝트
TIEZA	Balicasag Island Dive Resort (BIDR) Project
	Club Intramuros Golf Course Project (formerly Development and Management of the Club Intramuros Golf Course)
NHA	Development of the Former Manila Seedling Site Owned by the National Housing Authority (NHA)
	Pabahay sa Riles Project

- (보건) Department of Health (DOH)

〈보건 분야〉

발주처	주요 프로젝트
DOH	Mariveles Mental Wellness Center, Multi-Level Parking and Dormitory Building
	Baguio General Hospital and Medical Center (BGHMC) Renal Center Building Project
	Cagayan Valley Medical Center (CVMC) Hemodialysis Center Project

2 해당 기관별 Key Person

가. 수송 분야

Department of Public Works and Highways (DPWH)

주요 인사	Alex G. Bote (Director, PPP Service)
연락처	전화 +63-2-5304-3762
이메일	bote.alex@dpwh.gov.ph
웹사이트	https://www.dpwh.gov.ph/

Philippines National Railways (PNR)

주요 인사	Junn. B. Magno (General Manager)
연락처	전화 +63-2-319-0170
이메일	pnr.ogm@gmail.com
웹사이트	http://www.pnr.gov.ph/

Department of Transportation (DOTr)

주요 인사	Engr. Ruben S. Reinoso Jr. (Undersecretary for Planning and Project Development)
연락처	전화 +63-2-790-8300 (내선: 222/311)
이메일	rs.reinoso@dotr.gov.ph / ppdo@dotr.gov.ph
웹사이트	https://dotr.gov.ph/

Philippines Ports Authority (PPA)

주요 인사	Jay Daniel R. Santiago (General Manager)
연락처	전화 +63-2-7954-8800, +63-2-8405-5500, +63-2-8527-8356~83
이메일	ogm@ppa.com.ph
웹사이트	https://www.ppa.com.ph/

Civil Aviation Authority of the Philippines (CAAP)

주요 인사	CATP. Jim C. Sydiongco (Director General)
연락처	전화 +63-2-7944-2001
이메일	odg.caap@gmail.com
웹사이트	https://caap.gov.ph/

Bases Conversion and Development Authority (BCDA)

주요 인사	Vivencio B. Dizon (President&Chief Executive Officer)
연락처	전화 +63-2-8816-0915, 8575-1705 팩스 +63-2-8816-0915
이메일	agzabat@bcda.gov.ph
웹사이트	https://www.bcda.gov.ph/

나. 전력 · 유틸리티 분야

National Power Corporation (NPC)

주요 인사	Pio J. Benavidez
연락처	전화 +63-2-920-0069 팩스 +63-2-922-4339
이메일	pjbenavidez@napocor.gov.ph
웹사이트	https://www.napocor.gov.ph/

Metropolitan Waterworks and Sewerage System (MWSS)

주요 인사	Ms. ELENITA S. DE LEON (Customer Service Relations Specialist)
연락처	전화 +63-2-3433-3987 팩스 +63-2-8928-2252
이메일	info@mwss.gov.ph; enny.deleon@mwss.gov.ph
웹사이트	http://mwss.gov.ph/

National Irrigation Administration (NIA)

주요 인사	Reynaldo L. Baloloy (ENGINEERING DEPARTMENT Division Manager)
연락처	전화 +63-2-8926-7678 팩스 +63-2-8922-2328
이메일	ed.ppd@nia.gov.ph
웹사이트	https://www.nia.gov.ph/

다. 기타 분야

Philippines Statistics Authority (PSA)

주요 인사	REYNOR R. IMPERIAL (Planning and Management Service - Director III)
연락처	전화 +63-2-8938-5269
이메일	info@psa.gov.ph
웹사이트	https://psa.gov.ph/

Tourism Infrastructure and Enterprise Zone Authority (TIEZA)

주요 인사	Amelita S. Caganda (Project Evaluation and Planning Department Manager)
연락처	전화 +63-2-8249-5900~79 (내선: 748/742)
이메일	pepd@tieza.gov.ph
웹사이트	https://tieza.gov.ph/

National Housing Authority (NHA)

주요 인사	ENGR. EDUARDO M. DORIA (PROCUREMENT PLANNING AND MANAGEMENT DIVISION Manager)
연락처	전화 +63-2-8828-8272, +63-2-8929-8016
이메일	nha.bac2@yahoo.com; emador8@yahoo.com
웹사이트	http://nha.gov.ph/

Department of Health (DOH)

주요 인사	Dr. Francisco T. Duque III (Secretary)
연락처	전화 +63-2-651-7800 (내선: 1114/1108)
이메일	ftduque@doh.gov.ph
웹사이트	https://www.doh.gov.ph/

3 현지 Developer 현황

가. 현지 Developer

- (PCAB) 필리핀에서 건설산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필리핀 통상산업부 (DTI) 산하 기관인 필리핀 계약자 인증위원회 (Philippines Contractors Accreditation Board, PCAB)로부터 건설면허를 받아야 함

〈PCAB의 건설업자 분류표〉

분류	카테고리	최소 자격 요건					(3)전체 신용점수
		(1)재정 능력		(2)STE 건설 경험			
		최소 순자산/자본 (페소)	신용 점수	개인(년)	개인 집계 (년)	최소 신용 점수	
A. 일반 엔지니어링 GE-1 (도로, 고속도로, 도로 포장, 철도, 공항 수평 구조 및 교량) GE-2 (관개/홍수 통제) GE-3 (댐, 저수지 또는 터널) GE-4 (급수) GE-5 (항만,항구/해양공학)	AAAA	1,000,000,000	10,000	10	60	300	10,300
	AAA	180,000,000	1,800	10	60	300	2,850
	AA	90,000,000	900	10	50	250	1,365
	A	30,000,000	300	7	21	105	475
	B	10,000,000	100	5	10	50	177
	C	6,000,000	60	3	3	15	105
	D	2,000,000	20	3	3	15	35
B. 일반 건물 GB-1 (건물,산업플랜트) GB-2 (하수도, 하수도시스템) GB-3 (정수 처리장 및 시스템) GB-4 (공원, 놀이터/레크리에이션 작업)	AAAA	1,000,000,000	10,000	10	60	300	10,300
	AAA	180,000,000	1,800	10	60	300	2,810
	AA	90,000,000	900	10	50	250	1,345
	A	30,000,000	300	7	21	105	471
	B	10,000,000	100	5	10	50	175
	C	6,000,000	60	3	3	15	96
	D	2,000,000	20	3	3	15	35
C. 전문성 SP-FW (기초 공사) SP-SS (구조용 강철 작업) SP-CC (콘크리트 프리 캐스팅, 프리스트레스/포스트텐션) SP-PS (배관, 위생작업) SP-EE (전기 공사) SP-ME (기계 작업) SP-AC (에어컨/냉장고) SP-ES (엘리베이터/에스컬레이터) SP-FP (방화 공사) SP-WP (방수 공사) SP-PN (페인팅 작업) SP-WD (드릴 작업) SP-CF (통신 시설) SP-MS (금속 루핑 및 사이딩 설치) SP-SD (구조적 철거) SP-LS (조경) SP-EM (전기 기계 작업) SP-NF (항해 시설)	AAAA	1,000,000,000	10,000	10	60	300	10,300
	AAA	180,000,000	1,800	10	60	300	2,410
	AA	90,000,000	900	10	50	250	1,145
	A	30,000,000	300	7	21	105	421
	B	10,000,000	100	5	10	50	165
	C	6,000,000	60	3	3	15	90
	D	2,000,000	20	3	3	15	35
D. SP-TRADE	Trade/E	100,000	1	-	-	-	1

* 출처 : PCAB Categorization – Classification Table (Board Resolution No. 201, series of 2017)

- 2020년 2월 기준, CFY 2019-2020의 PCAB에서 면허를 발급받은 AAAA 등급의 계약자(Contractor) 중 정부 사업 등록 유효 계약자(VRGP)* 리스트는 다음과 같음

* VRGP : 정부 발주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일반면허와는 별도로 면허를 취득, 등록 및 분류를 해야 하며, 등록의 유효기간은 3년

<정부사업 유효성 보유 AAAA 계약자>

회사명	주요 분류	VRGP
ATLANTIC GULF & PACIFIC COMPANY OF MANILA, INCORPORATED	일반 엔지니어링	06/30/2020
D.M. CONSUNJI, INC.	일반 엔지니어링	07/16/2021
D.M. WENCESLAO & ASSOCIATES, INCORPORATED	일반 엔지니어링	05/17/2021
DATEM, INC.	일반 건물	06/18/2021
DDT KONSTRUCT, INC.	일반 건물	07/16/2021
E EI CORPORATION	일반 엔지니어링	07/04/2021
E. M. CUERPO, INC.	일반 건물	06/29/2021
6 E.C. DE LUNA CONSTRUCTION CORPORATION	일반 엔지니어링	06/30/2019
EQUI-PARCO CONSTRUCTION COMPANY	일반 엔지니어링	06/14/2021
F.F. CRUZ & COMPANY, INCORPORATED	일반 엔지니어링	06/30/2020
FIRST BALFOUR INC. (Formerly: First philippines Balfour Beatty, Inc.)	일반 엔지니어링	07/16/2021
FODC-FIRST ORIENT DEVELOPMENT & CONSTRUCTION CORPORATION	일반 건물	06/30/2019
HILMARC'S CONSTRUCTION CORPORATION	일반 건물	07/11/2021
J.E. MANALO & COMPANY, INCORPORATED	일반 엔지니어링	06/30/2020
MAKATI DEVELOPMENT CORPORATION	일반 엔지니어링	04/10/2021
MEGAWIDE CONSTRUCTION CORPORATION	일반 건물	11/09/2021
MERALCO INDUSTRIAL ENGINEERING SERVICES CORP.	일반 엔지니어링	01/07/2022
MGS CONSTRUCTION, INCORPORATED	일반 엔지니어링	06/30/2019
R-II BUILDERS, INC.	일반 엔지니어링	06/30/2020
STA. CLARA INTERNATIONAL CORPORATION	일반 엔지니어링	06/30/2019
ULTICON BUILDERS, INC.	일반 건물	06/30/2020

* 출처 : CIAP('20.11) PCAB List of Licensed Contractors for CFY 2019-2020 as of 26 February 2020

나. 주요 PPP 관련 기업

□ (건설사) EEI Corporation (EEI)

- 필리핀 무역산업부 산하 계약인허가위원회(PCAB)에서 부여하는 엔지니어링사 최고 등급 AAAA 획득한 보험회사 유첸코 그룹(Yuchengco Group) 산하의 건설사 - 빌딩, 발전소, 플랜트, 학교, 도로, 항구, 공항, 철도 등 정부 발주 여러 건설 업무 수행 경험 보유

〈EEI Corporation〉

회사명	EEI Corporation (EEI)	
설립연도	1931년	
직원 수	24,457명 (2019년 말)	
매출액	235.8억 페소 (2019년 말)	
신용등급	AAAA (PCAB)	
홈페이지	https://www.eei.com.ph/index.php	
연락처	전화 (+63-2) 334-2677, 팩스 (+63-2) 635-0861	
본사 위치	12 Manggahan St., Bagumbayan, Quezon City 1110, philippiness	
분야	산업, 인프라, 기계, 자산개발, 유틸리티, 운송 프로젝트	

- EEI의 시행 대기 중인 기존계약(수주 잔액) 부분은 ARCC* (Al Rushaid Construction Corporation)의 수주 잔액 43억 페소를 포함해 447억 페소 수준 (2018년 말 기준)

*ARCC : 사우디아라비아에 본사를 둔 건설회사로 EEI가 49% 지분 보유

- 이는 2017년 말 수주 잔액 대비 5% 낮은 수준이나, 향후 몇 년간 필리핀 내 사업에서 회사의 안정적이고 견고한 실적을 의미하므로 건전하다고 볼 수 있음
- 최근 시행이 지체되었던 주요 인프라 프로젝트의 제약사항이 해결되어 운영 효율성이 향상되었다는 평가가 있음

- EEI의 주요 인프라 사업은 다음과 같음
 - [수송(도로)] Balintawak, Meycauyan, And Mindanao Toll Plazas Expansion Project (2017)
 - [수송(도로)] Segment 9 for Manila North Tollways Corporation Harbor Link Project
 - [기타] 10M Liters Capistrano Concrete Reservoir and Pump Station
 - [수송(항만)] Manila International Container Terminal Berth 6
 - [수송(도로)] NAIA Skyway Extension (2020)

□ (복합기업) Lopez Group of Companies (로페즈 그룹)

- 필리핀 공공사업부 및 유틸리티 분야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기업으로 필리핀의 대표적인 가문 집단
 - 미디어/통신, 에너지, 부동산, 인프라 등 여러 업무 수행 경험 보유하고 있으며, 전력발전 분야에서는 Aboitiz와 1, 2위를 다툼

<Lopez Group of Companies>

회사명	Lopez Group of Companies (로페즈 그룹)
설립연도	1928년(최초 회사), 지주사는 1993년
직원 수	약 7,200명 (FPH+First Gen+EDC)
매출액	1,335억 9,400만 페소(2019년 말) 모든회사 매출
신용등급	AAAA (First Balfour, PCAB)
홈페이지	https://lopez-holdings.ph/
연락처	전화 (+63-2) 8878 0000, 팩스 (+63-2) 8878 0000 ext 2009
본사 위치	16/F North Tower, Rockwell Business Center Sheridan, Sheridan St. corner United St., 1550 Bgy. Highway Hills, Mandaluyong City, philippines
분야	전력 및 에너지, 미디어, 자산개발, 제조



- 로페즈 그룹의 자회사인 First Philippines Holdings Corporation (FPH)은 운송, 전력, 유틸리티, 사회 간접자본 건설에 종사하고 있으며, 재생에너지 생산에 있어서 주요 기업임

- 로페즈 그룹의 주요 인프라 사업은 다음과 같음
 - [수송(도로)] Cebu-Cordova Lunk Expressway (2021년 준공 예정)
 - [전력] Burgos Wind Farm (2014년 준공)
 - [수송(철도)] LRT 1 Structural Rehabilitation
 - [수송(항만)] Manila South Harbour Expansion
 - [전력] Subic Substation

□ (복합기업) San Miguel Corporation (SMC)

- 필리핀 국가 GDP의 약 5.9%(2018 기준)를 차지하는 대규모 기업 중 하나로 동남아 최초의 양조장 설립(맥주)으로 시작되었으며, 식음료, 포장, 연료·석유 전력 인프라 분야에서 영향력 행사

〈San Miguel Corporation〉

회사명	San Miguel Corporation (SMC)	 SAN MIGUEL CORPORATION
설립연도	1928년	
직원 수	44,024명(2019년)	
매출액	1조 200억 페소(2019년)	
신용등급	-	
홈페이지	https://www.sanmiguel.com.ph/	
연락처	전화 (+63-2) 8-632-3000	
본사 위치	40 San Miguel Avenue, Mandaluyong City 1550 Metro Manila, philippiness	
분야	식음료, 패키징, 부동산, 정유, 전력 및 에너지, 인프라 등	

- SMC는 유료 도로를 운영하고 다양한 도로 및 수자원/상하수도 PPP에 참여하고 SMC Global Power는 필리핀에서 가장 큰 독립 전력 생산업체임
 - SEA Refinery Corporation은 필리핀의 가장 큰 정유 및 소매업체인 Petron에 지배력을 가지고 있음
- SMC의 인프라 사업 분야는 모그룹 2019년 수입에 11%를 차지함
 - 이는 San Miguel Holdings 산하의 South Luzon Expressway와 Skyway의 운영을 통합하면서 2016년 3%에 불과했던 비중이 점진적으로 증가한 것

- 이외에도 Metro Manila Skyway Stage 3과 Manila MRT Line 7을 포함하여 현재 다양한 프로젝트에 참여
- SMC의 전력부문 자회사인 SMC Global Power는 필리핀에서 가장 큰 IPP로 2018년 전체 발전량이 23TWh로 모기업 수입의 12%를 차지함
 - 2018년 말 기준, 총 설비용량은 4,197MW 수준
- SMC의 주요 인프라 사업은 다음과 같음
 - [수송(도로)] Skyway Stage 3, 4 (2022년 준공 예정)
 - [수송(철도)] MRT 7 (2021년 일부 운영 예정)
 - [수송(공항)] Boracay Airport (2019년 일부 준공)
 - [기타] Bulacan Bulk Water (2019)
 - [수송(도로)] South Luzon Expressway (SLEX)

□ (복합기업) D.M. Consunji

- DMCI Holdings의 모태가 된 엔지니어링, 건설계열사로 주력 사업 분야는 빌딩 건설, 에너지, 인프라, 유틸리티&발전소 부문
 - Church of the Holy Sacrifice, Cultural Center of the philippiness, The Folk Art Theater 등 필리핀에서 다수의 랜드마크 건설 경력
 - 엔지니어링에서 2017 Trusted Brand Award, Asia-Pacific Stevie Awards, 52nd Anvil Awards, BCIA Asia 2018 등 수상 경력 및 자격 보유

<D.M. Consunji>

회사명	D.M. Consunji
설립연도	1954년
직원 수	
매출액	209억 페소(2019년)
신용등급	AAAA (PCAB)
홈페이지	https://web.dmcinet.com/
연락처	전화 (+63-2) 8888-3102/3788, 팩스 (+63-2) 8888-3052/3053
본사 위치	DMCI Plaza, 2281 Chino Roces Avenue, Makati City, philippiness
분야	건설, 에너지, 인프라, 유틸리티, 콘크리트, 철골제작, 건설자재 관리 등



- D.M. Consunji의 주요 인프라 사업은 다음과 같음.
 - [수송(도로)] Skyway Stage3 (2020년 준공)
 - [수송(도로)] TPLEX (2020년 10월 완료)
 - [수송(철도)] LRT 2 Viaduct (2017)
 - [수송(도로)] NAIA Expressway (2015)
 - [수송(도로)] CCLEX (2017년 착공)

□ (복합기업) Ayala Corporation

- 필리핀에서 가장 오래되었으며 가장 큰 복합 대기업의 하나로 부동산, 금융서비스, 통신, 전력, 수자원, 인프라, 교육, 헬스케어 등 여러 방면에서 사업을 영위

<Ayala Corporation>

회사명	Ayala Corporation	
설립연도	1834년	
직원 수	5,214명 (AC Energy+AC Infra+Manila Water)	
매출액	2,953억 페소(2019년) 모든 회사 매출	
신용등급		
홈페이지	https://www.ayala.com.ph/	
연락처	전화 (+63-2)7908-3000, 팩스 (+63-2) 8848-5846	
본사 위치	32F~35F Tower One and Exchange Plaza, Ayala Triangle, Ayala Avenue, Makati City, 1126. philippiness	
분야	부동산, 금융서비스, 통신, 수자원, 인프라, 교육, 헬스케어 등	

- 일본의 5대 상사 중 하나인 미쓰비시상사가 해당 기업의 6.93% 지분을 가져 2대 주주로 있음
 - 신재생에너지사업 부분에서 미쓰비시그룹과 조인트벤처로 사업 영위
- Ayala의 주요 인프라 사업은 다음과 같음
 - [수송(공항)] Ninoy Aquino International Airport Rehabilitation (2019년 승인)
 - [수송(철도)] Cavite Extension project (2019년 착공)
 - [전력] GNPowder Kauswagan Ltd. Co. (2019)
 - [전력] South Luzon Thermal Energy Corporation (SLITEC) (2015)
 - [수송(도로)] Muntinlupa-Cavite Expressway (MCX, Daang Hari-Slex Link Road) (2015)

□ (복합기업) Aboitiz

- Aboitiz 일가에 의해 설립되고 운영되는 Aboitiz는 마닐라삼 영업 및 잡화점에서 시작되어 현재의 대기업으로 성장

〈Aboitiz〉

회사명	Aboitiz
설립연도	1920년
직원 수	37,815명
매출액	2,011억 5,700만 페소(2019년)
신용등급	
홈페이지	https://aboitiz.com/
연락처	전화 (+63-2) 8-886-2800, 팩스 (+63-2) 8-886-2404
본사 위치	NAC Tower, 32nd Street, Bonifacio Global City, Taguig City 1634, Metro Manila, philippiness
분야	전력, 은행 및 금융서비스, 식품, 부동산, 인프라 등



- 현재 Aboitiz는 전력, 은행 및 금융서비스, 식품, 인프라, 부동산 부문에서 사업 영위
 - Safety and Health Association of the Philippines Energy Sector (SHAPES) and the Department of Energy (DOE), 11th Gawad Kaligtasan and Kalusugan Awards 등에서 수상 및 자격 취득
- Aboitiz의 주요 인프라 사업은 다음과 같음
 - [유틸리티] bulk water supply project (2021년 준공 예정)
 - [수송(공항)] Ninoy Aquino International Airport (NAIA) Rehabilitation and Expansion (2019년 NEDA 승인)
 - [수송(공항)] Bohol-Panglao International Airport (2018)
 - [전력] Sabagan Hydro Plant (2015)
 - [전력] Tudaya Hydro Plant (2014)

□ (복합기업) Megawide Construction Corporation

- EPC, 공항 인프라, 자산개발, 재생가능에너지 부문에서 강점을 가진 인프라 대기업으로 필리핀 PPP 정책의 주요 파트너사 중 하나
 - 현재까지 PPP 프로젝트 중 Mactan-Cebu International Airport, Paraque Integrated Terminal Exchange, School Infrastructure Project Phases 1&2을 수주

<Megawide Construction Corporation>

회사명	Megawide Construction Corporation
설립연도	1997년
직원 수	4339명
매출액	198억 8,200만 페소(2019년)
신용등급	AAAA (PCAB)
홈페이지	https://megawide.com.ph/
연락처	전화 (+63-2) 8655-1111
본사 위치	20 N. Domingo St., Brgy. Valencia Quezon City 1112, philippiness
분야	EPC, 인프라, 자산개발, 신재생에너지



- Megawide의 주요 인프라 사업은 다음과 같음
 - [수송(항공)] Mactan-Cebu International Airport terminal 2 (2018)
 - [전력] Bataan Solar Farm (2016)
 - [전력] Silay Solar Power (2016)
 - [수송(도로)] Paranaque Integrated Terminal Exchange (2018)